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교수)
이용교(광주대학교 · 교수)
조아미(명지대학교 · 교수)
- ▶ 보조연구원 : 이상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발 간 사 ■ ■ ■

1980년대 중반부터 저소득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청소년공부방이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대가족체제에서 핵가족체제로의 변화에 의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복지예산사업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안)의 일환으로 청소년공부방을 비롯한 모든 돌봄서비스 사업을 1개사업으로 통합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말 청소년공부방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하여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하고, 2011년 정부예산(안)에서 청소년공부방 사업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금년부터 지원 예산의 절반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공부방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이 사업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운영이 가능한 청소년사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청소년공부방과 유사한 청소년지원사업들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을 분석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사업의 가치와 한계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공부방 사업의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예산지원이 가능한 유사시설로의 전환 등 다양한 활성화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공부방이 지역사회의 청소년 지원사업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성가족부의 관계자와 현장조사를 맡아 수고해주신 청소년 관련학과의 교수님, 공동연구자로 수고해 주신 김진호교수님, 이용교교수님, 조아미교수님 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를 담당한 이유진박사와 김영지박사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 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1989년부터 정부지원이 시작되었던 청소년공부방사업이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업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운영이 가능한 청소년사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먼저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청소년공부방과 유사한 청소년지원사업들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을 분석하며, 청소년공부방사업의 가치와 한계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공부방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으로써 청소년공부방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302개소)를 실시했고, 그 중 우수사례에 대해 사례조사(5개소)를 실시했으며, 청소년공부방 종사자(302명) 및 이용청소년(1,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장조사 결과, 많은 공부방이 열악한 상황임을 직접 확인했으나,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경우 유일한 학습·문화·정보 공간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부방 담당자 대부분은 학습공간 제공과 학습지원 기능 중심인 현재 상태로 시설유지를 바라고 있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례조사 결과, 실무자들은 청소년공부방이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하며, 그동안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공간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존속되어야 하고, 무조건적인 국고지원 중단이나 예산삭감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소년공부방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운영기간이 '5년 이상'인 곳이 76%를 차지했고, 91.7%의 종사자가 공부방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의 주요 기능은 '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도 '학습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전환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경우는 9.2% 정도였으며 71.1%가 현행 유지를 원하고 있었다. 시설 전환을 할 경우 시설별 선호도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0.7%, 청소년문화의집 25.2%, 지역아동센터 24.9%로 나타났다.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공부방 이용실태는 이용기간의 경우 평균 약 26개월

25일이고, 1회 이용시 평균 약 3시간 20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이용동기는 학습과 관련한 동기(학습 도움 33.2%, 공부할 공간 19.9%, 정보·자료 6.6% 등)가 많았다. 이용 만족도는 74.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분야별로는 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82.0%)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90.6%의 청소년이 청소년공부방의 필요성을 답했으나, 다양한 활동 부족,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불편사항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나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공부방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지역청소년독서실이나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활용한 공부방으로 운영활성화를 모색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청소년공부방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지원이 가능한 유사시설로 전환하거나 청소년공부방의 기능을 특성화하여 재정립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작은 도서관 등으로 전환시키거나, 청소년공부방을 ‘청소년자율학습센터나 지역청소년센터(가칭)’ 등으로 재정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신속한 정책적 판단과 과감한 지원이 요망된다.

첫째, 전국의 모든 시·도는 시·군·구의 협조를 받아서 기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작은 도서관 등 유사 시설로의 전환 혹은 유지 방안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가급적 금년내로 시설 신고 등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둘째,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청소년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될 경우에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2012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확보된 국고가 부족하면, 2012년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공부방을 유사한 기능을 가진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되, 서울특별시처럼 자체 예산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할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학습지원과 함께 문화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자율학습센터’나 ‘지역청소년센터’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사업을 정책화시켜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1. 연구목적

- 1980년대 중반부터 저소득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청소년공부방은 이후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대가족체제에서 핵가족체제로의 변화에 의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 1984년에 하월곡동의 ‘산돌공부방’과 ‘밤골아이네공부방’이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부방 활동을 시작하였음. 1989년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써 ‘청소년야간공부방’에 대해 정부지원이 시작되었고, 이후 2000년 기준 500여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이 정부지원을 받았으며, 2006년에는 민간지원을 포함하여 621개소까지 증가하였음.
- 2009년 복지예산사업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안)의 일환으로 청소년공부방을 비롯한 모든 돌봄서비스 사업을 1개사업으로 통합하는 안이 제시되었음. 2009년 당시 아동·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청소년공부방,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방과후보육, 청소년야학 운영지원 등의 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음. 종합대책안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통합이 진행되어 일부는 시설전환을 하였으나, 이후 2010년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청소년공부방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체제로 이원화되면서 통합추진방안이 변경되게 되었음.
- 그 결과 2010년 말 청소년공부방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하여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하고, 2011년 정부예산(안)에서 청소년공부방 사업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 청소년공부방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금년부터 지원예산의 절반이 삭감된 상황임. 이와 같이 청소년공부방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이 사업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운영이 가능한 청소년사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먼저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청소년공부방과 유사한 청소년지원사업들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을 분석하며, 청소년공부방사업

의 가치와 한계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친화형 ‘청소년공부방’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방법

1) 현장조사

- 현장조사의 대상은 2010년 12월 여성가족부가 파악한 2011년도 운영예정인 전국의 청소년공부방 366개소로,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기관폐쇄, 조사거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조사에 응한 기관은 총 302개 기관임.
- 현장조사의 방법은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실사위원이 2011년 6월 22일-7월 22일까지 직접 청소년공부방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였음. 각 지역의 아동·청소년 관련학과 교수로 구성된 실사위원은 구조화된 점검지표를 참고하여 현장을 관찰하고 종사자를 면접함으로써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사업지속성에 대해 진단하는 한편,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의 현황 부분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음.

2) 사례조사

- 사례조사의 대상은 현장조사 결과 선정된 우수사례임. 선정방법은 15개 권역별 실사위원으로부터 우수사례 1개소씩 총 15개의 공부방을 추천받았음. 이를 대상으로 연구진이 실사위원 조사결과서를 검토하여 대도시 독서실중심의 운영형태, 읍면단위의 농산어촌형 자생적 거점기관 운영형태, 종교기관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형태, 도시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생적 교육공동체 중심 운영형태 등 5개의 형태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우수한 대표기관 1개씩을 선정하였음.
- 사례조사의 방법은 공부방 및 지역사회 현장답사와 종사자 면접조사를 통해 공부방 및 공부방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사례조사를 위한 면접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음. 그리고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지원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의

담당공무원과도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3) 설문조사

- 설문조사의 대상은 청소년공부방 종사자와 이용청소년임. 현장조사 대상인 청소년공부방에서 각 1명의 조사자와 4명의 이용청소년을 표집하였음. 종사자용 설문지는 336부, 청소년용 설문지는 1,344부가 배포되었고, 회수한 설문지는 종사자용 302부, 청소년용 1,278부임. 최종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종사자용 302부, 청소년용은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264부임. 조사기간은 현장조사 기간과 동일함.

3. 주요결과

1) 현장조사 결과

- 현장방문을 통해 많은 공부방들이 열악한 상황임을 직접 확인하였음. 재정적 어려움은 운영인력의 양적 부족과 전문성 부족, 낙후되고 불결한 시설·환경, 안전 관련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상황 노출 등의 결과를 초래함.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직원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많았음.
- 지역 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 청소년과 주민의 필요와 요구가 큰 공부방의 경우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특히,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거주 지역 중 다른 아동·청소년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 작고 열악한 공부방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유일한 학습·문화·정보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
- 공부방 담당자들은 대부분 학습공간 제공과 학습지원 기능 중심인 현재 상태로 시설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다른 시설로의 전환을 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일부 공부방은 담당자가 공부방에 대한 이해나 청소년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마인드가 없이 단순 관리만 하는 곳도 있고 전문 자격증을 갖춘 지도인력이 상근하고 있지 않은 시설도 많이 나타나 청소년시설로서 기본적인 질을 갖추도록 엄격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담당자들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그동안 발전을 저해한 요인이었음을

지적하였음. 공부방을 법정 시설로 지정하여 시설 설립·운영 기준을 정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단위에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현장조사 결과, 실사위원들은 우수공부방의 요소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됨 : 관장의 의지,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 이해도, 헌신성과 사명감, 실무자 교육, 운영단체의 청소년 관련 전문성,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 지역자원 개발과 연계·활용, 이용자 욕구 파악과 적절한 대응, 지역 내 전문 자원봉사 인력 활용,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공적 영역과 연계, 후원 모금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자체 노력, 학습공간 제공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높은 이용률 등

2) 사례조사 결과

-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의 실무자들은 청소년공부방이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하며, 그동안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공간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은 지속적으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즉 대부분의 청소년공부방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학교이외에 다른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공부방은 단순히 학습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소중한 공간으로서의 맡은바 소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임.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을 폐쇄시켜서는 안 되며,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와 저항의지를 나타내었음.
-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의 실무자들은 국고지원 중단이 지자체의 지원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공부방의 폐쇄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고지원 중단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특히 차상위 계층이나 차차상위 계층의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인데, 최저수준의 예산지원 마저도 중단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것임. 따라서 무조건적인 국고지원 중단이나 예산삭감 계획은 철회되어야만 하며, 청소년공부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국가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은 국고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현재까지는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로 국고지원 예산을 보충하였기 때문에 큰 변화는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예산삭감 및 예산지원 중단으로 시설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고지원 부활 이외에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한 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립시설의 경우에도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시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을 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예산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고지원 중단은 지자체의 자체예산 중단을 위한 좋은 구실을 주기 때문에 의미있는 공부방들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부활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시설종사자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에게서도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음.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시설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중고등 학생, 차상위 학생, 차차상위 학생 등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은 청소년공부방의 정체성이나 교육철학과 맞지 않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며, 오히려 불편이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은 하지 않겠다는 시설들이 대부분이었음.
- 청소년학습지원센터로의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음. 즉 청소년공부방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기능의 강화가 필요한데, 현재의 지원예산으로는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습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하지만 학습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청소년공부방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바우처제도와 연계 등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반면 시청의 담당공무원은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등 유사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학습지원센터의 기능은 이러한 시설들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
- 농어촌 지역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경우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지역사회의 유일한 청소년공간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서의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지역내에는 학습을 위한 학원이나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 청소년공부방을 청소년들이 모이는 소통의 장이자 학습의 공간, 놀이의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이용가능한 청소년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아동청소년의 수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음.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의 지원기준을 시설규모나 이용청소년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지원기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시지역과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 공부방은 지역사회 안에서 꾸준히 설립·운영되어 오면서 정착되어 왔음. 1989년 정부지원 공부방이 ‘청소년야간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최근 2010년까지 공부방이 지속적으로 설립된 바 있음. 어려운 여건이지만 운영기간이 ‘5년 이상’인 곳이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부방에 대한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공부방을 운영하는 운영자(91.7%)는 물론이고 지역청소년(79.4%)과 지역주민(76.8%) 또한 공부방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공부방 종사자들은 안정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운영기간 중 ‘5년 이상’이 76%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종사자의 재직기간 중 ‘3년 미만’이 전체의 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근직보다 비상근직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부방 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평균 근무인력은 상근직과 비상근직을 포함하여 2.63명에 불과하며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가운데 자원봉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공부방 종사자들의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협력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력 시 겪는 어려움도 ‘협력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아 지역 내 단체들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부방은 단독건물의 비율이 낮으며 매우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절반 정도가 66㎡~132㎡ 미만으로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용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소년 활동·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종사자들은 시설환경의 다른 측면보다 공간크기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공간크기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현재 공부방의 주요 기능은 ‘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 중에서도 ‘학습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현재의 공부방 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42.9%로 그리 높지 않아 청소년들의 요구가 많은 학습지원 외의 다른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부방의 재정상태는 매우 열악함. 2010년도 예·결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수입에서 국고와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국고 지원이 중단된 상태임.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이유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국고지원 중단 이후 이용자 감소와 직원퇴직 등 운영에 직결되는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1년 국고지원 중단과 지방사업으로의 전환 이후 시설 전환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경우는 9.2% 정도였으며 71.1%가 현행 유지를 원하고 있었다(서울 제외 시). 시설 전환을 할 경우 시설별 선호도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0.7%, 청소년문화의집 25.2%, 지역아동센터 24.9%로 나타나 방과후아카데미로의 전환을 조금 더 선호하였으며, 시설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전문적인 인력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4) 이용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 공부방 이용실태는 다음과 같음.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이용기간은 평균 26.82개월(약 26개월 25일), 1회 이용시 평균 199.61분(약 3시간 20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들은 공부방을 주로 주중(오후, 저녁)에 이용하며, 비규칙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시험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도별로 공부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동하는데 평균 11.1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친구와 부모님을 통해 공부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공부방 이용동기에는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고 있음.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공부방 이용동기를 살펴보면, 학습과 관련한 동기를 많이 갖고 있으며 (학습 도움 33.2%, 공부할 공간 19.9%, 정보·자료 6.6% 등) 그 밖에 여가시간 활용이나 친구와의 만남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공부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부방 이용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이용 만족도는 '매우 만족'(27.8%)과 '만족'(46.7%)을 합하면 74.5%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분야별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매우 만족함'과 '만족하는 편임'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 82.0%, 자료열람대출 및 정보제공 58.0%, 학습지도 54.5%, 여가문화체험활동 45.0%,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사업 40.9%, 상담 및 정서지원

39.3%로 나타나 학습공간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그 외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거나 미흡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음.

-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지역도서관만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방과후 학교가 절반 정도의 수준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와 ‘모르고 있었다’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 공부방의 필요성은 90.6%의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필요한 편 32.7%, 꼭 필요 57.9%). 교급과 학업성적에 따라 공부방의 필요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경험하고 있음. 다양한 활동 부족,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불편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

4. 정책제언

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 전국적으로 청소년공부방 실태조사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장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모아, 도심지역의 특성에 고려한 모형 하나와 소외지역의 특성을 반영된 두 개의 모형을 통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3가지 운영모형을 제시함.
- 모형 1 (사업명: 지역청소년독서실) : 모형 1의 모형개발 방향은 인구집중(도심)지역내 공공시설 활용을 전제로 지자체가 직접운영 또는 전문청소년단체가 운영하도록 함. 지역사회 차원에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계층 통합 독서실로 활용함. 단, 초·중·고등학교의 시험시간에 있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함. 사업운영은 기초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의 주체가 되고, 지자체 직영 또는 전문단체를 통해 위탁 운영함.

- 모형 2 (사업명: 우리 마을 청소년 꿈터) : 모형 2의 모형개발방향은 소외지역(농산어촌)의 공공시설(지자체소유 또는 장기 건물활용 지자체기부채납)의 활용과 운영상 지역사회(마을회)가 책임성있는 지분을 갖게 함. 사업운영은 기초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의 주체가 되고, 마을회 직영 또는 전문단체를 통해 위탁 운영함.
- 모형 3 (사업명: 우리 동네 청소년 희망터) : 모형 3의 모형개발방향은 소외지역(농산어촌)의 민간시설 활용과 지역독지적 차원의 민간(종교단체 포함) 운영을 중심으로 함. 본 시설모형은 민간영역에서 자율 및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기본운영방향으로 설정함. 사업운영은 민간(개인, 단체)이 지역의 공익성 및 봉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지자체는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등재하여 지역의 청소년 활동시설로 관리함.

2)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 방안

-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키고자 할 때 학습할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가형(66제곱미터, 20평 이상)은 공간이 좁다는 문제점이 있음.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25평 이상을 권장하고, 최소 공간이 18평 이상이기에 최소 조건을 갖춘 곳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킬 수 있음. 만약 현재 공간이 아동과 청소년이 활동하기에 현실적으로 좁은 곳은 증축·개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때 필수공간으로 학습공간과 조리실, 식당을 요구함. 기존 청소년공부방은 학습공간은 있지만 조리실과 식당이 없거나 공간의 특성상 조리실과 식당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에 부설된 공부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조리실과 식당 등 주방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보다 유연성 있게 적용하면 될 것임.
- 청소년공부방의 직원(관장, 지도교사, 관리인 등)은 법정 자격이 없지만, 지역아동센터(시설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등)는 사회복지사 등 법정 자격증을 갖춘 사람만 임용될 수 있음.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에는 사회복지사 등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설장으로 임용하도록 해야 함. 다만, (아동)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때 경과조치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전례가 있다(아래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설장과

직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되, 청소년공부방을 헌신적으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실무자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2년 안에 법정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것도 한 대안임.

-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키면 중앙 행정부처의 관할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지만, 시·군·구청에서는 대체로 같은 팀에서 청소년업무와 아동업무를 맡거나 한 담당자가 아동과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기에 행정상 문제될 것이 없음. 전환 첫해에는 기존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공부방 예산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예산의 차액을 추경 등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면 될 것임. 2011년에 전환시킬 경우에 2012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는 초등학생이 주류이고 중학생이 일부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1318 해피존과 같이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를 표방하여 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이용하는 곳도 있음.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킬 경우에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하면 공부방을 이용했던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의 전환 방안

- 나형 청소년공부방 중에서 공간이 넓은 경우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공부방에 비교하여 10배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당 시·군에서 1개소 가량 선별하여 전환시킬 수 있음. 특히 해당 시·군·구에 아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없는 지역이면서, 시·군·구청 소재지 혹은 인구 밀집지역(읍소재지)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중에서 공간이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전환시키면 될 것임.
- 현재 대도시에 비교할 때 중소도시인 시와 농어촌인 군단위(혹은 읍단위)의 청소년복지 인프라는 매우 취약함. 대도시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있음. 하지만 시와 군단위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일부 청소년시설만 있고, 일부 군단위와 면단위에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음.
- 농산어촌에는 도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전혀 없었는데, 겨우 한 두 개 있던 청소년공부방조차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는 청소년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정책임. 이들에게 좀 더 나은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청소년공부방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개편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공부방의 예산을 축소할 대신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예산을 늘려야 함. 청소년공부방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전환시킬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기존 인프라를 고려하여 인프라가 적은 지역에 우선 배정해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할 수 있음.

4) 작은 도서관으로의 전환 방안

- 청소년공부방을 주변에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어서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도 적극 도모할 수 있음. 청소년공부방 중에는 도서책을 많이 확보하고 도서책의 대여를 중요한 사업으로 수행한 곳이 있음. 특히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의 일부 공간에 열람실만을 확보한 작은 청소년공부방은 주방설비 등 지역아동센터에 필수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도 있을 것임. 이 경우에는 청소년공부방을 도서관법상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한 방법임. 작은 도서관의 최소 기준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시설면적 33제곱미터(10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으로 청소년공부방의 최소 면적 66제곱미터(20평) 이상보다 기준이 낮음.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공부방에 비교하여 더 낮을 수 있기에 기존 운영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작은 도서관 등으로의 전환은 해당 공부방의 시설과 설비, 운영자와 직원, 운영단체(기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임. 오랫동안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한 단체와 담당 실무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청소년공부방을 전환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득해야 할 것임.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미 있는 사업을 전환시키거나 지원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음.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명을 갖고 헌신을 한 단체와 실무자에게 포상과 같은 사회적 예우가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5) 청소년공부방의 특성화를 통한 재정립 방안

-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을 일시에 모두 다른 시설로 전환시키는 것보다는 당분간 그대로 두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시·군·구와 시·도가 자체 예산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임. 서울특별시는 자체 예산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재정자립도가 높기에

계속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음.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와 일부 광역 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에 ‘청소년공부방’을 다른 시설로 전환시키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된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국고 지원이 중단되었기에 ‘청소년공부방’이란 사업 명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 청소년공부방은 이용 청소년이 주로 자발적인 학습공간(시설 독서실과 같이)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청소년자율학습센터’ 혹은 ‘지역청소년센터’로 사업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임. 또한 지역청소년센터가 이용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면서 청소년이 희망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사업의 규모를 재정립해야 할 것임.
- 청소년공부방의 사업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보다는 핵심사업으로 학습지원과 문화체험을 중시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발전시키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없어서 아카데미로 전환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하여 ‘농산어촌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한 모델인 지역청소년센터로 정체성을 재정립시킨 새로운 모델을 정책 사업으로 개발해야 할 것임.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때에는 기존 청소년시설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군청이 없는 읍과 면단위에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비취볼 때 이러한 지역 중에서 이용 청소년이 있는 지역부터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임.
- 현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곳에 프로그램사업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시/군청 소재지가 아닌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당분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되기 어려울 것임. 이미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도시나 농촌의 군청 소재지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병설되는데, 청소년수련관 조차 없는 농산어촌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없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에 맞지 않음. 따라서 프로그램 사업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독립된 기관형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농산어촌에는 ‘지역청소년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부합할 것임. 농산어촌에 지역청소년센터를 설치한다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지원형을 기본 모델로 하고, 청소년 가족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혼합형을 추가로 실시하면 될 것임.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II. 이론적 배경	7
1. 청소년과 지역사회중심사업의 개념과 의미	9
1) 청소년공부방의 지원대상으로서 청소년의 개념	9
2) 지역의 개념	14
3)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사업의 의미와 중요성	16
2. 지역사회중심 청소년지원사업 현황	18
1)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지원 사업 개관	18
2) 사업별 운영현황	18
3) 청소년지원 서비스 특성비교	23
4) 지역사회 청소년유관기관의 조직간 네트워크	33
5) 현황분석을 통한 시사점 :모자이크이자 카멜레온인 청소년공부방	33
3. 청소년공부방 운영 현황	35
1) 청소년공부방의 개념	35
2) 청소년공부방의 역사와 역할	37
3)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	38
4) 현행 청소년공부방 운영기준	40
4. 주요국가의 관련정책과 입법례	41
1) 미국	42
2) 영국	57
3) 독일	65
4) 일본	79

III. 조사개요	95
1. 현장조사	97
1) 대상과 방법	97
2) 내용과 도구	99
2. 사례조사	103
1) 대상과 방법	103
2) 내용과 도구	103
3. 설문조사	104
1) 대상과 방법	104
2) 내용과 도구	105
IV. 청소년공부방 실태조사 결과분석	107
1. 청소년공부방 현장조사 결과분석	109
1) 개요	109
2) 현장조사 결과	110
3) 요약 및 시사점	124
2. 청소년공부방 사례조사 결과분석	128
1) 개요	128
2) 사례조사 결과	129
3) 요약 및 시사점	154
3. 청소년공부방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157
1) 개요	157
2) 설문조사 결과	162
3) 요약 및 시사점	181
4.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분석	184
1) 개요	184

2) 설문조사 결과	185
3) 요약 및 시사점	240
V.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개선방안	245
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247
1) 청소년공부방 운영모형개발 방향	247
2) 청소년공부방 운영모형제안(안)	253
3) 지역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260
2.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 방안	263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의 전환 방안	268
4. 작은 도서관으로의 전환 방안	270
5. 청소년자율학습센터 또는 지역청소년센터로의 재정립 방안	271
6. 관련정책 촉진방안	273
VI. 결 론	277
1. 주요결과	279
2. 정책제언	291
참 고 문 헌	299
부 록	309
부록 1. 종사자용 설문지	311
부록 2. 청소년용 설문지	322
부록 3. 주요 특성별 청소년공부방 현황(시·도별, 소재지별, 시설유형별)	327

표 목 차

〈표 II-1-1〉 공부방 프로그램 카테고리	11
〈표 II-1-2〉 청소년공부방의 지원대상	13
〈표 II-1-3〉 지역사회의 종류	14
〈표 II-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19
〈표 II-2-2〉 부처별 청소년지원사업	24
〈표 II-2-3〉 연령별 지원서비스	26
〈표 II-2-4〉 방과후돌보미 서비스 학기 중 이용자 특성별 이용률	27
〈표 II-2-5〉 방과후돌보미서비스의 방학 중 이용자 특성별 이용률	29
〈표 II-2-6〉 시간대별 지원서비스	30
〈표 II-2-7〉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31
〈표 II-2-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활동구분별 세부내용	31
〈표 II-2-9〉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현황	32
〈표 II-3-1〉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	38
〈표 II-3-2〉 청소년공부방 향후계획	39
〈표 II-3-3〉 사업정리 및 사업중단 청소년공부방 현황	39
〈표 II-3-4〉 2011년 지속운영 청소년공부방 현황	40
〈표 II-4-1〉 1998년-2010년까지의 21stCCLC 예산	44
〈표 II-4-2〉 연도별 21st CCLC에서 배정한 예산	44
〈표 II-4-3〉 방과후 활동이 참가자의 학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	54
〈표 II-4-4〉 방과후 활동이 참가자의 행동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	55
〈표 II-4-5〉 Every Child Matters와 Child Act의 아동발달 목표	59
〈표 II-4-6〉 영국 방과후 학교의 핵심 서비스 주요 내용	60
〈표 II-4-7〉 2008년-2011년 영국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예산	61
〈표 II-4-8〉 학교의 입장에서 본 영국의 방과후 학교의 긍정적 영향	62
〈표 II-4-9〉 부모의 입장에서 본 영국 방과후 학교의 효과성	63
〈표 II-4-10〉 학생의 입장에서 본 영국 방과후 학교의 효과성	63

〈표 II-4-11〉 GTS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사례	73
〈표 II-4-12〉 GTS 중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사례	74
〈표 II-4-13〉 GTS 지원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사례	75
〈표 II-4-14〉 아동관 설치 현황	84
〈표 II-4-15〉 방과후어린이플랜의 개요	85
〈표 II-4-16〉 방과후어린이교실 실시현황	87
〈표 II-4-17〉 방과후아동클럽수, 등록아동수 및 실시지방자치단체 현황	88
〈표 II-4-18〉 설치 및 운영주체별 클럽수 현황	88
〈표 II-4-19〉 학년별 등록아동수 현황	89
〈표 II-4-20〉 실시장소별 클럽수 현황	89
〈표 II-4-21〉 초등학교에서 방과후어린이플랜 실시현황	90
〈표 II-4-22〉 방과후어린이교실과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학동클럽)의 차이 ·	91
〈표 III-1-1〉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 현황	97
〈표 III-1-2〉 현장실사 실시 현황표	98
〈표 III-1-3〉 현장조사 단계별 추진 체계 및 내용	99
〈표 III-1-4〉 청소년공부방 현장조사 점검지표	100
〈표 III-1-5〉 청소년공부방 현장조사 인터뷰 질문 예시항목	102
〈표 III-3-1〉 설문조사 대상 표본 배분	104
〈표 III-3-2〉 설문조사의 내용과 조사표 구성	106
〈표 III-2-1〉 사례조사 대상 공부방의 일반적 특성	129
〈표 IV-3-1〉 조사대상 공부방의 일반적 특성	158
〈표 IV-3-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종사자)	162
〈표 IV-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청소년)	184
〈표 IV-4-2〉 공부방 이용시기 (문3)	187
〈표 IV-4-3〉 비규칙적 이용시기 (문3-1)	189
〈표 IV-4-4〉 교통편 (문4)	191

〈표 IV-4-5〉 이용경로 (문6)	193
〈표 IV-4-6〉 이용 만족도 (문8)	197
〈표 IV-4-7〉 사업분야별 만족도(자율적인 학습공간제공) (문9-1)	199
〈표 IV-4-8〉 사업분야별 만족도(청소년 학습지도) (문9-2)	201
〈표 IV-4-9〉 사업분야별 만족도(여가문화체험활동 지원) (문9-3)	204
〈표 IV-4-10〉 사업분야별 만족도(상담 및 정서지원) (문9-4)	206
〈표 IV-4-11〉 사업분야별 만족도(자료열람 및 대출, 정보제공) (문9-5)	208
〈표 IV-4-12〉 사업분야별 만족도(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문9-6)	211
〈표 IV-4-13〉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213
〈표 IV-4-14〉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문10-2)	215
〈표 IV-4-15〉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문10-3)	218
〈표 IV-4-16〉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문10-4)	220
〈표 IV-4-17〉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222
〈표 IV-4-18〉 지역도서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문10-6)	224
〈표 IV-4-19〉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문10-7)	226
〈표 IV-4-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문10-8)	229
〈표 IV-4-21〉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문10-9)	231
〈표 IV-4-2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233
〈표 IV-4-23〉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문10-11)	235
〈표 IV-4-24〉 공부방의 필요성 (문11)	238
〈표 V-1-1〉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설치·운영기준	252
〈표 V-1-2〉 지역청소년공부방 운영모형3가지	261
〈표 V-2-1〉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킬 경우	265
〈표 V-2-2〉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종사자 기준 적용	267
〈표 V-3-1〉 청소년공부방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전환시킬 경우	270
〈표 V-4-1〉 청소년공부방을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시킬 경우	271

〈표 V-5-1〉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청소년센터로 만들 경우	273
〈표 V-6-1〉 청소년공부방의 전환 혹은 유지 방안	275
〈부표1〉 15개 시·도별 청소년공부방 주요현황 I	327
〈부표2〉 15개 시·도별 청소년공부방 주요현황 II	329
〈부표3〉 소재지별 청소년공부방 주요현황	330
〈부표4〉 시설유형별 청소년공부방 주요현황	330

그림목차

【그림 IV-3-1】 운영형태	159
【그림 IV-3-2】 시설 유형	159
【그림 IV-3-3】 운영 기간	160
【그림 IV-3-4】 입주건물	160
【그림 IV-3-5】 운영주체	161
【그림 IV-3-6】 소재지	161
【그림 IV-3-7】 열람실 이외 보유시설	163
【그림 IV-3-8】 입주건물	164
【그림 IV-3-9】 근무직원	166
【그림 IV-3-10】 청소년 공부방 시설수준	167
【그림 IV-3-11】 공부방 주요 기능	168
【그림 IV-3-12】 운영프로그램	169
【그림 IV-3-13】 공부방 기능별 중요도	170
【그림 IV-3-14】 공부방 역할 만족도	170
【그림 IV-3-15】 프로그램 운영 관련 어려움	171
【그림 IV-3-16】 정부 지원 필요사항	172
【그림 IV-3-17】 유관시설 협력 어려움	172
【그림 IV-3-18】 업무 협력 시 어려움의 원인	173
【그림 IV-3-19】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협력경험	174
【그림 IV-3-20】 지역사회의 청소년공부방 인지도	175
【그림 IV-3-21】 공부방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175
【그림 IV-3-22】 공부방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176
【그림 IV-3-23】 공부방 필요성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	177
【그림 IV-3-24】 국고지원 중단 이후 변화상황	178
【그림 IV-3-25】 시설 전환 의사	179

【그림 IV-3-26】 시설 전환 이유	180
【그림 IV-3-27】 시설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181
【그림 IV-4-1】 공부방 이용동기	195
【그림 IV-4-2】 공부방 이용시 불편한 점	239
【그림 IV-4-3】 공부방 이용시 바라는 점	240

제 1 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1 장
서론

1. 연구목적

1980년대 중반부터 저소득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청소년공부방은 이후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대가족체제에서 핵가족체제로의 변화에 의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84년에 하월곡동의 ‘산돌공부방’과 ‘밤골아이네공부방’이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부방 활동을 시작하였다(이용교·이혜연·박영균, 2000 : 3). 1989년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써 ‘청소년야간공부방’에 대해 정부지원이 시작되었고, 이후 2000년 기준 500여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이 정부지원을 받았으며(국가청소년위원회, 2006a : 12), 2006년에는 민간지원을 포함하여 621개소까지 증가하였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b : 7).

2009년 복지예산사업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안)의 일환으로 청소년공부방을 비롯한 모든 돌봄서비스 사업을 1개사업으로 통합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2009년 당시 아동·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청소년공부방,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방과후보육, 청소년야학 운영지원 등의 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종합대책 안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통합이 진행되어 일부는 시설전환을 하였으나, 이후 2010년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청소년공부방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체제로 이원화되면서 통합추진방안이 변경되게 되었다.

그 결과 2010년 말 청소년공부방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하여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하고, 2011년 정부예산(안)에서 청소년공부방 사업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청소년공부방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금년부터 지원예산의 절반이 삭감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공부방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이 사업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운영이 가능한 청소년사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먼저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청소년공부방과 유사한 청소년지원사업들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을 분석하며, 청소년공부방사업의 가치와 한계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친화형 ‘청소년공부방’ 사업운영 모델개발 등 다양한 활성화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첫째, 지역사회중심 청소년사업과 공부방의 개념과 의미를 제시한다. 청소년공부방의 지원대상으로서 청소년의 개념과 지역사회의 개념, 지역사회중심 청소년사업의 의미와 중요성, 청소년공부방의 개념과 역사, 운영기준 등을 파악한다.

둘째, 청소년공부방과 유사한 청소년지원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을 분석한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등의 사업과 비교 분석한다.

셋째, 주요국가의 관련정책과 입법례를 수집하여 소개한다. 청소년공부방과 유사한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지원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넷째, 청소년공부방의 운영현황을 파악한다. 현장조사를 실시해 시설, 인력, 재정, 프로그램 등 청소년공부방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종사자와 이용청소년을 대상으로 의견조사 및 욕구조사를 실시해 분석한다.

다섯째, 청소년공부방 우수사례를 수집·분석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해 상세한 운영실태와 종사자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과 욕구를 파악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지속 및 사업유지에 대한 정책타당성을 진단하고, 청소년공부방 사업의 가치와 한계에 대해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지속운영 방안과 시설전환 방안을 제안한다. 지속운영 방안으로는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시설전환 방안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유사시설로의 전환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관련정책 촉진방안을 제안한다.

3.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로서 청소년공부방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및 공식 통계자료 등을 분석한다. 또한 주요 국가의 관련 정책에 관한 문헌자료를 살펴본다.

둘째, 조사연구¹⁾로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양적 방법으로는 종사자 설문조사와 이용청소년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으로 질적 방법으로는 현장실사위원의 현장조사와 종사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한다. 또한 우수사례에 대해 연구진이 종사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심층면접을 실시해 분석한다.

셋째, 이 외에 자문회의, 정책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해 현행 청소년공부방의 문제점 및 향후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자문을 받는다.

1)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제3장 조사개요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지역사회중심사업의 개념과 의미
2. 지역사회중심 청소년지원사업 현황
3. 청소년공부방 운영 현황
4. 주요국가의 관련정책과 입법례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지역사회중심사업의 개념과 의미

1) 청소년공부방의 지원대상으로서 청소년의 개념

(1) 청소년공부방의 등장 배경

청소년공부방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1960년대 우리사회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급증하면서 도시외곽지역에 도시 빈민층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빈민층 청소년들(이하 빈곤청소년)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교육적, 문화적 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기회 소외현상, 빈곤 세습화, 신분상승 기회 상실이라는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a). 이러한 문제는 도시 빈민층 청소년들에게 신체발달 불균형, 학습능력 저하, 정서적 불안, 자신감 부족, 사회성 부족과 같은 문제와 일탈과 비행으로 인한 청소년문제도 야기하게 되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a).

청소년공부방 사업은 80-90년대 공부할 공간이 없는 도시빈민계층 자녀들에게 공부할 공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청소년공부방은 소외계층 지역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학습공간 제공과 학습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청소년공부방을 위한 직접적인 관련법령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가장 관련 있는 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도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도가 있을 뿐이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a).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복지시설의 하나로서 청소년공부방을 포함시키고 청소년공부방에 관한 조항을 추가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이와 같은 내용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부방은 1984년 하월곡동 산돌공부방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대도시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공부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1989년 “청소년야간공부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서울과 5개 광역시에서 시범 운영을 한 결과, 반응이 좋아 대폭 지원해왔으나 최근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기관이 생기면서 정체되고 있다.

(2) 청소년공부방 지원대상으로서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공부방의 등장 배경에서도 나타나듯이 청소년공부방에서 지원하는 일차적인 대상은 빈곤청소년이다. 즉,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청소년이라는 것이다. 청소년공부방이 처음 등장하던 시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빈곤이었기 때문에 빈곤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청소년공부방이 등장했던 때와는 우리 사회의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해환경 증가로 인해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그것이 문제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도 과거보다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청소년공부방의 지원대상을 누구로 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에 앞서 청소년공부방의 기능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은 청소년공부방의 지원대상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공부방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와 현재의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청소년공부방의 기능을 재정립한다면 청소년공부방의 지원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논의도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공부방의 기능은 복지와 교육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김미숙 외, 2009).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이런 기능이 빈곤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 후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결과 청소년의 복지와 교육 뿐 만 아니라 지도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은 청소년공부방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에는 청소년지도 분야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1990년대 이후 발전해 온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청소년공부방의 프로그램 유형을 보면, 교과학습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특기교육, 문화활동, 체험 및 캠프, 기타 프로그램이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b).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지도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특기교육이나 문화활동, 체험 및 캠프 프로그램의 경우 복지나 교육적 접근보다는 청소년지도 분야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1-1 공부방 프로그램 카테고리

분류	프로그램 종류
1. 교과학습지도	학습지도, 한자, 과학교실, 논술, 독서지도, 영어, 방과후 학습 등
2. 특기교육	한자, 무술, 피아노 및 악기, 미술, 마술, 풍선, 종이접기, 체육 등
3. 문화활동	문화활동, 도서대출, 취미교실, 종이접기, 공연, 문화교육, 영화비디오 상영, 요리교실 등
4. 체험 및 캠프	수련회, 캠프, 운동회, 문화체험, 자원봉사, 지역탐방, 주말학교 등
5. 기타	건강교실, 간담회, 복지사업, 예절교육, 진로검사, 상담프로그램 등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2006a: 139)

최초 청소년공부방의 지원대상이었던 빈곤청소년이외에 청소년공부방의 지원대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집단은 특별지원청소년, 위기청소년, 취약청소년 등이 있다. 이들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특별지원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그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동법 제2조 3항에서 “특별지원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을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제외되는 청소년은 흥미롭게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의 청소년으로 대부분 청소년공부방의 지원대상이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는 특별지원청소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²⁾. 결국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서는 특별지원청소년을 다음과 같은 세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가출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빈곤계층 청소년, 요보호 청소년), 둘째는 학업중단 청소년(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셋째는 교육적 선도대상

2) 제7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기준)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은 다음의 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1.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에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를 특별지원청소년으로 선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1. 9세 이상 18세 이하일 것
 2.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 있을 것

청소년 중 비행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청소년,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청소년, 비행청소년, 범죄 가해 및 피해 청소년, 우울 및 자살 위험이 있는 청소년)이다(지승화·양미진·이자영·김태성, 2006).

위기청소년은 OECD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위기청소년(At-Risk Youth)이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직업이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해 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을 말한다. 위기청소년의 개념정의에서는 ‘학교생활에의 적응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윤철경(2005)은 위기청소년의 위기유형을 빈곤, 학업중단, 음주, 흡연, 가출 등 22개로 구분한 바 있다. 위기청소년을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간주하고 위험요인이 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위기청소년의 유형을 14가지 문제영역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① 가출청소년
- ② 학업부적응청소년
- ③ 학교 폭력 피해 및 가해 청소년
- ④ 범죄 피해 및 가해 청소년
- ⑤ 일탈행동 청소년 : 청소년 성 일탈(성매매, 성폭력 등), 유해약물(음주, 흡연, 본드, 가스 등), 도덕, 유해업소 출입 등의 일탈행동을 저지른 청소년 및 비행위험이 있는 청소년.
- ⑥ 우울 및 자살위험 청소년
- ⑦ 실업
- ⑧ 사이버 중독 청소년
- ⑨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
- ⑩ 빈곤청소년
- ⑪ 다문화청소년
- ⑫ 구조적 및 기능적 장애가정 청소년

취약청소년은 만 12세에서 만 24세 미만의 취업에 취약한 청소년으로 위기청소년,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청소년, 장기실업 청소년, 청소년 니트³⁾족, 새터민 청소년으로 정의된다(변숙영 · 이수경 · 이

3) NEET

종범, 2009). 미국에서는 취약청년층 정책대상자를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무료 학교급식을 받는 자로 정의한다. 즉 저연령(16-21세) 비진학, 거주지(예, 도시빈민가, 침체지역), 고교 중퇴, 소수인종, 미혼모, 특정 연령기의 편부모가정, 중퇴 가능성이 큰 재학생(특히 저소득층) 등의 취약성 판단근거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 사회의 변화나 청소년문제의 증가 등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공부방의 지원대상은 청소년공부방이 최초로 등장했던 시기와 달리 빈곤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집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는 특별지원청소년, 위기청소년, 취약청소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이들 청소년집단에는 중복성이 있다.

청소년공부방의 지원대상을 빈곤청소년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고려한다고 할 때, 일반청소년까지 포함시켜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공부방의 기능이나 사회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는 일반청소년도 청소년공부방의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항을 고려할 때, 청소년공부방의 지원대상을 1차적과 2차적으로 나뉘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차적 지원대상은 빈곤청소년을 포함한 특별지원청소년, 위기청소년, 취약청소년인 반면 2차적 지원대상은 모든 청소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특성에 따라 청소년공부방의 지원대상은 일반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II-1-2 청소년공부방의 지원대상

지원대상	접근 유형
1차적 지원대상	단기적 접근
2차적 지원대상	장기적 접근(지역특성에 따라서는 1차적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음)

정익중박현산오승환임정기(2008)도 지역아동센터 단계별 발전방안을 3단계로 제시하면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즉 지역아동센터는 투자기, 발전기, 안정기의 3단계로 발전하는데, 지역아동센터 투자기와 발전기에서는 대상이 저소득 밀집 누락지역이나 나홀로 가정의 아동을 우선 배치해야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안정기에는 이를 일반대상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6b)에서도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은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이 보다 나은 프로그램에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은 청소년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가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고 주5일제

시행 등 사회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모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방과후 지원사업의 범위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전달에서부터 시급히 그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가족의 청소년을 포함한 우선지원대상 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접근까지를 포괄해야 한다.

2) 지역사회의 개념

지역사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관계에 의해, 또는 지리적·행정적 분할에 의해 나누어진 일정 지역의 사회”이다(네이버 백과사전). 지역사회의 사전적 의미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역사회가 일정한 크기의 지리적 영역을 지닌 지역과 두 사람 이상의 인간집단을 의미하는 사회라는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는 지리적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입장과 공동체적인 유대감과 정서를 공유하는 사회적 동질성에 기반을 둔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가 지역사회의 형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의 세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서정아·조흥식, 2010; 이연, 2007; 최재원, 1991). 그중에서도 지역사회의 개념에 대한 최근의 입장은 지역사회를 지리적 위치, 영토적 근접성이라는 지역성의 물리적 기반과 함께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관계 등의 의식적 관계적 측면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정아·조흥식, 2010).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종류에는 전통적 지역사회, 결속적 지역사회, 근린집단, 유한책임 지역사회, 잠재적 이익집단, 네트워크, 사회적 계급, 이해 지역사회의 8가지가 있다. 각각의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1-3 지역사회 의 종류

종류	개념
전통적 지역사회 (traditional community)	특정 지리적 장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형성된 지역사회로서 지역사회주민들은 혈연, 지연, 공통의 가치관, 공통의 종교관 등에 의해 통합되어 있다. 규모가 작은 사회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가족문제까지도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전통적 지역사회에서는 개인들의 문제가 집단의 문제로 인식되기도 한다. 도시화 이전의 농촌부락이 전형적인 예이다.

<p>결속적 지역사회 (solidarity community)</p>	<p>전통적 지역사회와 비슷하지만 전통적 지역사회에 비해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다는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국적, 종교, 언어, 인종 등의 공통의 유산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함께 남기를 원할 때 이루어지는데, 보통 이웃에 거주하며 살게 되며, 그 구성원들은 스스로 그 집단에 속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집단에 대하여 충성심을 느낀다. 전통적 지역사회보다 정의적 연계의 정도는 낮은 편이다.</p>
<p>근린집단 (neighborhood)</p>	<p>동일지역의 거주에 기초한 연합을 근린집단이라 한다. 종교나 인종이라는 공통적 특성에 의해 결집된 지역사회가 아니라 같은 지역에 산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연대감에 의해 형성된 지역사회이다. 특정 지역사회에서 함께 오래 거주했다는 것은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하고, 자녀를 같은 학교에 보내고, 같은 종교시설, 같은 복지시설 등의 공동의 시설을 이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아가다 보면 그들을 연계시켜 주는 공동의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집단에 기초한 지역사회는 전통적 지역사회나 결속적 지역사회처럼 강력한 애착심은 없지만 공동의 관심사에 기초한 일종의 통합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거주지에 대하여 애착심을 느끼지만, 보통의 경우 이사 등으로 애착심이 약해진다. 따라서 근린집단에서는 거주지에 대한 애착심이나 개인적 연대보다는 공동의 문제에 기초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p>
<p>유한책임 지역사회 (community of limited liability)</p>	<p>유한책임 지역사회는 근린 지역사회처럼 강력한 애착심이 근원이 아니고, 단지 공동의 관심에 의해 지역사회의 결속이 생기는 것을 확대시킨 개념이다. 근린 지역의 범위를 넘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제별로 근린집단에 참여하는 연합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시간과 사안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 협동과 상호작용을 한다.</p>
<p>잠재적 이익집단 (latent interest groups)</p>	<p>실재하는 지역사회가 아닌 잠재적 이익집단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계나 상호관계의 실재성보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잠재적 이익집단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는 아니다. 공통의 지리적 영역없이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집단이지만, 이들 주민들은 그들이 공유하는 문제나 이익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잠재적 이익집단의 구성원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관심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공통점이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나 여권신장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은 환경이나 여성운동 이외의 공통점은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p>
<p>네트워크 (networks)</p>	<p>구체적 주제에 기초하여 공통의 이익을 나누고 나누어진 이익에 기초하여 서로 연결된 사람들로 구성된다. 친구, 친척, 정부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는 같은 질병, 알코올 중독증에 걸린 가족의 존재 등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을 찾아서 형성할 수 있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네트워크의 형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보다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힘을 형성하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p>

사회적 계급 (social class)	유사한 태도, 소득, 직업의 종류, 사회적 지위 및 권력수준 등에 기초하여 연결된 공동체이다. 이론적으로 공통의 문제가 조직화의 기초가 되지만 계층 구성원들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면 주제의 광범위성을 제외하고는 잠재적 이익집단과 유사하다.
이해 지역사회 (community of interest)	특정의 이해에 기초하여 가장 견고하게 통합된 지역사회이다. 공통의 문제인식과 그 문제해결을 위한 공통의 행동을 통해서 확립된다. 이해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조직화의 산물이다.

출처: Rubin & Rubin(1986), 이성·정지웅(2002)에서 재인용

한편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지역사회는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청소년에게 지역사회는 구체적인 생활의 준거집단이고 교육의 장인데(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그것은 청소년에게 지역사회가 배움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지리적 요인과 인간관계적 측면을 모두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성과 정지웅(2002)의 정의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정의를 내린 서정아·조홍식(2010)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즉, 지역사회는 “지역성을 토대로 하면서 그 안에 생활의 공동성이라는 기능적 개념을 동시에 포괄하는 사회적·지역적 단위로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사업의 의미와 중요성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개념에는 지리적 요건과 사회학적 의미가 담겨있다. 이것은 지역사회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는 것이고, 지역사회마다 그 지역의 요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태수·김민·이혜숙(2010)은 지역유형별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대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 내 학습이나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자원이 많고,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자가 많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대도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고 농어촌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농어촌의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의 수가 적고 밀집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사회 보다는 청소년공부방이 학교의 공간을 활용하여 방과후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6a)에서도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여건은

이상적인 시스템의 구축에만 몰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둘째, 청소년공부방의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이라고 할 때, 이들을 위한 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보다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성장하고 생활하고 있다.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연구하거나(서정아·조홍식, 2010), CYS-NET(Community Youth Safety - Network,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 등이 모두 이러한 맥락에 근거한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공부방은 인지도와 필요성이 높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공부방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 사업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6b)의 조사에 의하면,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인지도는 많다는 응답이 66.6%였다. 공부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은 많다는 응답이 79%, 지역주민 74.8%, 운영자 90.8%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공부방의 설립목적의 측면에서도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사업의 타당성이 나타난다. 이용교(2000)에 의하면, 청소년공부방은 저소득층 지역 청소년의 학습공간,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상담, 건전한 문화공간, 지역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공부방에서의 청소년지도는 초·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학력의 부모를 대신하여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한 때에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생활습관과 청소년의 발달과업을 이루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상담을 통해 진로문제, 교우문제, 이성문제, 장애문제 등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지적 발달과 심리사회적 발달을 도모한다. 일부 공부방에서는 급식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청소년공부방의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청소년공부방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해당 지역사회를 지역사회답게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청소년공부방에서 희망하는 연계기관으로는 청소년기관 및 단체가 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교 동아리 41.7%, 상담시설 38.7%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기업체, 의료기관, 교육청이나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았다(이용교, 2000). 이러한 현상은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2. 지역사회중심 청소년지원사업 현황⁴⁾

1)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지원 사업 개관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연령은 만9세에서 만24세 미만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졸업연령 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개념인 만18세 미만과 중첩되기 때문에 현행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지원 정책은 각종 아동정책 속에서 함께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역사회중심 청소년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지원사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게 된다.

아동·청소년대상 주요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아이돌보미서비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방과후학교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각기 고유의 특색을 지니면서도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사업별 운영현황

(1) 지역아동센터 및 1318해피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이다.(아동복지법 제16조)

주요역할은 취약계층 아동의 지역사회보호, 교육적 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의 측면이 있다. 취약계층 아동의 지역사회보호의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를 이루어내고 급식지원을 통해서 결식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적 기능은 아동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부적응을 해소시킴으로서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학교 적응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동의 심리·정서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4) 이 부분은 강지명(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정서적 지원을 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서비스 제공의 역할도 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기능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하게 되고 사후의 연계서비스의 중핵이 된다. 2011년 전국 3,260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월 37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전체예산은 695억 원이다. 연도별 시설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895개소에서 2010년 6월 3,585개소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2011)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이용층은 방과후 시간이 비교적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생이다. 특별관리아동으로 분류되는 다문화가정아동과 장애아동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다문화가정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박현선 외, 2010)

표 II-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합계	23,347	43,749	58,851	76,229	87,291	97,926	98,947
미취학 아동	1,564	3,203	4,113	4,127	4,585	4,838	3,442
초등학생	18,348	34,617	25,149	32,867	35,972	39,053	35,923
			21,426	28,117	33,163	38,032	40,447
중학생	2,880	5,129	6,846	9,224	11,380	13,600	16,260
고등학생	555	958	1,095	1,413	1,862	2,072	2,604
탈학교	-	-	103	104	133	331	291
기타	-	22	99	317	196	-	-

출처: 보건복지부·지역아동정보센터, 2010년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2010

2010년 경제적 상황별 이용아동을 살펴보면, 차상위 아동이 36.3%로 가장 많으며, 수급권 아동이 27.5%, 기타 승인아동(한부모·조손가족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이 18.8%, 일반아동이 17.4% 순으로 지속적으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빈곤 및 취약계층 아동의 이용비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박현선외, 2010)

1318해피존은 SK텔레콤과 부스리기 사랑나눔회,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을 모델로 하는 13세에서 18세의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이다. 2006년⁵⁾

5) 도시형:무지개빛창개구리,(서울), 서대문(서울), 아람(용인), 울산(울산), 한림(춘천), 행복지대(진해), 청소년문화공간 희망오름

도시형 7개소, 농촌형 6개소로 협력사업을 시작하여 2007년 도시형 13개소, 농촌형 2개소, 2009년 도시형 4개소, 2011년 도시형 2개소를 마지막으로 현재는 사업마무리 단계에 있다.⁶⁾

(2)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는 사회양극화 완화를 위한 교육격차의 해소,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의 증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서 2006년 도입되었다. 이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오던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인 기존의 특기적성 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체제이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 가족 등과 같이 가족형태가 변화하고 근로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방치되는 학생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보호자의 출근 시간전인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시범운영하고 있다.⁷⁾

전체 학교(11,312개교)의 99.9%(11,307개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학생(6,986,853명)의 65.2%(4,558,656명)가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61.8%, 중학생의 경우 61.4%, 고등학생의 경우 74.5%가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6월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 및 생활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2005년 9월부터 46개소를 시범운영하여,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 2011년 200개소 청소년시설에서 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각 운영주체인 시·도는 지역여건에 부합하게 자율적으로 대상학년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유형별, 수준별 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기본지원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부모 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 보살핌, 비행노출 예방 등의 기능을 강화한 모형이다. 농산어촌형은

(서울) 농촌형: 도담다담(경남 거창군), 디딤돌(전북장수군), 웃음만땅(전남 곡성군), 초록세상(강원 홍천군), 블루비전(충북 단양군), 아이 캔 두 잇(경북 영덕군)

6) 1318해피존 홈페이지 <http://www.1318happyzone.org/>

7) 교육과학기술부 (2010),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중점대상으로 하되, 모집대상기준을 지역여건에 맞게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하다. 특수청소년 지원형은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한다. 학교장 및 특수교사, 전문가의 추천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청소년, 한부모·맞벌이·장애인가정, 기초수급대상·차상위계층등 저소득가정의 장애청소년이 지원대상이다. 장애판정은 받지 않았으나 학교특수교육대상자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1)

(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은 모든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성취를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중심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에는 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의 교육복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이후 구축된 시스템이 지역 자체 역량에 의해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사업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구조 악화와 취약계층 확대 경향과 함께 지역별, 학교별 계층 분화 및 교육적 성취에 대한 계층 영향력이 증가되었다. 소득과 학력에 따라 지역 내 거주지 분화 현상이 발생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특정 학교에 취약계층이 밀집하는 학교별 계층 분화 현상 발생하였다. 그리고 학업 성취 및 정의적 영역의 성취에 대한 계층과 가정배경의 영향력이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서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 가정 기능 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이 초래하는 교육에서의 다양한 격차에 대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층과 가정배경에 제한되지 않고 누구나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지닐 수 있기 위한 공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3년 서울, 부산 8개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인구 50만 이상 광역시로 확대, 15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2006년 인구 25만 이상 중소도시로 확대, 30개 지역에서 사업 추진하고 2007년 인구 25만 이상 중소도시 60개 지역 사업 추진하여 2008년에는 인구 제한 없이 시 지역 100개 지역 사업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시·도별 2011년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계획 발표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10년 37개 사업학교를 2011년에는 78개교가 늘어난 115개교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며 교육지원청 단위의 연구지원팀을 신설하여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자체사업인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사업’을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모형으로 전환하면서 두 사업학교를 모두 교육복지특별지구 학교로 지정하고, 자치구

8) 교육과학기술부: <http://eduzone.vedi.re.kr/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하는 자치구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여 사업학교 외 일반 초중학교의 교육 소외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하며, 모든 초중학교에 "교육복지부"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라고 한다.⁹⁾

(5) 드림스타트¹⁰⁾

드림스타트는 모든 아동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복지사업이다.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와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빈곤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으나, 밀착형 서비스가 필요한 빈곤층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동의 빈곤은 아동 전생애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한다. 그리고 아동 조기투자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하고 사회문제 예방 및 사회통합 유도 등 사회적 환원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인적투자로서 아동투자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

시·군·구별 드림스타트센터는 임신부를 포함한 0~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중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연령대 아동과 그 가족, 임신부를 대상으로 위기도 사정을 통해서 고·중위기 아동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때 선정대상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층 가정, 결손가정, 성폭행 피해아동, 한부모가정 아동으로 이들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아동지원서비스와는 다르게 부모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함으로써 아동보호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동에 대한 건강·보육·건강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서 부모에 대한 지원도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양육기술을 전수하며, 부모의 직업훈련과 고용촉진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센터별로 300명 내외¹¹⁾ 또는 지역별 300명 이상이라는 인원수의 제한이 전국의 시·군·구별 빈곤층 밀집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팀장 1인을 포함한 6인이 300명을 담당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서비스가 아닌, 건강·보건·복지라는 범주의 지역사회 자원을 아동과 연결하기 위한 허브기능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9) 2010년 12월 6일 한국교육개발원, 2011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발전방안 포럼 보도자료.
http://eduzone.chedi.re.kr/EZNews/EduZone/UsBrdViv.php?LstCode=B_NOTC&LstCary=B00117&LstNum1=1287(2011년 10월 30일 방문)
 10)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소개, http://www.dreamstart.kr/sub_01/body02.asp
 11)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사업안내 2011(319쪽)에는 지역당 300명이상이라고 되어있으나 홈페이지에는 센터별 300명내외라고 되어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각 시·군·구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구에 소속되며 전담공무원 3인과 민간전문인력 3인으로 구성된다. 2010년 전국 101개의 빈곤가구 밀집지역이 선정되어 드림스타트센터가 개소했고 2011년에는 131개 지역으로 확대추진중이라고 한다.¹²⁾

(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사업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사업은 개별적으로 파편화되었던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맞춤형 원스톱서비스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위기청소년이란 학교와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가져 장래 사회에 온전하게 기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목적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자립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2009년 11월 27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총리훈령으로 공포 시행되었다. 2005년 3천명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연계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13만명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연계를 할 것으로 추산된다.(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사업안내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두드림(Do Dream)존 프로젝트는 현재 학교교육을 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토탈자활지원사업이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주관하고 있다.

3) 청소년지원 서비스 특성비교

(1) 부처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지원사업은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 위기개입강화를 위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화 1388 무료화 추진 및 홍보강화로 대국민 인지도 및 이용률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학 및 학업지원, 생활상담 등의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자립지원프로그램인 두드림존의 운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립지원을 체계화하고 CYS-Net 전역에 학업중단 청소년 대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12) 보건복지부, 2011 아동분야사업안내, 319쪽.

가출청소년쉼터의 지원등도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도 맞벌이, 저소득층 등의 우선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2-2 부처별 청소년지원사업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두드림존, 가출청소년쉼터 등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보건복지부의 청소년지원사업은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만을 위한 지원보다는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와 같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청소년층에 대한 지원이 같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의 1318해피존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 특성을 살리는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에 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위한 지역학교단위 사업이다. CYS-Net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적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연계지원책이라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은 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CYS-Net은 비학생청소년까지 지원한다는 점이다.

(2) 지원대상별

가. 학령과 연령에 따른 비교

〈표II-2-3〉연령별지원서비스를 살펴보면 각 지원사업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드러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서비스의 경우 신생아부터 만12세까지를 지원하고 드림스타트의 경우 태아부터 만12세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드림스타트는 그 대상이 빈곤저소득의 취약계층으로 정해져있는 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는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금전적 지원을 차등적으로 하면서 전 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해당학교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Ⅱ-2-3〉과 같이 대부분의 지원서비스는 실질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의 경우 취학아동전체가 서비스대상이기 때문에 만6세에서 만19세까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러나 비학생청소년인 경우에는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명칭 그대로 방과후 ‘학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지원 사업이다. 방과후 학교는 교육법에 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 교사와 보육교사가 사업을 담당하고 운영의 주체 또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장의 위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 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방과후 학교와 마찬가지로 비학생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부모와 청소년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서 선발되는데 일반형의 경우는 신청을 통해서 선발하고 지원형의 경우에는 추천, 초청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다. 일반형의 경우 시설별 지정된 참가비를 받는 것인데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중점 대상으로 하여, 일정의 수강료를 받고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과정을 운영한다. 지원형의 경우는 무료로 운영되는데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호, 비행 노출 예방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혼합형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형과 지원형을 혼합해서 운영하는 형태이다. 책임운영기관인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진행되는 형태가 다르다. 2011년부터는 장애아동에 대한 프로그램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방과후 학교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가 저소득층을 우선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사업과 구분된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18세미만의 아동을 지원하지만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센터의 사정이나 지역여건 등에 의해 일반아동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조손·다문화·장애·한부모아동 등에 대해서는 수납이 금지되어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학교와 달리 개인이나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비학생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1318해피존으로 특화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청소년공부방의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운영되기 쉽다. 1318해피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운영에서 1318해피존 프로그램의 지원과 직원연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변환은 대상연령의 상한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청소년공부방의

경우 취약청소년까지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만24세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다. 도움이 필요했던 청소년이 만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없는 완전한 성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저학력 비진학 미취업청소년, 장기실업청소년, 청소년 니트족, 새터민 청소년, 불법체류외국인 청소년 등등 취약청소년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II-2-3 연령별 지원서비스

연령	학령	방과 후 학교	지역 아동 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돌보미 서비스		드림 스타트	교육 복지 투자 우선 사업	청소년 공부방
				일반	장애	일반	장애			
만5세미만	미취학			일반	장애	일반	장애	임산부 포함		
만6세	초1 ¹³⁾									
만7세	초1,2									
만8세	초1,2,3									
만9세	초2,3,4									
만10세	초3,4,5									
만11세	초4,5,6									
만12세	초5,6 중1									
만13세	초6 중1,2									
만14세	중1,2,3	1318 해피존								
만15세	중2,3 고1									
만16세	중3 고1,2									
만17세	고1,2,3									
만18세	고2,3									
만19세	고3									
만20세	대학,군대 , 취업준비 , 취업 등									
만21세										
만22세										
만23세										
만24세										

(출처: 양계민외(2011),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수정보완함)

나. 이용자특성별 이용비교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지원 사업 이용자특성 현황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분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조사(양계민외:2011)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이용자 층을 형성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학기중 이용자 특성별 이용률과 방학중 이용자 특성별 이용률을 통해서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

학기중 이용자 특성별 이용률을 보면 우선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공적인 서비스인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방학중의 경우에도 공적 서비스의 이용자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편이다. 그리고 방학중에는 맞벌이가정의 이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공적 서비스는 소득수준이 낮은 이용자와 맞벌이가정에 유의미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4 방과후돌봄 서비스 학기 중 이용자 특성별 이용률

(단위 : 명, %)

서비스		전체	방과후 학교	지역 아동 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교과목 학원	특기 적성 학원	X ²
특성								
전체		14,821 (100.0)	1,346 (9.1)	325 (2.2)	139 (0.9)	6,746 (45.5)	6,265 (42.3)	
거주 지역 크기	대도시	5,056 (100.0)	410 (8.1)	95 (1.9)	48 (0.9)	2,224 (44.4)	2,259 (44.7)	82,311***
	중소 도시	5,661 (100.0)	459 (8.1)	105 (1.9)	49 (0.9)	2,628 (46.4)	2,420 (42.7)	
	읍·면·도 서지역	4,104 (100.0)	477 (11.6)	125 (3.0)	42 (1.0)	1,874 (45.7)	1,586 (38.6)	
자녀 학년	1~3 학년	7,463 (100.0)	798 (10.7)	162 (2.2)	0 (0.0)	2,660 (35.6)	3,843 (51.5)	808,473***
	4~6 학년	7,358 (100.0)	548 (7.4)	163 (2.2)	139 (1.9)	4,086 (55.5)	2,422 (32.9)	

13) 2011년 현재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만7세이다.(초중등 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만 12세) 보호자의 뜻에 따라 1년을 앞당기거나 1년을 늦출 수 있다. 그러므로 만 6세부터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령도 함께 기술된다.

부모 맞벌이 여부	맞벌이	7,262 (100.0)	606 (8.3)	149 (2.1)	66 (0.9)	3,524 (48.5)	2,917 (40.2)	185.857***
	외벌이	7,086 (100.0)	648 (9.1)	146 (2.1)	61 (0.9)	3,017 (42.6)	3,214 (45.4)	
	무응답	473 (100.0)	92 (19.5)	30 (6.3)	12 (2.5)	205 (43.3)	134 (28.3)	
월평균 가구 소득 5분위	1분위	2,460 (100.0)	416 (16.9)	172 (7.0)	46 (1.9)	1,095 (44.5)	731 (29.7)	1013.149** *
	2분위	2,571 (100.0)	229 (8.9)	39 (1.5)	28 (1.1)	1,158 (45.0)	1,117 (43.4)	
	3분위	2,628 (100.0)	170 (6.5)	28 (1.1)	25 (1.0)	1,215 (46.2)	1,190 (45.3)	
	4분위	2,661 (100.0)	160 (6.0)	12 (0.5)	0 (0.0)	1,183 (44.5)	1,036 (49.1)	
	5분위	2,655 (100.0)	123 (4.6)	13 (0.5)	0 (0.0)	1,171 (44.1)	1,348 (50.8)	
	무응답	1,846 (100.0)	248 (13.4)	61 (3.3)	40 (2.2)	924 (50.1)	573 (31.0)	

***p<.001

출처 : 양계민 외(2011),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II-2-5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방학 중 이용자 특성별 이용률

(단위 : 명, %)

서비스		전체	방과후 학교	지역 아동 센터	방과후 아카데 미	교과목 학원	특기 적성 학원	X ²
전체		12,286 (100.0)	1,364 (11.1)	291 (2.4)	75 (0.6)	4,794 (39.0)	5,762 (46.9)	
거주 지역 크기	대도시	4,298 (100.0)	494 (11.5)	90 (2.1)	27 (0.6)	1,595 (37.1)	2,092 (48.7)	42.383***
	중소 도시	4,725 (100.0)	476 (10.1)	92 (1.9)	33 (0.7)	1,892 (40.0)	2,232 (47.2)	
	읍·면·도 서지역	3,263 (100.0)	394 (12.1)	109 (3.3)	15 (0.5)	1,307 (40.1)	1,438 (44.1)	
자녀 학년	1~3 학년	6,265 (100.0)	797 (12.7)	153 (2.4)	0 (0.0)	1,773 (28.3)	3,542 (56.5)	738.200***
	4~6 학년	6,021 (100.0)	567 (9.4)	138 (2.3)	75 (1.2)	3,021 (50.2)	2,220 (36.9)	
부모 맞벌이 여부	맞벌이	6,054 (100.0)	622 (10.3)	154 (2.5)	31 (0.5)	2,563 (42.3)	2,684 (44.3)	118.472***
	외벌이	5,916 (100.0)	679 (11.5)	121 (2.0)	37 (0.6)	2,113 (35.7)	2,966 (50.1)	
	무응답	316 (100.0)	63 (19.9)	16 (5.1)	7 (2.2)	118 (37.3)	112 (35.4)	
월평균 가구 소득 5분위	1분위	1,908 (100.0)	375 (19.7)	149 (7.8)	20 (1.0)	725 (38.0)	639 (33.5)	794.894***
	2분위	2,164 (100.0)	249 (11.5)	36 (1.7)	13 (0.6)	825 (38.1)	1,041 (48.1)	
	3분위	2,273 (100.0)	222 (9.8)	28 (1.2)	18 (0.8)	901 (39.6)	1,104 (48.6)	
	4분위	2,318 (100.0)	181 (7.8)	10 (0.4)	0 (0.0)	895 (38.6)	1,232 (53.1)	
	5분위	2,279 (100.0)	131 (5.7)	15 (0.7)	0 (0.0)	879 (38.6)	1,254 (55.0)	
	무응답	1,344 (100.0)	206 (15.3)	53 (3.9)	24 (1.8)	569 (42.3)	492 (36.6)	

*** p<.001

출처 : 양계민 외(2011),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지원시간대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하교이후의 시간대에 학생지원 서비스를 주로하고 있다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공부방,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는 비학생에 대해서도 하루 종일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 운영시간은 개별 시설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아동들의 안정적 이용을 위하여 필수 운영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필수 운영시간은 학기중에는 14시에서 19시, 방학 및 공휴일은 12시에서 17시이다. 즉, 하루 정해진 필수 운영시간대(5시간)를 지키되 지역센터 실정에 맞추어 추가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주5일 운영하는 경우가 64.1%, 주6일 운영하는 경우가 30.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하루 운영시간은 9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의 경우가 29.8%,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의 경우가 26.1%, 11시간 이상의 경우가 23.1%, 10시간 이상 11시간 미만의 경우가 18.6%로 8시간이상의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박현선 외, 201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는 등교전에 가정에서 부모의 이른 출근후 등교시간 까지 1,2시간동안 등교를 도울 수도 있다. 이러한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 드림스타트와 연계하여 지원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 등교전, 방과후 보육차원의 엄마품온종일돌봄서비스를 2011년 시범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일요일은 휴무이고 토요일을 체험학습을 하기 때문에 주6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평일 15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12시부터 19시까지 운영된다.

표 II-2-6 시간대별 지원서비스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 센터	청소년 공부방	아이 돌보미 서비스	엄마품 온종일 돌봄 서비스	청소년방 과후 아카데미	드림 스타트	교육복지 투자우선 사업
등교전							사례별	학교별
학교수업 시간								
방과후		필수운영 시간						

(4) 지원사업별 서비스내용

각 지원사업의 서비스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학습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기적성과 관련된 것, 다른 하나는 생활지원과 관련된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학습과 함께 생활지원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18해피존의 경우에는 교과학습보다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표 II-2-7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구 분	세부 내용
생활지원(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일상생활 지원, 건강생활지도, 위생지도, 안전지도, 급식제공
이용자 사례관리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아동사례관리, 가족지원하기 등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지역 내 인적자원 확보 및 관리, 물적자원확보 및 관리, 관련기관 연계프로그램, 홍보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생활 준비 지원, 학년별 학습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학습지원성과 평가하기, 숙제지도, 예체능 교육 등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놀이활동지원, 특기적성프로그램 지원 등

자료 : 보건복지부(2011), 아동분야사업안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생활지원보다는 전문체험활동이나 학습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에 비중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I-2-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활동구분별 세부내용

구분	내용
전문체험 활동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습형태가 아닌 체험활동 위주로 청소년들의 창의성·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예술체험활동, 과학체험활동, 직업개발활동, 봉사활동, 리더쉽개발활동 등) ●토요(등교토/놀토): 주5일제 관련 전문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과정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숙제, 보충학습지도, 독서지도

학습지원활동과정 (기본공통과정)	(자기주도학습)	등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교과학습과정 (주요교과목지원)	전문 강사진의 교과학습 중심의 학습지원
자율체험활동 (재량활동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활동(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의 성격으로 담당 실무자들이 직접운영(지역사회 연계하여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는 등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각 운영기관에서 재량으로 자유롭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과정으로 학습지원의 성격운영 불가 	
특별지원 과정	청소년캠프(방학), 부모교육, 초청인사 특별강의, 발표회 등	
생활지원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메일링서비스) 등의 생활지원	

출처 :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사업안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초등학교는 특기적성프로그램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과프로그램의 비중이 높다.

표 II-2-9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분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계
초등학교	70,852	130,734	201,586
중학교	115,058	29,363	144,421
고등학교	169,248	15,395	184,643
계	355,158(66.9%)	175,492(33.1%)	530,65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6월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파견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로 아동을 돌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2세 미만아동과 같이 놀기, 학교나 유치원의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의 등·하원 지도,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의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¹⁴⁾) 엄마품온종일돌봄서비스의 경우도, 보육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14) <http://www.familynet.or.kr/>

4) 지역사회 청소년유관기관의 조직간 네트워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청소년 유관기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지역사회 청소년유관기관의 조직간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하태훈·이채석(2010)에서 청소년단체와 쉼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아동기관의 네트워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관계, 공식관계, 정기모임 등에 의한 분석에서 네트워크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기관보다 자원의존이나 필요성에 의해 행정이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즉, 시청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육청이나 구청의 역할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공식관계의 조직간 네트워크에서 이웃중앙성, 근접중앙성 및 매개중앙성은 시청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높게 나타났다. 공동행사의 청소년 유관기관 조직간 네트워크에서 이웃중앙성과 매개중앙성은 시청이 가장 높았으며, 근접중앙성은 청소년 공부방이 높게 나타났다. 정기모임의 청소년 유관기관 조직간 네트워크에서 이웃중앙성은 시청, 근접중앙성은 청소년공부방, 매개중앙성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하태훈·이채석(2010)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단체와 시설이 참여하는 유관기관의 조직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청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보다 주도적인 개입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의 네트워크 참여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5) 현황분석을 통한 시사점 :모자이크이자 카멜레온인 청소년공부방

전국의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각각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모양을 그리고 있는 모자이크와 같은 형태가 되어야한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은 시대적 상황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공부방이 되어야한다.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하여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기관은 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0대 중후반과 20대 초반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공부방이 속한 지역사회와 이용청소년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카멜레온과 같은 변환능력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열린 청소년지원기관이 되어야한다.

(1) 공부방별 지원대상과 내용의 특화

가. 취약청소년지원과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비학생청소년의 경우 다른 또래들이 학교에 다닐 동안 공부방에서 교과교육 뿐만 아니라 특기나 적성을 살리고 흥미가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행청소년,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비행청소년집단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과를 채워줄 연계기관이 필요하다

보육시설퇴소 청소년, 새터민 청소년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기관이 될 수 있다.

나. 저소득가정의 청소년지원

저소득 가정을 위한 방과후 서비스로서 방과후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이상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다. 전문계학생의 취업을 위한 청소년공부방 특화

대학의 경우 취업정보센터 등을 통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문계학생의 경우에는 스펙을 위한 계획자성을 도와주는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전문계학생의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일반학생의 적극유치를 통한 낙인효과방지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소득층임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 이용을 꺼린다는 조사결과가 있다.(양계민외: 2011)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취약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기능만으로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된다면 그 낙인효과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말이나 방학기간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주중의 심도 있는 교과교육을 통해서 일반청소년도 유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공부방의 기능

가. 청소년 문화선도의 기능(청소년문화형성의 기능)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이다. 청소년의 문화는 10대의 대중매체 추종문화와

20대 초반의, 술을 바탕으로 한 유흥문화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과도기 문화 관문이 술문화라는 것은 청소년문화를 이끌어줄 기능을 할 곳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공부방은 다양한 청소년문화 선도기능을 통해서 청소년기의 문화가 성인문화로 이양되어 전 국민의 문화적 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성매매, 과음, 흡연 등은 기호의 범주에서 벗어났다. 성매매는 범죄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었고 과음과 흡연은 지양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이러한 성인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라하기 쉬운 시기이므로 이시기의 특징적 문화를 정책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청소년공부방이다.

나. 지역사회 문화형성의 기능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문화는 그 사회의 문화형성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지역사회의 상권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야구, 탁구, 배드민턴, 등산 등의 스포츠 문화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세대간 의사소통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카페, DVD방, 호프집을 전전하며 이루어지는 남녀의 데이트 문화도 바뀔 수 있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산업이 육성될 수도 있다.

다. 지역사회의 지원을 도출해서 청소년과 연계하는 기능

막대한 청소년의 꿈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상담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자원을 청소년과 연계하여 지원해주는 것은 청소년공부방의 또 다른 기능이다.

3. 청소년공부방 운영 현황

1) 청소년공부방의 개념

청소년공부방은 빈민계층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청소년에게 방과후에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청소년공부방이 설립된 시기는 대략 1980년대 중반으로 25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60년대 한국은 경제발전이 총력을 기울이면서 산업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현상이 가속화되어 도시외곽지역에 도시빈민층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열악한 거주환경으로 인해 학습공간이 부족했고, 이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등 교육기회로부터 소외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교단체, 민간단체, 대학생 봉사단체에서 빈민지역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면서 빈민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소년공부방은 운영주체에 따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대부분의 청소년공부방은 기초 학습지도, 음악·미술·체육·공동체놀이 등의 문화활동, 생활지도·심성훈련과 같은 정서지원활동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지적·인성적·신체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청소년공부방은 법적 근거가 없기에 법적 개념을 찾기는 어렵다.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로 초등학생을 위한 공부방과 중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공부방이 모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다가, 2004년 이후 (아동)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되었지만, 2011년 현재까지 청소년공부방은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개념에서 청소년공부방의 개념을 유추할 수는 있겠는데,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11호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되었다. 공부방은 주로 초등학생을 다루고 청소년공부방은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사회 청소년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청소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잠정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례로 1318해피존은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를 표방하고 있는데, 1318해피존은 "청소년의 생애발달주기에 맞는 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을 돕고, 자립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대상 지역아동센터"라고 규정하였다(참조: 이용교 외, 1318 Happy Zone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연구, 1318 Happy Zone사업단/한국복지교육원, 2008: 1). 현재 청소년공부방이 1318해피존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청소년공부방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른 정체성을 찾고자 할 때 1318해피존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의 보호보다는 청소년의 자립을 지향하면서,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좀 더 넓은 공간과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청소년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기존의 청소년공부방의 틀을 계속 유지하거나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고 있다(윤철경 외 6인, 2004 : 9-11).

2) 청소년공부방의 역사와 역할

저소득층 지역의 공부방은 크게 민간 공부방과 정부지원 공부방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지원 청소년공부방은 1985년도부터 1995년도 사이에 많이 설립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발전단계에 있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전환하는 시기로서 ‘공부방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암시해 준다. 그 기간에 사회운동이 반독재의 운동에서 점진적으로 민주화를 실현하는 운동으로 변했고, 도시의 저소득층은 도시생활에 쫓기는 이농민에서 도시민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광범위한 저소득층지역의 존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대가족체제에서 핵가족체제로의 변화, 저소득층 부모의 저학력과 교과과정의 변화, 주택정책 부재로 말미암아 방 한 칸 세입자의 증대,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과 문화공간의 부족, 사회문화적 병폐 등으로 인해 공부방이 확산되었다(류미희, 1994: 39).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자녀들이 유기방치되는 사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부재함에 따라 민간단체, 종교단체, 사회운동단체들이 이들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으로서 공부방을 설립·운영하게 되었다(이향란, 1996: 3).

1980년대 말부터 활발해진 공부방운동은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저소득층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현재 서울의 40여 곳을 비롯하여 전국에 150여 곳의 공부방이 있다. 이 공부방들은 몇 개의 연대-서울지역공부방연대, 가톨릭공부방연대, 부스러기선교회-로 같이 협조하고 있고, 이 3개의 연대 사이에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대부분의 민간 공부방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부방의 사정이나 재개발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도 있다.

한편, 정부지원을 받은 청소년공부방은 1989년도에 ‘청소년야간공부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공부방은 서울과 5개 광역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의 좋은 반응과 높은 호응을 얻어 1990년도에는 전국의 15개 시도에서 108개소를 운영하였고, 1996년도에는 361개소로 증가되었다가, 1999년도에는 358개소로 약간 감소하였지만 시도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청소년 공부방을 활성화시키려 노력 중 이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향을 보면 시설확보는 별도의 신규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 내 청소년단체, 종교 및 공공사회의 복지시설 등의 기존시설을 사용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 내의 기존 공부방 중 영세시설을 확대·보강하여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취한다는 것이다(문화관광부, 1999: 452).

공부방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 지역 청소년의 학습공간으로서,

둘째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상담, 셋째는 건전한 문화공간으로서, 넷째는 지역센터로서의 역할이다(이향란, 1996: 3). 즉, 공부방에서의 청소년지도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학력의 부모를 대신하여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한 때에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생활습관과 청소년의 발달과업을 이루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상담을 통해 진로문제, 교우문제, 이성문제, 장래문제 등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지적 발달과 심리사회적 발달을 도모한다. 일부 공부방에서는 급식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청소년공부방이 이렇게 청소년들의 지적, 심리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청소년공부방은 현실적으로 그 기능과 활동 면에서 많은 제약과 문제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공부방은 시설과 설비가 낙후되어 있고, 전문인력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이용교 외, 2000: 24-25).

3)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

여성가족부에서 2012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청소년공부방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부방의 기능인 지역사회 청소년 학습공간제공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2010년 368개소가 운영되었다. 이들 시설 중에서 279개소는 2011년에도 계속 운영될 예정이나, 나머지는 다른 시설로 전환하거나 폐쇄할 예정이다. 전환계획은 지역아동센터 20개소, 방과후 아카데미 등 시설전환 9개소, 사업정리 48개소, 사업중단 12개소 등이다.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II-3-1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

구분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0 실제운영	368	39	18	26	11	10	5	26	33	37	21	14	23	30	46	29
2011 지속운영	279	31	12	18	10	10	0	19	30	34	10	10	14	23	32	26
아동센터 전환	20	1					4				2		5		8	

방과후 아카데미 등 기타시설 전환	9			2				1			2		2			2
사업정리 (이용률부진)	48	6	5	6				4		2	7	2	2	7	6	1
사업중단	12	1	1		1		1	2	3	1		2				

표 II-3-2 청소년공부방 향후계획

구 분	개소수	내 용
운 영 개 소	368개소	2011.12.31일 기준 전국 368개소의 청소년공부방 운영
2011년 지속운영	279개소	전국 368개소 중 279개소 지속운영예정
지역아동센터 전환	20개소	전국 368개소 중 20개소 지역아동센터전환 파악 * 현장실사결과 12개소 2011년내 전환가능 (7개소 전환완료, 5개소 전환예정)
방과후아카데미등 기타시설전환	9개소	전국 368개소 중 9개소 기타시설 전환예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작은도서관 등 전환)
사업정리 (이용률부진)	48개소	전국 368개소 중 48개소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 부진 등으로 사업정리
사업중단	12개소	전국 368개소 중 12개소 지자체 판단에 의해서 사업중단

표 II-3-3 사업정리 및 사업중단 청소년공부방 현황

구분	계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010 실제운영	368	39	18	26	11	10	5	26	33	37	21	14	23	30	46	29
사업정리 (이용률부진)	48	6	5	6				4		2	7	2	2	7	6	1
사업중단 (지원비중단)	12	1	1	0	1	0	1	2	3	1	0	2	0	0	0	0

사업 중단	지원 중단	17	0	1	0	1	0	1	2	3	1	0	2	0	0	0	0
	수요 감소	1	1														

표 II-3-4 2011년 지속운영 청소년공부방 현황

구분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0 실제운영	368	39	18	26	11	10	5	26	33	37	21	14	23	30	46	29
2011 지속운영	279	31	12	18	10	10	0	19	30	34	10	10	14	23	32	26
지속운영	지방비 지원	240	27	7	17	9	0	19	30	32	10	7	14	22	10	26
	자구적 운영	39	4	5	1	1	0	0	0	2	0	3	0	1	22	0

사업정리대상 48개소는 지자체 판단에 의하여 청소년이용부진, 시설노후화 등 공부방으로의 기능과 효율성이 미약한 시설이고, 사업중단대상 12개소는 지자체 예산미확보 및 자구적 운영방안 미수립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이다. 2011년도에는 전국에서 279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될 예정인데, 이중 240개소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비는 지방비를 확보했고, 경남 22개소(자구적 운영)는 현재 경남도 차원에서 지방비 추가확보를 검토 중에 있다. 나머지 39개소는 자발적(후원금, 기부금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부산 4개소, 대구 5개소, 인천 1개소, 충북 2개소, 전북, 전북 3개소, 경남 22개소).

4) 현행 청소년공부방 운영기준

2010년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에 따르면 청소년공부방 유형은 학습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

‘가’형과 학습공간 제공 외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형의 공부방이 있다. ‘가’형의 공부방은 열람실(도서·정보실 등 포함) 좌석 3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사무실(상담실 겸함), 도서·정보실, 화장실, 기타 이용시설을 갖추되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66㎡(20평) 이상이어야 한다. 종사자로는 관장 1인, 관리인(행정원) 1인 이상을 두며, 자원봉사자를 두어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나’형 공부방은 열람실(도서·정보실, 프로그램실 등 포함) 좌석 수 5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사무실(상담실 겸함), 도서·정보실, 학습지도실 또는 다목적 프로그램실, 화장실, 기타 이용시설을 갖추되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132㎡(40평) 이상이어야 한다. 종사자는 관장 1인, 지도교사 1인, 관리인(행정원) 1인 이상을 두며 자원봉사자를 두어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공부방은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개장해야 하며 개폐시간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부방 운영자가 지역실정에 따라 협의하여 정하되, 변경할 경우에는 1주일 이전에 공부방 게시판 등에 공지해야 한다. 청소년공부방은 국경일과 1주일 1일 이내에서 휴무할 수 있으며 1주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하여야 하며 공부방 이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비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청소년공부방에서 견학, 야외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경우 장거리(왕복 200km 이상인 경우)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사후에 보고해야 하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여행프로그램인 경우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은 지역실정, 예산, 사업추진 상황변화, 효율성·효과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4. 주요국가의 관련정책과 입법례

청소년공부방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국외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했으나 청소년공부방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청소년공부방과 유사한 방과후 활동을 중심으로 국외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직접 관련되는 사례는 아니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지원사업이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미국

(1) 배경

미국에서는 학교교육 이외에 아동들을 위한 체계적인 학습활동 및 관련 서비스 지원이 20세기 초부터 있었다(Halpern, 2003). 그러나 1990년대까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고, YMCA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 차원에서만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활동이 진행되어 왔다(Gayl,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방과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방과후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많은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부모역할을 대신해줄 체계적인 지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아동 및 청소년의 비행활동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과 그에 따른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권두승, 2005).

한편, 미국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그 목적에 따라서 청소년 보호,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 학습기회의 연장, 그리고 보충적 심화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양계만·오승근·권두승·전명기·조대연, 2006). 학령기 청소년 보호형태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모를 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발달형태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방과후 활동은 학생들의 정규교과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습기회의 연장이나 미술, 음악, 체육과 같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충적 심화활동도 있다.

(2) 관련 법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은 1994년 21stCCCLC법안이 제출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화당의 Jeffords 의원과 Gunderson 의원이 제안한 것이었다. 이 법안은 초기에는 농촌 및 도시빈민 지역의 공립학교들에게 일정한 재정지원을 하고, 그를 통하여 이들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교육, 건강, 사회복지, 문화,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안이었다. 이 법안은 법안 성립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학교의 활동을 강화하고 문해교육 프로그램, 아동보호 및 보육서비스, 주말학교 프로그램 및 도서관 활용시간의 연장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서비스, 주말학교 프로그램 및 도서관 활용시간의 연장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연방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안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권두승, 2005).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1994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법제화되었고, 이에 따라 21stCCLC 프로그램은 초중등교육법 Title X Part 1에 규정되었다(Gayl, 2004).

그 후 미국 공교육의 질적 하락과 그로 인한 많은 학생들의 낮은 기대감, 문해능력 부족,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미국의 교육개혁이 그 당시의 화두였고, 초중등교육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2001년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법(No Child Left Behind Act: PL 107-110)'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학업부진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에 없었던 연방정부의 자원들이 지원되고 있다. 그 대신 연방정부에서는 각 주의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고 어떤 아동도 뒤처지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법에서 공교육의 책무성과 학교선택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가 바로 21stCCLC이다. NCLB법 이후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이 제안되었으나 제정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 그러나 관련 법들이 후속적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미국사회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현재 미 의회에 제안된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법으로는 Child Protection Improvement Act, Educational Success for Children and Youth Without Homes Act of 2011, Foster Care Mentoring Act of 2011, Promoting Health as Youth Skills In Classrooms And Life Act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통과여부는 미지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안의 통과여부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을 만드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3) 행정 및 지원체계

미국의 방과후 활동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초중등교육국(Offi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내의 21stCCLC가 관장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각 주에서도 방과후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서 방과후 활동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방과후 활동을 포함한 전체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많아 앞으로 방과후 활동의 전개에 장애가 될 수 있다. 2012년 미국 교육, 훈련,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이 130억 달러 혹은 전년도 예산의 15% 삭감에 대한 안이 있는 상황이고, 2011년 5월 말 현재, 미 하원에서는 2012년 예산을 원래 예상했던 1천2백4십만 달러보다 많은 1억7천5백만 달러가 삭감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 (www.afterschoolalliance.org/afterschoolsnack). 2012년 예산과 앞으로의 미국 경제의 방향에 따라 방과후

활동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정제될 수도 있다.

과거부터 21stCCLC에 지원되었던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NCLB에서 재가된 예산보다 실제 사용된 예산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 1998년-2010년까지의 21stCCLC 예산

21stCCLC의 예산		
년도	사용된 예산	NCLB에서 재가된 예산
1998	\$40 million	n/a
1999	\$200 million	n/a
2000	\$453 million	n/a
2001	\$846 million	\$1 billion
2002	\$1 billion	\$1.25 billion
2003	\$993.5 million	\$1.5 billion
2004	\$991 million	\$1.75 billion
2005	\$991 million	\$2 billion
2006	\$981 million	\$2.25 billion
2007	\$981 million	\$2.5 billion
2008	\$1,081 billion	\$2.5 billion
2009	\$1.131 billion	\$2.5 billion
2010	\$1,166 billion	\$2.5 billion

출처: afterschoolalliance.org

또한 이를 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 연방정부에서 주로 21stCCLC를 통해 배정된 예산은 평균적으로 4배 정도 증가했다. 각 주마다 배정받은 예산은 차이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을 받았고, 미국 본토만을 고려해 볼 때, 알래스카 등 15개 주는 2011년에 560만 달러 정도를 배정받아 예산을 적게 받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2 연도별 21st CCLC에서 배정한 예산

주 혹은 지역	2002년	2003년	2004년	2010년	2011년 (estimated)
Alabama	4,543,745	7,881,482	14,755,094	18,608,127	16,592,039
Alaska	1,522,706	2,755,958	4,895,445	5,714,213	5,653,883
Arizona	4,952,662	9,064,566	14,701,657	22,174,727	23,186,233
Aekansas	2,862,340	4,942,086	8,328,463	12,687,282	11,883,151

California	41,494,874	76,288,342	136,981,161	127,443,628	134,122,758
Colorado	2,772,973	4,991,702	8,359,123	12,521,432	11,808,418
Connecticut	3,030,036	5,519,420	7,932,681	8,215,229	8,674,872
Delaware	1,522,706	2,755,958	4,895,445	5,714,213	5,653,883
D.C.	1,522,706	2,755,958	4,895,445	5,714,213	5,653,883
Florida	14,502,093	25,374,175	44,526,212	53,763,147	56,090,414
Georgia	9,149,225	16,659,140	28,390,792	39,249,519	39,743,543
Hawaii	1,522,706	2,755,958	4,895,445	5,714,213	5,653,883
Idaho	1,522,706	2,755,958	4,895,445	5,714,213	5,653,883
Illinois	12,520,691	22,814,072	39,450,364	47,178,849	46,106,456
Indiana	4,565,336	8,029,653	11,933,173	19,445,503	18,854,670
Iowa	1,783,539	3,168,461	4,895,445	5,955,398	5,995,052
Kansas	2,178,601	3,849,671	7,217,565	8,062,870	7,877,318
Kentucky	4,437,307	7,885,842	13,107,695	17,626,571	17,460,237
Louisiana	6,248,838	10,271,435	21,573,621	21,624,179	22,831,362
Maine	1,522,706	2,755,958	4,895,445	5,714,213	5,563,883
Maryland	4,441,895	8,197,461	12,323,048	15,181,561	14,003,620
Massachusetts	6,359,594	12,466,045	21,553,043	18,776,307	16,514,111
Michigan	11,748,583	21,775,047	31,149,708	43,460,739	40,417,309
Minnesota	3,323,440	5,909,888	9,220,538	10,891,841	9,836,416
Mississippi	3,903,109	5,471,899	12,661,385	15,147,380	15,386,896
Missouri	4,778,758	8,345,693	16,170,044	17,327,442	18,306,451
Montana	1,522,706	2,755,958	4,895,445	5,714,213	5,653,883
Nebraska	1,522,706	2,755,958	4,895,445	5,714,213	5,653,883
Nevada	1,522,706	2,755,958	4,895,445	7,540,507	7,046,037
New Hampshire	1,522,706	2,755,958	4,895,445	5,714,213	5,653,883
New Jersey	7,400,835	13,416,916	21,275,708	21,316,871	22,811,967
New Mexico	2,381,312	4,352,272	8,793,354	9,149,515	8,653,281

New York	29,274,520	54,585,531	98,895,894	99,032,734	95,069,053
North Carolina	6,231,301	11,368,449	22,416,130	29,088,276	29,257,512
North Dakota	1,522,706	2,755,958	4,895,445	5,714,213	5,653,883
Ohio	9,763,093	17,233,223	33,295,304	42,488,301	40,590,417
Oklahoma	3,519,158	6,355,057	10,119,908	12,497,448	12,482,020
Oregon	2,710,767	4,924,809	9,522,909	10,690,879	11,264,982
Pennsylvania	11,544,215	20,419,587	35,669,414	45,050,841	44,262,277
Rhode Island	1,522,706	2,755,958	4,895,445	5,714,213	5,654,883
South Carolina	4,026,962	7,533,110	13,173,936	16,291,003	16,710,233
South Dakota	1,522,706	2,755,958	4,895,445	5,714,213	5,563,883
Tennessee	4,422,079	7,425,972	15,657,394	21,825,718	21,081,223
Texas	24,034,335	45,457,205	84,958,134	105,966,359	102,765,038
Utah	1,522,706	2,755,958	4,895,445	5,714,213	5,653,883
Vermont	1,522,706	2,755,958	4,895,445	5,714,213	5,653,883
Virginia	5,092,926	9,288,650	15,100,777	19,199,313	19,361,507
Washington	4,125,691	7,408,275	12,657,165	15,466,101	14,596,503
West Virginia	2,395,587	4,038,437	7,775,147	7,032,899	6,893,813
Wisconsin	4,410,421	7,616,657	11,490,694	16,284,913	14,031,373
Wyoming	1,522,706	2,755,958	4,895,445	5,714,213	5,653,883
Samoa	738,039	751,884	725,741	819,439	831,975
Guam	634,630	670,487	647,173	1,010,473	982,375
Mariana Islands	359,036	357,224	325,720	297,654	302,207
Puerto Rico	9,310,064	17,777,127	34,729,290	42,866,076	43,399,789
Virgin Islands	1,256,530	1,010,343	975,212	1,101,119	1,117,964
Indian	7,011,765	7,145,062	7,316,859	8,432,975	8,304,015
Other	685,458,799	432,373,315	9,990,705	11,661,660	11,538,536
Total	1,000,000,000	993,500,000	999,070,000	1,166,166,000	1,153,853,668

*출처: 권두승(2005)와 www.afterschoolalliance.org의 자료를 재구성함

(4) 21stCCLC(21세기 지역사회학습센터)

NCLB의 Title IV part B(Sec. 4201 b의 1)에 의하면, 21stCCLC는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방과 전후, 여름방학과 같은)에 학교의 정규 교과를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학습능력 향상 활동과 다양한 활동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읽기와 수학과 같은 주요 과목에 있어서 주정부와 지역사회의 학업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관’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NCLB는 21stCCLC가 모든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 교사, 컴퓨터실, 체육관, 교실과 같은 학교의 자원을 개방하는 지역사회 학습센터 모델에서 저소득, 저학력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모델로 바뀌도록 했다.

- 학생들이 주나 지역의 학업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학업향상 활동
- 다음과 같이 정규 학업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보완하도록 고안된 다양한 부가적인 서비스: 약물과 폭력 예방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음악, 미술, 여가 프로그램, 테크놀로지 교육 프로그램, 차터 교육 프로그램
- 지역사회학습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읽고 쓰는 능력과 이와 관련된 교육 개발 프로그램

21stCCLC가 제공하는 주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 제공을 포함하는 교정교육 활동과 학습 능력 신장 프로그램
- ② 수학과 과학교육 활동
- ③ 미술과 음악교육 활동
- ④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 ⑤ 개인교수 서비스(노인 자원봉사자에 의한 서비스를 포함)와 멘토링 프로그램
- ⑥ 영어능력이 제한적인 학생들을 위하여 영어와 학습능력을 강조하는 방과후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⑦ 여가활동
- ⑧ 텔레커뮤니케이션과 테크놀로지 교육 프로그램
- ⑨ 도서관 개방시간 연장
- ⑩ 부모참여와 가족의 문해능력 촉진 프로그램
- ⑪ 무단결석, 정학, 퇴학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⑫ 약물과 폭력 예방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차터교육 프로그램

21stCCLC에서는 저소득층이나 학업성취 부진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에게 방과후에 학업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로 읽기와 수학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에 집중하고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4,165개의 보조금이 있고, 1,660,713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10,466개 학교기반 및 지역사회기반 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21stCCLC는 주와 지역에서 방과후 활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방과후 활동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자원이 지원되는 것을 돕는다(www.afterschoolalliance.org).

- 전형적인 21stCCLC 수령자는 6명의 파트너를 가지게 되는데, 이들은 21stCCLC가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한다. 이 파트너에는 지역사회기반 기관, 종교 기관, YMCA나 Boys and Girls clubs, 도서관, 박물관, 건강 클리닉이나 대학과 같은 비영리단체들이 포함된다.
- 21stCCLC 보조금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도록 한다. 21stCCLC 수령자는 평균적으로 두 개의 다른 자금 지원을 받는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청, 주정부, 다른 연방정부 자금, 사적 자금이 포함된다.
-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 주 차원의 지원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39개 주에서는 Statewide Afterschool Network를 가동했다.
- 그중에서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코네티컷에서는 교육부 보조금으로 2009년과 2010년에 5백만 달러를 받아서 지역교육국과 지역사회기반 기관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사용했다. 2011년에는 지원자금이 10% 정도 삭감되어 지역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위해서 450만 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다.
 - 매사추세츠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2011년도에는 2010년보다 25% 삭감된 1백5십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 와이오밍에서는 시간확장과 여름방학 학교를 위한 자금인 Wyoming Bridges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이 2010년 980만 달러에서 2011년 1천1백6십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것으로 2011년에는 여름방학을 포함하여 일년 내내 아동을 위한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되었다.

(5) 대표적인 프로그램

①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는 전체 K-12학년 학생 중 24%인 1,653,108명이 방과후에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 모든 캘리포니아의 아동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이 아니고 19%(1,284,233)가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이 중 132,000명의 아동이 미국 교육부의 21stCCLC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36%만이 만일 방과후 프로그램이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에 있으면 등록할 것이라고 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부모의 97%는 자녀가 다니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06년 법률개정안 49의 기금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 4억2천8백만 달러가 새롭게 지원되었다. 이것으로 캘리포니아의 전체 방과후 예산은 5억5천만달러가 되었다. 여기에는 연방정부에서 21stCCLC를 통해 지원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미국 전지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많다. 특히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21stCCLC를 통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캘리포니아는 ARRA-School Improvement Grants에서 낮은 학업성취 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4억1천5백8십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ARRA-SIG 보조금은 2009년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서 2010년에 각 주에 배당되도록 한 35억불의 일부이다.

LA의 BEST(Best Educated Students for Tomorrow)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도 성공적인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BEST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청소년들, 특히 5-12세 학생들에게 학교교육의 보완 및 각종 레크리에이션 활동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이다.

-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의 제공
- 교육적 지원구조를 통합함으로써 내실을 갖춘 교육기회의 제공
- 정규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제공
-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제공
- 대인관계 기술 및 자아효능감 향상 촉진

BEST 프로그램의 핵심 활동은 BEST가 시작된 초기부터 숙제 도와주기, 읽기나 수학과 같은

핵심적인 학습기술을 향상시키는 학습활동, 재미, 영양가 있는 간식 제공이다. 이 요소들은 학생의 욕구와 지역 스태프들의 흥미와 경험에 기초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있어서 방과후 프로그램의 틀을 제공한다. 오랫동안 BEST에서는 핵심적인 프로그램 이외에 많은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www.labest.org).

- Adventures In Peacemaking: 이 프로그램은 Peaceable Program 접근을 사용해서 청소년에게 인내심과 갈등해결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읽기 활동과 집단토의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협동, 감정표현, 의사소통, 다양성과 갈등해결에 대한 수용을 강조한다.
- After School Arts Program(ASAP): 이 프로그램에는 시각미술, 음악, 무용, 드라마와 시 클래스, 예술가/교육자와 LA의 BEST 아동이 함께 작업하기가 포함된다. 10주 동안 예술가/교육자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성취와 재능을 지역사회에서 축하하는 행사를 정점으로 하면서 끝이 난다.
- BEST Fit: 이것은 영양과 신체적 피트니스에 대한 건강중심, 문화관련성, 의도적 접근이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재미와 혁신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일부분으로 만들고 학생들이 건강한 미래를 옹호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 Junior Achievement: 이 프로그램은 LA의 BEST 학생들에게 비즈니스, 경제, 직업준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치원부터 5학년 학생을 위해 재정 능력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생산적인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한 6개의 순서적인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 KidTech: 이것은 컴퓨터 기초와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8주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타입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사진을 편집하고 인터넷에서 조사하는 것을 배운다. 이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면 학생들은 새로 정비된 컴퓨터를 무료로 가지게 된다. 학생과 가족들은 또한 어떻게 컴퓨터를 셋업하고 다루고 이용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워크숍에 참석하게 된다.
- KidzLit and KidzMath: 이것은 연구기반 읽기와 수학 프로그램으로 특별히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기 위해 발달연구센터에서 개발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LA의 BEST가 학생들로 하여금 읽기와 수학을 좋아하도록 하는 것을 돕는다.
- LA's BEST Celebrate Science Program: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NASA/Jet Propulsion Laboratory의 지도하에 개발된 “팀 연구(team inquiry)” 모델에 의해 재미있고 상호적인 과학경험을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과학 축제인데,

여기에서 우승하는 팀은 부모와 함께 알라바마주의 헨츠빌에 있는 미국 우주캠프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 LA84 Foundation Sports Program: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스포츠를 통해서 긍정적인 팀 개념과 신체적 및 사회적 기술 개발 방법을 제공한다. 3-6학년 학생들은 일년 내내 스포츠에 참가하는데 여기에는 플래그 풋볼, 농구, 소프트볼, 축구시합이 포함된다. 코치들은 5주 동안 240개 이상의 팀을 훈련시킨다.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주말 토너먼트 시합이다.

② 뉴욕

뉴욕주의 K-12 학생 중 25%(779,281명)가 방과후에 홀로 남아 있다. 뉴욕주의 모든 아동도 방과후 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은 아니고 21%(644,287명)가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교육부의 21stCCLC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98,773명의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 K-12학년 학생 중, 46%(1,114,924명)이 그들의 지역사회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것이다. 뉴욕주의 83%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다. 뉴욕주의 2010년에 뉴욕주의 방과후 프로그램에는 총 8천2백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뉴욕주의 경우 일부 프로그램에는 2011년 예산이 삭감되지만, 대부분은 주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 Advantage After-School에는 2천2백5십만 달러, 청소년개발과 범죄예방에는 2천8백2십만 달러, 시간확장/폭력예방 프로그램에는 2천4백5십만 달러가 배정된다. 뉴욕주는 ARRA-School Improvement Grant(\$308million)와 Race to the Top Phase 2 awards(\$700 million)를 받았다.

1991년에 시작된 New York 시의 Beacons는 지역의 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아동과 그 가족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부모와 노인이 지역사회의 자원으로서 기능하는 프로그램이다(권두승, 2005). Beacons는 아동, 청소년, 성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기반 지역사회 센터인데, 현재 80개의 Beacons가 뉴욕 시에서 오후와 저녁, 주말, 학교휴일, 방학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읽기 및 쓰기 활동
- 튜터링
- 고등학교/대학교 준비
- 수학 클럽
- 사진

- 농구
- 체스
- 무술
- 기타: 가족관계, 부모기술 등

(6) 효과성

미국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실시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방과후 활동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도 1990년대 중반에 비해 극적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이 증가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고, 아동들이 더 많은 방과후 활동의 기회를 가지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들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요구와 욕구는 책무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특히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연방정부에서 지원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⁵⁾.

① 학문적 결과

- UCLA 평가센터가 수행한 LA's BEST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학교 출석률이 증가했다고 했다. 학생들은 또한 졸업과 대학진학에 대한 높은 야망을 보였다. 종단적 연구에서 UCLA의 연구자들은 LA's BEST 참여학생들은 전체적인 지역의 중퇴율 보다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2005).
- 텍사스 주 교육국의 연구에 의하면 21stCCLC 참여는 수업참여가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거의 절반(48%)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가을학기에 5번 이하 결석한 반면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17%만이 가을학기에 5번 이하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2009).
- 뉴욕시의 Beacon 지역센터 연구에서는 80%의 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 때문에 숙제를 마칠 수 있었다고 믿었고, 75%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좋은 성적을 받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2010).

15) 이 부분은 Afterschool Alliance(2011)의 내용을 발췌 및 요약한 것입니다.

- LA's BEST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성적과 수학, 읽기와 언어 영역의 표준화 검사에서 높은 성적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공부에 적극성을 보여주었고 독립적으로 공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2005).
- 포드햄 대학 연구팀은 YMCA의 Greater New York Virtual Y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수학성적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005).
- Mid-continent Research for Education and Learning(McREL)이 35개 방과후 프로그램을 메타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읽기와 수학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등학교의 읽기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학에서 나타난다고 했다.

최근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참가자의 학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4-3 방과후 활동이 참가자의 학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제목	연구자	년도	프로그램 기술	주요 결과
Project Exploration (Chicago, IL)	Project Exploration	2011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청소년 중, 18세 이상 259명의 약 30%에 대한 10년의 회고적 연구법. Project Exploration은 250개의 시카고 중 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85% 이상의 학생이 저소득층 흑인과 히스패닉 가정임	이 프로그램 참가자의 95%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임. 4년제 대학에 등록한 참가자의 60%가 STEM 관련 학위를 취득하려고 함. 대학졸업자의 60%가 STEM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했음
Citizen Schools (Boston, MA)	Policy Studies Associates, Inc.	2010	Citizen Schools에 8학년 때 참가했던 학생에 대한 8년간의 평가	전에 Citizen Schools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비교집단의 학생보다 2배 이상 우수 고교에 등록했음. 참여자들은 비교집단보다 우수학교에 등록하고 4년 안에 졸업하는 비율이 3배 이상임
Wisconsin 21st CCLC	Evers, T.	2010	2008-2009년에 위스콘신의 174개 21srCCLC에 참여했던 44,483명에 대한 평가	참가자의 교사들은 21stCCLC 프로그램 참가자의 68%가 수학은 40%, 언어는 42%의 향상을 보였다고 함

* 출처: Afterschool Alliance(2011: 16)

② 행동적 결과

- Promising Programs를 평가한 결과,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특히 또래에 대한 공격적 행동, 불량행동, 약물과 알콜 사용에 있어서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 (2007)
- 뉴욕 시의 Beacons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80%는 프로그램이 약물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74%의 학생들은 싸움을 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또한 85%의 Beacons 참여학생들은 Beacons에서 안전함을 느꼈다고 했다. (2002)

- 포드햄 대학 연구자들은 YMCA의 Greater New York Virtual Y 프로그램이 과제에 대한 동기, 좌절에 대한 인내심, 학습기술, 또래에 대한 사회성 기술, 주장적인 사회성 기술, 수줍음/불안에 있어서 향상을 가져왔다고 했다.(2005)

최근의 행동적 결과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4-4 방과후 활동이 참가자의 행동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제목	연구자	년도	프로그램 기술	주요 결과
Citizen Schools (Boston, MA)	Policy Studies Associates, Inc.	2010	Citizen Schools에 8학년 때 참가했던 학생에 대한 8년간의 평가	전에 Citizen Schools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비교집단의 학생보다 9,10,11학년에 다니고 있음. 참여자들은 비교집단보다 9학년에서의 정학률이 현저하게 낮음
Wisconsin 21st CCLC	Evers, T.	2010	2008-2009년에 위스콘신의 174개 21stCCLC에 참여했던 44,483명에 대한 평가	위스콘신의 교사들은 21stCCLC 참가자들의 53%가 교실에서 행동이 좋아졌다고 함. 또한 44%가 수업참여율이 향상되었고 66%가 숙제를 해오고 58%가 학습동기가 향상되었다고 함
Fort Worth After School(FWAS) Program(Worth, TX)	Witt, P.A. King, T.	2009	21st CCLC 프로그램을 포함한 84개 Fort Worth의 독립학교 교육청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FWAS에 참가했던 학생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숙제도 잘하고 새로운 활동을 배우고 학교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말썽을 적게 부린다고 함

* 출처: Afterschool Alliance(2011: 16)

(7) 시사점

미국은 방과후 활동에 대해 법적인 지원을 할 뿐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21stCCLC라는 기구를 두는 등 방과후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방과후 활동정책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받을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공부방을 포함한 방과후 활동에 관한 법이 없는 것에 비해 미국은 초중등교육법을 이은 NCLB에서 방과후 활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방과후 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것은 방과후 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방과후 활동이 일회성이나 이벤트성 정책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중 일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과후 활동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가진 방과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방과후 활동에 대한 예산은 연방정부에서 21stCCLC를 통해 집행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연방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기도 하고 각 주에서도 방과후 활동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에서는 연방정부에서 지원받은 것보다 더 많은 방과후 활동 예산을 다른 연방정부나 캘리포니아 주 자체에서 받고 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인 LA's BEST는 미국내에서도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은 방과후 활동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은 또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방자체단체의 노력과 관심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미국 전체의 방과후 활동을 관장하는 기구인 21stCCLC가 있다는 것이다. 21stCCLC는 미국 교육부 내 초중등교육과에 속해 있다. 각 주정부에서도 방과후 활동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많기는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기구는 없는 실정이다. 전문적인 기구의 존재는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통합하는 기능을 해 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 학교,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 등 여러 방과후 활동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총괄해서 관장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이들 사업의 수월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넷째, 미국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이 책무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 만큼 이러한 프로그램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효과성 검증이 실시되고 있으나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인 효과성 검증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이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질이 중요하다.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만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발달도 가능한 것이다.

여섯째, 양질의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시를 위해서는 우수한 자질을 갖춘 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교육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방과후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우수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일곱째, 21stCCLC에 의하면 미국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은 학교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센터로서 기능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으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방과후 활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방과후 활동은 담당 정부부처에 따라 학교중심이거나 지역사회의 청소년기관 혹은 사회복지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간의 연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영국

(1) 등장배경

영국은 방과후 활동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의 지지하에 Schools Plus report를 시작으로 한 일련의 방과후 학교(extended school) 계획은 방과후 학교에 대한 완전서비스(full service) 계획으로 정점을 이루었다(Cummings, Dyson, Jones, Laing, & Todd, 2010). 이와 동시에 비슷한 계획이 영국의 여러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북 아일랜드의 Extended Schools 계획, 스코틀랜드의 New(후에는 Integrated) Community Schools 계획, 웨일즈의 Community-focused Schools 계획이 그것이다.

Every Child Matters는 잉글랜드에 이러한 시도들을 위한 새로운 맥락을 만들었다. 2005년에

영국정부는 모든 아동들이 학교에서 방과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시도되는 방과후 서비스는 단순히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에 더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Every Child Matters의 핵심요소로서의 방과후 서비스일 뿐 아니라 영국정부의 21세기 학교(Twenty-First Century schools)의 비전이고, 학생과 부모에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의미한다.

(2) 관련 법

영국의 방과후 학교는 2003년 “모든 아이가 우리의 귀중한 자산(Every Child Matters)”의 핵심사업이 되면서 활성화되었다. Every Child Matters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한 영국정부의 새로운 제도적 접근방법으로, 아동의 배경이나 환경적 여건에 관계없이 19세 이하 모든 아동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영·이봉주·채재은·정익중·유경준·김정호·안수란·문혜영, 2009). 이와 비슷한 시기에 아동법(Children Act of 2004), 교육법(Education Act 2002), 아동케어법(Childcare Act of 2006)은 영국에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법적 지원을 했다. 아동법은 영국의 교육복지 개혁을 집대성하여 지자체에서의 아동서비스와 교육의 통합,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영 외, 2009). 뿐만 아니라 아동발달의 5개 목표를 법으로 제시하고 각 지자체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아동법에서 신체·정신·정서적 안녕, 보호, 교육, 훈련, 여가, 사회적 공헌, 사회·경제적 안녕을 아동발달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법에서는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시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학부모나 지자체 관계자들의 자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이영 외, 2009). 이것은 방과후 활동에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과가 학생, 가족,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아동케어법은 지자체 관계자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충분한 아동케어를 하도록 새로운 임무를 부과했다.

교육과 복지의 연계·통합은 학령전 아동(0-5세)들은 보육센터로서의 기능이 강한 Sure Start 프로그램, 그리고 학령기 아동(6-17세)들은 학교를 주축으로 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extended school 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Every Child Matters에서도 아동발달의 목표를 5가지로 제시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아동법에서도 아동발달의 목표를 5가지로 제시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4-5 Every Child Matters와 Child Act의 아동발달 목표

Every Child Matters(2003)	Child Act of 2004
건강: 신체, 정신의 건강, 성적 건강, 올바른 생활양식, 불법 약물 미투어	신체·정신·정서적 안녕
안전: 학대, 방조, 폭력, 성적 학대,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죽음, 학교 밖에서의 범죄 및 반사회적 행동으로부터의 안전	보호
즐거움과 성취: 학교교육을 받을 준비, 개인 및 사회적 발달, 여가 즐기기	교육, 훈련, 여가
사회공헌: 지역사회 내에서의 의사결정 및 지원 참여, 환경보호 참여, 법 준수 및 학교 밖에서 올바른 행동하기, 긍정적 관계 형성, 자신감 배양 및 삶에서의 의미있는 변화와 도전 이루기, 진취적 행동 계발	사회적 공헌
경제적 자립: 학교 졸업 후 추가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 직업활동 준비, 쾌적한 집과 안정적 지역에서 거주하기, 교통수단과 각종 물건 구매 가능한 생활하기, 저소득에서 벗어나기	사회·경제적 안녕

영국에서는 Every Child Matters: Change for Children programme의 일부로서 2010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핵심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출생에서 19세의 아동과 청소년의 안녕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다. 정부의 목표는 모든 아동에게 그들이 어떤 배경이나 환경에 있던지 그들이 필요한 건강, 안전, 즐거움과 성취, 사회공헌,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동과 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건강서비스, 개인적 자발적 독립적 기관, 청소년 서비스, 청소년 사법기관, 사회케어 그리고 다른 교육기관이 기관 간, 부모,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핵심은 학교가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 서비스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학교를 서비스의 장으로 개방한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핵심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 핵심서비스는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부가서비스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제공될 핵심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표 II-4-6 영국 방과후 학교의 핵심 서비스 주요 내용

항목	핵심 서비스 주요 내용
다양한 활동 참여	학기중 운영, 'Study Support'를 포함하여 여가활동, 운동, 음악, 예술, 공예, 자원봉사 활동 등을 지원
보육서비스	초등학생 대상, 년 48주 운영, 아침 8시 - 저녁 6시까지 보육서비스 제공, 예술, 스포츠 등 높은 수준의 활동
부모 양육지원 서비스	양육자에게 양육정보, 아동양육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아동의 주요 전환기에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 부모 집단활동 지원, 전문서비스 연계
전문적 서비스로의 신속한 의뢰지원 서비스	아동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신속히 대처하고 서비스 연계, Children's trust 파트너들이 팀으로 접근, 심각한 문제는 학교외부에 신속히 의뢰하여 전문적 서비스 제공
학교시설의 개방	연중무휴로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 학교개방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자체가 지원

* 출처: 이영 외(2009: 93)

(3) 행정 및 지원체계

방과후 학교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새롭게 확립되었다. 지자체의 교육부와 사회서비스부를 통합한 아동서비스부가 방과후 학교를 위해 설립되어 교육과 아동서비스의 상호 연계를 강조했다(이영 외, 2009). 또한 2003년 정부정책에 따라 방과후 학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로 The National Remodeling Team(NRT)이 구성되었는데, NRT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영 외, 2009).

영국의 실질적인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은 미국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반면 미국이 경제여파로 인해 최근 방과후 활동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비해 영국은 예산삭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폭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II-4-7 2008년-2011년 영국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예산

Extended Schools Total Funding	2008-2009	2009-2010	2010-2011	total
Start Up (through Area Based Grant)	165	172	71	408
Sustainability (through Standards Fund)	40	100	155	295
Extended Schools Subsidy (through Standard Fund)	8.5	40	167	215.5
Academic-Focused Study Support (through National Challenge and Standards Fund)	0	84	83	167
Total Extended Schools Revenue	213.5	396	476	1,085.5
Extended Schoos Capital	84	89	46	219
Total Extended Schools Revenue and Capital	297.5	485	522	1,304.5

출처: 변종임·조순옥·최종철·박현정·김인숙(2009: 75)

(4) 효과성 검증

영국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Carpenter, Peters, Oseman, Papps, Dyson, Janes, Cummings, Laing, 그리고 Todd(2010)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arpenter 등(2010)은 2009년 9월-11월 1,500학교에 대한 전화조사와 2009년 11월-2010년 2월 2,253명의 부모와 1,307명의 학생들을 조사하여 방과후 학교가 학교, 학부모,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학교의 입장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다음과 같은 여섯 영역에 있어서 향상을 가져왔다고 했다. 영국의 방과후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참여 증가(78%), 학교생활이 즐거움(82%), 자녀의 학습에 부모의 참여 증가(71%), 규칙문제나 문제행동의 감소(54%), 소외된 학생의 감소(31%), 출석률 향상(45%)이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인해 나타났다고 했다.

표 II-4-8 학교의 입장에서 본 영국의 방과후 학교의 긍정적 영향

영역	비율
학생의 학습참여 증가	74
학교생활이 즐거움	82
자녀의 학습에 부모의 참여 증가	71
규칙문제나 문제행동의 감소	54
소외된 학생의 감소	31
출석률 향상	45

출처: Carpenter 등(2010: 94).

한편, 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방과후 학교의 효과성을 학교과제에 대한 상, 일반적인 학습에 대한 즐거움, 학교 출석률, 학교에서의 행동, 언어, 의사소통, 사회성 기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3%의 학생들은 그들이 방과후 활동을 하면서부터 학교숙제에 대한 상을 받는 일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반면, 35%의 부모가 자녀가 상을 받는 것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56%의 부모와 63%의 학생들은 그들이 방과후 활동을 하면서부터 학습에 대한 즐거움이 증가했다고 했다. 대부분의 부모와 학생들은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고 나서 학교 출석률에 변화가 없다고 한 반면 26%의 학생과 14%의 부모는 출석률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68%의 부모와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26%의 부모와 27%의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행동이 많이 달라졌고 향상되었다고 했다. 부모들에게 자녀의 언어, 의사소통 혹은 사회성 기술이 방과후 활동 후 달라졌는지를 질문한 결과, 부모의 58%는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한편, 학교과제에 대한 상, 일반적인 학습에 대한 즐거움, 학교 출석률, 학교에서의 행동, 언어, 의사소통, 사회성 기술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자녀가 일주일에 2시간 미만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와 2시간 이상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따라 달랐다. 자녀가 일주일에 2시간 미만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부모보다는 2시간 이상 참여하는 부모가 자녀가 학교과제에 대한 상, 일반적인 학습에 대한 즐거움, 학교 출석률, 학교에서의 행동, 언어, 의사소통, 사회성 기술의 측면에서 향상했다고 응답했다.

표 II-4-9 부모의 입장에서 본 영국 방과후 학교의 효과성

영역	모든 부모	자녀가 일주일에 2시간 미만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부모	자녀가 일주일에 2시간 이상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부모
학교과제에 대한 상	35	27	46
일반적인 학습에 대한 즐거움	56	51	63
학교 출석률	14	11	20
학교에서의 행동	26	22	33
언어, 의사소통, 사회성 기술	58	52	66

출처: Carpenter 등(2010: 102).

학생의 경우에는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이후 다른 학생과 어울리기 74%, 가족과 어울리기 36%, 가족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기 23%증가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2시간 미만 방과후 활동에 참여한 학생보다는 2시간 이상 참여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어울리기, 가족과 어울리기, 가족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기가 증가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표 II-4-10 학생의 입장에서 본 영국 방과후 학교의 효과성

	모든 학생	일주일에 2시간 미만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일주일에 2시간 이상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다른 학생과 어울리기	74	67	80
가족과 어울리기	36	33	40
가족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기	23	22	25

출처: Carpenter 등(2010: 212).

(5) 시사점

영국은 방과후 활동에 관한 역사가 깊은 국가이다. 그동안 영국에서는 방과후 아동과 청소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가보다는 가정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으나 90년대 말 아동의 안전사고

이후 영국의 아동복지정책이 전면 재검토되고, 그 후 2003년 Every Child Matters, 2005년 Extended School과 Higher Standard, Better School for All과 같은 방과후 활동 관련 정책들이 등장했다(변종임 외, 2009). 방과후 활동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졌고, 또한 이에 관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고 현재 실시되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최근 영국의 방과후 활동관련 정책은 아동복지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방과후 활동의 전통적인 차원인 교육을 통합하여 방과후 활동의 교육과 복지라는 두 축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미국의 방과후 활동은 교육적인 측면이 강한 경향이 있는 반면, 영국의 방과후 활동은 복지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영국은 방과후 활동과 관련된 법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NCLB를 통해 방과후 활동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영국은 Every Child Matters(2003년 청서)의 핵심 사업이면서 아동법, 교육법, 아동케어법에서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미국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방과후 활동에 대한 예산을 감축한 것과는 달리, 영국에서는 방과후 활동에 대한 예산이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했다. 이것은 영국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과 복지에 가지고 있는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영국의 방과후 활동에서는 학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방과후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중심이 되도록 했다. 학교는 또한 지역사회에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영국의 사례에서는 학교가 방과후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지역사회와 연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영국의 방과후 활동에서는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핵심서비스가 있는 반면, 각 지역사회의 실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가 있다. 이것은 방과후 활동이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과후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여섯째, Every Child Matters와 아동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발달의 5가지 목표를 보면, 경제적 자립이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한다. 미국의 방과후 활동에서는 경제적 자립이 크게 다루이지 않는 반면, 영국에서는 나이가 든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안녕을 위해 경제적 자립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방과후 활동에서 경제적 자립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3) 독일¹⁶⁾

독일의 경우에도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청소년공부방에 해당하는 제도는 없다. 청소년공부방은 말이 ‘공부방’이지 실제로는 독서실과 같은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청소년공부방은 그 제도의 도입 취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이 공부할 공간이 마땅치 않을 시기에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 복지적으로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독일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는 것은 청소년공부방이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학업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마련된 교육복지적 제도라 할 수 있으므로 독일에서도 청소년들의 교육을 돕기위한 복지적 제도는 무엇이 있는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에서 소개된 미국과 영국의 ‘방과후 활동’의 사례와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와 가장 근접한 독일 사례를 찾아보려면 ‘간츠탁스슐레(Ganztagsschule)’¹⁷⁾ 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학교교육의 한 유형으로 자리를 잡은 GTS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종일학교’라 할 수 있다.¹⁸⁾ 이 제도는 하나의 교육제도이지만 새로운 유형의 학교교육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방과후 학교’와 청소년육성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 밖의 ‘방과후 아카데미’ 제도를 합쳐 놓은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GTS 제도는 결국 오전 수업에서 그쳤던 학교교육이 오후에도 교육이 연장되는 제도인데 오후의 방과후 활동들은 대체로 예술적, 체육적 활동들이 수업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수련활동과 같은 내용들이 많다. 독일의 초·중등학교는 대체로 학교 내에 예체능 과목의 활동 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예체능 과목 활동들이 우리나라의 ‘방과후 학교’처럼 학교 내에서 수업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지역사회 관련 시설들에서 수행되고 있다. 즉, 독일의 GTS 제도는 학교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이 긴밀하게 연계·협력하게 되는 좋은 교육적 사례이자 청소년육성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학교 밖 청소년활동 지원의 인프라와 연계·협력을 하는 것이 독일의 GTS 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독일의 GTS 제도에 관하여 크게 둘로 나누어 먼저는 GTS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GTS 제도를 독일에서 제일 먼저 시도한

16) 이 부분은 이민희(평택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음.

17) 독일에서는 줄여서 ‘타게스슐레(Tagesschule)’라고도 칭하고, 약칭으로 ‘GTS’ 표기한다. 필자도 아래에서 대부분의 경우 Ganztagsschule를 줄여서 GTS로 표기하고자 한다.

18) 우리말에서 ‘종일’이 아침에서 저녁까지를 의미하는 것과 같이 독일의 ‘Ganztag’ 의미도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를 의미한다.

독일 남서부의 지방정부 주(州)인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1) Ganztagschule(GTS)제도 개관

독일이 GTS 제도를 도입한 배경으로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째는 부모가 맞벌이를 할 경우 GTS 제도를 통해 자녀들이 하루 종일 돌보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독일에서는 이전부터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해서 방과 후 오후에 이들을 돌보아주는 탁아소 개념인 ‘호르트(Hort)’가 있으나 GTS는 이들을 학교의 교육과정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보다 전문적 교육받은 정규 교사나 전문가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이 PISA¹⁹⁾ 연구 결과에서 이미 GTS 제도와 같은 제도를 먼저 도입한 북유럽 국가들이나 캐나다(Canada)가 좋은 학업성취도 결과를 가지게 되면서 독일도 독일 학생들의 학업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서둘러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일의 GTS 제도 도입의 배경과 더불어 이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들을 종일토록 돌보는 데 있다. GTS는 그 동안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오후에 맡아오던 ‘Schulhort’의 또 다른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GTS는 이와 함께 점심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숙제를 도와주지 않으며, 강의시간 외에는 돌보지 않는 기존의 학교와 구별되고, 또한 저녁과 밤, 주말에도 기거하는 기숙학교와도 차별되는 새로운 제도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동시에 교육의 평등과 기회균등이라는 교육 이념을 가지고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의 형태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²⁰⁾ GTS에서는 수업시간과 자유시간이 교차되어 하나로 교육적 통합을 이루고 있다. GTS는 학생들이 수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학교(gebundene GTS)와 참여가 자유로운 개방된 학교(offene GTS)의 형태, 그리고 이의 중간 형태로 참여를 신청한 일부 학생들에만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 학교(teilgebundene GTS²¹⁾)의 형태가 있다. GTS에서 학생들은 학교 유형에 따라 보통 오후 4시~5시에 귀가하게 되어있고 때때로 늦게까지 돌보아 지기도 한다.

독일의 교육을 총괄하는 독일 ‘교육장관총회(KMK)²²⁾’에서는 2003년 10월에 ‘GTS’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GTS 제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만 적용되고, 오전 수업을

19)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약칭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 주도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를 의미한다.

20)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와 같은 제도를 일찍 실시하여 많이 확산되었다.

21) ‘GTS in Angebotsform’이라고도 칭하는데 이는 의역하면 ‘서비스 제공 형태의 GTS’를 의미한다.

22) Kultusministerkonferenz

포함하여 최소한 일주일에 3일간 매일 7시간 이상 종일 수업을 제공한 학교를 일컫는다. 이들 학교는 점심을 제공하여야 하고, 모든 교육 서비스는 학교를 통하거나 학교와 긴밀한 협력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독일의 슈뢰더(G. Schröder) 정부의 ‘미래 교육과 돌봄의 투자 프로그램(IZBB)²³⁾’의 일환으로 도입된 GTS 제도는 성공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연방감사원으로부터는 연방에 부여된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한 것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02년 총선에서 슈뢰더는 40억 €²⁴⁾를 투입해서 독일 전역에 약 10,000개의 GTS를 세우는데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방 주정부에서는 예산지원을 꺼렸다. 2005년 3월 슈뢰더는 정부 성명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정부의 예산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직접 쓰이지 않고 GTS 제도의 체제 강화에만 사용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마침내 연방정부의 연방주의 개혁은 새로운 GTS 제도의 확산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TS는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어 6,400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특히 베를린(Berlin), 부란덴부르크(Brandenburg),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브레멘(Bremen),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지방 정부는 GTS의 확산이 매우 활발하다. 이러한 GTS의 확산 이유는 앞서 서술한 PISA 연구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2011년 4월 독일의 사민당(SPD)은 아동보육의 확산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보육아동을 위한 GTS 제도의 확산에 230억 €²⁵⁾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GTS를 통해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맞서고 있다. 먼저 GTS를 통한 교육의 부정적 효과를 말하자면 부모의 교육적 영향이 학교와 또래들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유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와 함께 학생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 있으므로 해서 심리적, 신체적으로 수행능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한편, 부모나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가 약화된 것 또한 GTS 제도로부터의 부정적인 결과로 지적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품행이 좋지 않은 또래 학생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도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GTS 제도의 도입으로 얻은 긍정적인 효과는 먼저 학생들과 교사들의 협력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아침 수업에서는 교과목에 집중하여야 하지만 방과후 활동에는 개방된 교수형태로 교사와 학생 간의 편안한 교육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기존 학교의 형태에서보다 학급

23) Investitionsprogramm Zukunft Bildung und Betreuung

24) 2011년 9월 15일 현재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자면 약 6조원이 훨씬 넘는다.

25) 현재 환율의 한국 화폐로 환산하면 약 35조 3천억원에 가깝다.

학우 전체가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GTS의 장점이다. 이와 함께 GTS에서는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 계층의 학생들이 밀도 있는 공동생활을 하게 됨으로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GTS의 장점은 학생들의 욕구에 따른 시간표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즉, 오전 수업에서는 개인들의 개성에 맞는 발달에 매우 중요한 자유시간이 부족하지만, 오후 시간에는 더 많은 예술적 프로그램들과 스포츠 활동이 수행됨으로서 기존의 학교보다는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에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유시간과 수업시간이 교차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에 자주 학교 밖의 청소년 협력 파트너들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수행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서 GTS에서는 다양한 직업문화와 전문적인 협력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또 다른 프로그램 제공 기회들을 잘 배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 Ganztagschule(GTS) 제도의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지역 사례

① Rheinland-Pfalz의 현황



Rheinland-Pfalz는 독일의 16개 광역시 및 자치 주 정부 중 하나이다. 이 주의 위치는 왼쪽 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독일의 남서부에 자리하고 있고, 주의 수도는 마인츠(Mainz)이다. 인구는 2011년 현재 약 4백만 명 정도이고, 넓이는 19,853 Km²이며, 실업률은 2011년 현재 5.1%에 달하고 있다. 왼쪽의 아래 그림은 Rheinland-Pfalz 주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문장(紋章)이다. 주가 안고 있는 부채는 2010년 기준으로 306억 €에 달하고 있으며 집권 정당은 2011년 3월부터 진보적인 사회민주당(SPD)이 연합정당인 녹색당(Grüne)/연합 '90 과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② Rheinland-Pfalz 주의 Ganztagschule(GTS) 개관

Rheinland-Pfalz는 독일에서 최초로 이미 2001년에 GTS 제도를 시작한 지역이다. Rheinland-Pfalz 주는 이 GTS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수급 예산의 100%를 주 정부가 부담하는 교육적 결정을 내렸다. 주 정부는 이와 함께 시설의 건축과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들의 수요에 따른 것으로 GTS 제도의 도입을 위해 한 걸음씩 GTS를 확산해 나아갔다. 최근 주정부에서 새로이 도입한 GTS는 앞에서 설명한 '의무적 GTS' 와 '개방적

GTS'의 중간 형태의 GTS에 해당되는 'Ganztagsschule in Angebotsform'이다. 즉, 방과후 활동에의 참여를 신청한 일부 학생들에게만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 학교(teilgebundene GTS)의 형태로 이 학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일주일에 4일 동안 매일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1년 동안 자녀가 의무적으로 학교의 수업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신청하게 된다.

이 GTS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개인의 욕구와 흥미에 따라 맞춤형으로 수업이 지원되고 있다. 각 학교에는 모든 교육적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언어교육지원, 독서 지원,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 직업능력의 지원, 성별에 따른 특별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다. 무엇보다 GTS에서의 교육은 배움그룹들의 협동과 기회균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1년 현재 Rheinland-Pfalz 주에는 72개의 의무적 GTS와 305개의 개방적 GTS²⁶⁾가 있다. 가장 많은 GTS 형태로는 537개의 'GTS in Angebotsform'이 있다. 수요에 따르고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GTS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2011/2012 학기부터는 이 형태의 GTS를 확산하기로 되어 있다.

③ Ganztagsschule(GTS) 제도 도입의 배경

앞에서 이미 독일이 GTS 제도를 도입한 배경으로 설명한 맞벌이 부모 자녀 돌봄의 수요, 단순히 자녀를 위탁받는 Hort 보다 양질의 GTS를 통한 학교교육, PISA 연구 결과에서의 GTS 제도의 긍정적 기대효과는 Rheinland-Pfalz 주에서 GTS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큰 영향을 미쳤다. Rheinland-Pfalz 주에서는 2002/2003 학기부터 앞서 서술한 3가지 형태의 GTS를 도입하였다.

먼저 개방된 형태의 GTS에서는 오후에도 몇몇의 수업이 진행되고 여기에 수업외의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수행 전문인력들은 학교운영주체가 수급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를 학교운영주체의 동의와 총회 및 학부모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방적 GTS의 학교 형태로 학교를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개방적 GTS 형태로의 학교 전환과 새로 GTS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주어져 있고, 각 개별 지역사회의 주어진 형편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무적 형태의 GTS에는 오전에 수업과 다른 교육적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4일 간의 방과후 활동에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2008년 8월 1일에 최초로 81개의 GTS in Angebotsform이 시작된 이래 2011년 현재 537개로 확산되었다. 이 형태의 GTS에의 참여는 개인과 학교의 자유이다. 그러나 GTS에 신청한 후에는 최소한 1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26) 305개 중 263개는 초등학교이다.

한다. GTS에 선발되는 과정에 있어서 선발되는 학교들은 특히 교육적이고 조직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거나 지역적으로나 학교 형태적으로 균형을 고려하는 가운데에 가장 최선의 전제들을 갖춘 적합한 학교들이다. 모든 일반 학교들의 반수 이상이 2010/2011 학기에 GTS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특수한 사례는 ‘G8-인문계 GTS’인데, 이 학교는 오리엔테이션 단계부터 GTS in Angebotsform 형태의 학교로 운영되다가 7학년 단계부터는 의무적 GTS 형태로 전환되는 학교이다.

④ Ganztagschule(GTS)의 행정 및 지원 체계와 관련법

GTS 형태의 학교 설립과 의무적 GTS를 위한 관련법은 Rheinland-Pfalz 주 「학교법」²⁷⁾14조 3항에 근거하고 있다. GTS의 학교행사에 투입되는 인력(교사, 교육적 전문가, 기타 교육적 인력)의 경비는 주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수업과 계속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투입가능성과 수요에 따르고 있다. 학교들은 프로그램에 적합한 인력이라면 자원봉사 인력들도 GTS의 교육영역에 수급하였다. 다른 비용들은 「학교법」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학교법」 제75조 2항 5호에 따르면 점심식사의 준비는 학교운영주체의 몫이지만,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학교법」 제85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부모들은 “사회적 형편에 따라 적당한 수준에서” 비용부담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공동의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들은 점심비용을 연방정부의 교육 관련 재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2007 학기부터 연방정부는 Rheinland-Pfalz 학교운영자에게 생활수준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점심비용 지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GTS in Angebotsform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변경에 있어서 학년에 관계없이 몇몇의 그룹들은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학급과 학년을 뛰어 넘는 그룹의 형성도 가능하다. GTS에의 참여가 개방적이기 때문에 GTS에서도 오전 수업만하는 학생들도 허용되어 있다. 프로그램 서비스의 구조적 형태에 있어서는 공간의 설비와 기타 장소의 제한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학교구역 내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이 학교를 다녀야 한다. 학교구역의 변경은 ‘중요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고 「학교법」 제62조 2항에 따라 ‘지정’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GTS를 다니기 위해서 학교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GTS의 수용능력의 문제로 이러한 ‘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학생을 지원하는

27) Schulgesetz(SchulG)

주체도 지원이 별 효과가 없고 비용만 부담하는 경우라면 심사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지원의 비용부담자의 의견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구역의 변경이 지정을 통해서 마침내 허용된다면, 학생지원의 주체도 이에 따라야 한다. 학교운영주체는 신청에 따른 학생지원의 조직을 설명하게 된다. 이들은 미리 학생지원주체들과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학교법」 제 14조 3항에 따르면 GTS 설립의 전제는 학교의 수요에 따른 다고 되어 있다. GTS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이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신청서에 증명해야만 한다. GTS의 설립은 학교운영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역사회협회의 참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게 된다. 설립의 찬반 투표에 참여하는 지역사회협회와 교육협회에 속하는 주체들은 학교운영자, 지역 청소년청, 학교부모협의회, 학교위원회, 총회, 학생대표회의, 지역고용자협회이다. 학교 체제 내에서는 「학교법」 제40조 5항 2호에 따른 학교학부모협의회, 48조 2항 1호에 따른 학교위원회의 청문, 43조 6항 2호에 따른 지역부모협의회, 84조 5호에 따른 구역고용자협회의 성명이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GTS 설립의 결정에는 「학교법」 제27조 1항에 따른 총회, 33조 1항에 따른 학급대표회의, 「주요고용자대표법」²⁸⁾ 제69조 2항에 따른 지역고용자협회의 투표로 이루어진다. 지역부모협의회, 구역고용자협회의 성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교육청의 일이다. 기타 다른 주체들의 참여과정의 일은 학교가 맡아서 수행하게 된다.

GTS의 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유의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 학교설립의 수요는 해당하는 수요에 관한 조사결과를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
- 원하는 GTS 교육프로그램의 종류와 범위 및 구상이 설명되어야 한다.
- 학교운영주체는 어떤 방식으로 점심식사가 준비될 것인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학교의 공간 설비는 수요에 따른 GTS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설명되고, 기존의 학교시설들과 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주변 환경 내에 있는 탁아소와 청소년지원 영역을 포함해서 통보되어야 한다.
- 지역 청소년청은 지역 청소년지원계획을 토대로 신청서가 첨부된 의견을 학교운영주체에게 주어야 한다. 학교는 GTS 설립의 교육적-조직적 안을 만들 때에 청소년지원 주체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학교운영주체는 지역의 다른 학교운영주체와 학생지원주체, 학생수송조직들과 접촉해서 조율을

28) Landespersonalvertretungsgesetz(LPersVG)

수행한다. GTS의 수업의 시작과 종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일은 학생지원주체들의 양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GTS 설립을 인정받은 학교는 등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참가학생수를 제출해야만 한다. 즉, 초등학교는 36명, 중학교는 54명, 지원학교(Förderschule)²⁹⁾는 26명이 되어야 GTS 설립이 성립된다.

⑤ GTS in Angebotsform의 교육적-조직적 내용

한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내용들을 신설하는 것은 학교의 질을 높이는 의미에서 학교에게 주어진 새로운 발전의 기회이다. 학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수행한다면 매우 수요가 많은 좋은 학교 이미지를 얻게 될 것이다.

- 학교는 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목적을 확정하고 GTS를 확산한다.
- 학교는 학부모와 연령에 따른 학생들을 교육적-조직적인 구상들에 있어서 함께 만들어 가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킨다.
- 학교는 확대된 경쟁력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용한다.
- 학교는 교육적인 맞춤형 전문 인력을 통해 경쟁력을 보충한다.
- 학교는 재미있고,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GTS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사회의 학교 밖 파트너들을 얻는다.
- 학교는 GTS의 확대된 교육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공중에게 홍보하고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생단체 대부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
- 학교는 방과후 활동을 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큰 걸음으로 이해한다.
- 학교는 교육적-조직적 구상에 모든 학생들의 개별적 지원이 중심이 되도록 한다.

방과후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GTS는 특히 「학교법」 제1조 1항에 확고하게 명시된 개인적 지원에 대한 학교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개인의 특성에 따른 ‘지원’의 개념은 따라서 GTS의 교육적 이념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GTS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학교의 착안에 각 개개

29) 우리나라의 ‘특수학교’에 해당되는데 ‘Sonderschule’라고도 한다.

학생들에게 어떠한 지원이 있게 되는가와 얼마나 적합한가에 대한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별한 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수행능력이 부족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적으로 지원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이주민과 교육을 받지 못한 계층 자녀들의 언어지원, 특별히 수행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의 지원, 교육받은 경력이 부족한 대상에 대한 보충, 성별에 따른 교육적 지원 등이 지원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대상들이다.

⑥ 대표적인 프로그램

한 학교의 GTS 개념은 수업의 보충(수업시간/숙제보조), 주제를 가진 계획과 프로젝트, 지원, 여가시간 활동과 같은 구성요소들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이중 어떠한 요소도 없어서는 안 된다. 이 요소들은 가능하면 비중이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아래의 표들은 GTS를 구성하는 교육의 4대 중심 요소들로 구성된 초등학교, 중학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사례이다.

표 II-4-11 GTS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사례

수업보충	주제를 가진 계획 및 프로젝트	지원	여가시간 활동
주사위 숙제(수학)	학생 신문	인지 지원	실내외 게임
언어 게임	환경 경험	“모든 감각으로 배움”	“Leseratten(책벌레)” 게임
외국어 - 팀별	동화	싸움 - 인내	체스
작업기술(방법교수)	책만들/인쇄/삽화	긴장과 평안(집중)	합창/악기/댄스
지도수업(숙제)	학교의 문화와 모국어(“우리는 국제적”)	재능지원(창조적), 음악, 도예, 회화 등	연극/역할극
측량과 관찰(수업)	마을/시 재건 숙고, 시험, 수행	재능지원(인지적)	스포츠 팀별/수영
심화교통훈련(보행자, 자전거, 스케이터)	지역 마을/시 놀이터 점검	독일어 교수(언어코스)	제빵, 요리, 초대, 탁자 장식
컴퓨터	긴급구조(아동)	읽기, 쓰기, 셈하기 지원	작은 소품과 탐색
공룡, 로마인, 천체... (심화과정)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역사)	운동 지원	

표 II-4-12 GTS 중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사례

수업보충	주제를 가진 계획 및 프로젝트	지원	여가시간 활동
수학 - 팀별	환경	지원/상승 과정	게임
외국어 - 팀별	문화	재능 지원 (음악적 - 창조적)	휴식
자연과학- 팀별	직업선택	영재 지원	독서
박물관	학생기업(예, 카페)	읽기/쓰기 지원	음악/댄스
자전거 공장	천문학	집중 훈련	체스
가정경제 - 팀별	유대인식 장모	독일어 교수	스포츠
지도수업(숙제)/ 전공 연습	사진촬영	지원 훈련	운동 기회 / 자유 스포츠
주 계획작업, 자유작업	지학	컴퓨터 자격증	라디오 휴식
컴퓨터 기초반	우리학생들의 문화와 모국어		학교 연극/ 연기 놀이
미국의 문화사	노인 봉양 / 사회사업		
측량과 항로, 오리엔티어링	개울 대부하기		

GTS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중에는 예를 들어 학생들을 활발하게 하는 “모든 감각기관들과 함께” 라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어진 조직 개념과 시간표에 따라 자신에게 의무로 부여된 요소들을 결정하여 선택할 수 있다. 특정한 경우에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어 충분한 독일어 지식이 없을 때에, 부모들과 상의해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교사들로부터의 돌봄과 동반은 GTS의 한 요소이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GTS의 교육적 구상과 제공들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열려져 있어야 한다. GTS의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적 구상들이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은 학교수업의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학교인 지원학교의 교육적 지원에 중점을 둔 GTS 프로그램 제공 사례이다.

표 II-4-13 GTS 지원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사례

수업보충	주제를 가진 계획 및 프로젝트	지원	여가시간 활동
수업지원/숙제지원 (독립지원과 교사와 복습)	루안다- 프로젝트 (라인란트-팔즈/루안다 협력에 참가)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연령별 언어능력 신장)	학교위생서비스 (청소년적십자와 함께)
읽기 지원 (읽기에 즐거움 상승)	환경 - 팀별 활동 (학교정원과 숲을 작업장으로)	읽기/쓰기 훈련	소방작업 (청소년소방단체와 함께)
셈게임과 주사위 과제(사물계산)	에너지 탐색 (지역 에너지기업과 당국과 함께)	사회경제 훈련	연극 (등자나무 게임)
방법훈련 (자신이 선택한 내용을 목표로 하는 훈련)	니벨룽겐 - 팀별 (신화 강독과 자료 수집)	싸움 중재 (중재 입문)	육상 (지역의 연습교사와 함께)
컴퓨터 코스 (기초 이용프로그램)	민주주의 - 팀별 (민주주의 공동체에서의 생활연구)	신체 교육 (태도불량의 예방)	공 게임
인터넷 코스	사회실습 (양로원이나 병원 방문과 팀별 대화)	명상 (행동장애나 자폐아동·청소년 지원)	탁구(지역 탁구단체와 연계하여 연습 및 게임)
수영 코스	사회 게임	교통안전 코스	노래와 악기 연주
음악악기 배우기 (음악학교와 함께)	농장 배움터	테라피 제공 (학교의사와 학교심리사와 함께)	그림 그리기 (지역 예술가와 워크숍, 전시회 방문)
노동세계 일별 (지역 기업과 기관과 함께)	도시 재건	건강한 섭식	댄스 (현대식 국민춤 입문, 다양한 나라의 민속춤)

⑦ 재정 지원

GTS 교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전제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미래 학생 수의 증감 추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 지역에 필요한 건축과 투자가 있어야만 한다면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이 요청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적 도움은 건축비용(신축, 개축, 확장, 공간 증대, 공간 분배 등)에 관한 지원이거나 설비비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력 지원이 될 수 있다. 필요한

건축 투자에 대한 주 정부의 예산 원조는 지원 규정에 따라 보장되어 있는데 GTS 학교 건물에는 70%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다.

Rheinland-Pfalz의 주 「학교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자는 충분한 공간 확충과 건물의 유지, 설비투자 등에 책임이 있다. 이 법은 GTS에도 적용된다. 주 정부는 학교운영자에게 재정적 지원의 보장을 해주고 있다. 지원의 대상과 내용은 특히 GTS의 프로그램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신축, 확대, 개축, 확장 등이다. 지원 능력이 있는 단체는 설비투자회사와 투자와 관련된 서비스업체들과 같은 단체들로, 퇴직명예약사단체가 한 예이다.

재정 지원은 한 몫으로 주거나, 학교건축지침노선의 이용에 의한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GTS in Angebotsform의 설립이 확정되고 최소한의 참여 학생 수가 등록된 모든 학교는 한 몫의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50,000 €를 요청할 수 있고, 지원학교는 60,000 €, 중학교는 75,000 €를 신청할 수 있다. 요청은 학교와 학교운영자가 공동으로 한다. 현장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이 금액은 작은 공간과 설비 투자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모든 GTS 설립 학교들에는 주 정부의 추가 원조 5,000 €가 보장되어 있다. 학교가 GTS 팀별 프로그램 공간이나 음료 준비 공간 또는 PC 작업실 등의 부대 경비 예산이나 보조교사³⁰⁾ 충원에 필요할 때에 이 원조가 만기가 되면 ADD³¹⁾에 원조를 구할 수 있다. 2012년부터는 교사들의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로 1,500 €가 책정되어 있다.

GTS의 공간 수요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적용된다. 즉, 식당 외에 GTS의 외형에 맞는 몇몇의 공간들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에는 예를 들어 놀이방공간과 휴식공간이 지원되고, 중학교에는 프로그램 차별화 정책과 이에 따른 수업시간의 조직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확보에의 투입에 지원되고 있다. 식당은 반드시 학교 내에 있을 필요는 없다. 근거리에 적합한 시설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식당의 크기는 GTS 학생 1인당 0,75m²로 예상되고 좌석은 2~3번 순차적 이용이 가능하면 된다.

(3) 시사점

지금까지 위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청소년공부방과 같은 독일사례는 없다. 그러나

30) 참고로 한 교사의 GTS 주 1시간 당(LWS) 1,280 €가 지원되고, 보조교사 역할의 교육 전문인력은 1,067 €가 책정되어 있다. 초등학교 GTS 설립의 최소 학생 수는 36명으로 LWS가 26시간이 배정되어 있고, 학생 1명이 늘어나면 0,5 LWS가 추가로 할당된다. 예산의 지원에 있어서 초등학생 36~71명 까지 LWS의 비용은 3시간으로 계산이 된다.

31) Aufsichts- und Dienstleistungsdirektion의 약칭으로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의 자치행정 간의 중재역할을 하는 Rheinland-Pfalz 주 정부 관청이다.

학업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독일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과과정의 ‘무상급식’이나 고등교육에서의 ‘반값등록금’과 같은 획기적인 교육적 지원은 그 무엇보다 GTS 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육적 지원의 혜택은 이제 육아에게도 확대되어 독일정부는 보육과정에서도 35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GTS를 도입하려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처럼 독일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그 만큼 유권자인 학부모들의 GTS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독일에서 GTS 제도의 도입에 관한 효과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찬반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종단적 연구나 심층연구가 이루어져 GTS 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하여 보다 실증적인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독일의 뜨거운 논제인 GTS 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독일의 GTS 제도 도입의 배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아카데미’와 같은 제도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독일의 GTS의 도입 배경에서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이 GTS의 큰 수요라는 것이 나타난 사실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방과후 아카데미’는 GTS 도입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숙제지도나 교과목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학교 교사의 질을 따라잡을 수가 없으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향후 ‘방과후 아카데미’ 제도를 존치하고 경쟁력이 있으려면 숙제지도나 교과목 지도는 하지 않거나, 교사에 준하는 전문인력을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보다는 교과목 지도나 숙제지도는 ‘방과후 학교’에 맡기고, 청소년육성의 전문성을 살려서 제도 이름도 개칭을 하여 ‘방과후 활동’ 제도로 하면서 학교와 적극적인 연계·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운영한다면 학교로부터 많은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 동안 부진했던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며, 또한 고대했던 청소년육성의 이념을 구현하고 청소년정책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독일의 경우 GTS와 학교 밖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각종 시설, 기관, 단체들과의 연계·협력이 매우 강조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에서 우리도 향후 학교와 청소년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협력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도 양측의 연계·협력이 있어서 처음에는 늘 학교가 필요할 때에만 협력을 요청하는 소극적 자세로 임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률 상승과 이혼의 증가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의 변화를 맞아 학교나 청소년영역에서도 방과 후 이들의 자녀를 돌보는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로 청소년정책은

점차 자연스럽게 방과 후 청소년들 특히, 초등학교생들을 학교와 연계하여 돌보게 되었다. 즉, 청소년기관들은 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학교숙제를 돌봐주며, 다양한 여가활동과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독일에서 GTS 제도의 도입 이후 학교와 청소년육성 간에 긴밀한 연계협력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고 있지만 청소년육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국면은 기회인 한편 동시에 위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에 대한 우려가 독일에서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³²⁾ 이러한 우려는 먼저, 청소년영역에서의 이러한 방과 후 활동이 자칫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오해될 수 있는 지속적인 위험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방과후 학교’가 청소년육성의 주요 과업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수련활동이 학교에서도 제공되면서 청소년영역의 경쟁자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MOU를 맺어 ‘방과후 학교’에서는 교과목을 지도하고 활동 프로그램은 학교 밖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기관, 단체를 이용하도록 이분화 정책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독일에서는 학교와 연계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기관들의 정부 재정지원 상태가 악화되면서 재정적 이유로 청소년정책이 학교교육정책에 종속될 수 있는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 것도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영역에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우려할 사항이다.

넷째, 독일에서 GTS 제도에의 참여는 무상인데 반해 현재 한국에서의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아카데미’는 대부분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점차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방과후 아카데미’의 참가비용에 있어서 위기청소년이나 특별지원청소년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도 자율적 참여 형태이나 독일과 달리 참가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하므로 실제로 가정의 형편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출생률 저하, 사교육비 부담 과다, 맞벌이 부부 증가 등의 사회현상을 볼 때에 방과후 활동의 비용을 국가가 단계적으로 부담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독일에서 GTS에 따르는 비용이 향후 보육 GTS 도입까지 35조 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급식비의 경우 저소득 계층의 신청자만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해서 우리나라도 전면 무상급식보다는 전면 무상 방과후 교육 및 활동을 우선해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차원에서도 맞벌이 학부모들의 교육비

32) Sachverständigenkommission Zwölfter Kinder- und Jugendbericht(Hrsg.)(2005). Kooperationen zwischen Jugendhilfe und Schule. Band 4. München: Verlag Deutsches Jugendinstitut, pp. 70~73 참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미래사회를 내다 볼 때에 바람직하다. 또한, 학교나 청소년기관이 방과 후에 청소년들을 돌보아 준다면 출산율도 상승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조금이나마 탈피해서 다양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의 전인적인 긍정적 발달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4) 일본³³⁾

(1) 배경

일본에서는 1948년에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근거하여 가정이 아닌 아동복지 시설을 통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아동관(兒童館)」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관은 지역사회에 있어 아동들의 여가활동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불특정다수의 지역사회의 아동에 대하여 다양한 놀이를 제공하는 활동공간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1951년에는 후생성(厚生省)(현재,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 「아동후생시설운영요령」을 작성하여 아동관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아동관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1963년에 기초자치단체(市町村)가 설립한 아동관의 '설비 및 운영경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설치 및 경영주체, 기능, 설비, 직원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이후에 설치되는 아동관의 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자료에 따르면, 1965년에 아동관은 총 544개소(공영 412개소, 민영 132개소)였으며, 이후 1970년에는 1,417개소로 1990년에는 3,840개소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08년 현재 전국에 4,689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1963년부터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이 실시되었는데, 이 사업은 직업 등의 이유로 인하여 낮 시간에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1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학교 수업이 종료한 이후, 지역사회의 아동관 등을 이용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놀이와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사업이다. 2007년부터는 기존의 문부과학성이 실시하던 「지역아동교실추진사업」(2004-2006년)과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후생노동성)을 통합한 「방과후아동플랜」(방과후아동플랜추진실)을 추진하게 된다.

33) 이 부분은 강영배(대구한의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음.

(2) 관련법

방과후아동대책사업과 관련된 법률로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발달장애아지원법, 저출산 사회대책기본법, 사회복지법 등이 있으며, 이들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아동복지법

○ 제6조의2

- 이 법률에서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이라 함은 초등학교에 취한 대략 10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보호자가 직업 등으로 인해 낮 시간에 가정에 부재할 경우 정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수업 종료후 아동후생복지시설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놀이 및 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21조의8

- 지방자치단체(市町村)는 다음의 조에서 규정하는 육아지원사업에 관한 복지서비스, 기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치밀하고 세심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아동 및 보호자의 심신의 상태, 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 기타의 상황에 따라 해당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가장 적절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이에 참여하는 자의 활동의 연계 및 조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며, 기타 지역의 실정에 맞춘 체제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의9

- 지방자치단체(市町村)는 아동의 건전육성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에서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 및 육아단기지원사업, 그리고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주무부서가 정하는 바를 착실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의 실시를 위해 힘써야 한다.

- 아동 및 그 보호자 또는 기타의 자의 주택에서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
- 보육소 기타의 시설에서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
- 지역의 아동 양육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보호자로부터의 상담에 응하며, 필요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

○ 제21조의10

- 지방자치단체(市町村)는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방과후아동 건전육성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市町村) 이외의 방과후건전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자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등, 제6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힘써야 한다.

○ 제21조의11

- 지방자치단체(市町村)는 육아지원사업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해당보호자의 희망, 아동의 양육 상황, 해당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해당 보호자가 가장 적절한 육아지원사업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市町村)는 전항의 조언을 제공받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필요에 따라 육아지원사업의 이용에 관한 알선 또는 조정을 실시함과 동시에 육아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보호자의 이용 요청을 실시한다.

○ 제21조의15

- 국가, 광역자치단체(都道府縣) 및 기초자치단체(市町村) 이외에 육아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市町村)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21조의16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지원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상담 기타 적당한 지원을 하는데 힘써야 한다.

○ 제21조의17

-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육아지원사업을 행하는 자가 실시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기타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육아를 지원하며,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34조의7

- 기초자치단체(市町村), 사회복지법인 기타의 자는 사회복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과후아동 건전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9조

-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 이외에 아동자립생활지원사업 및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직원 기타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은 명령(命令)으로 정한다.

○ 제58조의6

- 아동자립생활지원사업 또는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을 행하는 자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립자는 그 사업을 실시하며 또는 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상호 연계를 도모하며,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기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나. 아동복지법시행령

○ 제1조

- 아동복지법 제6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은 이를 이용하는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생 및 안전이 확보된 설비를 갖추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적절한 놀이 및 생활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발달장애자지원법(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의 이용)

○ 제9조

- 기초자치단체(市町村)는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에 관하여 발달장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배려를 실시한다.

라. 저출산(少子化)대책기본법(보육서비스 등의 충실)

○ 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양육하는 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병아(病兒)보육, 저연령아보육, 휴일보육, 야간보육, 연장보육 및 일시보육의 충실,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 등의 확충 기타 보육 등에 관한 체제의 정비 및 보육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보육소, 유치원 기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활용에 통한 육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의 실시 기타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마. 사회복지법

○ 제2조

- 이 법률에 있어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제1종사회복지사업 및 제2종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3)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제2종사회사업이라 한다.

-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자립생활지원사업,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 또는 육아단기지원사업, 동법에서 규정하는 조산시설, 보육소, 아동후생시설 또는 아동가정지원센터를 경영하는 사업 및 아동의 복지의 증진에 관한 상담사업

(3) 행정 및 지원체계

방과후아동플랜은 문부과학성의 평생학습정책국 평생학습추진과와 후생노동성 균등·아동가정국 육성환경과에 각각 「방과후아동플랜연계추진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주요업무로는 방과후아동플랜에 관한 기획 및 입안, 방과후아동플랜에 관한 관계부서와의 연락 및 조정, 방과후아동플랜에 관한 예산의 요구, 보조금 집행에 관한 업무 그리고 방과후아동플랜에 관한 국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업의 추진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이며, 구체적으로는 교육위원회가 주관부서가 되지만,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담당부서가 주무부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지역의 행정, 학교, 사회교육, 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방과후대책사업의 실시방침, 안전관리대책, 홍보활동대책, 지도자연수의 기획, 방과후대책사업 실시후의 검증 및 평가 등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대책의 종합적인 사안에

대해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 학교, 방과후아동클럽, 사회교육, 아동복지, PTA 관계자 및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계획, 활동프로그램의 기획, 방과후대책사업실시후의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방과후대책사업의 종합적 조정역으로 코디네이터를 각 초등학교구(區)마다 배치하며, 이들은 보호자들의 참여와 학교와 관계기관, 단체 등의 연락 및 조정, 자원봉사자 등의 확보, 등록, 배치 그리고 활동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4)대표적 프로그램

①아동관(兒童館)

아동관은 아동복지법(1948년 시행)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아동후생시설의 하나로, 실내형아동후생시설을 아동관(兒童館), 실외형아동후생시설을 아동놀이공원(兒童遊園)이라 한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0세-18세)이 이용 가능하며, 2008년 현재 4,68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아동관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소형(小型)아동관으로, 이는 소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며, 정서(情操)를 풍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 아동센터로, 소형아동관의 기능에 더하여 체력 증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설비를 갖춘 시설이다. 이 가운데 대형아동센터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이용이 가능하다. 셋째, 대형(大型)아동관으로, 원칙적으로 광역 자치단체(都道府県)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표 II-4-14 아동관 설치 현황

(단위: 명)

구분	아동관(兒童館)			아동놀이공원(兒童遊園)		
	공영	민영	합계	공영	민영	합계
1990년	3,137	703	3,840	3958	145	4,103
1995년	3,275	879	4,154	3975	175	4,150
1996년	3,292	910	4,202	3978	172	4,150
1997년	3,312	955	4,267	4007	174	4,181
1998년	3,287	1,036	4,323	3984	168	4,152
1999년	3,295	1,073	4,368	3995	148	4,143
2000년	3,259	1,161	4,420	3933	174	4,107
2001년	3,255	1,322	4,577	3840	185	4,025

2002년	3,244	1,367	4,611	3799	186	3,985
2003년	3,210	1,463	4,673	3741	185	3,926
2004년	3,187	1,506	4,693	3646	181	3,827
2005년	3,200	1,516	4,716	3643	159	3,802
2006년	3,125	1,593	4,718	3477	172	3,649
2007년	3,051	1,649	4,700	3430	170	3,600
2008년	3,022	1,667	4,689	3292	163	3,455

출처: 후생노동성대신관방통계정보부 「社会福祉施設等調査」

다음으로, 아동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으로는 먼저, 영유아와 부모와의 교류 지원, 아동의 놀이 환경 및 체험 기회의 제공, 초등학생의 방과후 생활공간의 제공, 상이한 연령대의 아동간의 교류, 육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지역주민과 지역조직간의 교류와 연계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河津(2008)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아동관에 요구되는 기능으로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방과후 생활공간의 제공, 장애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교거부 청소년에 대한 대응, 아동의 적극적인 지역사회활동의 참여 지원, 아동상담소, 보건소, 보건센터 등과 교류 및 연계 등과 같은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②방과후어린이플랜(放課後子どもプラン)

방과후어린이플랜은 종래의 문부과학성이 실시하던 방과후어린이교실추진사업과 후생노동성이 실시하던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방과후아동클럽)을 일체화 및 연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위원위가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담당부서와의 연계를 통하여 초등학교구(區)를 단위로 하여 방과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 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II-4-15 방과후어린이플랜의 개요

사업내용	방과후아동교실추진사업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
담당부서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취지	아동의 안전, 안심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아동에게 공부,	수업이 종료한 이후, 보호자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아동후생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스포츠활동, 지역사회 주민과의 교류활동 기회를 제공.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심신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2004년부터 실시하던 「지역어린이교실추진사업」을 폐지하며, 신규로 본 사업을 실시	놀이와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이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함 (아동복지법 제6조제2항의 규정)				
예산액 (2007년)	68.2억엔	158.5억엔				
실시개소	10,000개소	20,000개소				
내용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어린이교실추진사업의 성과를 반영한 사업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실한 학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학습의욕이 있는 아동에 대한 학습기회의 제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코디네이터의 배치,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개설일수의 설정(25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대상일수를 200일이상에서 250일이상으로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경과조치후 지원을 폐지 ●적정수준의 인원수로의 이행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인이상의 대규모 클럽에 대해서는 3년간의 경과조치후, 지원(보조)을 폐지, 분할을 촉진 				
시설·설비 측면	●필요한 시설, 설비에 대한 비용 보조	●기존의 아동관 등에서 신규로 사업을 실시할 경우 비품구입비 등 보조(상한액 100만엔)				
활동내용	놀이	체험	교류	학습	생활	
	↑		↑		↑	
담당자	안전관리원		지역주민	학습어드바이저	전임지도원	

가. 방과후어린이교실(放課後こども教室)

이 사업은 2006년 당시 저출산(少子化)담당대신의 제안에 의해 기존의 「지역아동교실추진사업」과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7년부터이며,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이 방과후 또는 주말에 안전하게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장소 및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방과후 또는 주말 등에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놀이와 생활공간을 제공하며, 초등학교의 여유교실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프로그램을 기획, 참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동에게 제공되는 주된 활동으로는 학습, 스포츠, 문화활동, 지역주민과의 교류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공민관(公民館), 아동관(児童館) 등과 같은 지역의

시설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 사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평생학습인스트럭터, 민생위원 또는 아동위원의 경험을 지닌 코디네이터가 학교와 관계기관과의 연락조정, 인재확보, 인원배치,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보호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등 종합적인 조정역의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대학생, 퇴직교원, 사회교육단체관계자, 민간교육사업관계자, 지역주민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아동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안전관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1/3, 광역지방자치단체가 1/3, 기초광역자치단체가 1/3씩을 부담하고 있으며,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시간당 1,480엔, 학습어드바이저에게는 1,480엔, 안전관리원에게는 1,330엔의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II-4-16 방과후어린이교실 실시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고보조액	2,359백만엔	3,774백만엔	4,349백만엔	4,556백만엔	5,157백만엔
실시개소수	6,201개소	7,736개소	8,610개소	9,197개소	9,733개소
초등학교실시수	4,299개소 (69.3%)	5,592개소 (72.3%)	6,251개소 (72.6%)	6,661개소 (72.4%)	6,993개소 (71.8%)
1교실당 연간평균개최일수	117.7일	117.2일	114.8일	118.5일	118.8일
실시지방단체 단체수	851	1,011	1,053	1,060	1,075
「학습」 실시교실수	-	3,500개소 (44.2%)	4,685개소 (54.4%)	4,938개소 (53.7%)	5,078개소 (52.2%)

출처: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방과후아동플랜연계추진실 (www.houkago-plan.go.jp/news/index.html)

나.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放課後児童クラブ)

이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6조2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자가 생업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인해 낮 시간에 아동을 볼보지 못하는 취약중인 10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업종료후 아동관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놀이 및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0년 5월1일 현재 방과후아동클럽에 가입한 아동의 수는 814,439명이며, 전국에 18,479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표 II-4-17>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7,819개소이며, 민간(사회복지법인, NPO법인, 부모회 등)이 운영하는 곳이 10,660개소이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에는 방과후아동의 건강관리, 정서의 안정, 방과후아동의 안전 확보, 놀이를 통한 자주성, 사회성, 창의성 배양, 연락장을 통한 가정과의 일상적 연락 및 정보교환, 방과후아

동의 놀이활동실태의 파악, 가정 및 지역사회의 놀이 환경구축을 위한 지원 등이 있다.

이 사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단순히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놀이 기회 및 생활공간을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과후아동지도원(放課後指導指導員)」³⁴⁾을 배치하여 놀이 및 학습을 지도한다는 것이다. 연간운영일수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연간 250일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1일 평균 3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단, 부모의 장기휴가기간 등에는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업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고 방지의 관점에서 학급당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6조의2 제2항 및 아동복지법시행령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과후아동클럽에 참여하는 아동의 건전 육성에도도하기 위하여 위생 및 안전이 확보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하며, 활동내용에 따라 필요한 도구, 도서 및 아동의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카펫 등을 준비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II-4-17 방과후아동클럽수, 등록아동수 및 실시지방자치단체 현황

구분	2010년	2009년	증감
클럽수	19,946개소	18,479개소	1,467개소
등록아동수	814,439	807,857	6,582명
실시지방자치단체비율	90.3% (1,580시정촌(市町村))	89.3% (1,608시정촌(市町村))	1.0% (▲28시정촌(市町村))

출처: 厚生労働省(2011), 放課後児童健全育成事業(放課後児童クラブ)の実施状況について.

표 II-4-18 설치 및 운영주체별 클럽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0년	2009년	증감
공립공영	8,286(41.5%)	7,819(42.3%)	467
공립민영	8,350(41.9%)	7,469(40.4%)	881
사립민영	3,310(16.6%)	3,191(17.3%)	119
합계	19,946(100%)	18479(100%)	1,467

출처: 厚生労働省(2011), 放課後児童健全育成事業(放課後児童クラブ)の実施状況について.

34) 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1948년 후생성령 제63호)제38조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놀이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표 II-4-19 학년별 등록아동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10년	2009년	증감
초등1학년	286,303(35.2%)	284,742(35.2%)	1,561
초등2학년	252,512(31.0%)	254,045(31.4%)	▲ 1,533
초등3학년	189,053(23.2%)	185,772(23.0%)	3,281
초등4학년이상	86,571(10.6%)	83,298(10.4%)	3,273
합계	814,439(100%)	807,857(100%)	6,582

출처: 厚生労働省(2011), 放課後児童健全育成事業(放課後児童クラブ)の実施状況について.

표 II-4-20 실시장소별 클럽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0년	2009년	증감
학교 여유교실	5,752(28.8%)	5,294(28.6%)	458
학교내 전용시설	4,396(22.0%)	3,781(20.5%)	615
아동관, 아동센터	2,690(13.5%)	2,632(14.2%)	58
공적시설이용	1,716(8.6%)	1,684(9.1%)	32
민가, 아파트	1,221(6.1%)	1,170(6.3%)	51
보육소	985(4.9%)	967(5.2%)	18
공유지전용시설	1,298(6.5%)	1,125(6.1%)	173
사유지전용시설	889(4.5%)	812(4.4%)	77
유치원	384(2.0%)	371(2.0%)	13
단지집회실	122(0.6%)	124(0.7%)	▲ 2
상점가 빈점포	84(0.4%)	69(0.4%)	15
기타	409(2.1%)	450(2.5%)	▲ 41
합계	19,946(100%)	18,479(100%)	1,467

출처: 厚生労働省(2011), 放課後児童健全育成事業(放課後児童クラブ)の実施状況について.

표 II-4-21 초등학교에서 방과후어린이플랜 실시현황

단위: 소학교구(개소)

		방과후어린이교실			합계
		초등학교 에서 실시	초등학교 밖에서 실시	미실시	
방과후 어린이 클럽	초등학교 에서 실시	1,796 (8.2%)	430 (2.0%)	5,540 (25.3%)	7,766 (35.5%)
	초등학교 밖에서 실시	1,186 (5.4%)	741 (3.4%)	5,300 (24.2%)	7,227 (33.0%)
	미실시	1,174 (5.4%)	380 (1.7%)	5,327 (24.4%)	6,881 (31.5%)
합계		4,156 (19.0%)	1,551 (7.1%)	16,167 (73.9%)	21,874 (100.0%)

출처: 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放課後子どもプラン連携推進室(2011), 放課後子どもプラン実施状況調査について.

표 II-4-22 방과후어린이교실과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학동클럽)의 차이

구분	방과후어린이교실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
목적	아동의 안전, 안심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아동에게 공부, 스포츠활동, 지역사회 주민과의 교류활동 기회를 제공.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심신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수업이 종료한 이후, 보호자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아동후생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놀이와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이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함
개시연도	2007년 (지역아동교실사업, 2004-2006년)	1963년 (법제화, 1998년)
대상아동	주로 초등학교 (유아, 중학생도 이용 가능)	대략 10세 미만의 아동 (주로, 맞벌이 가정)
운영일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	연간 250일(월-금요일)
운영시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오후 4시, 5시까지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6시까지 운영
설치장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아동관, 초등학교, 빈 점포 등
지도원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안전관리원 등)	보육사, 교원면허 소지자 등
이용요금	기본적으로 무료	육성비와 간식비 (대략 월 5-8천엔)
소관부서	문부과학성 평생학습정책국 방과후아동플랜연계추진실	후생노동성 고용평등·아동가정국 육성환경건전육성계

출처: 東京都福祉保健局(www.fukushihoken.metro.tokyo.jp/)

(5) 시사점

지금까지 일본의 아동관 방과후아동프랜사업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성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2010년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방과후아동프랜에 관한 실태조사를 소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한국의 공부방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방과후아동프랜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방과후어린이 교실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도원 등 인재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학교교사이외에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지도 및 안전관리를 담당할 인적 자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방과후어린이교실을 운영할 공간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산의

확보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방과후어린이클럽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과후어린이클럽에 대한 홍보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아동관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과후어린이클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요구도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방과후어린이교실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아동관이나 학교의 유휴 교실을 활용하다보니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여도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장의 지도자들이 이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방과후어린이교실이 항구적 사업이 아닌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결된 이후 예산의 확보가 어려우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일본의 방과후아동플랜사업을 비롯한 방과후 아동지원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방과후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는 방과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학교와 아동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지역사회의 공민관, 시민센터, 체육관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고 하겠다. 즉, 지역사회의 아동 및 청소년시설이 상호 독립적,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경우의 독립성이 가지는 가치보다 상호 연계했을 시에 가지는 협업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차원에서는 방과후 아동 및 청소년 지원사업을 총괄하며, 중앙부처간(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등) 조정업무를 담당할 일종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방과후아동플랜연계추진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방과후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기관, 학교, 복지기관간의 연락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동 및 청소년정책이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내각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처간 조정 및 연락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여 정책적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고 하겠다.

셋째, 아동관을 비롯한 다양한 아동복지시설이 단순히 ‘보호’ 기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와 같이 방과후 아동 및 청소년이 머물 공간을 제공하는 1차적 기능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과 학습지원, 교류의 장, 체험의 장, 생활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단순히 놀이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한 타인에 대한 배려, 협업정신, 규칙 준수 등과 같은 학습적 기능을 겸비한 놀이 프로그램의 제공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어른에 대한 공경심, 타인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도덕적 가치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방과후 아동 및 청소년시설도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기준(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 제38조)에 의거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놀이를 지도할 「방과후아동지도원」을 배치하여, 그들의 놀이 및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과후아동지도원의 주된 역할로는 아동의 건강관리, 출석확인 등 안전의 확보,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놀이를 통한 아동의 자주성, 사회성, 창조성 배양, 아동이 숙제 및 자습 등 학습활동을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본적 생활습관 확립을 위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의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아동상담소 및 보건소 등과 같은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관을 비롯한 방과후 아동복지시설에 방과후아동지도원과 같은 전문가를 배치함으로써 아동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제 3 장



조사개요

1. 현장조사
2. 사례조사
3. 설문조사

제 3 장 조사개요

1. 현장조사

1) 대상과 방법

현장조사의 대상은 2010년 12월 여성가족부가 파악한 2011년도 운영예정인 전국의 청소년공부방 366개소로,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표 Ⅲ-1-1〉 참조).³⁵⁾ 여기에는 서울특별시 공부방 87개가 포함된 상태인데 서울시 공부방의 경우 국고 지원을 받는 기관은 아니지만 전국조사의 의미를 살리고 공부방 운영 현황 파악과 시사점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표 Ⅲ-1-1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 현황

(단위: 개소, 2010. 12월 현재)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66	87	31	12	18	10	10	0	19	30	34	10	10	14	23	32	26

그런데 국고지원 중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공부방 수에 변동이 발생하였다. 2010년 12월, 국회에서 공부방에 대한 국비 지원 미반영이 확정되면서 시설별로 예산의 50%가 감축됨에 따라 폐쇄 및 운영 중단을 결정하는 공부방이 생기기 시작했고³⁶⁾ 본 현장조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35) 기본적인 조사대상은 2010년까지 국고 지원을 받았던 청소년공부방으로, 지역별로 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공부방들이 별도로 더 있기도 하다.

36) 2010년 전국적으로 국고지원을 받아 운영된 공부방은 총 368개소였는데 2010년 말 국고지원 중단 확정 이후 2011년 2월 여성가족부 조사 당시는 279개소로 이미 89개소가 폐쇄 또는 운영 중단된 상태였다.

폐쇄되는 기관이 생겨나면서 현장조사 실시 준비시점의 방문대상 기관수는 355개소였다. 이후 대상기관에 전화연락을 통해 섭외하는 과정에서 폐쇄, 조사거부, 연락두절 등으로 방문 가능 기관이 줄어들어 최종 조사지와 답례품을 발송한 기관은 총 336개 기관이었다(서울 83개, 서울 이외 253개).

이후 실제 현장조사 과정에서도 기관폐쇄, 조사거부, 연락두절 등의 기관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조사에 응한 기관은 총 302개 기관이다. 현장조사 실시 현황표를 보면 <표 Ⅲ-1-2>와 같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설문지 취합이 이루어졌으므로 표에 나타난 배포, 취합 현황은 설문조사 방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표 Ⅲ-1-2 현장실사 실시 현황표

(단위: 부수)

지역	조사지 배포 ³⁷⁾	조사지 취합		미실시 기관 및 사유	
		종사자용	청소년용		
서울	83	73	281	10	조사거부 5곳 연락불가 5곳
부산	29	25	132	4	조사거부 1곳 기관폐쇄 3곳
대구	10	9	32	1	기관폐쇄 1곳
인천	17	16	64	1	연락불가 1곳
광주	9	9	69	0	.
대전	9	9	36	0	.
경기	18	16	62	2	연락불가 2곳
강원	26	22	90	4	연락불가 3곳 기관폐쇄 1곳
충북	34	32	113	2	기관폐쇄 2곳
충남	10	9	34	1	기관폐쇄 1곳
전북	6	5	17	1	기관폐쇄 1곳
전남	18	18	117	0	.
경북	21	19	77	2	연락불가 2곳
경남	17	14	52	3	조사거부 1곳 연락불가 1곳 기관폐쇄 1곳
제주	26	26	102	0	.
전체	336	302	1,278	31	조사거부 7곳 연락불가 14곳 기관폐쇄 10곳

37) 종사자용 설문지는 기관당 1부, 청소년용 설문지는 1개 기관당 4부씩 총 1,344부를 배포하였다.

현장조사의 방법은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실사위원이 직접 청소년공부방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각 지역의 아동·청소년 관련학과 교수로 구성된 실사위원은 구조화된 점검지표를 참고하여 현장을 관찰하고 종사자를 면접함으로써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사업지속성에 대해 진단하는 한편,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의 현황 부분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현장조사를 위한 추진 체계 및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실사위원 조사결과서에 대해 통계처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III-1-3 현장조사 단계별 추진 체계 및 내용

현장조사 준비	조사도구 및 평가지표 개발	4-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 회의(수시) ○ 전문가 자문(4.8, 5.18) ○ 현장 종사자 자문(5.20) ○ 현장 실사위원 자문(6.3)
	현장실사단 구성	4-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 시·도별 실사위원풀 구성(아동·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공부방이 없는 울산시 제외) ○ 총 14명 실사위원 위촉 완료
	현장실사 준비	4-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공부방 현장답사(5.17) ○ 현장실사 계획 확정(6.3)
↓			
현장조사 실시	현장실사 착수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협조공문 발송(6.13) ○ 설문지 사전발송(6.16)
	현장실사단 워크숍	6월	○ 현장조사 실사위원 대상 교육워크숍 개최(6.15)
	현장실사	6-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사위원 현장실사(6.22-7.22) ○ 실사위원 조사결과서 제출(7.29)
↓			
현장조사 결과 정리	실사결과 분석	8-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 실사결과 통계처리 ○ 현장조사 실사결과 분석
	최종보고서 작성	10월	○ 최종보고서 작성

2) 내용과 도구

현장조사의 내용은 크게 기관운영 및 시설환경 영역과 청소년 및 서비스 영역으로 나뉜다. 기관운영 및 시설환경 영역에는 인력관리, 예산관리, 시설환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청소년 및 서비스

영역에는 청소년이용과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세부적인 점검지표는 <표 Ⅲ-1-4>와 같다.

표 Ⅲ-1-4 청소년공부방 현장조사 점검지표

영역	지표항목	실사시 참고사항 기록
1. 기관운영 및 시설환경 (12개 지표)	1-1) 인력관리	
	- 관장 1인, 관리인 1인 이상 배치 · 관장이 상근할 경우 관리인은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관장 자격기준 준수여부 · 초·중등 교사자격증, 사회복지사 3급, 청소년지도사 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의 자격을 한 개 이상 가진 자	
	- 관장, 관리인 적격여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범죄경력이 있는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공부방 근무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관장, 관리인은 1일 최소 6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준수여부 (운영일지 내 기록 확인)	
	1-2) 예산관리	
	- 청소년공부방 이용료, 프로그램운영비 해당지자체와 협의사항 준수여부 · 저소득계층 청소년 무료이용 노력	
	- 지원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적절성	
	1-3) 행정 및 운영관리	
	- 청소년공부방 보고 및 구비서류 여부 · 일일업무일지, 월간사업계획서, 월간업무보고, 연간사업계획서, 분기별청소년공부방운영실적, 프로그램활동일지, 월간출석부, 도서대장, 비품대장, 문서등록대상,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비상연락망 및 응급처치동의서, 종사자근무시간표, 근무상황부	
	- 프로그램신설·변경, 공간구조 변경, 운영시간 변경 등의 사항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준수여부	
	1-4) 시설환경	
- 가형 · 열람실(도서·정보실 등 포함) 좌석수 30석 이상(1석당 1.32㎡, 열람대 넓이 가로75cm, 세로 55cm) · 열람실, 사무실, 도서·정보실, 화장실 확보여부(전용면적 66㎡ 이상)		
- 나형 · 열람실(도서·정보실, 프로그램실 등 포함) 좌석수 50석 이상(1석당 1.32㎡, 열람대 넓이 가로75cm, 세로 55cm) · 열람실, 사무실, 도서·정보실, 학습지도실 또는 다목적프로그램실, 화장실, 기타이용시설 확보여부(전용면적 132㎡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시설, 화장실 등 시설환경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은 남·녀 구분설치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적절성, 시설노후 및 청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안전관리 적절성(정기 및 수시안전점검 실시여부) · 건축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관리에관한법률 등 안전관리 준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여부 · 청소년공부방의 안전사고에 대비 · 외부 체험활동 시 여행자 보험 등 가입 		
	2-1) 청소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용률 (일일 30명 기준) · 1인이 최소 1시간 이상 이용했을 경우 이용인원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공부방 운영 시 청소년들의 참여 보장 노력 여부 · 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노력 여부 		
	2-2) 서비스 및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공부방 운영프로그램의 다양화 노력 · 학습공간제공, 학습지도활동,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활동, 지역연계활동 등 		
2. 청소년 및 서비스 (6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공부방 운영시간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개장 · 개·폐시간 해당지자체와 협의결정 · 운영시간 변경 시 1주일 이전에 공지여부 · 휴무일 준수여부 (국경일, 1주일에 1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 청소년전문가, 교육전문가 등 지역인사 5~11명으로 구성 · 공부방 주요사항 심의 (주요사업, 프로그램, 예산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 개최여부 ·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해당지자체에 보고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공부방 홍보노력 여부 · 자체 홈페이지, 지역내 학교 등 유관기관 등에 청소년공부방 적극홍보(신문, 팸플릿, 홈페이지 등) 		
합계	18개 지표		

실사위원은 점검표를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개별 공부방별로 ‘공부방 실사의견서’와 ‘지역별 종합의견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실사의견서 양식은 공부방 운영이 잘되고 있는 점, 어려움과 건의사항, 종합제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 종합의견서는 청소년공부방 발전 방안 종합의견과 우수공부방 추천란으로 구성되어 해당 지역에서 우수한 공부방을 추천하고 추천

이유를 기재하게 하였다. 한편, 실사의견서에는 현재의 운영현황 관련 내용 뿐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다른 시설로 전환의사가 있는 곳의 경우 이에 대한 컨설팅 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현장조사 시 인터뷰 질문 예시 항목은 <표 Ⅲ-1-5>와 같다.

표 Ⅲ-1-5 청소년공부방 현장조사 인터뷰 질문 예시항목

인터뷰 질문 예시 항목	실사 시 참고사항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서 귀 청소년공부방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독서실 역할 중심의 서비스 필요성) - 지역의 다른 아동·청소년 시설들과 차별화된 청소년공부방 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성은? 지역 청소년들이 공부방의 어떤 점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필요성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느끼시는지?) - 지역에 따라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독서실 기능도 필요로 하는 청소년도 있을 것 이므로 의의가 있는 부분이 있음. 독서실 기능의 공부방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대책은? (시설공간, 전문인력, 예산, 서비스와 프로그램 등) - 지역의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사업, 서비스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이 들과 연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경우) 연계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 환경변화에 따라 청소년공부방의 존재 의의 및 필요성도 변화해야 함을 느끼십 니까? 해당 지역에 공부방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1990년대 초 청소년공부방 도입 이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시설과 서비스가 증 가함. 사교육 확산, 학교의 방과후 돌봄기능 확대 등으로 청소년 이용률 저조. 저소득층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시설이 쾌적하지 않으면 이용률 저하) - 2011년 국고 지원 중단으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자구책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 중 지역에 필요한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사례들도 있음(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마을도서관(워크숍자료집 20쪽 참조) 등). 시설 전환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시설로 전환하고 싶습니까? 그 이 유는 무엇입니까? - 원하는 시설 전환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지역사회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서 기존에 있는 시설 외에 새로운 형태 의 시설모델을 고민해본다면? (해당 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필요하고 욕구에 부 응하는 시설공간 모델 아이디어가 있다면 정부에 시범적용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정책제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 청소년진로정보센터, 청소년동아리방 등(시설명은 ‘청소년꿈터’ 등 청소년 친화적으로 명명)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규모와 특성에 따라 · 인구집단 특성에 따라 - 예,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 	
---	--

2. 사례조사

1) 대상과 방법

사례조사의 대상은 현장조사 결과 선정된 우수사례이다. 선정방법은 15개 권역별 실사위원으로부터 우수사례 1개소씩 총 15개의 공부방을 추천받았다. 이를 대상으로 연구진이 실사위원 조사결과서를 검토하여 대도시 독서실중심의 운영형태, 읍면단위의 농산어촌형 자생적 거점기관 운영형태, 종교기관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형태, 도시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생적 교육공동체 중심 운영형태 등 5개의 형태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우수한 대표기관 1개씩을 선정하였다.

사례조사의 방법은 공부방 및 지역사회 현장답사와 종사자 면접조사를 통해 공부방 및 공부방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사례조사를 위한 면접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지원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의 담당공무원과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사례조사 결과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고, 인터뷰 내용을 본문에 제시하였다.

2) 내용과 도구

사례조사의 내용은 각 청소년공부방의 운영 특성과 공부방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 및 지역사회 중심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조사도구는 현장조사 및 종사자 설문조사의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와 국비지원 중단 이후의 애로사항, 국고중단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2012년의 운영방향 등으로 구성하였다.

3. 설문조사

1) 대상과 방법

설문조사의 대상은 청소년공부방 종사자와 이용청소년이다. 현장조사 대상인 청소년공부방에서 각 1명의 조사자와 4명의 이용청소년을 표집하였다. 표본 배분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3-1 설문조사 대상 표본 배분

(단위: 명)

조사 대상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종사자	366	87	31	12	18	10	10	0	19	30	34	10	10	14	23	32	26
청소년	1464	348	124	48	72	40	40	0	76	120	136	40	40	56	92	128	104

그러나 본 장의 1절 현장조사 방법에서 설명했듯이 폐지 또는 조사거부 공부방이 계속 발생하면서 현장조사 실시 준비시점의 방문대상 기관수는 355개소였고 이후 대상기관에 전화연락을 통해 섭외하는 과정에서 폐쇄, 조사거부, 연락두절 등으로 방문 가능 기관이 더 줄어들어 최종 조사지와 답례품을 발송한 기관은 총 336개 기관이었다(서울 83개, 서울 이외 253개). 이에 따라 종사자용 설문지는 336부 배포, 청소년용 설문지는 기관당 4부씩 총 1,344부 배포되었다(〈표 III-1-2〉 참조).

이후 현장조사 과정에서도 기관폐쇄, 조사거부, 연락두절 등의 기관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조사에 응한 기관은 총 302개 기관이었다. 실사위원이 방문 회수한 종사자용 설문지는 302부였으며, 청소년용은 1,278부로 1개 기관 당 4.23부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종사자용 302부, 청소년용은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264부이다.

6월 10일 공문과 설문지 발송일 기준으로 본다면 종사자용은 336부, 청소년용은 1,344부 배포하여 각각 302부, 1,278부 회수하였으므로 회수율은 종사자용 89.9%, 청소년용은 95.1% 회수율을 보이는데, 실사위원이 방문하여 회수하는 형태로 진행하였고 배포 이후 기관 폐쇄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기관수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이들 자료에 대해 SPSS/WIN(ver.12.0)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했다. 자료분석은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전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을 실시했고, 독립변인별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crosstabulation)을 실시했다.

한 가지 제한점은 청소년용 설문지의 경우 실사위원 방문 전에 공부방에서 조사를 완료해 놓도록 하고 실사위원이 회수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는데, 청소년 설문조사를 공부방에서 담당하게 할 경우 응답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공부방 상황이 열악하여 운영 시간이 짧거나 상근직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담당자 면담 일정 맞추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로 시험기간 방과 후에 만날 수 있는 청소년이용자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연구 여건의 제약이 있었다.

2) 내용과 도구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다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영역은 청소년공부방의 운영현황에 관한 문항이다. 여기에서는 기관개요, 시설 및 설비, 인력, 예산, 청소년 이용현황, 운영시간 등의 현황을 질문하였다.

둘째 영역은 청소년공부방의 기능 및 프로그램에 관한 문항이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기능, 역할, 프로그램 등의 현황과 의견을 질문하였다.

셋째 영역은 응답자의 만족도 및 욕구에 관한 문항이다. 여기에서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만족도 및 운영상의 어려움, 지원 및 개선에 대한 욕구, 시설전환의 의사 등을 질문하였다.

넷째 영역은 공부방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문항이다.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의 어려움, 협력현황, 청소년공부방의 인지도 등을 질문하였다.

다섯째 영역은 응답자에 관한 일반적인 문항이다. 종사자의 경우는 성별, 연령, 재직기간, 직위를 질문하였고, 청소년의 경우는 성별, 교급, 계열, 경제수준, 학교성적을 질문하였다.

청소년공부방 종사자 및 이용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의 내용과 조사표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3-2 설문조사의 내용과 조사표 구성

조사영역	조사문항	조사표 구성	
		종사자	청소년
운영현황	기관개요	○	
	시설·설비	○	
	인력	○	
	예산	○	
	청소년 이용현황	○	○
	운영시간	○	
기능 및 프로그램	기능	○	
	역할	○	
	프로그램	○	
만족도 및 욕구	만족도	○	○
	어려움	○	○
	욕구	○	○
	시설전환 의사	○	
지역사회 협력	협력의 어려움	○	
	협력현황	○	○
	인지도	○	

제 4 장

청소년공부방 실태조사 결과분석

1. 청소년공부방 현장조사 결과분석
2. 청소년공부방 사례조사 결과분석
3. 청소년공부방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4.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분석

제 4 장 청소년공부방 실태조사 결과분석

1. 청소년공부방 현장조사 결과분석³⁸⁾

1) 개요

현장조사 결과는 14명의 아동·청소년 전문가(교수)가 전국 15개 시·도 302개 공부방을 방문하여 시설·공간과 환경을 둘러보고 담당자 면접을 실시한 결과이다(302는 일부 조사거부 및 연락두절 기관을 제외한 최종 방문기관 수). 이는 1989년 공부방 사업이 시작된 이래 22년 만에 처음 실시하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장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로는 알아내기 어려운 공부방의 실태와 담당자의 솔직한 생각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시설·설비 현황과 입지·환경 여건 등에 대한 직접 확인도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고 중단 이후 공부방 존폐 논란 가운데 해당 공부방의 정체성 모색과 개선 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하는 성격으로 진행하여 담당자들이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의 실태와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의 현장조사 결과에 제시된 내용은 14명의 실사위원들이 제출한 지역별 종합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실사위원들이 방문한 기관에 대해 기관별 실사의견서를 작성한 내용은 별책 보고서(「청소년 공부방 현황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 현황보고서는 전국 302개 공부방에 대한 기관별 조사결과를 담은 것으로, 자치단체의 청소년공부방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지역 공부방 현황 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각 공부방은 해당 기관에 대한 컨설팅 내용을 참고하여 기관 발전 방안 모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별로 추천한 우수공부방 분석을 통해 공부방 운영의 우수성 요소를 추출해 보고자 하였으며, 우수사례들 중 유형별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몇 가지 제한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조사가 행정적 구속력을 갖는 시설평가가

38) 302개 공부방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조사 결과는 별권보고서인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제시한 인력, 예산, 이용률 등 운영실태 관련 정보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를 요청할 수 없어 담당자의 구두 답변에 대한 정보의 신뢰도 확인 절차를 거칠 수는 없었다(일부 운영이 잘되고 있는 시설은 자발적으로 증빙 서류나 문서들을 비치해 놓기도 함).

둘째, 현장 방문 전에 면담대상으로 가급적 기관 현황을 잘 아는 관장이나 책임자급이 응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단순 관리자나 자원봉사자들이 면담에 응한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제공된 정보나 의견의 정확도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셋째, 일부 공부방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은 실사위원 개인의 의견으로 이 내용들은 본 연구의 종합분석 대상으로 검토되었다.

2) 현장조사 결과

(1) 부산광역시 청소년공부방

부산지역에 남아있는 25개 청소년공부방은 전반적으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존재하고 학습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 그 존재가치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세 가지 모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가장 숫자가 많은 저소득 밀집지역 공부방이다. 이 경우, 학습지원, 체험활동, 특기적성교육, 정서적 지원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채용과 전문기관에의 위탁 그리고 시설 보강이 요구된다. 두 번째는 농어촌 모형으로 주변의 다른 아동·청소년시설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도 첫 번째와 유사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중형 이상의 대단위아파트 밀집지역에 작은 도서관과 공부방이 병존하는 형태로서 법령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대형 교회나 노인회 또는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선교 및 다른 프로그램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같은 건물 내 혹은 인근에 지역아동센터 및 시립도서관이 존재하고 있어 폐쇄 혹은 지원 중단이 요구되나 민선지자체장의 역량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지자체 및 법령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이용률이 저조하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센터에서 이미 폐쇄 및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공부방은 지자체에서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며,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한 공부방의 경우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수공부방으로는 칠암청소년공부방 및 신나는 청소년공부방을 추천한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공부방은 가장 흔한 모형이지만 칠암청소년공부방은 농어촌형 모형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곳이고, 신나는청소년공부방은 대단위 아파트지역 공부방 모형의 전형적인 형태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대구광역시 청소년공부방

대구지역의 청소년 공부방이 위치해 있는 곳은 대부분 빈곤지역으로 학교 이외의 갈 곳 없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 삭감으로 최소한의 공부방 운영비 이외에는 예산을 운용할 수 없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부분의 공부방이 학습공간 제공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건물에 위치한 공부방의 경우 시설이 낙후되어 청소년의 공부환경으로 적절하지 못해 보수가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공부방 인력 중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여 전문인력 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수공부방으로는 대현2동 다솜청소년공부방을 추천한다. 이 공부방은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높고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화관람, 문화체험활동 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원 모금 활동도 활발한 편이다. 인근 대학교와의 연계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조가 좋으며, 구비서류 등의 행정체계가 잘 되어있다.

(3) 인천광역시

인천지역의 청소년공부방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공동체 내 자립지원 학습지도 강화 모델로서, 청소년공부방의 초대 모델일 수 있는 빈곤지역 야학형태이다. 특히 동구지역은 지역아동센터와의 차별화된 청소년 공부방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 교육 및 지도에 있어서의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있었다. 둘째, 도서관 운영 형태의 모델로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 및 정보제공 기능이 추가 되는 모델이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독후감 쓰기, 다독상 등으로 청소년 대상을 고려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주거지역 내 이용시설 모델로서 주로 빈곤지역 아파트 내 주민을 위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시설이다. 이 곳은 신간도서 제공, 독서실 기능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별다른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부재한 상태에서 조손가족이나 맞벌이 가정을 위한 부분적인 돌봄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인력, 행정 및 운영, 시설·환경 등 세부 영역별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력 측면이다. 무엇보다 관장과 지도교사를 포함하여 90만원의 인건비는 열악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공부방 운영인력이 보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 사기진작 워크숍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행정 및 운영측면이다. 인천지역에는 특징적으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 많았다. 행정서류들을 거의 잘 구비하고 있으나 예산처리에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신고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어서 오히려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아동센터처럼 행정업무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지침이나 이에 대한 처우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시설·환경 부분이다. 공부방은 주로 저소득층 지역에서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정적으로 중요도나 관심이 낮다보니 시설 입지에 있어서도 다소 외지고, 시설이 낙후된 건물에 많이 위치해 있으며, 1층보다 2, 3층에 주로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고층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청소년을 위한 상해보험이나 외부 체험활동 시 필요한 여행자 보험 등에 많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용 청소년들의 건강과 청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적극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장조사 시점이 여름철이었는데 곰팡이가 피거나 눅눅한 곳이 많아 위생부분이 많이 염려되었다. 대부분의 공부방에서 운영 및 지도인력이 청소까지 담당하고 있어 공부방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면접과정에서 접한 운영자들의 목소리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가 공부방 사업을 포기하니 현장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학습지원 기능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학원을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존재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연령 때문에 지역 내 5~6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중학생 연령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나름의 교육 철학과 이념, 소신, 사명을 가지고 공부방 사업을 지속하려는데 국가가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의욕마저 꺾이게 한다. 이 지역에서 자란 아이가 다시 이 지역에 와서 자기와 같은 아이를 자라날 수 있게 할 것이다.....”

인천지역 우수공부방으로는 기차길옆청소년공부방을 추천한다. 지역사회 공동체가 아이들을 키워내고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 다시 자신이 자란 터인 그 지역사회에서 후배들의 학습을 지원한다는 운영자의 철학이 공부방 소기의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공부방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청소년과 교육에 관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아이들에게 학습지도를 통한 자신감 향상 뿐 아니라 다양한 자치적 문화활동을 통해 상급 청소년이 후배들에게 자신이 배웠던 것들을 전수해 주고 있었다. 운영진과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되어 공연발표회를 함으로써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청소년들이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으로서 갖춰나가야 할 인성을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건축 관련 인력 등 연계 자원을 잘 동원하여 청소년공부방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안락한 공간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설 자립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4) 광주광역시

청소년학습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공부방들은 대부분 학습지원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부방(독서실 혹은 열람실)기능이 없거나 약하므로 시설 명칭을 재검토하거나 학습공간 제공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부모의 참여를 이끌어 내거나, 학생이나 가족의 다른 문제나 복지욕구 발견하여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데 좋은 entry프로그램 역할을 하므로 존속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국고보조금의 부활 및 인상이 필요하다.

우수공부방으로는 월곡 1동 청소년공부방을 추천한다. 이 지역은 동장이 공부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담당자들 또한 헌신적인 자세로 열의를 갖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 결과 어려운 지역여건(상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5) 대전광역시

대전지역 실사대상 공부방은 동구 제3, 중구 산성, 부사, 서구 제1, 서구 제3, 서구 제4, 유성구 전민동, 구즉동, 대덕구 대화 등 총 9곳이었다. 구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전 동구의 경우 예산 문제로 공부방 수가 축소된 상황이며, 제3 공부방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남은 제3 공부방은 주공아파트 내 인구밀집 지역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공부방에 대한 운영자의 열정과 비전이 확고하였다. 대전 동구의 경우 경제·사회적 정황상 어느 지역보다 공부방이 필요하므로, 공부방 예산 및 설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 중구는 부사와 산성 공부방 2개를 운영하고 있다. 부사 공부방의 경우 산성 고지대 주택 밀집지역과 3개의 중학교, 3개의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고 시설이 쾌적한 편이다. 산성공부방은 청소년들의 방과후 학습지원과 인성 함양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설을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청소년 수와 주민의 호응이 좋은 것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 서구의 경우 공부방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려는 구청의 의지가 강한 편이다. 제1 공부방은 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3 공부방은 새마을금고 건물에 위치하여 여러 가지 좋은 지원환경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으나, 공부방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모색이 필요하다. 제4 공부방은 공간과 시설, 설비를 잘 갖추었으나, 운영자 및 관리자의 전문성과 업무이해력의 부재로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운영관리체계의 전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전민동과 구즉동 공부방 2개소가 운영 중이다. 전민동 공부방의 경우,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선호도와 활용도가 매우 높고 공부방 재정자립을 위한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공부방 입실료를 받고 자립도를 높이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취약계층 학습공간 지원이라는 공부방의 취지와는 배치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구즉동은 양호한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 대덕구에는 대화공부방 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인구 밀집지역으로 대덕구에서는 비교적 낙후된 지역에 위치하여 존재의 필요성이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시설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므로 인근 대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청소년의 건전 문화공간으로 발전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전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공부방으로는 산성청소년공부방을 추천한다. 이 공부방은 청소년들의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방과후 학습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고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6) 경기도

경기도의 경우 열람실 중심의 공부방은 이용자 수가 적절한 경우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도 무방하나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램 중심의 공부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용자 수가 적은 일부 시설은 폐쇄하고, 지역아동센터나 기타 시설로 전환을 원하는 공부방은 지원을 통하여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수공부방으로는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 청소년공부방을 추천한다. 이 공부방에서는 대표자와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수원시청으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열람실 기능보다는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7) 강원도

강원도는 대도시와 거의 유사한 도시지역이 있는 반면에 극심한 원거리의 농산어촌이 혼재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지역의 실정과 기준에 농산어촌 공부방을 맞추어야 했다.

도시지역은 타 도시지역의 기준을 적용해도 현실 가능한 대안이 있으나 농산어촌에서는 공부방이 마을에서 유일한 여가, 문화, 복지 시설인 경우가 많으므로 효과성이 낮은 이유(이용자 감소 등)때문에 획일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지역 여건과 정서 상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일정 지역을 권역으로 묶어서 거점기관이 강사파견,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 관리 등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아동센터 광역지원단에서 개별 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는 형태 참고).

또한 중단된 국고 지원분에 대해서는 우선 강원도에서 지원하여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조건 지원 중단보다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및 공부방 특성에 맞는 효과성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공부방으로는 청일공부방(횡성고른기회배움터)을 추천한다. 이 공부방은 거점센터를 두고 여러 지역을 공동 운영 및 관리하는 모델이 농산어촌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금 외에도 지역주민의 자생적 노력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자발적 형태이다. 또한 열람실이나 학습지도 위주의 소극적 운영 형태가 아니라 지역 특성에 기반한 생태체험, 문화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8) 충청북도

충북지역은 34개 공부방 중 2개소가 폐지되어 32개소를 현장 조사하였다. 충주시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공부방을 육성·운영하여 전체 9개소가 운영 중인데, 충북도 전체의 28.1%로 공부방 운영 수가 많아 향후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충주시 이외의 지역은 평균 2~3개소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공부방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설로서 기능하고 있다(도서관, 지역주민 공부방 등).

충북지역 공부방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유지를 위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권유이다. 여타 시설로의 전환이 어려운 곳이 많아 자치단체 차원의 운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시·군의회와 논의하여 조례제정을 통해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운영이 부실하여 시간을 두고 폐쇄해야 할 곳도 있지만, 대체로 청소년 관련 지역사회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운영 근거 마련이 급선무라 판단된다.

둘째, '지역사회 공부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청소년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다양한 목적(취업, 시험, 승진, 도서대여 등)으로 이용하는 곳이 많아 이용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사회주민 전체로 개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관리인(행정원)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관리인(행정원)이 대부분 자원봉사자 신분의 처우를 받고 있어 근무의욕이 매우 떨어져 있다. 그동안의 운영에서도 현장 종사자의 불만이 매우 높아 공부방 운영의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었다고 판단된다. 8시간 근무하지만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급여수준이 10여년 가까이 월 50만 원 선에 그치고 장기근속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어 자긍심을 가진 종사자가 없었다. 공부방이 지속 운영될 경우 근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넷째,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관심이 높거나(영동 황간),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충주 중흥S클래스, 제천 의림, 충주 엄정)나 공공기관 부설(청주 산남, 충주 연수 등)로 이루어진 곳, 운영위원회의 관심과 참여(충주 용산, 진천 광혜원)가 높은 곳은 비교적 공부방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역사회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지역 특성 상 청소년공부방이 유일한 청소년 공간으로 역할하고 있는 곳의 경우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농촌 지역의 경우 청소년공부방이 유일한 청소년 공간인 곳이 많았다(단양군, 괴산군, 청원군, 진천군, 음성군, 옥천군, 영동군 등). 시설 전환이 어려운 열악한 곳이 많아 현행 유지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습공간과 휴게공간을 모두 갖추고 있는 청소년 카페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대부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소수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 중인데,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청소년 관련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휴게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을 함께 두어 아이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공부방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제안해 본다.

일곱째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의 청소년공부방 일부 이양이다. 학교에서 시행되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일부를 청소년공부방으로 일부 이양하여 공부방에서도 공부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학교 교사의 관심이다. 학교 교사들이 공부방에서 학습지도와 같은 자원봉사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자원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공부방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이 없어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학교 선생님이 공부방을 직접 방문하여 아이들을 지도하는 곳도 있었는데 학습지도 뿐 아니라 생활지도, 공부방 이용에 대한 학생동려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충북지역의 우수공부방으로는 중소도시형과 농촌형 각각 1개씩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먼저, 중소도시형으로는 중흥S클래스 청소년공부방(충북 충주시)을 추천한다. 이 공부방은 '나' 형 시설로 지역사회 주민 중심의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프로그램(작은 영화관, 독서기록장, 퍼즐, 생활과학교실, 영어기초문법, 종이접기 등) 운영이 활발하다. 시설 환경으로 열람실 외에 멀티미디어실을 갖추고 있어 영화상영 등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한 지역주민 교육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주변 여건(상가, 학원 등)이 좋아 공부방 이용인원이 많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위치해 있어 휘트니스센터 - 공부방 - 상가 건물이 함께 위치해 있다. 아파트 주민 이외에 지역 내 아이들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 환경, 운영자의 의지,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지지 등이 고루 확보되어 모범적인 사례로 판단된다.

농촌형 우수공부방으로는 황간청소년공부방(충북 영동군)을 추천한다. 황간면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여타의 아동·청소년시설이 전무하여 공부방이 유일한 청소년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위치가 학교 가는 길목이고 학원 주변이어서 이용 아동이 많다. 공부하는 아이들,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 책을 빌리러 오는 아이들(7,500권 정도의 도서 보유) 등 다양하다. 충북 지역 내 공부방 중 유일하게 사회보험을 가입한 상근직원을 두어 책임감을 강화하고 있으며, 근무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임금은 월 50만 원 수준).

시험기간에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주민 스스로 공부방 이용청소년을 배려하면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하는 청소년의 부모님들이 공부방 운영에 참여하면서 공부방이 주민참여 공간이 되고 있기도 하다(주민단합 유도).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은 관리인이 담당하지만, 행정적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담당자가 모두 처리해 주면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업무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9) 충청남도

충남지역 공부방이 소재해 있는 네 개 군별로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기군의 실사대상 공부방은 연동, 전의 신흥5리 이상 3개의 시설이었다. 연기군의 경우 연동공부방은 실질적으로 폐쇄된 상황임에도 군청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공부방 관리관청의 관리·감독체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개 시설의 경우 공부방의 위치 및 당위성은 확인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전의공부방은 연로한

관리자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바, 조금 더 의욕과 활동성이 있는 연령의 관리자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산시의 실사대상은 온주, 삼일 청소년공부방이었다. 양 시설 모두 청소년지원 시설이 열악한 인구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존재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 시설 공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온주공부방의 경우 개방시간 6시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공간적 특성과 규모로 볼 때 양 시설 모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전환이 가능한 시설로 평가된다.

보령시의 실사 대상은 천북, 천수암, 대동, 웅천 총 4개 공부방이다. 4개 시설은 각자가 고유한 지역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데, 천북공부방과 웅천공부방은 농어촌, 천수암공부방은 도심 시내 아파트 단지, 대동공부방은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4개 공부방 모두 양호한 수준의 운영실태로 평가된다. 천북공부방의 경우 청소년 지원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에 위치하여 높은 활용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수탁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고 위·수탁관계에서의 공공성이 모호하다. 대동공부방과 웅천공부방은 운영자의 열정과 비전이 돋보였으며, 천수암공부방은 안정된 관리가 돋보였다. 웅천공부방의 경우 시설과 규모로 볼 때,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변환하여도 무방할 듯하나,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의 실사 대상은 서산공부방 1곳이었다. 시내초입, 시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존재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부방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수공부방으로는 아산 삼일청소년공부방을 추천한다. 이 공부방은 모범적인 시설과 공간, 설비, 다양한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높은 참여도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전라북도

현장조사 결과 저소득층 서민 밀집지역의 공부방들은 단순히 독서실 기능에 머무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소중한 공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고지원의 중단은 지자체의 자체예산 중단을 위한 좋은 구실을 주기 때문에 의미있는 공부방들의 존속을 위해 국고지원이 부활될 필요가 있다.

우수공부방으로는 변산청소년공부방을 추천한다. 이 공부방은 농촌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설립자의 헌신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청소년들의 높은 호응도가 나타나고 있다.

(11) 전라남도

전남지역의 공부방은 일부 도시권역에 속해 있는 몇 개를 제외하면 농어촌과 섬지역에서 유일한 청소년 공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내에 학습을 위한 학원이나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도 전무한 공간에서 공부방은 청소년들이 모이는 소통의 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청소년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들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농어촌과 섬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소외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은 작은 공간이지만, 멀티서비스(학업, 문화, 예술, 상담 등)를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갈 공간을 만드는 개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토탈 멀티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문화의집보다는 작은 시설이지만, 학습의 공간도 가미한 ‘작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제안해 본다.

우수공부방으로는 죽곡청소년공부방을 추천한다. 이 공부방은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고 문화예술을 통한 청소년 지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 정부 예산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 운영형태 등에서 우수성을 찾을 수 있다.

그 외에 학습의 효율적 지원 면에서 유달동청소년공부방을,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면에서 순천 KYC청소년공부방과 유당동청소년공부방을, 문화예술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면에서 대덕청소년 공부방 또한 우수공부방으로 추천할 만하다.

(12) 경상북도

경북지역의 공부방이 위치해 있는 곳은 대체로 지역사회 내에서는 빈곤지역이며, 학교 이외에는 갈 곳 없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과 문화공간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고지원 중단으로 운영예산이 삭감되어 현재 예산으로는 공부방의 최소 기본운영비 이외에는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공부방 운영자들은 대부분 학습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건물의 경우 청소년의 공부환경으로 적절하지 못해 개보수가 시급하며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부방 운영자 중 청소년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며, 다른 한편으로 전문적인 운영을 하기에도 업무의 특성과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공부방으로는 구룡포읍청소년공부방을 추천한다. 이 공부방은 20여 년 전에 뜻있는 지역주민들의 의지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자체적인 모금을 통해 2층 현대식 자체건물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과 공부방에 대한 열의가 뛰어나며 공부방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활동이 모범적이다(청소년공부방 운영비 후원 등). 운영재정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위원들의 모금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학습 공간이자 지역 내 유일한 도서관 역할과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되며,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청소년공부방, 문화공간, 프로그램 운영 우수기관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13) 경상남도

농촌지역의 경우 청소년 관련시설이 부족하므로 청소년공부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공부방이 존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직선제를 통한 단체장 선출방식의 영향으로 지자체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지속적 지원과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요구된다.

현장조사 방식과 관련하여 1인의 실사위원이 같은 권역 내의 광역시와 읍·면지역을 같이 방문·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해 본다.

우수공부방으로는 도토리과 친구들 공부방을 추천한다. 운영자들이 매우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이 전무한 소외지역에서 개인의 재산을 헌납하여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부방을 체계적이고 교육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4)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공부방의 설립기관/설립자와 운영기관, 운영형태(직영, 위탁)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공부방에 지원되는 운영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운영인력(관장 및 관리인)의 봉사를 요구하고 있는 바 지속적 근무와 공부방의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운영인력에 대한 별도의 예산지원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공부방 관계자와의 정보교류와 청소년 관련시설 및 사업 등에 대한 자원연계 및 협력방법 등 교육과 정보공유를 위한 지역내 네트워크(연합회)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공부방으로서 최소한의 학습환경이 구비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학습공간으로서의 기능과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강사료의 경우 정부의 지원시스템

을 갖출 필요가 있다.

우수공부방으로는 성화청소년공부방을 추천한다. 공부방 시설환경이 잘 정리·정돈되어 있으며, 환경이 매우 쾌적하다. 교육용 컴퓨터 32대를 마을주민회로부터 지원받을 정도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공부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장이 직접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5) 서울특별시

서울지역의 경우 공부방의 수가 많아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현장실사위원 방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A지역은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등 4개구, B지역은 강남, 송파, 강동, 노원, 성북, 중랑, 광진, 성동, 동대문 등 9개구, C지역은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중구 등 8개구이다.

① 서울A :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4개구

서울A 지역 총 29개 청소년공부방은 크게 세 가지 운영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영등포구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독서실을 제외한 14개 독서실을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법인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개 독서실(신대방1동, 우면산)은 위탁단체 교체과정에 있어 현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공부방의 설립취지가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라 현재에도 설립목적에 준하여 청소년들이 긴요하게 이용하고 있어 시설 전환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공부방이야말로 복지사회 구현 중 중요한 교육복지이므로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시설의 전환을 피하기 보다는 오히려 낙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환경을 개선하거나,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통해서 적극 지원을 확대해야할 대상이라 판단된다.

서울지역은 애초부터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고 지원 중단이 여파가 크지 않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바, 어렵게 공부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곧 한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정책이므로 정부는 공부방 예산삭감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서울A 지역의 경우 청소년 이용률이 높지 않은 평일에는 성인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자기개발을 위해 공부하는 국민을 확보하는 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보고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수공부방으로는 봉천청소년독서실을 추천한다. 봉천동은 예전부터 달동네로 잘 알려진 저소득가

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청소년독서실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는 지역이다. 1994년 4층 단독 건물로 지어져 오래되었지만 열람석이 327석이고, 이용률이 매우 높아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여, 3개의 학습방(study room)을 갖추고 학습, 논술, 독서, 미술, 영어 등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휴게실, 문고, 식당, 매점 등의 서비스가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제공되고 있어 기관운영상의 효율성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② 서울B : 강남, 송파, 강동, 노원, 성북, 중랑, 광진, 성동, 동문 9개구

현장실사한 대부분의 공부방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고 일부는 연봉제 도입하거나 관장 호봉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시설은 공부방보다는 ‘독서실’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들은 조례를 통해 인력, 급여, 복리후생 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잘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자원봉사자 활용 및 파트너십 형성 등 지역연계가 매우 중요하며 프로그램 중심으로 공부방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면접과정에서 “좌석 수보다는 규모에 따라 직원을 배치했으면 한다, 공부방 운영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각지대(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공부방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연계·공유해야 하는데 공부방이 배제되어 있다, 공부방에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구청별로 지원정도, 관심, 담당부서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원 부족으로 인한 운영관리 어려움, 예산 활용에 융통성이 없어 나타나는 어려움, 운영관리 시 과거에 책정된 예산에서 거의 변화가 없고 예산이 인상되지 않아 운영·관리비가 부족한 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부방의 경우 시설 보강이 시급한 곳도 있었으며, 대부분의 공부방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관장의 의지와 열정이 공부방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공부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부방 서비스 전달체계가 통일될 필요가 있으며, 현 상황에서 공부방은 큰 변화가 필요하고 직원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하겠다.

우수공부방으로는 강남구립 일원 청소년독서실을 추천한다. 이 공부방은 상근 직원이 많고(10명),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3명이 있어 인력여건이 우수하다.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멘토링 사업을 강조하며,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여 MLST 학습전략검사와 Holland 진로발달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10명으로 구성). 공부방에 다량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부방 자체 안내책자와 프로그램 소개지를 제작·구비하고 있다. 운영 책임자의 전문성, 마인드,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③ 서울C :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중구 8개구

서울C 지역 29개 기관 중 방문 실사한 24개 기관의 실무자 의견과 실사내용에 기반하여 공부방 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부방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곳은 전무했는데, 이의 설치·운영이 서비스 개선에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탁법인이나 관리감독 기관의 리더십(leadership)이나 지원 정도(모법인의 사업경험과 신뢰도,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해도, 실무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등)에 따라 청소년공부방의 기능이나 서비스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기능전환, 기능다각화, 통합시도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부방의 원 설립취지에 부합하면서 저소득 취약청소년을 잘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 대비 상당히 낮은 비율이라 판단되고, 예외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특성들은 1) 운영법인, 기관장, 실무자들이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2) 지역자원을 연계하거나 자원조직을 활용하여 부족한 물리적 지원을 극복하거나, 3) 공적 영역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고, 4) 지역과 이용자의 욕구를 헤아리고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기관들로 판단된다. 향후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와 같은 특성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지도와 컨설팅이 필요할 것이다.

상당수 기관의 실무자들은 단순 학습공간 제공의 독서실과 청소년공부방의 설립취지에 대한 인식조차 부재하고, 이용자의 욕구보다는 제공자 중심의 사고를 지향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든지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은 꼭 필요하다.

독서실 포함 공부방 실무자들의 근무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전환되더라도 이에 대한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

독서실을 겸한 다수의 시설은 일반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청소년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이러한 점은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예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 시 이용 주민의 민원이나 저항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했던 24개 기관 중 청소년수련/문화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이 가능(물리적 측면과 접근성 등)하거나 전환 시 잘 기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기관은 아주 소수로 판단되므로, 기능전환이나 사업통합을 고려 할 때 선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근린에 공·사적 유사 서비스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의 경쟁력이나 차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어 이런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이므로 지역 내 서비스 조정이나 통합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전반적으로 공부방이 지역특성과 이용자 욕구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라운드워크(groundwork : 자원 제공, 교육·훈련, 지도·감독, 체계적 평가 등)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기능전환, 기능다각화, 사업통합 시에도 동일하게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우수공부방으로는 신사청소년공부방(은평구)을 추천한다. 부족한 공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개발과 활용, 서비스 조정 등 공부방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열악한 지원에도 서비스 제공 실무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조해 온 점이 우수하며, 실무자의 헌신과 사명감으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이 충분히 드러나는 기관으로 판단된다.

3)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현장조사 결과, 많은 공부방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도까지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공적 지원 예산규모는 1개 기관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 수준으로 상근직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데 2011년 국고지원 중단으로 이마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재정적 어려움은 운영인력의 양적 부족과 전문성 부족, 낙후되고 불결한 시설·환경, 안전 관련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상황 노출, 학습공간 제공이라는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 다양한 프로그램 부재 등의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다. 많은 기관들은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직원 처우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둘째, 2011년 국고 지원 중단은 지역 공부방 존폐 논란을 불러왔고 실제 많은 공부방들의 운영이

중단되었다. 2010년 전국적으로 국고지원을 받아 운영된 공부방은 총 368개소였는데 2010년 말 국고지원 중단 확정 이후 2011년 2월 여성가족부 조사 당시는 279개소로 이미 89개소가 폐쇄 또는 운영 중단된 상태였다. 본 현장조사가 시작된 6월에는 폐쇄된 기관이 10여개 더 늘어나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지역 수요가 높지 않고 열악한 여건에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해 오던 가장 어려운 공부방들이 먼저 운영 중단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많은 공부방들이 열악한 상황임을 생각할 때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부방들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현장 공부방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22년 역사를 가진 청소년 시설의 향방에 대해 지역별로 진지한 진단을 통해 단계적 시설 해소 또는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내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 청소년과 주민의 필요와 요구가 큰 공부방의 경우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현장 실사 결과이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거주 지역 중 다른 아동·청소년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 작고 열악한 공부방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유일한 학습·문화·정보 공간이라는 것이다.

넷째, 면접 결과, 공부방 담당자들은 대부분 학습공간 제공과 학습지원 기능 중심인 현재 상태로 시설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다른 시설로의 전환을 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학습공간 제공이라는 공부방의 초기 기능이 여전히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기능이거나 둘째, 시설 전환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높은 시설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유도 있겠으며, 셋째는 다소 소극적이고 타성에 젖은 태도로 공부방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려는 관심이나 열의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현재 공부방은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있고 운영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물리적 여건의 문제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소프트웨어와 인적 자원의 한계, 적극적인 자체 노력의 부족 문제도 있어 보인다. 면접 결과 공부방에 대한 이해나 청소년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마인드가 없이 단순 관리만 하는 공부방도 많고 전문 자격증을 갖춘 지도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시설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우수공부방으로 추천된 시설의 경우 가장 어려운 예산 부분도 보완을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이는 등 여러 방면으로 공부방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곳도 있는 만큼 공공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자체 진단과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부방 사업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후원 확대를 위한 설득과 모금 작업도 운영 개선에 어느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대부분의 공부방이 열람실 중심으로 학습공간 제공이나 학습지원 기능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상담·정서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었다. 또한 시설 기능에 있어, 성인 이용률이 높은 공부방이 있는 지역의 경우 청소년 이용이 많지 않은 시간에는 지역 주민 등 성인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설로 기능하는 것에 실사위원들은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공부방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지역별로 논의과정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담당자들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그동안 발전을 저해한 요인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공지하는 ‘청소년사업 안내서’에 공부방 운영지침이 실린 것이 전부였으며 이 또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시설·인적 기준이나 운영위원회 설치 조항, 안전관리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법정 시설이 아니라는 점은 공부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국고 지원이 중단되어 공부방 운영이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지역 수준에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공부방 관련 조례 제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여덟째, 실사위원이 우수공부방으로 추천한 공부방들의 우수성 요소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관장의 의지,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 이해도, 헌신성과 사명감, 실무자 교육, 운영단체의 청소년 관련 전문성,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 지역자원 개발과 연계·활용, 이용자 욕구 파악과 적절한 대응, 지역 내 전문 자원봉사 인력 활용,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공적 영역과 연계, 후원 모금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자체 노력, 학습공간 제공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역 청소년과 주민의 높은 이용률 등이 그것이다.

(2) 시사점

첫째, 현장조사 결과,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공부방의 존재 의의 및 가치와 필요성이 다를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지원 중단으로 공부방 사업이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지역별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자구책 마련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도 단위에서 지역 공부방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자, 이용청소년과 주민,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부방의 입지와 시설·환경, 운영현황, 이용률, 주변의 다른 아동·청소년 시설 인프라 현황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각 공부방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나 청소년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공부방의 실태 진단과 향후 비전 모색을 위한 논의를 시도하고 컨설팅을 받는 것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별로 정기적인 공부방 점검(평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공부방의 존재 가치와 활성화 정도, 운영자 의지 등에 따라 존재 여부를 분류하고 선별적·단계적 정리를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기본적인 청소년 전문인력 배치나 최소한의 쾌적한 시설 공간 마련이 안된 공부방도 별다른 관리없이 유지되다 보니 이용률도 떨어지고 청소년시설로서 유의미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부실한 시설을 선별해 내고 기본적인 질적 수준을 담보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시설은 단계적으로 운영중단을 유도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기능 유지 또는 시설 전환 등 공부방의 기능 또한 지역 특성과 요구에 따라 재정립 모색이 가능하다. 학습공간 제공 기능, 학습 지원과 지도 기능,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상담·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도서·정보 제공 기능 등 공부방 기능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해 지역단위 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학습 공간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열람실을 제공해 주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도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넷째, 공부방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는 턱없이 적은 편이며 운영 관련 법적 근거나 지침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공부방을 법정 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청소년분야 시설자원으로 존속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본적인 질적 관리를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하는 방안, 지역단위에서는 공부방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설 전환 시 대상으로 논의되는 것들로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문화의집, 작은 도서관 등이 있다. 이들은 법정 시설이거나 예산 지원규모가 안정적이라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부방은 해당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설 전환이 쉬운 것은 아니다. 현장조사 결과,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볼 때, 청소년수련시설 기능에 대한 선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설립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요가 높고 이용대상에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2학년이 많이 분포된 경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분원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작은 청소년문화의 집’ 개념으로 시설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기존 공부방이 전환 운영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대한 아이디어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여섯째, 현재 공부방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확대가 관건이다. 현장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국고지원 부활을 건의했다시피 현재 공부방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치단체 예산 배분방식에서 시·도와 시·군·구 매칭 시·군·구 부담률이 늘어나는 추세도 지역단위에서 공부방 예산 마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공부방이 청소년 시설의 하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방과후아카데미나 수련시설 지도자 수준으로 맞춰져야 할 것이다. 우선은 국고 지원 부활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실적인 차선택으로 프로그램 수요가 많은 곳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분원 지정 및 예산 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에서 취약계층 대상 학습공간 제공이라는 나름의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존재의의가 확인되었으나 이 또한 지역별 편차가 있으므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파악하여 단계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명실상부한 청소년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와 쾌적한 시설·공간 마련을 위해 엄격하게 질적 관리를 하여 청소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부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차선택으로 초등 및 중등학생의 프로그램 수요가 많은 지역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분원으로 지정·운영하여 해당 사업 수준의 지원을 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 청소년공부방 사례조사 결과분석

1) 개요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의 5개 청소년공부방과 해당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조사대상기관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청소년공부방 중에서 대도시 독서실중심의 운영형태, 읍면단위의 농산어촌형 자생적 거점기관 운영형태, 종교기관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형태, 도시민민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생적 교육공동체 중심 운영형태 등 5개의 형태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대표기관을 1개씩 선정하였다.³⁹⁾ 그리고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지원과 관리업무

39) 선정된 공부방은 각 유형을 대표하는 우수사례이기 때문에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의 담당공무원과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주요내용은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와 국비지원 중단 이후의 애로사항, 국고중단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2012년의 운영방향 등이었으며, 사례조사 대상 공부방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I-2-1 사례조사 대상 공부방의 일반적 특성

사례 번호	공부방 명칭	지역	운영주체	관할 지자체
1	일원 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강남구청
2	구룡포 청소년공부방	포항시	구룡포읍민도서관	포항시청
3	죽곡 청소년공부방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군 농민회 죽곡지회	곡성군청
4	기차길옆 청소년공부방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공동체	동구청
5	송죽동 청소년공부방	수원시	로댐교회	수원시청

2) 사례조사 결과

(1) 강남구립 일원청소년독서실

가. 운영현황

강남구립 일원청소년독서실은 1989년 11월 10일에 강남구청에서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사)한국청소년세상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립 청소년공부방 시설이다. 대청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비교적 양호하게 면학환경을 갖춘 공부방과 도서열람 및 대출을 할 수 있는 도서자료실, 인터넷 정보자료실,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근인력은 10명이며, 이중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3명이고, 관리(행정)직 7명과 자원봉사자 25인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일원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열린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독서실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제 1순위는 면학분위기 조성에 두고 있으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독서실로서의 기능을 중심에 두고 있다. 독서실 수용정원은 400명이며, 이용인원은 연간 약 10만명 정도로 매일 약 250명~300명정도이다. 그리고 이중에서 청소년 이용자와 지역주민 이용자의 비율은 6:4정도 이다.

일원청소년독서실의 주요 프로그램은 시기별로 학기중 프로그램과 방학중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편성·운영되고 있다. 학기중 프로그램으로는 리에블로 멘토링(청소년/ 무료), 점프셈 수학교실(초등 3학년과 5학년/ 월 3만원), 책으로 마음읽기(초등 4, 5, 6학년 대상/ 3개월당 6만원), 미리가본 대학(매 분기별/ 회당 1만원)등이 운영되고 있다. 방학중 프로그램으로는 한문예절교실(초등 학생/ 무료), 야외체험학습(청소년/ 회당 1만원), 테마체험학습(청소년/ 회당 1만 5천원), 영어로멘토링(초등 4, 5, 6학년/ 무료), 내마음속 심리학(청소년/ 월 6회 4만원), 재미술술이야기교실(초등 1, 2, 3학년/ 무료), 자서전쓰기(초등 4, 5, 6학년/ 2개월 4만원)등 활동·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책읽는 엄마학교(무료), 행복한 영어교실(무료), 한국화교실(월 2만원), 한점미술관(무료)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독서실 기능을 제1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열람실이 빈 시간이나 오전, 혹은 한가할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이용자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비율이 약 7:3정도 이다.



나. 국비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의 애로사항과 향후과제

2010년의 경우 운영예산은 총 653,948,357원이었으며, 국비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예산은 모두 지방비에 의해 충당되었다. 이중 서울시 지원은 6,900,000원, 강남구청 지원은 271,921,850원

으로 강남구청의 지원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기능보강비로 375,126,507원이 지원되었다. 그리고 2011년의 경우에도 국비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울시 지원은 2010년과 동일하게 6,900,000원이 지원되었고, 강남구청에서는 2010년 대비 지원예산을 상향조정하여 319,158,450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일원청소년독서실의 경우 강남구청의 지원비가 운영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된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기능 보강비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원청소년독서실의 경우에는 구립시설로서 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강남구청에서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보충하는 형태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비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운영관리 차원에서 과거에 책정된 예산과 대비해서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관리 차원에서의 어려움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맡은바 소임과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왔기 때문에 국비지원 중단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국비지원이 중단되면 청소년공부방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립과 관련해서도 청소년공부방에게 자립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을 관장이나 운영주체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저희는 국고가 중단되었지만 이전에 크게 받은 게 없어서 어려움은 별로 없어요. 강남구의 특수성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강남구 아니냐는 소리도 듣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괜찮은 방향으로 많이 나갈 수 있는 데,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 많은 데, 큰 덩어리로 움직이지 않아도요. 무상급식 이런 걸 떠나서 담당자가 조금만 배려만 해주면 시설에서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각 시설이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기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까지 잘라서 사회복지라 할 수 있는지... 더 급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쪽으로... 이게 큰 사업들도 아니고... 하지만 교육쪽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고, 왜 잘랐는지 모르겠고. 이런 건 더 활성화 시

켜야 하는데. 왜냐면 우리처럼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말로만 사회복지라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자르면 사회복지의 근본이 뭐냐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규모가 큰 곳도 아니고,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청소년 쪽에서는 사각지대이고요. 너희는 강남이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소리 때문에 나서지도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중단된 것에 대해 강남구에서도 담당자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담당자들은 의식이 좀 있어서 국고가 끊어졌어도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산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예산인데, 나라에서 주는 돈이야 지자체에서 할 것이냐, 일반 법인체에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과연 국가에서 책임질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답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고요..(다른기관의 사정을 듣고보니) 귀족이 되어버렸네요. 강남에서는 제일 기타시설에, 열악하다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다른 데는 별별 일이 많고, 관장이 돈을 벌어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가 그냥 방치를 하는 거죠. 국가가 책임질 것이지, 이것을 운영하는 관장이나 운영 주체들에게 전가 시켜서는 안 되죠. 당신 그거 잘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준 건데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다른 공부방과는 달리 지원도 있고, 아주 어려운 형편이 아니라서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고 구청에 감사해야 할 상황인데... 나서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바라는점이 있다면 청소년 분야에도, 국가에도, 모든 분야에도 사각지대가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책 결정을 할 때 위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쪽에서 보는 것 보다 우리 공부방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소중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작은 만큼의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행동할 마음도 있고요.

강남구청 담당자의 경우에도 국비중단 이후 지자체에서 가장 힘들었던 애로사항으로는 예산부족을 들었으며,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2012년의 경우 예산이 줄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청소년독서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 전적으로 일임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국비예산이 지원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지금까지 매칭펀드 형태로 이루어져왔으며, 국비지원이 중단되면 지자체의 예산도 근거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일단 돈이 부족한거죠. 사업이든 뭐든 일단 돈이 없으면 머뭇거리고 확대를 못하니깐요..사실 저희 구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힘들거든요.. 일단 돈이 없어서 힘든 상황이에요. 구비는 줄고, 해야 할 사업들은 많고, 주민들의 기대치가 많기 때문에 수준이 높는데, 예산을 오히려 많이 가져가면 저희가 그에 반해서 각각의 사업별로는 굉장히 가난한 상태거든요..그렇게 따지면..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강남이라고 해서 더 많은 지원을...지금 현재는 강남이 강남답지 않게 사업을 하는 상황이에요..오히려 있던 사업은 막 없애고, 해야만 하는 사업들은 줄이고..

내년에 저희는 독서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죠. 당연히.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좀 더 줄어서 들어갈 것 같아요..인건비가 축소되어서 보통 10%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독서실은 있어야만 하고, 시설이 있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인건비에서는 어쨌든 줄여서라도 운영을 해야 하니까 하는 거는 하지만, 어떻게든 줄여야 되니까..사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손을 많이 댔거든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같은 경우에는요..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일단은 저희 자치구만이 아니라 국비도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구요. 일단 보조금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환경이 좋아지면 일단 신경을 쓰게 되니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설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항상 돈이 문제지요. 항상 위로 올라가면 예산이, 보조금이 얼마나 이렇게 되니까요..

(2) 포항 구룡포청소년공부방

가. 운영현황

구룡포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설립한 구룡포읍민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구룡포는 도농통합으로 인해 포항시로 통합되었지만 전형적인 어촌오지마을이다. 따라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공간과 문화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때문에 구룡포읍 주민들은 지역내 청소년들에게 학습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이나 교양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986년에 지역청소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비를 모으고 기부금을 조성하여 자체적으로 현대식 2층 건물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룡포 청소년공부방이 위치한 지역은 어촌오지 지역으로서 대체적으로 지역사회내에서 빈곤지역이며, 학교이외에 갈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과 문화공간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공부방에는 90석의 열람석이 있으며, 운영인력으로는 관장 1명과 지도교사 및 관리교사 등 총 3명이 운영하고 있다. 이중 관장은 무보수 자원봉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도교사와 관리교사 2명은 공부방 운영지원비에서 인건비(년간 총 1,000만원)를 지원받고 있으나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구룡포 청소년공부방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독서문화캠프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7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동안 책과 친근해질 수 있도록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단위프로그램들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나 소질을 발견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 탐사, 역사기행, 학습강좌, 체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구룡포 청소년공부방은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자발적 노력으로 건립된 시설이기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후원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지원금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2명의 상근직 인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원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부족한 운영비의 일부를 공부방운영위원회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일정부분 충당하고 있다. 공부방운영위원회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들은 매달 후원금을 회비처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후원금을 회원제로 해야만 예측이 가능하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예산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들의 후원금은 연간 약 630만원정도이며, 이 예산은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데 매우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주민들과 공부방 운영위원회의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관심이 높고, 청소년공부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하기 때문에 2010년의 경우 포항시에서 최우수공부방으로 선정되어 2,0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국비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의 애로사항과 향후과제

구룡포읍 청소년공부방의 총 예산이 26,300,000원이며, 국비지원이 있었을 때에는 국고가 10,000,000원, 지방비가 10,000,000원, 후원금이 6,300,000원이었다. 하지만 국비지원이 중단되면서 포항시의 경우 평가를 통해 최우수기관(1개소)에는 20,000,000만원을, 우수기관(3개소)에는 14,000,000원, 나머지 기관(4개소)에는 7,000,000원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룡포읍 청소년공부방의 경우 2010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20,000,000원을 그대로 지원받았으며, 나머지 운영비는 운영위원회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11년 평가결과에 따라 2012년 지원예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영예산 확보방안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이다.

구룡포읍 청소년공부방에서는 국비지원 중단에 대해 매우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국가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규정에 맞추라고 해서 기관차원에서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예산삭감을 하는 것은 국가가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인 농어촌 오지마을의 특성상 청소년공부방이 유일한 학습공간이자 문화체험 공간인데 그러한 시설이 없어진다면 오지마을의 청소년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청소년 공부방 운영 규정을 보니까 2012년도부터 운영 규정에 따라서 모든 조건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장은 사회복지사나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고, 지도교사는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하고,

관리교사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이도 이런데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다 하는데,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0원으로 삭감을 해서 시 의원들에게 호소를 해서 올해까지는 시에서 2,000만원을 그대로 지원을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에서도 이제 중앙정부 예산도 없고, 도에서도 안 주겠다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안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예산이 안 끊어졌으니까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그런대로 예전처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에 지원이 끊어진다면 특히 시가지 중심 도시에서는 청소년 공부방이 없어져도 주변에 시립도서관이나 도립, 국립도서관이 있고, 아니면 각종 다양한 복지관이 있어서 다양한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활용도 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많고요.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오지까지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이 대부분 시내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청소년 공부방이 없어지면 특히 농어촌 오지 마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지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더 멀어지고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 중단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관련해서도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그 이유로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경우 각종 규제나 준수해야 할 조건들이 구룡포 청소년공부방의 상황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대상인원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것은 구룡포의 실정에 잘 맞지 않으며, 오지마을에서 오히려 그러한 규제가 불편이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부방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되살아나야 하며, 예산지원이 끊어진다면 청소년문화센터나 노인복지센터, 다문화센터로의 전환을 통해서라도 현재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주로 3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30인 미만이 보조금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하려면 각종 어려움이나 규제가 많은데다가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 데서는 어린이들의 정원이 다 차있고, 또 청소년 공부방에는 패널티를 주는데, 애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최고 점수를

많이 주고, 그 다음 차상위를 주고,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보조금을 줄이고 늘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데에 잡히지 않은, 증명서를 떼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농어촌에는 사실 토지가 있어도 농사를 안 짓는 데가 많고, 농사를 지어도 안 되는 데가 많고 해서 거기에 안 잡히는 애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잡히고 안 잡히고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언제든지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국가의 여러 곳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시에서, 국가에서 운영 규정을 정했으면 그 운영 규정에 맞는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야기 했듯이 사회복지사를 관장으로 두고, 지도교사와 관리교사를 전문학교와 고등학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3명을 두면, 만약에 아주 적게 줘서 한 사람에게 1년에 연봉을 2,000만원을 줄지라도 6,000만원 인건비만 해도... 나머지 운영비와 이렇게 하면 1억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운영 규정을 그대로 지키려면요. 거지같이 살아도 1억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 달랑인데... 요구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은 엄청나게 해서,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이것도 못했다, 저것도 못했다 하거든요.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규정을 만든 만큼 지적할 수 있는 누구든지 와서 지원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었냐, 저것밖에 안 되었냐 할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부의 복지 마인드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올바른 실정을 알리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잘못을 바로잡는 등의 노력을 조금은 하지 않겠나라고 기대는 하는데... 만약에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시에서도 지원을 끊는다면, 저희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 건물을 가지고 어촌 오지마을이다 보니까 시내에서 시민들이 가지는 다양한 문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시내까지 나가려면 거리도 멀고, 생활도 어렵고...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청소년복지라던가, 노인복지, 다문화 복지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한번 해볼까, 청소년 문화센터를 해볼까, 노인복지센터를 해볼까, 다문화센터를 해볼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청 담당자의 경우에도 국비중단 이후 지자체에서 가장 힘들었던 애로사항으로는 예산부족을

들었으며, 국도비 대응매칭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12년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읍·면단위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폐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현재는 확실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단 국고가 안들어 오면은 시·군에서 하면서 국도비 대응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어차피 국비가 나오면은 일단 대응매칭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황 실태조사를 몇 군데 했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해보고 대응방향을 정할라 하는데요. 일단 예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는 간담회를 해보고 결정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전번주에 나갔다 왔는데, 현황조사를 해보면 읍·면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영은 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읍면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면은 오지마라, 안 된다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폐쇄시킬 수도 없는 거고.. 만약 시내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도 많고, 도서관도 있고, 각종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읍·면도 지역아동센터가 있긴 있는데, 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3) 전남 죽곡청소년공부방

가. 운영현황

죽곡청소년공부방은 곡성군 농민회 죽곡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민열린도서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공부방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것은 2010년 7월 1일부터이다. 죽곡농민열린도서관은 2004년 8월 1일에 개관하였으며, 쌀수업개방 결정 이후 농민운동의 방향을 ‘공부하는 농민운동’으로 전환하고 농민회 총회에서 도서관건립을 결정하면서 지역 농민회원들의 후원에 의해 건립되었다. 그 이후 국가의 예산지원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동안 지역활동의 중심기능과 주민소통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며, 농민운동의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2008년에 희망의

작은 도서관 공모에서 1등을 하면서 1억원의 상금을 받게 되었고, 이 상금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전개하자 전라남도과 곡성군에서 청소년공부방을 만들어주게 되었으며, 2010년 7월부터 청소년공부방으로 예산지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예산지원을 받은지 1년만에 예산지원 중단이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상당한 저항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죽곡청소년공부방은 농민운동을 배경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복합적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의 특성이 강하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은 학습지원보다는 문화(예술)적 프로그램에 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예컨대 민주주의 훈련장의 경우 민주적 질서를 배우고 토론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며, 양심을 배우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외부유명인사와의 만남기행, 여행프로그램, 문화적 감성 함양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국비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의 애로사항과 향후과제

죽곡청소년공부방은 2010년 7월부터 예산지원이 되었으며, 2010년에는 지방비에서 700만원(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을 지원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용은 지역 농민회원들의 후원금에 의해서 충당되었으며, 약 700만원정도가 후원금으로 모아졌다. 2011년의 경우에는 지방비에서 1,400만원(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나머지 운영비용은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비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전혀 없더라도 죽곡청소년공부방은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농민회원들의 회비에 기초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국비를 중단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방식인지, 국가로서 제대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지원으로 청소년공부방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설기준에 기초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이며, 시설기준이 아니라 자치능력에 기초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농촌의 경우 독자적인 건물을 따로 갖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유휴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경우 규격화로 인해서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죽곡청소년공부방의 경우 최저의 예산지원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성에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훼손하는 규격화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작년에 전라남도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저희는 지원을 딱 반 년 받았는데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거 진짜 어이가 없다... 사실은 예를 들어 교회는 아무 것도 안 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이런 걸 하면서 받는 거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우리 지역 전체의 가장 중요한 활동 거점이고, 주민들의 거점이고, 아이들의 놀이터고, 모든 걸 다 해도 돈을 안 주는 거죠. 니들은 저항조직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보면 예산이나 모든 게 모델화됐어요. 규격에 맞춰서 예산도 써야 하고, 프로그램도 해야 하고,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부방에는 그 규격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뭐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도 없고요. 상당히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다양한 양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규격화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공부방을 규격화하지 않았을 때가

운영하기 좋았어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돈을 준다면 1년에 5,000만원 정도 줄 수 있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1,000만원 받고도 해 내거든요. 이게 왜 가능하겠어요? 자율성을 줬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공부방 담당자가 아마 여러 곳을 보셨겠죠. 잘 운영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건 뻔하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다 잘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 20~30% 정도만 잘 할 텐데... 그건 뻔하다고 느끼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냥 13억의 예산을 지원하다가 이걸 0원으로 만들만큼 우리가 못했나 싶고, 이걸 너무 심했죠. 이걸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돈 하나도 없이 해오다가 작년에 한번 받아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올해도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안 짜주려고 계속 그러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돈 없어도 하죠. 돈이 있으면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것뿐이죠. 저희는 돈이 있든 없든 하죠. 빚을 내서라도요. 이렇게 되면 이런 조직들이 제대로 된 저항 조직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건물 있겠다, 지역에 대한 지지기반이 있겠다. 저희는 예산을 안 주면 그냥 그전에 하던 방식대로 해요. 농민회원들이 돈 내고, 청년 회원들이 돈 내고 하는 거죠. 그 의미는 안 준다면 우리는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그랬을 때 과연 그게 국가인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내가 이 나라에 뭘 해야 하는지, 이 나라를 위해 제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싶죠.

지역 공부방들이 소위 말하는 지역아동센터로 안 간 조직들이 많아요. 그렇게 안 간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율성 문제도 있고, 건물 규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원 기준에 건물 기준을 다 넣었다고요. 그 기준은 교회 외에는 맞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마을을 대표하고, 지역 주민들 전체를 포괄하는 조직들은 공부방으로 남고, 건물을 가진 곳들은 지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땅을 치는 일이에요. 너무나 억울한 거죠... 복지를 건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참... 제가 무슨 설문 이런 걸 할 때마다 가장 마지막 기타 항목에 뭘 쓰냐면 자치 능력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치 능력이라는 게 지역의 대표성이거든요. 그런데 건물 가지고 있다고 지원을 주는 거예요. 건물 기준이 좌석이 몇 개 이상 되어야 하고, 면적이 몇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농촌에는 빈 건물들이 많아요. 복지회관 이런 거 있거든요. 모임은 그런 데

에서 할 수 있잖아요. 꼭 자기 건물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아무도 그 기준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청소년공부방의 지속적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이용자 수 중심의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며, 청소년수가 현저히 부족하고 지리적 특성상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1명이 와도 좋다는 관점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향후 청소년공부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청소년공부방 연합회와 같은 조직체가 필요하며, 내부적으로도 청소년공부방의 방만한 운영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고, 청소년공부방을 활성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농촌에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없죠. 그건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는 것이고, 그게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청소년이용현황)을 하거든요. 애들이 안 오는 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애들이 기본적으로 없고, 학교에 너무 오래 붙잡아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여긴 다 머니까 직접 올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을 이해하려면 1명이 와도 좋더라는 감각이 필요한 거죠. 그 질문이 가장 속상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질문인데.

조직으로는 공부방연합회가 하나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방은 그런 연합회 조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로비 기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언론에서 동정적 보도만 하지, 우리가 시위를 조직한다든지, 항의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야 했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공부방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로 범위를 한정할 수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받아 써보니까, 저희가 많지 않은 돈이라도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작년 반년 동안만 700만원을 받았어도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었는데, 돈 한 700만원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 했는데, 다른 공부방들도 많이 있잖아요. 꼭 저희만큼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은 돈이라도 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못한 거죠.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런 일도 겪는 거죠. 근데 우

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예산을 받는 조직들 중에 예산을 잘 쓰는 조직이 없는 것 같아요. 복지에 대해서 보수 세력이 낭비라고 이야기 하는 게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자기 돈처럼 쓰는 조직도 많거든요. 공부방은 극과 극이 너무 심한 편차가 있는 조직이거든요. 언제든지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곡성군청 담당자의 경우에도 국비중단 이후 지자체에서 가장 힘들었던 애로사항으로는 예산부족을 들었으며, 국도비 대응매칭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12년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현상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 청소년공부방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지자체에서 청소년상담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많이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기능을 정리하여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 가장 애로죠. 뭐 다른 문제가 있는가요..예산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죠..아무래도 있던 것들이 없어져버리니까 어려움이 많죠..처음부터 안줬으면 모를까 주던것을 안줘버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저희는 자체적으로 세우긴 세웠습니다. 자체적으로 군예산을 세웠어요..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요... 줄어들긴 하겠지만 100% 그전만큼 보조금이 있을때만큼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려면 국고지원을 살리는 방법이 제일 좋죠..그런데 만약 국고가 중단된다면, 현실적인 대책은 세워지기 어려워요. 그리고 유사한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들을 정리해서..지역아동센터로 바꿀 수 있는 시설들은 바꾸는 방안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도 있지만, 그런것은 여건이 되어야 하니까..급식이나 이런것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청소년공부방들은 그런 시설들이 안갖춰져 있다 보니까 전환하기는 어렵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건립되다 보니까 그런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그러죠..

청소년공부방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돈이죠. 돈이 제일 문제죠..국고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죠..일차적으로 돈이 수반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버리죠. 돈이 제일 문제입니다.

(4) 인천 기차길옆 청소년공부방

가. 운영현황

기차길옆 청소년공부방은 1987년 6월에 설립된 공부방으로서,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에 토대를 두고 운영되는 초기의 도시 빈민지역 야학형태의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기차길옆 청소년공부방이 위치하고 있는 동구지역은 인천시에서도 빈곤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가난한 동네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 갖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공동체성이 많이 남아있고, 어렵게 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어른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해 온 교사들이 서로 만나면서 아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공통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청소년교육에 대한 이념과 철학이 매우 분명하며,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차길옆 청소년공부방에는 상근으로 청소년공부방에 전담하는 10명의 지도자와 출퇴근 후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자원봉사자 20여명 등 총 30여명의 지도자가 있으며, 초등학생 18명, 중고등학생 26명이 현재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다.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매일 1시간 30분씩 진행되는 기초학습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공동체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문화적 소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등)에 초점을 맞춰서 문화적 역량과 흥미·소질개발 및 치유프로그램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중고등부는 초등학생과는 달리 학습과 진학 부분에 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두번씩 초등학생들과 함께 공동체 프로그램에 합류하고 있다. 공동체 프로그램은 공연준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 년에 한 번씩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2010년도의 경우 운영예산은 국고지원이 10,000,000원이었으며, 지방비 12,200,000원(시비 1,600,000원, 구비 11,600,000원), 기타 후원금이 40,100,000원이었다. 이중 후원비는 공부방을 시작할 때부터 같이했던 개인회원들과 친구, 부모, 가족, 형제, 직장동료, 그리고 성당 수사회와 빈첸시오회, 푸른생협 등 단체회원의 후원금으로 모아지고 있다. 국고에서 지원된 예산은 공부방의 공과금과 연료비, 전기/수도비, 상근자 활동비, 그리고 계절별 프로그램 운영비에 고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1년에 국비지원이 중단되면서 국비가 차지하던 예산을 인천시청과 동구청에서 보충하여 지원하였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2012년 이후부터는 운영비 마련을 위한 방안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이다.



나. 국비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의 애로사항과 향후과제

기차길옆 청소년공부방은 도시 빈민지역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성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독특한 운영모델이다.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이 전액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의 후원금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국고지원은 대부분 기관운영의 기반이 되는 부분에 활용되었기 때문에, 국고지원 중단 이후 지방비가 감소될 경우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국고나 지방비가 없다고 청소년공부방을 문닫을 수 없으며, 예산을 줄여서라도 청소년공부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 분명하였다.

국고중단 이후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기차길옆 청소년공부방의 철학과 운영방식과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청소년공부방의 방만한 운영이나 존재이유 상실 등 청소년공부방 내부의 문제점 때문에 예산지원을 중단했다면 납득할 수 있지만, 국고중단의 이유가 청소년공부방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만약 국비나 시도비가 중단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운영되지는 못하겠지만 후원금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국비지원 중단 이후의

대안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청소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가능하구나, 정말 하루 아침에 0원이 되는 사태도 가능하구나. 그거 안게 정말 얼마 안됐어요. 얘기듣고 100%라고 생각을 했죠. 예산줄어서.. 적은 숫자니까요.. 청소년공부방 그것부터 아예 없애버렸구나...저희가 가난한 동네에 있다 보니까 이런데부터 줄어 들고 저희들은 알고는 있었지요..

다른데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사회복지라는 것이 대상으로 하는 형태들이 다양할 때 말 그대로 인제 빈곳 사각이 없이 통합되고, 어떤 압박으로 받아들였냐하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해라 이런 식의 압박으로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의 변화는 우리에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산대안은 사실 없죠..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으로 지원을 받던 부분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지요. 저희뿐 아니라 다른 청소년공부방들도 똑같은 것 같거든요..그러니까 뭐 저희가 저희안에서 자립으로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 사실은 오랫동안 저희 공부방을 알고, 오랫동안 운영비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후원비로 운영비를 쓰거든요..국고에서 지원되던 거로 되게 중요한 부분의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었지요..뭐 공과금 여기 굴러가는거 연료비에서부터 전기, 수도, 그리고 뭐 상근자들 활동비 일부, 안그래도 저희는 최저임금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수준의 상근비를 받고 있긴 한데, 그래도 거기의 일부를 지원받고, 그이외에 아들하고 특별하게 어디 보러도 가고, 영화라도 보여주고, 특별프로그램을 하고, 성탄잔치나 계절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국고지원 받는거로 항상 운영을 해왔죠..

웃긴거죠. 사실 사회복지 예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국가에서 공적인 부조로 이렇게 당당하고 책임져야 되는게 원칙적으로 그런건데, 그런거는 다 죽여버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라고 생각해요..없으면 제일먼저 죽일게 결국 그런게 아니겠어요? 아 이게 정말 지자체의 선의에 기대야 될 일인가?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는 맞지도 않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도 아니지만, 더더구나 그것을 모색해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제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그리고 대안에 대한 것도 어떻게든 넉넉하게 한번도 운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25년 동안 사람이 모여 있는게 저희 재산의 전부지, 뭐 넉넉하게 하면서 이것저것 풍요롭게 하고, 운영이 아주 뭐 쉽고, 그러면서 해본적은 없고, 저희들이 오히려 상근비라고 하지만 최저생계비보다 더 못한 걸 받고, 그러면서도 저희가 선택한 삶과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의미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거라, 사실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줄이면 되죠..그리고 못하면 되죠..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기도 해요..그런 청소년 공부방이나 아이들하고 하는 곳이 예산 없다고 비굴하게 어떻게 하거나 문을 닫아야 된다고 피켓을 들어야 되나..항상 없이 운영해 왔고, 더 줄여서라도 운영할 수도 있다..우리 교사들이 모아서 운영하는 것도 저희는 되게 많거든요..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저희의 고집같은 얘기죠..저희가 당당하게 고집같이 지키고 있는 저희의 자존심 그런거지, 현실적으로 대안은 없는 거죠.. 자립가능성을 물어보시는데 자립의 의미가 도대체 어디까지 인지? 국가가 완전히 0원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공부방도 그게 한참전에 시사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단지 않으면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이더라고요..문을 닫는 곳, 그다음에 어떻게든지 끌여 들어서 전환..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이대로 예산없이 존치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저희는 그냥 할 거예요..사람이 있으니까요..그런데 전국에 청소년공부방이 몇 백개 뭐 100단위 드라구요.. 그런 청소년공부방이 그 둘 선택 말고 자립이 가능할까를 생각하면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립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인천동구청 담당자의 경우에도 국비중단 이후 지자체에서 가장 힘들었던 애로사항으로는 예산부족을 들었으며, 국비지원이 중단되면서 청소년공부방에 지원되는 예산의 비중이 시비가 10%, 구비가 90%가 될 정도로 구청의 예산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비의 경우에도 2012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2013년부터는 중단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다.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청소년공부방의 시설규모와 조건들이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을 권고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13년

이후에 시비가 사라질 경우 구청에서 자체예산만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현재 없는 상태이며 청소년공부방이 유지되려면 국가에서 중단된 예산을 살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무래도 예산이죠. 예산부분이 가장 크니까. 받는 쪽도 그렇고, 저희 주는 쪽도 그렇고..국비가 중단되면서 저희가 90%를 주고 있어요. 시비가 10%이고요. 그런데 시비쪽에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 10%밖에 안 되고, 2013년부터는 시비도 안줄 것 같아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어요..

시비는 그대로예요. 약간 오르긴 했는데 시비는 거의 그대로고, 국비부분은 구비에서 충당을 했죠. 저희도 뭐 재정이 어려운데, 시는 더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그대로 가구요, 내후년이 문제인데 시비도 없어진다 그러고..

저희 쪽에 있는 공부방들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될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작으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더라도 1년간 유예기간을 뒤야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유예기간만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국고가 없어졌다는 것이 저희도 그렇고, 운영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했다가 사라지니까 어렵습니다. 위에서 공부방에 대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공부방들이 규모가 작는데 안준다는 것은 없어지라는 뉘앙스가 강하니까. 지방에서 책임지라는 부분이 큰데, 지방자치제 만으로는 공부방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하기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이 예산이고요. 저희 동구같은 경우에는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인데, 소외계층의 경우 저희 구가 좀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데 보다는 공부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아동센터 쪽에서 흡수해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저희 동구같은 경우에는 작으니까 공부방이 필요하고,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5) 경기수원 송죽동 청소년공부방

가. 운영현황

송죽동 청소년공부방은 2000년 3월부터 운영되는 공부방으로서, 로렘교회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4층에서 운영되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열람실, 학습지도실, 상담실, 조리실이 있으며, 열람실의 수용정원은 48명이다. 운영인력은 상근으로 대표(목사님) 1명과 영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지도교사(사모) 1명이 있으며, 자원봉사자로 4명이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공부방을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은 초등학생과 중고생이며, 약 30명에서 40명이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다.

송죽동 청소년공부방은 열람실을 갖추고 있으나 열람실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소수이며, 멘토링 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 그리고 바이올린, 첼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지원이 중단되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며, 바이올린과 첼로는 프로그램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죽동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예산은 2010년의 경우 지방비에서 14,000,000원을 지원받았으며, 이중 경기도에서는 7,000,000원을, 수원시에서는 7,000,000원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2011년부터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중단되었으며, 경기도에서 지원되던 예산을 수원시에서 보충하여 총 14,000,000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예산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청소년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국비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의 애로사항과 향후과제

송죽동 청소년공부방은 국비지원 이후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중단해야만 했던 점을 들었다. 국비지원 중단과 경기도의 예산지원 중단 이후 청소년공부방이 학습공간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놀이방 수준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청소년이나 경계선상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에서의 예산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는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초등학교 저연령층이 아니라 중학생들이며, 지역아동센터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청소년공부방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청소년공부방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바우처 시스템을 확장하여 청소년공부방의 청소년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애착심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잘 운영하려는 청소년공부방의 노력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건 속된 말로 이 나라 정권이 잘 못된 거예요. 이런 돈은 절대로 줄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도자라면 절대 줄이지 않아요. 교육비잖아요. 예전에는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멘토 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아요. 악기가 저렇게 잔뜩 있어도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나라에서는 국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행정보시는 분들이 눈을 뜨서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게 뭐 사건·사고 일어나면 그 원인을 보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애착심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잘 운영되는 것을 보완해주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주면 우리가 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해보면 진짜 억울한 일이 많거든요. 그런 걸 위로도 좀 받고... 그렇게 하면 3년, 5년 단기를 해보더라도 청소년들의 범죄, 사건, 사고가 사회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공부방 다니는 이유가 없어져 버렸죠. 예전에는 공부방에서 악기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하나씩 인기가 확 있었는데 지금은 놀이방이 되어 버렸어요. 놀다가는 곳으로 전락했죠. 예산이 어떻게 책정될지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1년, 2년 애들에 대한 미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왜 목사님, 그것도 못 해주시나요?” 라고 접근하면 저희는 참 힘들어요.

특기적성도 없죠. 우리 애들은, 해피 케어 대상자도 안 되고요. 친구들은 되는데. 수급자들은 완전히 범망 안에서 보호를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관리 받는데, 그 위에 차상위 계층 아이들이 사건·사고를 굉장히 많이 저지릅니다. 이게 좀 더 은밀하게 말하면, 저는 이걸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다 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걸 알았으면, 나라에서 나 몰라라 할 거였으면 안 하는 거였죠.

지금 청소년 공부방을 저렇게 싸그리 없애려고 하니 나라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 어떤 마인드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니까, 국고 지원 다 끊고 정말 깜깜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안 하고 아이들의 사건/사고가 많아지면 나라도 정신을 차릴 텐데, 우리가 너무 잘 해주고 나라가 잘 굴러가니까 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사회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해요.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소정의 금액 얼마라도, 단돈 만원이라도 책정해주고, 강사가 우리와 연결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고맙다고 부탁을 하고 이르면, 그 분들이 강사로 봉사를 하고 나면, 사회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이 분들이 많이 할 건데...경력에 많은 플러스 알파를 주면 본인에게도 메리트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직업이 없어서 요즘 직장 만들기 얼마나 많이

해요. 직장을 못 구한 신선한 대학생들을 이쪽으로 돌려주면 얼마나 따끈따끈해요. 이 친구들을 선생으로 넣어주면 정말 사랑으로 돌볼 것 아니에요. 오면 소정의 얼마라도, 교통비라도 몇 천 원 챙겨주면 우리도 부담을 덜 건데, 그런 시스템은 없고...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면 가장 큰 피해는 애들이 받는 거죠. 이게 완전히 수급자는 안 오고요. 양쪽 부모가 살아있는 경우 아버지가 실직된 상태인데 엄마가 암이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엄마가 문제 있는, 아버지가 법적으로 살아있는 이런 애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사회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게 안타깝죠. 그리고 이혼가정 애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의 아픔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불만도 많고 언젠가는 시한폭탄이거든요...우리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아니라 지원금을 더 주고 건물을 지어주면 좋겠어요. 애들 더 돌보고 할 수 있죠. 올해부터 인건비가 10만원 나왔어요. 10만원 받은 인건비를 애들을 위해 써요. 우리는 어쨌든 마이너스예요. 이 건물을 쓰는데 70만원 내는 거예요. 전세 낀 월세내고 생활요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죠. 우린 노후 자금도 없어요. 알거지예요. 그래도 돈이 나오면 애들 뭐 사주는데 바쁘지 우리한테 쓰는 건 없어요.

수원시청 담당자의 경우에도 국비중단 이후 지자체에서 가장 힘들었던 애로사항으로는 예산부족을 들었다. 하지만 국고중단이나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정부판단이 옳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 이유로는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거의 없으며, 공공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아파트단지 내에서 설치된 청소년공부방의 경우 저소득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소년공부방을 학습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즉 수원시의 경우 평생학습센터가 많이 설립되고 있고, 청소년문화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학습지원센터의 기능은 그러한 시설들에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들이 수원시내 곳곳에 많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의 학습지원 기능은 장기적으로 그러한 시설들로 흡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2012년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이용율이 현저하게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장에서 볼 때는 정부판단이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공부방이. 남들은

살린다 살린다 그런데..여기서 볼 때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때는 시설들이 잘 안 맞아서 못하는 곳들이 많죠. 가장 어려운 것이 급식시설이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이용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공부방들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여기는 생각중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공부방에 있는 사람들이야 예 산달라 뭐 달라 하면서 잘된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확률은 좌석이 50개면 10개 미만 이예요.. 허수가 많이 개입이 되어있는데도 그정도라면은..나가서 보면은 1-2보는게 많으면 한 2-3 앉아있는걸 보는거예요..그것도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앉아 있는걸 가끔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기는 어렵드라고요..

예산지원 안하면 거의 80-90%는 문 닫을 것 같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수원에는 아파트단지에 들어있는 게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아파트가 저소득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아파트 단지에다 공부방을 내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중단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거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의 처음 취지하고 안 맞는 장소에 나간 것 같아요. 잘사는 아파트단지에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몇개는 상황을 봐가면서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여기 수원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생학습센터니 뭐니 하면서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흡수가 되는 게 맞고, 청소년시설들 수원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문화의 집들이 있고, 수련관이 4개가 있고, 평생학습관이 지금 올해 내일 개관식을 가져요. 그런 시설들에서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도서관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큰 도서관들이..어차피 그쪽을 이용하는 근처에는 공부방들이, 옛날에 있던 것들이 다 폐쇄가 되고 그럴 거니까요. 그런 쪽에서 흡수가 되어 할 것 같아요..

현재는 아직까지 예산에 결정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줄인다 안 줄인다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공부방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용률이 10명 미만인데 이런 데를 예산을 가지고 끌고 간다는 것도 낭비잖아요. 낭비

3)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의 실무자들은 청소년공부방이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하며, 그동안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공간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은 지속적으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공부방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학교이외에 다른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공부방은 단순히 학습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소중한 공간으로서의 맡은바 소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을 폐쇄시켜서는 안 되며,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와 저항의지를 나타내었다.

둘째,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의 실무자들은 국고지원 중단이 지자체의 지원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공부방의 폐쇄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고지원 중단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차상위 계층이나 차차상위 계층의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인데, 최저수준의 예산지원 마저도 중단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국고지원 중단이나 예산삭감 계획은 철회되어야만 하며, 청소년공부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국가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셋째,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은 국고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현재까지는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로 국고지원 예산을 보충하였기 때문에 큰 변화는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예산삭감 및 예산지원 중단으로 시설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고지원 부활 이외에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한 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립시설의 경우에도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시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을 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예산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고지원 중단은 지자체의 자체예산 중단을 위한 좋은 구실을 주기 때문에 의미있는 공부방들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부활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시설종사자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에게서도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시설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중고등 학생, 차상위 학생, 차차상위 학생 등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은 청소년공부방의 정체성이나 교육철학과 맞지 않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며, 오히려 불편이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은 하지 않겠다는 시설들이 대부분이었다.

다섯째, 송죽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학습지원센터로의 전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공부방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기능의 강화가 필요한데, 현재의 지원예산으로는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습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습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청소년공부방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바우처제도와와의 연계 등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시청의 담당공무원은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등 유사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학습지원센터의 기능은 이러한 시설들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농어촌 지역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경우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지역사회의 유일한 청소년공간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서의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내에는 학습을 위한 학원이나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 청소년공부방을 청소년들이 모이는 소통의 장이자 학습의 공간, 놀이의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이용가능한 청소년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아동·청소년의 수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의 지원기준을 시설규모나 이용청소년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지원기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시지역과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시사점

첫째, 국고중단 이후의 대책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공청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공부방에서는 국고중단이 예산삭감과 공부방 폐쇄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고지원 중단을 철회해야만 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지원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담당공무원들도 국고지원 중단은 지자체의 예산중단을 위한 좋은 구실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부활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청소년공부방 시설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국고중단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혼란과 혼선이 가중될 경우 “사각지대의 청소년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회피”라는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공부방 시설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국고중단 이후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공부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고중단 이후 현재까지는 지방비로 국고지원 예산을 충당하고 있지만, 매칭펀드에 의한 예산지원 방식에서 국고중단은 지자체의 예산감축이나 지원중단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12년 이후에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유지될지에 대해서 확실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공부방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운영이 부실해서 시간을 두고 폐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면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자체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한다면, 지자체 차원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현행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유일한 청소년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산어촌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지역내에서 유일한 여가, 문화, 복지시설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청소년의 수가 적고 효과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지역여건과 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지원을 결정할 때 판단기준을 단순하게 청소년이용자수로 하기 보다는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기준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경우 자원봉사자나 전문강사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일정지역을 권역으로 묶어서 거점기관이 강사파견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주이용자가 청소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용대상을 청소년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사회 주민 전체로 개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지역내 학교교사나 대학생, 일반인등 자원봉사자들과 청소년공부방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고지원 중단과 예산감소로 인해 청소년공부방에서 운영되던 청소년프로그램들이 중단되거나 프로그램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프로그램 진행요원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면 예산감소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학교 교사들을 학습지도와 같은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신청자들을 청소년공부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공부방의 자체적인 내부각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청소년공부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방만하게 시설을 운영하는 공부방도 있으며, 청소년공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시설도 있으며, 청소년공부방으로서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시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국고중단이 이루어졌을 때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공부방 연합회를 아직까지 구축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청소년공부방 운영방식에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세금낭비’라는 부정적인 인식에 정면으로 직면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설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공부방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분석⁴⁰⁾

청소년공부방 종사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조사대상 공부방의 일반적 특성, 시설 일반현황, 공부방 기능 및 운영 어려움,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의 협력현황, 공부방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지방사업 전환에 따른 시설 운영 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결과분석 내용 요약과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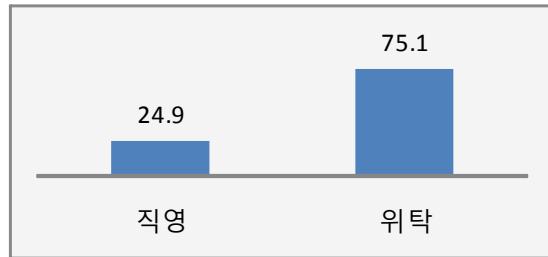
조사대상 공부방의 일반적 특성은 <표 IV-3-1>과 같다.

40) 이 부분은 박은혁(명지대학교 강사)과 연구진이 함께 분석하였음.

표 IV-3-1 조사대상 공부방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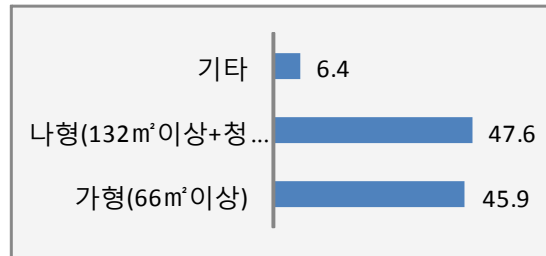
구 분		빈도	%
운영형태	직영	72	24.9
	위탁	217	75.1
시설유형	가형(66㎡ 이상)	136	45.9
	나형(132㎡ 이상+청소년프로그램 운영)	141	47.6
	기타	19	6.4
운영기간	5년 미만	71	23.9
	5년 이상~10년 미만	50	16.8
	10년 이상~15년 미만	48	16.2
	15년 이상~20년 미만	73	24.6
	20년 이상	55	18.5
입주건물	청소년(수련)시설	11	3.7
	지역주민센터 등 공공건물	93	31.5
	아파트단지 건물	34	11.5
	복지시설	47	15.9
	공부방 단독건물	70	23.7
	기타	40	13.6
운영주체	개인	18	6.1
	사회복지법인	64	21.6
	종교시설, 단체	44	14.9
	민간단체	56	18.9
	기타	114	38.5
소재지	대도시	126	41.9
	중소도시	83	27.6
	읍·면 소재지	92	30.6

공부방의 운영형태는 ‘위탁’ 75.1%, ‘직영’ 24.9%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운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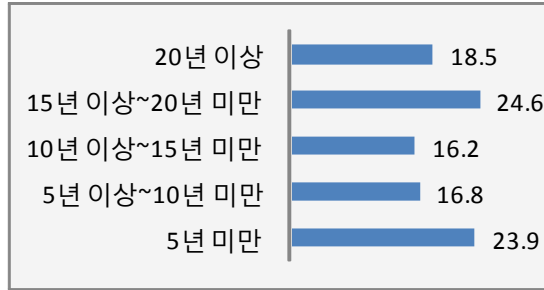
[그림 IV-3-1] 운영형태

시설유형은 ‘나형’이 47.6%로 가장 많고, ‘가형’ 45.9%, ‘기타’ 6.6% 순으로 나타났다. 절반 정도 공부방의 공간이 66㎡~132㎡미만으로 협소하여 공부방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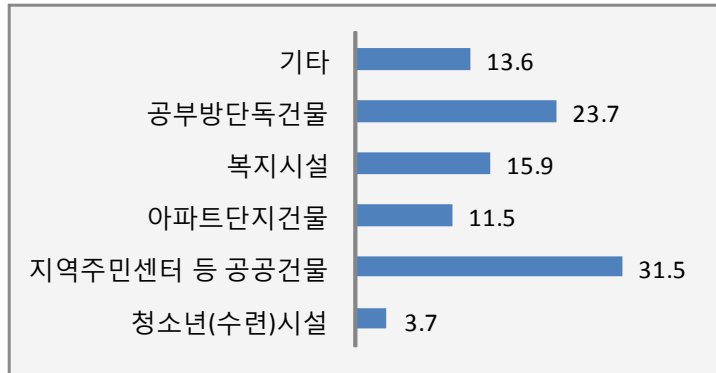
[그림 IV-3-2] 시설 유형

운영기간은 ‘15년 이상~20년 미만’이 24.6%로 가장 많고, ‘5년 미만’ 23.9%, ‘20년 이상’ 18.5%, ‘5년 이상~10년 미만’ 16.8%, ‘10년 이상~15년 미만’ 16.2%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이 7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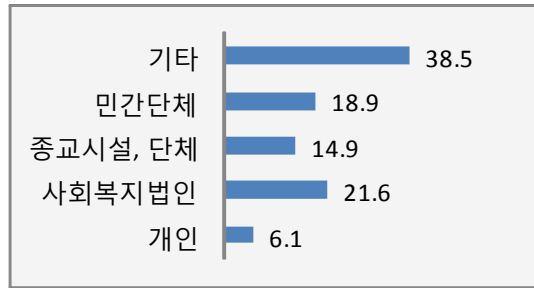
[그림 IV-3-3] 운영 기간

입주건물은 ‘지역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공부방 단독건물’ 23.7%, ‘복지시설’ 15.9%, ‘기타’ 13.6%, ‘아파트 단지 건물’ 11.5%, ‘청소년(수련)시설’ 3.7% 순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단독건물’인 경우는 23.7%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우 다른 시설의 일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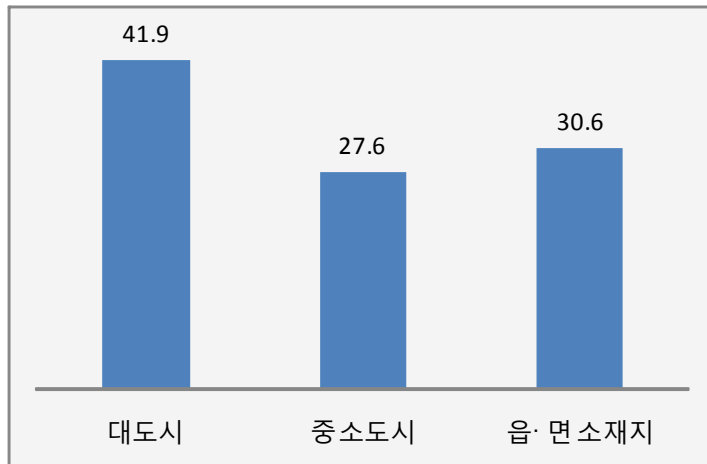
[그림 IV-3-4] 입주 건물

운영주체는 ‘기타’ 38.5%, ‘사회복지법인’ 21.6%, ‘민간단체’ 18.9%, ‘종교시설, 단체’ 14.9%, ‘개인’ 6.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선택지에 제시하지 않은 자치단체나 시설관리공단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IV-3-5] 운영주체

소재지는 ‘대도시’ 41.9%, ‘읍면소재지’ 30.6%, ‘중소도시’ 27.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6] 소재지

공부방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V-3-2>와 같다.

성별은 ‘여자’ 63.8%, ‘남자’ 36.2% 순으로 나타나 여자 종사자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은 ‘50세 이상’이 38.6%로 가장 많고, ‘40세 이상~50세 미만’ 33.8%, ‘30세 이상~40세 미만’ 16.2%, ‘30세미만’ 11.4% 순으로 나타났다. 직책(담당업무)은 관장 34.4%, 지도교사 23.2%, 관리인(행정원) 34.1%, 기타 8.3%로 나타났다. 직책을 묻는 질문의 경우 주관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공부방 운영지침 상의 직책이 아닌 위탁단체의 직책이나 자격기준 또는 상근여부 등을 기재한 경우들이 많아 일부 유추가 가능한 것은 연구자가 임의 분류를 한 것들이 있어 정확도가 높지 않음을 밝힌다. 재직기간은 ‘5년 이상’이 34.7%로 가장 많고, ‘1년 이상~3년 미만’ 24.6%, ‘1년 미만’

22.9%, '3년 이상~5년 미만' 17.8% 순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 중 '3년 미만'이 전체의 4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종사자)

구 분		빈도	%
성 별	남 자	106	36.2
	여 자	187	63.8
연 령	30세미만	33	11.4
	30세 이상~40세 미만	47	16.2
	40세 이상~50세 미만	98	33.8
	50세 이상	112	38.6
직 책 (담당업무)	관 장	95	34.4
	지도교사	64	23.2
	관리인(행정원)	94	34.1
	기 타	23	8.3
재직기간	1년 미만	68	22.9
	1년 이상~3년 미만	73	24.6
	3년 이상~5년 미만	53	17.8
	5년 이상	103	34.7

2) 설문조사 결과

(1) 시설 일반현황

① 시설유형 및 연혁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에 따르면, 청소년공부방은 학습 공간 제공만 이루어지는 '가형', 학습 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 중심으로 다양한 청소년 활동·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나형', '가형', '나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로 분류되어진다. 시설유형을 살펴본 결과, '나형' 47.6%, '가형' 45.9%, '기타' 6.4%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공부방의 연혁을 살펴본 결과, 1976년에 최초로 공부방이 운영되었고 이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소 13개월(1.08년)에서 최대 431개월(35.92년), 평균 159.65개월(13.30년)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된 공부방이 59.3%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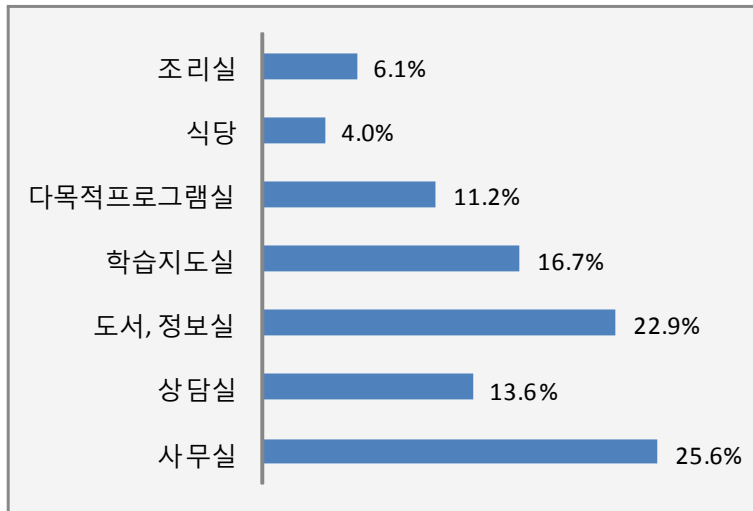
② 시설규모 및 이용자 수

수용정원은 최소 12명, 최대 580명, 평균 77.36명이었으며, 2011년 상반기 5개월 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465명, 평균 48.14명으로 나타났다.

세부유형별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이 33.84%(평균 2,019명)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 29.46%(평균 1,758명), ‘중학생’ 19.22%(평균 1,147명), ‘초등학생’ 17.46%(평균 1,042명)로 나타났다.

공부방 면적은 최소 25㎡에서 최대 1,871㎡, 평균 187.25㎡로 나타났고, 열람석 수는 최소 15석에서 최대 400석, 평균 71.76석으로 나타났다. 향후 조리실로 개조 가능한 수도설비의 유무를 살펴본 결과, ‘없다’ 56.96%, ‘있다’ 43.03%로 나타났다. 개조 가능 여부가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 가능 조건이 되는데, 전환이 어려운 곳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열람실 이외의 보유 시설을 살펴본 결과, ‘사무실’이 25.6%로 가장 많고, ‘도서·정보실’ 22.9%, ‘학습지도실’ 16.7%, ‘상담실’ 13.6%, ‘다목적 프로그램실’ 11.2%, ‘조리실’ 6.1%, ‘식당’ 4.0%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문항. 100% 기준으로 각 문항의 통계치 제시).

공부방 운영에 시설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용정원도 결정짓게 되고,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재정적인 부분도 영향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공부방이 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부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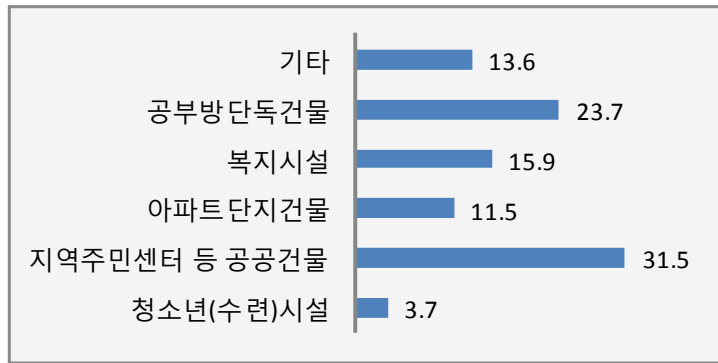


[그림 IV-3-7] 열람실 이외 보유시설

③ 건물 용도 및 접근성

건물 용도를 살펴본 결과, ‘기타’가 47.67%로 가장 많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9.37%, ‘단독주택’ 14.72%, ‘공동주택’ 9.68%, ‘제2종근린생활시설’ 8.5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응답자가 주택법상 건물 용도 분류 기준을 잘 알지 못한 경우 ‘기타’로 응답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건물은 ‘지역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공부방 단독건물’ 23.7%, ‘복지시설’ 15.9%, ‘기타’ 13.6%, ‘아파트 단지 건물’ 11.5%, ‘청소년(수련)시설’ 3.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8] 입주건물

‘공부방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접근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가 39.4%로 가장 많고, ‘매우 그렇다’ 32.4%, ‘보통’ 19.3%, ‘그렇지 않다’ 5.3%, ‘매우 그렇지 않다’ 3.3%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응답이 71.8%로 나타나 이용청소년들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④ 이용료 및 운영시간

이용료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곳에서 최대 1,000원, 평균 127.37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곳에서 최대 1,500원, 평균 194.37원으로 나타났다.

공부방의 운영시간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여는 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가 가장 많으며, 닫는 시간은 23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의 경우 평균적인

현황을 보면, 12시 37분경에 문을 열고 21시 35분경에 문을 닫아 총 8시간 57분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의 휴무일을 살펴본 결과,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이 가장 많았고, 기타 의견으로는 국경일과 명절을 포함한 국정공휴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⑤ 예산

2010년도 예·결산내역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입에서 총액은 최소 1,400,000원에서 최대 4,853,410,650원, 평균 72,872,378.95원, 국고는 최대 304,718,000원, 평균 17,159,631.55원, 지방비는 최소 1,000,000원에서 최대 590,375,000원, 평균 33,286,226.67원, 기타는 최소 4,820원에서 최대 745,891,489원, 평균 44,795,300.62원으로 나타났다.

지출에서 총액은 최소 1,400,000원에서 최대 9,801,451,083원, 평균 94,095,577.63원, 인건비는 최소 500,000원에서 최대 5,138,401,438원, 평균 49,355,709.94원, 운영비는 최소 6,520원에서 최대 241,342,367원, 평균 14,401,806.64원, 기타는 최소 38,500원에서 최대 927,792,866원, 평균 37,882,116.66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 예산을 살펴보면, 최소 1,000,000원에서 최대 662,383,000원, 평균 36,956,482.99원으로 나타났다. 수입에서 국고와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예산이 삭감되거나 중단될 경우 공부방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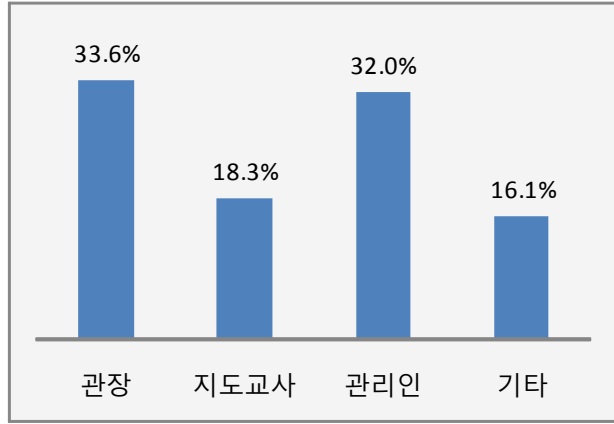
예산관련 응답은 무응답이나 부분 응답이 많은 편이었으며 설문지 문항과 시설현황표의 예산기재란의 수치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들이 있어 정확도에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⑥ 인력

공부방 근무 인력에 대해 상근직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1년 이상 근무하는 인력으로 규정하고, 계약직을 포함한 나머지 근무 인력인 비상근직으로 보고 근무인원을 기재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전체 근무인원은 평균 2.63명(최대 12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상근직은 평균 1.28명(최대 11명), 비상근직은 평균 1.35명(최대 8명)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살펴본 결과, ‘관장(대표)’ 33.6%, ‘관리인’ 32.0%, ‘지도교사’ 18.3%, ‘기타’ 16.1%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에는 자원봉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중복응답

문항. 100% 기준으로 각 문항의 통계치 제시).



[그림 IV-3-9] 근무직원

직원별 자격증과 학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장이 소지한 자격증은 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보육교사, 아동복지지도원이고 그 중 청소년지도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학력은 대졸이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지도교사가 소지한 자격증은 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보육교사이고 그 중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학력은 대졸이 절대 다수로 나타났다. 관리인이 소지한 자격증은 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보육교사이고 그 중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학력은 대졸이 절반보다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근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1회 이상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를 살펴본 결과, 자원봉사자가 전혀 없는 곳부터 최대 60명, 평균 5.85명으로 나타났다. 일부 규모가 큰 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의 자원봉사자 수가 영향을 미쳐 평균 5~6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원봉사자가 전혀 없는 곳도 있어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운영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 공부방의 특성상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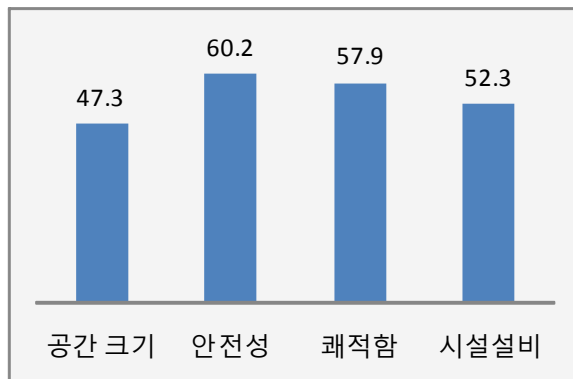
⑦ 공부방 운영위원회

공부방 운영위원회의 운영여부를 살펴본 결과, ‘비운영’ 52.7%, ‘운영’ 47.2%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청소년전문가, 교육전문가 등 지역인사 5~11명으로 구성·운영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운영위에서는 청소년공부방의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예산, 종사자임면 등 청소년공부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의 회의를 열어야 하며, 연 1회 이상 회의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해야 한다. 기타 운영위원회 관련 필요사항은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공부방의 열악한 여건을 재확인할 수 있다.

⑧ 전반적인 시설·환경 수준

공부방이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를 공간크기, 안전성(학습공간 및 주변환경 포함), 쾌적함(실내 밝기와 온도, 실내장식 등), 시설설비(냉난방 시설, 책걸상 등 집기, 도서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시설·환경 수준을 살펴보았다.

각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값을 비교해 보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60.2%(‘매우 안전’ 31.4%, ‘조금 안전’ 28.8%), 쾌적함에 대해서는 52.3%(‘매우 쾌적’ 30.8%, ‘약간 쾌적’ 27.1%), 시설설비에 대해서는 52.3%(‘매우 충분’ 25.5%, ‘약간 충분’ 26.8%), 공간크기에 대해서는 47.3%(‘매우 충분’ 25.8%, ‘약간 충분’ 21.5%)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간크기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아 종사자들이 공간크기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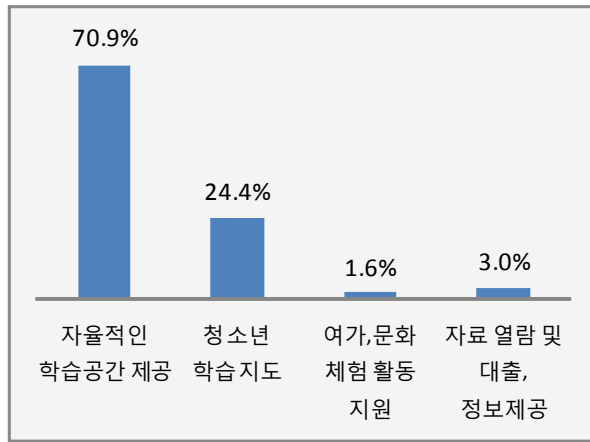


[그림 IV-3-10] 청소년 공부방 시설수준

(2) 공부방 기능 및 운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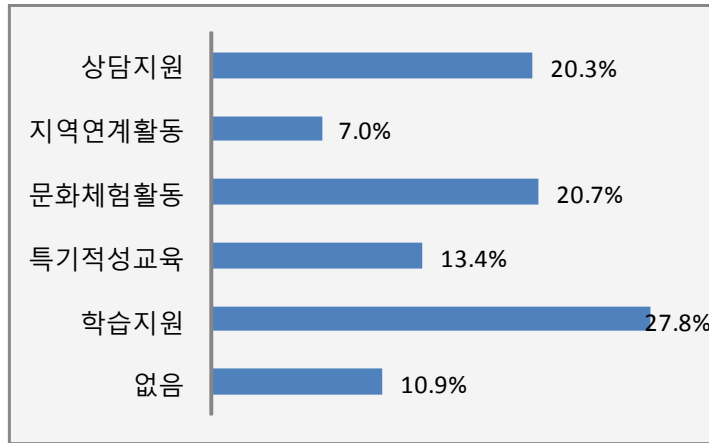
① 공부방의 주요 기능

현재 공부방의 주요 기능을 1개만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이 70.9%로 가장 많고, ‘청소년 학습지도’ 24.4%, ‘자료 열람 및 대출, 정보제공’ 3.0%, ‘여가·문화체험활동 지원’ 1.6%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및 정서지원’과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공부방이 학습공간 제공과 학습지도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3-11] 공부방 주요 기능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하게 한 결과, ‘학습지원’이 27.8%로 가장 많고, ‘문화체험활동’ 20.7%, ‘상담지원’ 20.3%, ‘특기적성교육’ 13.4%, ‘없음’ 10.9%, ‘지역연계활동’ 7.0%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10.9%의 경우 대부분 학습공간으로써 열람실 제공 기능만을 하는 곳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림 IV-3-12] 운영프로그램

청소년 공부방의 기능별 중요도를 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 청소년 학습지도, 여가·문화체험활동 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 자료 열람 및 대출, 정보제공,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의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기능별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⁴¹⁾

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에 대해서는 ‘매우중요함’(63.9%)과 ‘중요함’(32.8%)을 합하여 96.7%, 청소년 학습지도에 대해서는 ‘매우중요함’(38.1%)과 ‘중요함’(40.2%)을 합하여 78.3%, 상담 및 정서지원에 대해서는 ‘매우중요함’(24.8%)과 ‘중요함’(45.0%)을 합하여 69.8%, 여가·문화체험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매우중요함’(22.4%)과 ‘중요함’(42.2%)을 합하여 64.6%, 자료 열람 및 대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매우중요함’(21.5%)과 ‘중요함’(42.7%)을 합하여 64.2%,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에 대해서는 ‘매우중요함’(20.8%)과 ‘중요함’(40.8%)을 합하여 61.6% 순으로 나타났다. 제시한 공부방의 기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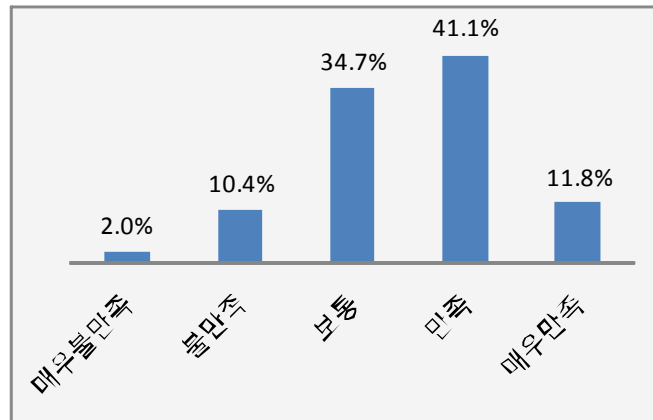
41)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에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 프로그램을 학습공간 제공, 학습지도활동,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활동, 지역연계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기능별 구분을 할 경우 ‘특기적성교육’의 하위내용이 학습지도와 문화·체험 활동과 중복될 수 있어 본 설문지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을 제외하고 공부방에서 제공할 수 있는 또다른 프로그램 영역으로 ‘상담 및 정서지원’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IV-3-13] 공부방 기능별 중요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이 41.1%로 가장 높고, ‘보통’ 34.7%, ‘매우만족’ 1.8%, ‘불만족’ 10.4%, ‘매우불만족’ 2.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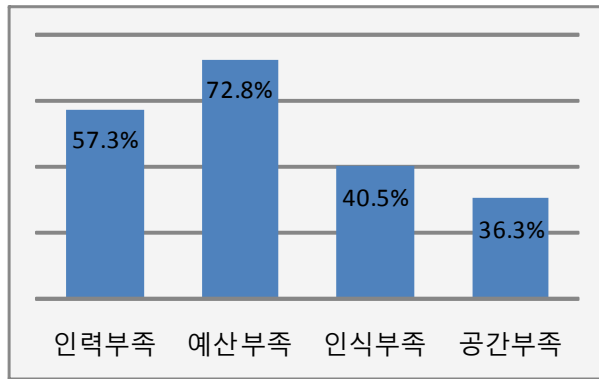
‘매우만족’과 ‘만족’을 합하여 만족하는 비율이 42.9%로 나타났다. 앞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요 기능이 ‘학습공간 제공’과 ‘학습지도활동’ 등 학습지원 관련 기능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지 않은 것은 운영자들이 이러한 학습관련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의 활성화도 같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3-14] 공부방 역할 만족도

② 프로그램 운영 관련 어려움

대부분의 공부방이 학습지원 관련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인력부족, 예산부족,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공간부족의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질문에 대해 ‘매우 어려움’과 ‘다소 어려움’으로 응답한 값을 살펴보면 ‘예산 부족’이 72.8%로 가장 많고, ‘인력 부족’ 57.3%, ‘인식 부족’ 40.5%, ‘공간 부족’ 36.3% 순으로 나타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점을 프로그램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예산 부족의 경우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45.9%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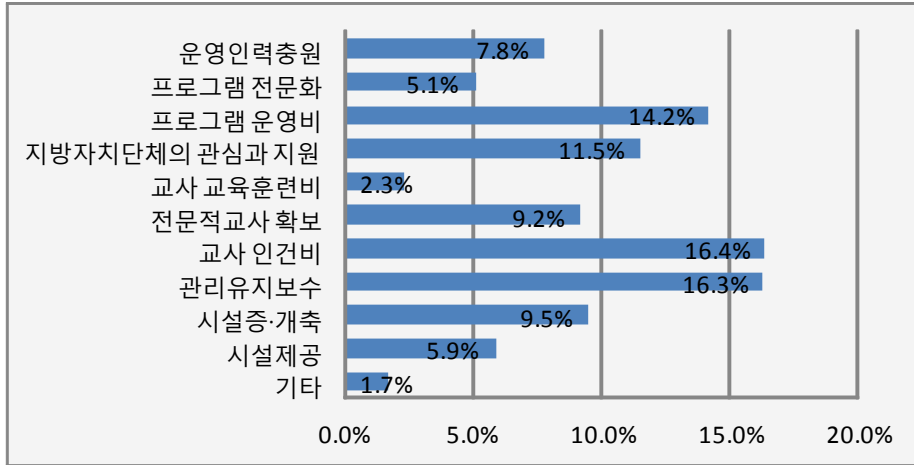


[그림 IV-3-15] 프로그램 운영 관련 어려움

③ 정부 지원 필요사항

정부지원 시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 3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인건비’가 16.4%로 가장 많고, ‘공부방 관리·유지·보수’ 16.3%, ‘프로그램 운영비’ 14.2%,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11.5%, ‘시설증·개축’ 9.5%, ‘전문적 교사 확보’ 9.2%, ‘운영인력 충원’ 7.8%, ‘시설 제공’ 5.9%, ‘프로그램의 전문화’ 5.1%, ‘교사 교육훈련비’ 2.3%, ‘기타’ 1.7%로 나타났다.

‘교사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아 충분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자들의 재직기간이 길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여겨진다. 또한 시설(관리, 유지, 보수, 증·개축)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용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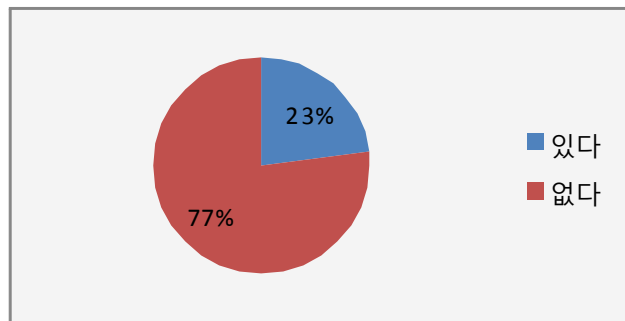
[그림 IV-3-16] 정부 지원 필요사항

(3)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의 협력현황

① 지역 단체와 협력 시 어려움 경험여부

지역의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와 사업 및 업무상의 협력을 하면서 어려운 적이 있었는가를 살펴본 결과, ‘없다’ 77%, ‘있다’ 23%로 나타났다.

‘없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업무협력 시 어려움의 원인에서 언급했듯이 종사자들의 지역 내 청소년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을 가정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기보다 업무상 협력의 경험이 없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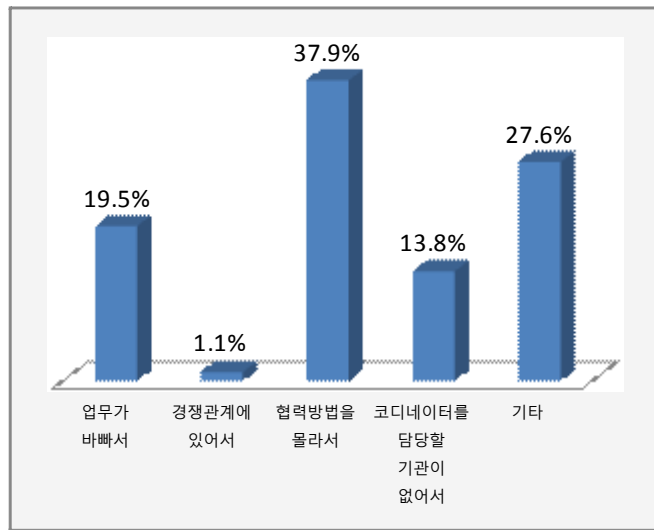


[그림 IV-3-17] 유관시설 협력 어려움

② 업무협력 시 어려움의 원인

지역단체와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본 결과 ‘협력방법을 몰라서’가 37.9%로 가장 많고, ‘기타’ 27.6%, ‘업무가 바빠서’ 19.5%, ‘코디네이터를 담당할 기관이 없어서’ 13.8%, ‘경쟁관계에 있어서’ 1.1% 순으로 나타났다.

‘협력방법을 몰라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단체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요청되는데, 운영자의 열의나 관심, 필요성 인식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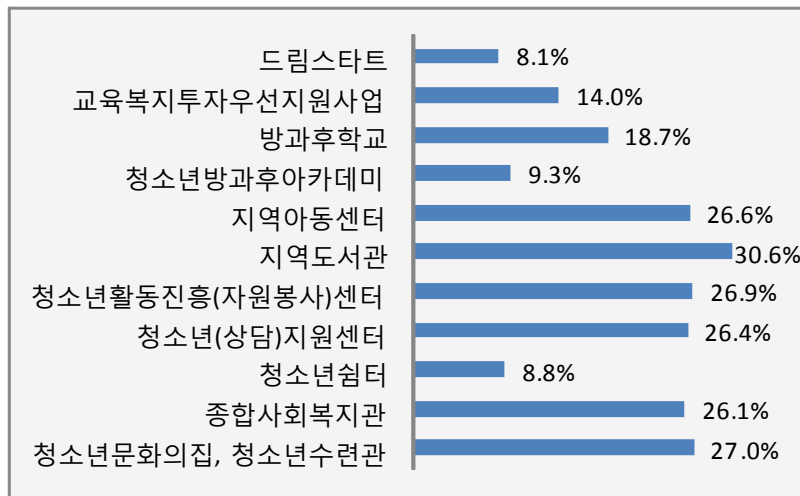
[그림 IV-3-18] 업무 협력 시 어려움의 원인

③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협력경험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이나 사업에 대해 알고 있거나 협력해 본 경험이 있는가를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 가출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 지역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 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등 11개 시설사업 각각에 대해 질문하였다. 선택지는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협력한 적 없다’, ‘협력해 본 적 있다’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응답결과를 ‘협력해 본 적 있다’ 값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지역도서관에 대한 인지도와 협력경험이 30.6%로 가장 많고,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인지도와 협력경험은 27.0%, 청소년활동

진흥(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협력경험은 26.9%,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협력경험은 26.6%,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협력경험은 26.4%,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와 협력경험은 26.1%,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지도와 협력경험은 18.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협력경험은 14.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와 협력경험은 9.3%,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도와 협력경험은 8.8%,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지도와 협력경험은 8.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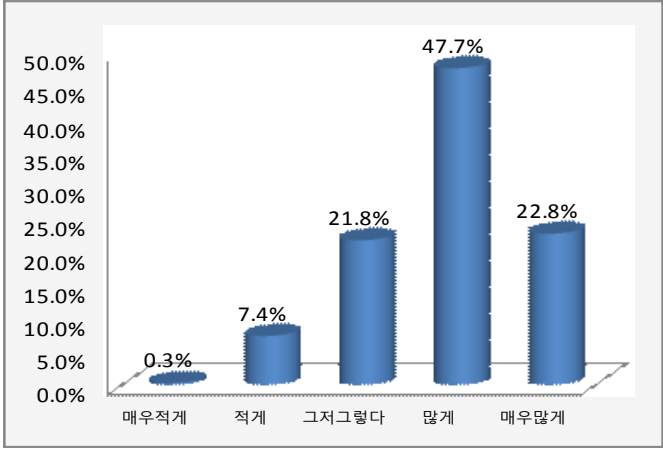
[그림 IV-3-19]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협력경험

(4) 공부방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지역사회, 지역청소년, 지역주민, 운영자의 공부방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인식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의 청소년공부방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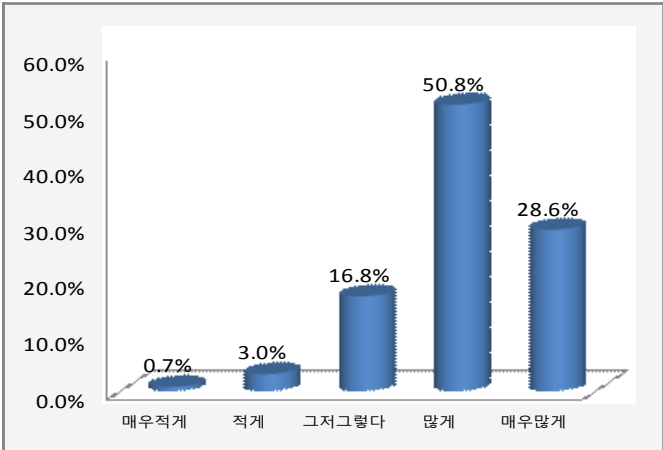
지역사회에서 해당 공부방이 어느정도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많게’가 47.7%로 가장 많고, ‘그저그렇다’ 21.8%, ‘매우 많게’ 22.8%, ‘적게’ 7.4%, ‘매우 적게’ 0.3%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많게’와 ‘많게’를 합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70.5%로 나타나 지역사회에서 공부방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3-20] 지역사회 의 청소년 공부방 인지도

② 공부방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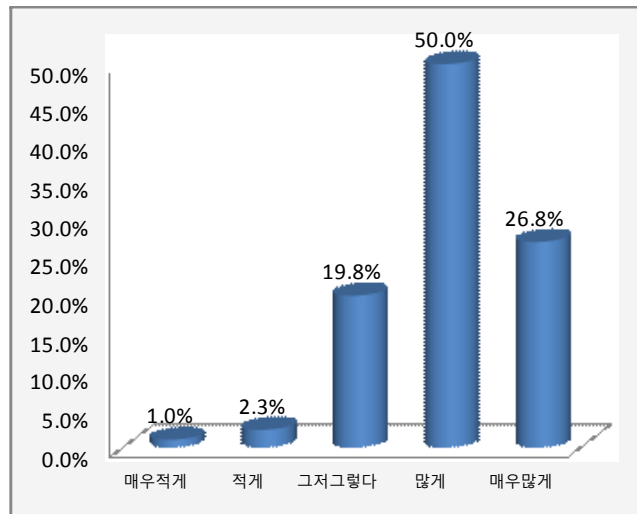
지역청소년들이 공부방의 필요성을 어느정도 인정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많게’가 50.8%로 가장 많고, ‘매우 많게’ 28.6%, ‘그저그렇다’ 16.8%, ‘적게’ 3.0%, ‘매우 적게’ 0.7%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많게’와 ‘많게’를 합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79.4%로 나타나 많은 지역청소년들이 공부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IV-3-21] 공부방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③ 공부방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지역주민들이 공부방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많게’가 50.0%로 가장 많고, ‘매우 많게’ 26.8%, ‘그저그렇다’ 19.8%, ‘적게’ 2.3%, ‘매우 적게’ 1.0%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많게’와 ‘많게’를 합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76.8%로 나타나 지역주민 또한 공부방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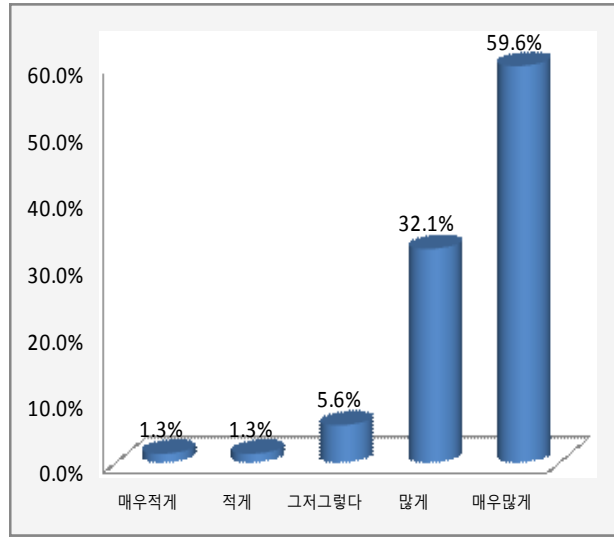


[그림 IV-3-22] 공부방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④ 공부방 필요성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

공부방 운영자의 공부방의 필요성 인식정도를 물어본 결과, ‘매우 많게’가 59.6%로 가장 많고, ‘많게’ 32.1%, ‘그저그렇다’ 5.6%, ‘적게’ 1.3%, ‘매우 적게’ 1.3%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많게’와 ‘많게’를 합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91.7%로 나타나 공부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예상했던대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공부방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청소년이나 주민 또한 공부방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3-23] 공부방 필요성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

(5) 지방사업으로 전환에 따른 시설 운영 방향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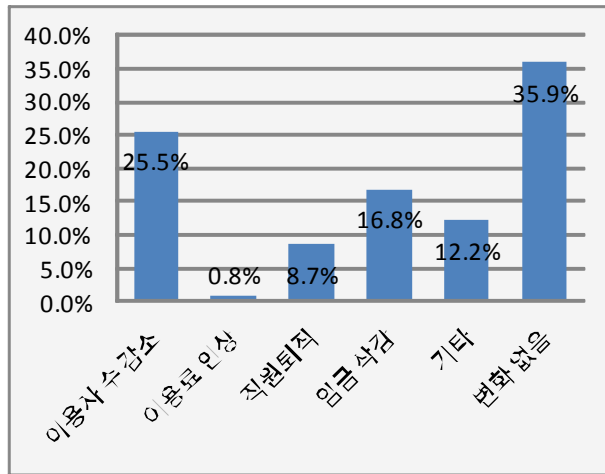
① 지방사업으로 전환 이후 변화상황

2011년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국고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청소년공부방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공부방들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향후 어떤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단, 서울특별시 공부방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기존에도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중단이라는 환경변화 외에 공부방을 둘러싼 아동·청소년분야 시설 자원 관련 전반적인 환경변화를 염두에 두고 응답해 줄 것을 안내하였다.

그 결과 서울지역의 환경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응답값에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관련되는 문항인 28번부터 31번까지 결과 분석 시 전체 응답값과 서울지역을 제외한 응답값을 별도로 살펴 보았다.

국고지원 중단 이후 변화상황을 ‘모두’ 선택하게 한 결과, ‘변화 없음’이 35.9%로 가장 많고, ‘이용자 수 감소’ 25.5%, ‘임금 삭감’ 16.8%, ‘기타’ 12.2%, ‘직원 퇴직’ 8.7%, ‘이용료 인상’ 0.8% 순으로 나타났다. ‘변화없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지만, 이용자 감소와 직원 퇴직 등 운영에 직결되는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지역을 제외한 응답값을 보면, ‘변화 없음’ 38.5%, ‘이용자 수 감소’ 22.7%, ‘임금 삭감’ 15.8%, ‘기타’ 15.0%, ‘직원 퇴직’ 7.9%, ‘이용료 인상’ 1.1% 순으로 나타나, 경향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그림 IV-3-24] 국고지원 중단 이후 변화상황

② 시설 전환 의사

청소년공부방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양된 이후 시설 전환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현행유지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현행유지를 바라는 경우 70.5%(서울 제외 시 71.1%), 보통 20.7%(서울 제외 시 19.8%), 전환의사가 있는 경우 8.9%(서울 제외 시 9.2%)로 대부분이 현재 시설 기능대로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전환의사가 있는 경우는 10% 미만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시설로의 전환 의사를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약간’과 ‘매우’를 합한 값),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8.4%(서울 제외 시 30.7%), 청소년문화의집 25.2%(서울 제외 시 26.1%), 지역아동센터 24.9%(서울 제외 시 27.9%)로 나타나 방과후아카데미로의 전환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부방과 방과후아카데미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복지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부 공통점이 있지만, 지원대상, 내용, 운영주체, 예산출처 등 차이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아카데미를 선호하는 것은 방과후아카데미가 돌봄의 기능과 학습지원, 특기적성까지 제공해 주는 종합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이며, 정부의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지원이 있기 때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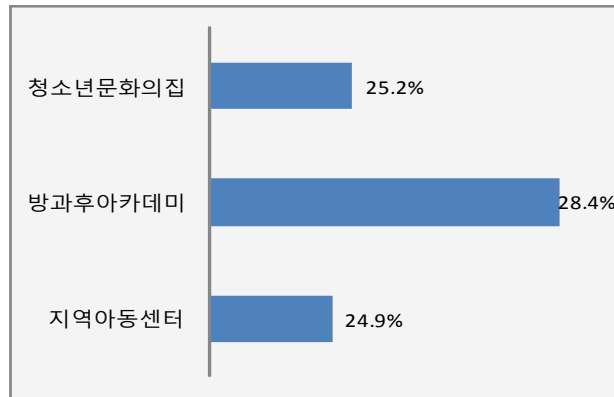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전체종사자와 서울지역 제외 종사자들의 응답을 비교해 보면, 서울지역 제외 종사자들의 응답 중 시설유형 기타에서 '전환의사 있다'가 1.5% 증가하였다. 운영기간 중 5년 이상~10년 미만에서 '전환의사 있다'가 4.4% 증가하였다. 운영주체 중 개인에서 '전환의사 있다'가 1.4% 증가하였고, 종교시설·단체에서 '전환의사 있다'가 1.5% 증가하였다. 소재지 중 대도시에서 '전환의사 있다'가 2.7% 증가하였다. 재직기간 중 3년 이상~5년 미만에서 '전환의사 있다'가 2.0% 증가하였다.

서울지역 제외 종사자들의 응답 중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에 대해 시설유형 기타에서 4.5%, 운영형태 직영에서 1.9%, 운영기간 5년 미만에서 1.0%, 재직기간 1년 이상~3년 미만에서 1.4% 증가하였다.

서울지역 제외 종사자들의 응답 중 방과후아카데미로의 전환에 대해 시설유형 기타에서 9.8%, 운영형태 직영에서 1.7%, 운영기간 5년 미만에서 2.1%, 15년 이상~20년 미만에서 1.4%, 20년 이상에서 1.4% 증가하였다.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에서 6.1% 증가하였다.

서울지역 제외 종사자들의 응답 중 청소년문화의집으로의 전환에 대해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에서 13.1%, 소재지 대도시에서 6.3%, 재직기간 1년 이상~3년 미만에서 3.2%, 5년 이상에서 3.1%, 시설유형 132㎡이상+청소년프로그램운영에서 3.3%, 시설유형 기타에서 4.5%, 운영형태 직영에서 1.7%, 운영기간 5년 미만에서 2.6%, 운영기간 10년 이상~15년 미만에서 3.2%, 15년 이상~20년 미만에서 1.8%, 20년 이상에서 2.5%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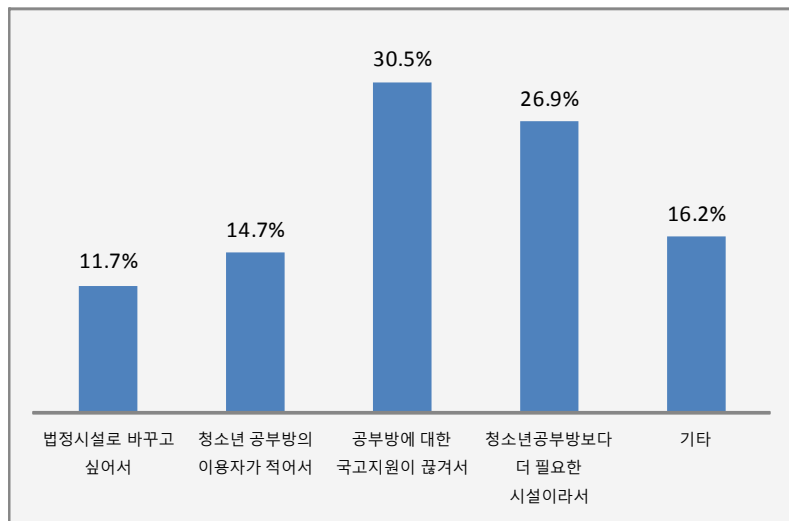


[그림 IV-3-25] 시설 전환 의사

③ 시설 전환 이유

시설 전환을 희망한 경우 해당 시설로 전환을 희망하는 이유를 ‘모두’ 고르게 한 결과, ‘공부방에 대한 국고 지원이 끊겨서’가 30.5%로 가장 많고, ‘청소년공부방보다 더 필요한 시설이라서’ 26.9%, ‘기타’ 16.2%, ‘청소년공부방의 이용자가 적어서’ 14.7%, ‘법정시설로 바꾸고 싶어서’ 11.7% 순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예산에서 국고와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예산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설 전환의 이유가 예산 부족이라면 다른 시설로의 전환·운영 또한 쉽지 않을 것이므로 시설 전환을 원할 경우 현실 진단과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체종사자와 서울지역 제외 종사자들의 응답을 비교해 보면, 서울지역 제외 종사자들의 응답에서 ‘법정시설로 바꾸고 싶어서’가 1.0% 증가하였고 ‘공부방에 대한 국고지원이 끊겨서’라는 응답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26] 시설 전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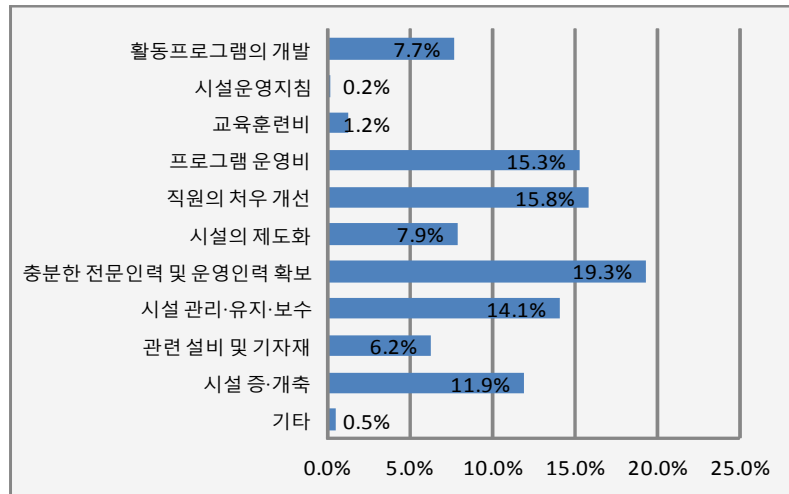
④ 시설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시설 전환을 위해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2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충분한 전문인력 및 운영인력 확보’가 19.3%로 가장 많고, ‘직원의 처우개선’ 15.8%, ‘프로그램 운영비’ 15.3%, ‘시설 관리·유지보수’ 14.1%, ‘시설 증개축’ 11.9%, ‘시설의 제도화’ 7.9%,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7.7%, ‘관련설비 및 기자재’ 6.2%, ‘교육훈련비’ 1.2%, ‘기타’ 0.5%, ‘시설 운영지침’ 0.2%

순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전문인력 및 운영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소수의 비전문적인 인력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전체중사자와 서울지역 제외 중사자들의 응답을 비교해 본 결과, 서울지역 제외 중사자들의 응답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1.9% 증가하였다.



[그림 IV-3-27] 시설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3)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부방은 지역사회 안에서 꾸준히 설립·운영되어 오면서 정착되어 왔다. 1989년 정부지원 공부방이 ‘청소년야간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최근 2010년까지 공부방이 지속적으로 설립된 바 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운영기간이 ‘5년 이상’인 곳이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공부방에 대한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운영자(91.7%)는 물론이고 지역청소년(79.4%)과 지역주민(76.8%) 또한 공부방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공부방 종사자들은 안정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기간 중 '5년 이상'이 76%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종사자의 재직기간 중 '3년 미만'이 전체의 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근직보다 비상근직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부방 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균 근무인력은 상근직과 비상근직을 포함하여 2.63명에 불과하며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가운데 자원봉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공부방 종사자들의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협력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력 시 겪는 어려움도 '협력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아 지역 내 단체들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공부방은 단독건물의 비율이 낮으며 매우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정도가 66㎡~132㎡ 미만으로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용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소년 활동·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사자들은 시설환경의 다른 측면보다 공간크기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공간크기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현재 공부방의 주요 기능은 '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 중에서도 '학습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의 공부방 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42.9%로 그리 높지 않아 청소년들의 요구가 많은 학습지원 외의 다른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공부방의 재정상태는 매우 열악하다. 2010년도 예·결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수입에서 국고와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국고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다.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이유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고지원 중단 이후 이용자 감소와 직원퇴직 등 운영에 직결되는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덟째, 2011년 국고지원 중단과 지방사업으로의 전환 이후 시설 전환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경우는 9.2% 정도였으며 71.1%가 현행 유지를 원하고 있었다(서울 제외 시). 시설 전환을 할 경우 시설별 선호도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0.7%, 청소년문화의집 25.2%, 지역아동센터 24.9%로 나타나 방과후아카데미로의 전환을 조금 더 선호하였으며, 시설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전문적인 인력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시사점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통해 청소년공부방이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부방의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요청된다. 공부방은 종사자들의 능력만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공부방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며, 공부방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부방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 필요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바 있다.

둘째, 공부방의 주요기능들이 균형을 이루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공부방의 주요 기능은 ‘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으로 나타났다. 기능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개선을 위한 운영자들의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공부방의 주요기능 가운데 ‘상담 및 정서지원’과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부방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부방은 방과후아카데미로의 시설 전환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시설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전문적인 인력 확보를 원하고 있다. 공부방 이용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적 인력의 충원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별 자격증과 학력을 살펴본 결과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비율이 적다고 여겨진다. 종사자들이 비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 생겨나는 문제점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나서는 것 뿐만 아니라 공부방 종사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넷째, 안정적인 시설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공부방은 현재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더욱이 예산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시설전환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 전환을 하는 데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전환 의사를 갖고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고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부방 종사자들의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협력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시설·사업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강화가 요청된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공부방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은 높은 편이지만 2011년 들어 예산지원 중단과 시설 전환 요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공부방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부방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제공과 학습지원의 기능, 나아가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수행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기능과 역할 다각화 및 자구책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4.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분석⁴²⁾

1) 개요

조사대상 청소년의 특성으로 먼저 성별의 경우, 남자 47.2%, 여자 52.8%로 여자청소년이 조금 더 많았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 21.0%, 중학생 44.2%, 일반계 고등학생 24.4%, 전문계 고등학생 6.4%,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1.2%, 기타 2.8%로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경제수준은 하 21.1%, 중 66.8%, 상 12.0%였으며, 학업성적은 하 16.3%, 중 46.6%, 상 37.1%의 분포를 보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대도시 44.0%, 중소도시 25.8%, 읍면소재지 30.2%로 나타났다.

표 IV-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청소년)

구 분		빈도	%
성별	남 자	589	47.2
	여 자	659	52.8
교급	초등학교	261	21.0
	중학교	550	44.2
	일반계 고등학교	304	24.4
	전문계 고등학교	80	6.4
	비재학	15	1.2
	기타	35	2.8
경제수준	하	258	21.1
	중	815	66.8
	상	147	12.0
학업성적	하	199	16.3
	중	568	46.6
	상	452	37.1

42) 이 부분은 박은혁(명지대학교 강사)과 연구진이 함께 분석하였음.

거주지역	대도시	556	44.0
	중소도시	326	25.8
	읍면소재지	382	30.2

2)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부방 이용실태, 공부방 이용동기와 만족도,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공부방의 필요성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결과분석 내용 요약과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부방 이용실태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공부방 이용실태를 이용기간, 이용시간, 이용시기, 교통편, 이동 소요시간, 이용경로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이용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26.82개월(최대 162개월)로 나타나 공부방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용시간은 1회 이용시 평균 199.61분(최대 960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평균 이용시간이 199.61분으로 나타난 것은 방과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② 이용시기

공부방 이용시기는 <표 IV-4-2>와 같다.

성별에 따른 공부방 이용시기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주중오후’ 39.9%, ‘주중저녁’ 31.9%, ‘규칙적 이용안함’ 14.5%, ‘주말오후’ 7.8%, ‘주말저녁’ 3.1%, ‘주말오전’ 2.7%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주중오후’ 37.7%, ‘주중저녁’ 28.8%, ‘규칙적 이용안함’ 20.0%, ‘주말오후’ 9.3%, ‘주말오전’ 2.4%, ‘주말저녁’ 1.8%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공부방 이용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급에 따른 공부방 이용시기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주중오후’ 74.3%, ‘주중저녁’ 16.1%, ‘규칙적 이용안함’ 5.4%, ‘주말오후’ 1.9%, ‘주말저녁’ 1.5%, ‘주말오전’ 0.8%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주중오후’와 ‘주중저녁’이 각각 35.1%, ‘규칙적 이용안함’ 19.0%, ‘주말오후’ 6.8%, ‘주말오전’ 2.4%, ‘주말저녁’ 1.6%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주중저녁’ 32.6%, ‘규칙적 이용안함’ 23.9%, ‘주말오후’ 17.6%, ‘주중오후’ 17.3%, ‘주말저녁’ 5.0%, ‘주말오전’ 3.7%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주중저녁’ 37.5%, ‘주중오후’ 26.3%, ‘규칙적 이용안함’ 20.0%, ‘주말오후’ 8.8%, ‘주말오전’ 5.0%, ‘주말저녁’ 2.5%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주중오후’ 66.7%, ‘규칙적 이용안함’ 26.7%, ‘주중저녁’ 6.7%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주중오후’와 ‘주중저녁’이 각각 31.4%, ‘규칙적 이용안함’ 17.1%, ‘주말오후’ 14.3%, ‘주말오전’ 5.7%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공부방 이용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경제수준에 따른 공부방 이용시기를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주중오후’ 39.0%, ‘주중저녁’ 30.8%, ‘규칙적 이용안함’ 18.5%, ‘주말오후’ 8.2%, ‘주말오전’ 2.7%, ‘주말저녁’ 0.7%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주중오후’ 36.7%, ‘주중저녁’ 29.8%, ‘규칙적 이용안함’ 18.5%, ‘주말오후’ 9.0%, ‘주말오전’ 3.1%, ‘주말저녁’ 2.8%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주중오후’ 38.9%, ‘주중저녁’ 35.4%, ‘규칙적 이용안함’ 14.0%, ‘주말오후’ 8.6%, ‘주말저녁’ 2.3%, ‘주말오전’ 0.8%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공부방 이용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학업성적에 따른 공부방 이용시기를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주중오후’ 37.9%, ‘주중저녁’ 33.7%, ‘규칙적 이용안함’ 16.1%, ‘주말오후’ 7.8%, ‘주말저녁’ 2.5%, ‘주말오전’ 2.0%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주중오후’ 38.3%, ‘주중저녁’ 28.2%, ‘규칙적 이용안함’ 17.8%, ‘주말오후’ 10.1%, ‘주말오전’ 3.4%, ‘주말저녁’ 2.3%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주중오후’ 34.3%, ‘주중저녁’ 33.3%, ‘규칙적 이용안함’ 20.2%, ‘주말오후’ 7.6%, ‘주말저녁’ 3.0%, ‘주말오전’ 1.5%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공부방 이용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거주지역에 따른 공부방 이용시기를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주중오후’ 36.4%, ‘주중저녁’ 28.7%, ‘규칙적 이용안함’ 21.8%, ‘주말오후’ 8.0%, ‘주말오전’ 3.3%, ‘주말저녁’ 1.8% 순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주중오후’ 39.4%, ‘주중저녁’ 34.5%, ‘규칙적 이용안함’ 14.5%, ‘주말오후’ 6.8%, ‘주말저녁’ 3.1%, ‘주말오전’ 1.8%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주중오후’ 42.3%, ‘주중저녁’ 28.6%, ‘규칙적 이용안함’ 13.1%, ‘주말오후’ 11.3%, ‘주말저녁’ 2.6%, ‘주말오전’ 2.1%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공부방 이용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표 IV-4-2 공부방 이용시기

(단위 : %)

구 분		주중 오후	주중 저녁	주말 오전	주말 오후	주말 저녁	규칙적 이용 안함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38.9	30.3	2.5	8.7	2.4	17.2	100(1260)	
성별	남	39.9	31.9	2.7	7.8	3.1	14.5	100(586)	9.546
	여	37.7	28.8	2.4	9.3	1.8	20.0	100(656)	
교급	초	74.3	16.1	0.8	1.9	1.5	5.4	100(261)	253.303** *
	중	35.1	35.1	2.4	6.8	1.6	19.0	100(104)	
	일반고	17.3	32.6	3.7	17.6	5.0	23.9	100(301)	
	전문계고	26.3	37.5	5.0	8.8	2.5	20.0	100(80)	
	비재학	66.7	6.7	0	0	0	26.7	100(15)	
	기타	31.4	31.4	5.7	14.3	0	17.1	100(35)	
경제 수준	하	38.9	35.4	0.8	8.6	2.3	14.0	100(257)	11.158
	중	36.7	29.8	3.1	9.0	2.8	18.5	100(811)	
	상	39.0	30.8	2.7	8.2	0.7	18.5	100(146)	
학업 성적	하	34.3	33.3	1.5	7.6	3.0	20.2	100(198)	9.753
	중	38.3	28.2	3.4	10.1	2.3	17.8	100(567)	
	상	37.9	33.7	2.0	7.8	2.5	16.1	100(448)	
거주 지역	대도시	36.4	28.7	3.3	8.0	1.8	21.8	100(550)	24.750**
	중소도시	39.4	34.5	1.8	6.8	3.1	14.5	100(325)	
	읍면소재지	42.3	28.6	2.1	11.3	2.6	13.1	100(381)	

공부방 이용시기가 전반적으로 ‘주중오후’와 ‘주중저녁’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부방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습과 보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말에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적기 때문에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급에 따라 ‘규칙적 이용안함’이 차지하는 비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이후 ‘규칙적 이용안함’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초등학교 시기가 다른 교급에 비해 방과후에 갖게 되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급에 비해 규칙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다른 교급에 비해 ‘규칙적 이용안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다른 교급에 비해 소속감이 약하거나 학습과 관련한 압력을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주중오후’의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아 다른 교급에 비해 갖게 되는 활용가능 시간이 많아 이용시간의 선택에 보다 여유가 있으며, 이들이 다른 또래와 마주칠 기회가 적은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말오전’,

‘주말오후’, ‘주말저녁’에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이 시간대에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을 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소재지에 비해 ‘규칙적 이용안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대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이용 가능시설이 더 많이 제공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비규칙적 이용시기는 <표 IV-4-3>과 같다.

성별에 따른 비규칙적 이용시기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시험기간’ 75.3%, ‘기타’ 18.8%, ‘방학이용’ 5.9%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시험기간’ 77.9%, ‘기타’ 16.8%, ‘방학이용’ 5.3%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비규칙적 이용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급에 따른 비규칙적 이용시기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시험기간’과 ‘기타’가 각각 42.9%, ‘방학이용’ 14.3%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시험기간’ 89.4%, ‘기타’ 8.7%, ‘방학이용’ 1.9%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시험기간’ 73.6%, ‘기타’ 19.4%, ‘방학이용’ 6.9%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시험기간’ 81.3%, ‘기타’ 18.8%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기타’ 75.0%, ‘시험기간’ 25.0%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방학이용’과 ‘기타’가 각각 50.0% 이었다. 교급에 따른 비규칙적 이용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경제수준에 따른 비규칙적 이용시기를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시험기간’ 70.4%, ‘기타’ 22.2%, ‘방학이용’ 7.4%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시험기간’ 80.7%, ‘기타’ 14.7%, ‘방학이용’ 4.7%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시험기간’ 69.4%, ‘기타’ 27.8%, ‘방학이용’ 2.8%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비규칙적 이용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학업성적에 따른 비규칙적 이용시기를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시험기간’ 83.3%, ‘기타’ 15.3%, ‘방학이용’ 1.4%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시험기간’ 76.2%, ‘기타’ 16.8%, ‘방학이용’ 6.9%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시험기간’ 70.0%, ‘기타’ 25.0%, ‘방학이용’ 5.0%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비규칙적 이용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거주지역에 따른 비규칙적 이용시기를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시험기간’ 84.2%, ‘기타’ 13.3%, ‘방학이용’ 2.5% 순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시험기간’ 68.1%, ‘기타’ 19.1%, ‘방학이용’ 12.8%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시험기간’ 66.0%, ‘기타’ 28.0%, ‘방학이용’ 6.0%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비규칙적 이용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표 IV-4-3 비규칙적 이용시기

(단위 : %)

구 분	시험기간	방학이용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63.5	10.8	25.7	100(696)	
성별	남	75.3	5.9	100(85)	.192
	여	77.9	5.3	100(131)	
교급	초	42.9	14.3	100(14)	58.509***
	중	89.4	1.9	100(104)	
	일반고	73.6	6.9	100(72)	
	전문계고	81.3	0	100(16)	
	비재학	25.0	0	100(4)	
	기타	0.0	50.0	100(6)	
	경제 수준	하	69.4	2.8	
중	80.7	4.7	100(150)		
상	70.4	7.4	100(27)		
학업 성적	하	70.0	5.0	100(40)	4.859
	중	76.2	6.9	100(101)	
	상	83.3	1.4	100(72)	
거주 지역	대도시	84.2	2.5	100(120)	12.811*
	중소도시	68.1	12.8	100(47)	
	읍·면소재지	66.0	6.0	100(50)	

비규칙적 이용시기가 전반적으로 '시험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공부방 이용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공부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공부방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청소년들이 시험이 있는 경우에만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은 단기간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교급에 따라 '시험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음과 기타의 경우 다른 교급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방을 시험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시간 확보가 용이한 다른 시기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초등학생, 학교에 다니지 않음, 기타의 경우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③ 교통편

교통편은 <표 IV-4-4>와 같다.

성별에 따른 교통편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도보’ 89.6%, ‘버스’ 10.2%, ‘지하철’ 0.2%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도보’ 85.6%, ‘버스’ 14.2%, ‘지하철’ 0.2%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교통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급에 따른 교통편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도보’ 92.7%, ‘버스’ 6.9%, ‘지하철’ 0.4%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도보’ 85.1%, ‘버스’ 14.9%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도보’ 92.4%, ‘버스’ 7.3%, ‘지하철’ 0.3%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도보’ 71.3%, ‘버스’ 28.8%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도보’ 73.3%, ‘버스’ 26.7%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도보’ 85.7%, ‘버스’ 14.3%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교통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경제수준에 따른 교통편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도보’ 91.8%, ‘버스’ 8.2%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도보’ 87.3%, ‘버스’ 12.6%, ‘지하철’ 0.1%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도보’ 84.9%, ‘버스’ 15.1%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교통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학업성적에 따른 교통편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도보’ 88.0%, ‘버스’ 12.0%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도보’ 87.3%, ‘버스’ 12.5%, ‘지하철’ 0.2%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도보’ 85.7%, ‘버스’ 14.3%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교통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거주지역에 따른 교통편을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도보’ 86.1%, ‘버스’ 13.7%, ‘지하철’ 0.2% 순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도보’ 91.4%, ‘버스’ 8.6%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도보’ 86.5%, ‘버스’ 13.2%, ‘지하철’ 0.3%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교통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IV-4-4 교통편

(단위 : %)

구 분	교통편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도보	버스	지하철			
전체	87.6	12.2	0.2	100(1259)		
성별	남	89.6	10.2	0.2	100(587)	4.578
	여	85.6	14.2	0.2	100(654)	
교급	초	92.7	6.9	0.4	100(260)	42.513****
	중	85.1	14.9	0.0	100(545)	
	일반고	92.4	7.3	0.3	100(303)	
	전문계고	71.3	28.8	0.0	100(80)	
	비재학	73.3	26.7	0.0	100(15)	
	기타	85.7	14.3	0.0	100(35)	
경제 수준	하	84.9	15.1	0.0	100(258)	4.524
	중	87.3	12.6	0.1	100(809)	
	상	91.8	8.2	0.0	100(146)	
학업 성적	하	85.7	14.3	0.0	100(196)	1.793
	중	87.3	12.5	0.2	100(566)	
	상	88.0	12.0	0.0	100(450)	
거주 지역	대도시	86.1	13.7	0.2	100(553)	6.251
	중소도시	91.4	8.6	0.0	100(324)	
	읍·면소재지	86.5	13.2	0.3	100(378)	

교통편이 전반적으로 ‘도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철보다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공부방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접근성이 좋다고 볼 수 있다.

④ 이동 소요시간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이동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평균 11.1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통편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대부분이 공부방과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⑤ 이용경로

이용경로는 <표 IV-4-5>와 같다.

성별에 따른 이용경로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친구’ 38.0%, ‘부모님’ 31.1%, ‘직접발견’ 19.0%, ‘기타’ 4.9%, ‘학교선생님’과 ‘신문,홍보물’이 각각 2.9%, ‘다른 기관 추천’ 1.2%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친구’ 41.6%, ‘부모님’ 28.6%, ‘직접발견’ 16.6%, ‘기타’ 6.7%, ‘학교선생님’ 3.0%, ‘신문,홍보물’ 2.4%, ‘다른 기관 추천’ 1.1%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이용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급에 따른 이용경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부모님’ 47.1%, ‘친구’ 30.7%, ‘직접발견’과 ‘기타’가 각각 8.8%, ‘신문,홍보물’ 3.4%, ‘다른 기관 추천’ 0.8%, ‘학교선생님’ 0.4% 순이었고, 중학교의 경우 ‘친구’ 42.1%, ‘부모님’ 27.7%, ‘직접발견’ 15.1%, ‘학교선생님’과 ‘기타’가 각각 5.8%, ‘신문,홍보물’ 1.8%, ‘다른 기관 추천’ 1.6%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친구’ 44.1%, ‘부모님’과 ‘직접발견’이 각각 23.7%, ‘신문,홍보물’과 ‘기타’가 각각 3.9%, ‘학교선생님’ 0.7%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친구’ 48.8%, ‘직접발견’ 21.3%, ‘부모님’ 17.5%, ‘기타’ 5.0%, ‘다른 기관 추천’ 3.8%, ‘신문,홍보물’ 2.5%, ‘학교선생님’ 1.3%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친구’와 ‘직접발견’이 각각 33.3%, ‘부모님’ 26.7%, ‘기타’ 6.7%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직접발견’ 57.1%, ‘친구’ 25.7%, ‘부모님’ 14.3%, ‘기타’ 2.9%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이용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경제수준에 따른 이용경로를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친구’ 44.2%, ‘부모님’ 28.6%, ‘직접발견’ 14.3%, ‘기타’ 9.5%, ‘신문,홍보물’ 2.7%, ‘학교선생님’ 0.7%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친구’ 38.6%, ‘부모님’ 29.9%, ‘직접발견’ 18.6%, ‘기타’ 5.4%, ‘학교선생님’ 3.8%, ‘신문,홍보물’ 2.6%, ‘다른 기관 추천’ 1.2%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친구’ 38.0%, ‘부모님’ 29.5%, ‘직접발견’ 18.6%, ‘기타’ 5.8%, ‘신문,홍보물’ 4.7%, ‘학교선생님’ 1.9%, ‘다른 기관 추천’ 1.6%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이용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학업성적에 따른 이용경로를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친구’ 38.1%, ‘부모님’ 32.7%, ‘직접발견’ 18.4%, ‘기타’ 4.9%, ‘신문,홍보물’ 2.7%, ‘학교선생님’ 2.2%, ‘다른 기관 추천’ 1.1%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친구’ 37.2%, ‘부모님’ 28.7%, ‘직접발견’ 18.9%, ‘기타’ 6.3%, ‘학교선생님’ 3.9%, ‘신문,홍보물’ 3.7%, ‘다른 기관 추천’ 1.2%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친구’ 46.7%, ‘부모님’ 25.1%, ‘직접발견’ 15.1%, ‘기타’ 7.5%, ‘학교선생님’ 2.5%, ‘신문,홍보물’ 2.0%, ‘다른 기관 추천’ 1.0%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이용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경로를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친구’ 43.5%, ‘부모님’ 25.8%, ‘직접발견’ 20.0%, ‘기타’ 6.0%, ‘신문,홍보물’ 2.2%, ‘학교선생님’과 ‘다른 기관 추천’이 각각 1.3% 순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친구’ 34.5%, ‘부모님’ 33.5%, ‘직접발견’ 16.6%, ‘기타’ 8.0%, ‘신문,홍보물’ 4.3%, ‘학교선생님’ 1.8%, ‘다른 기관 추천’ 1.2%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친구’ 39.8%, ‘부모님’ 31.2%, ‘직접발견’ 15.2%, ‘학교선생님’ 6.3%, ‘기타’ 3.7%, ‘신문,홍보물’ 3.1%, ‘다른 기관 추천’ 0.8%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표 IV-4-5 이용경로

(단위 : %)

구 분	알게된 경로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친구	학교 선생님	부모님	신문, 홍보물	직접 발견	다른기관 추천	기타			
전체	40.2	2.9	29.4	3.0	17.6	1.1	5.8	100(1265)		
성별	남	38.0	2.9	31.1	2.9	19.0	1.2	4.9	100(589)	4.680
	여	41.6	3.0	28.6	2.4	16.6	1.1	6.7	100(658)	
교급	초	30.7	0.4	47.1	3.4	8.8	0.8	8.8	100(261)	153.965***
	중	42.1	5.8	27.7	1.8	15.1	1.6	5.8	100(549)	
	일반고	44.1	0.7	23.7	3.9	23.7	0.0	3.9	100(304)	
	전문계고	48.8	1.3	17.5	2.5	21.3	3.8	5.0	100(80)	
	비재학	33.3	0.0	26.7	0.0	33.3	0.0	6.7	100(15)	
	기타	25.7	0.0	14.3	0.0	57.1	0.0	2.9	100(35)	
경제수준	하	38.0	1.9	29.5	4.7	18.6	1.6	5.8	100(258)	16.281
	중	38.6	3.8	29.9	2.6	18.6	1.2	5.4	100(814)	
	상	44.2	0.7	28.6	2.7	14.3	0.0	9.5	100(147)	
학업성적	하	46.7	2.5	25.1	2.0	15.1	1.0	7.5	100(199)	14.014
	중	37.2	3.9	28.7	3.7	18.9	1.2	6.3	100(567)	
	상	38.1	2.2	32.7	2.7	18.4	1.1	4.9	100(452)	
거주지역	대도시	43.5	1.3	25.8	2.2	20.0	1.3	6.0	100(554)	42.795***
	중소도시	34.5	1.8	33.5	4.3	16.6	1.2	8.0	100(325)	
	읍·면소재지	39.8	6.3	31.2	3.1	15.2	0.8	3.7	100(382)	

이용경로에서 전반적으로 ‘친구’와 ‘부모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친구’는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커지는 청소년기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부모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직접발견’의 비율이 다른 교급에 비해 낮게 나타나 이 시기에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부모님의 지도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교급에 따라 ‘직접발견’이 차지하는 비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기타의 경우 다른 교급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재학중인 청소년들에 비해 정보를 얻게 되는 경로가 제한되어 있어 이들 스스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들이 다른 교급에 비해 친구를 통해 알게 되는 비율이 적고 학교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는 비율이 전혀 없는 것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은 다른 교급에 비해 이용경로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다른 기관 추천’이나 ‘신문, 홍보물’이라는 응답이 전혀 없는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부방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기타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발견’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청소년공부방 실제 이용대상인 청소년에게 안내가 잘 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교급에 ‘학교선생님’이라는 응답이 적어 학교선생님의 공부방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안내가 요청된다.

청소년공부방의 ‘신문, 홍보물’을 통한 자체 홍보보다 친구나 부모님, 스스로 알게 된 경우가 높게 나타나 청소년공부방을 알리는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문자매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영상매체 등 청소년들이 보다 선호하는 방식으로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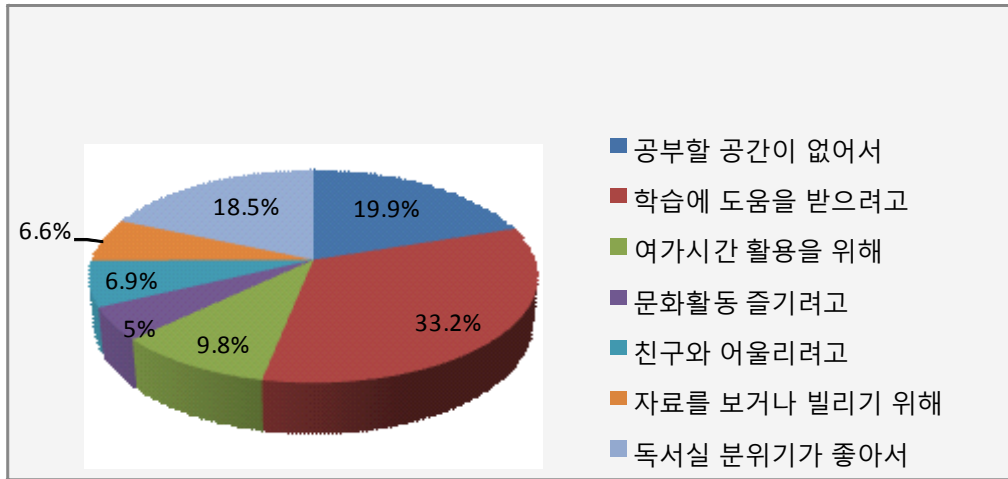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추천’이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 지역 내 기관간의 연계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기관마다 대상과 사업이 상이할 수 있으나 상호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공부방 이용동기와 만족도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공부방 이용동기와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동기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공부방 이용동기를 살펴보면, ‘학습에 도움을 받으려고’라는 응답이 33.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부할 공간이 없어서’ 19.9%, ‘독서실분위기가 좋아서’ 18.5%,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9.8%, ‘친구와 어울리려고’ 6.9%, ‘자료를 보거나 빌리기 위해’ 6.6%, ‘문화활동 즐기려고’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1] 공부방 이용동기

이용동기 가운데 ‘학습’과 관련한 응답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공부방 이용동기에 있어서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부방 이용청소년에게 학습이 주는 부담감이 크다는 것과 학교공부를 보충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해소시키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여가시간활용과 문화활동에 대한 동기도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② 만족도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용 만족도는 <표 IV-4-6>과 같다.

성별에 따른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만족’ 48.5%, ‘매우 만족’ 28.2%, ‘보통’ 21.8%, ‘불만족’ 1.0%, ‘매우 불만족’ 0.5%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만족’ 44.7%, ‘매우 만족’ 27.7%, ‘보통’ 25.2%, ‘매우 불만족’ 1.4%, ‘불만족’ 1.1%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이용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급에 따른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만족’ 37.5%, ‘매우 만족’ 35.2%, ‘보통’ 25.3%, ‘불만족’ 1.1%, ‘매우 불만족’ 0.8%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만족’ 46.3%, ‘보통’ 27.3%, ‘매우 만족’ 24.2%, ‘불만족’ 1.5%, ‘매우 불만족’ 0.7%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만족’ 53.1%, ‘매우 만족’ 25.4%, ‘보통’ 19.5%, ‘매우 불만족’ 1.7%, ‘불만족’ 0.3%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만족’ 53.8%, ‘매우 만족’ 28.8%, ‘보통’ 15.0%,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각각 1.3%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매우 만족’ 60.0% ‘만족’과 ‘보통’이 각각 20.0%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만족’ 48.6%, ‘매우 만족’ 37.1%, ‘보통’ 14.3%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이용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1).

경제수준에 따른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만족’ 49.0%, ‘매우 만족’ 37.4%, ‘보통’ 11.6%, ‘매우 불만족’ 2.0%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만족’ 47.5%, ‘매우 만족’ 26.5%, ‘보통’ 24.3%, ‘불만족’ 0.9%, ‘매우 불만족’ 0.7%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만족’ 45.5%, ‘매우 만족’ 28.8%, ‘보통’ 22.6%, ‘불만족’ 2.3%, ‘매우 불만족’ 0.8%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이용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1).

학업성적에 따른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만족’ 47.7%, ‘매우 만족’ 34.4%, ‘보통’ 15.5%, ‘매우 불만족’ 1.3%, ‘불만족’ 1.1%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만족’ 48.1%, ‘매우 만족’ 26.3%, ‘보통’ 24.3%, ‘불만족’ 0.7%, ‘매우 불만족’ 0.5%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만족’ 44.2%, ‘보통’ 32.2%, ‘매우 만족’ 20.6%, ‘불만족’ 2.0%, ‘매우 불만족’ 1.0%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이용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1).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만족’ 45.8%, ‘매우 만족’ 29.1%, ‘보통’ 23.1%, ‘매우 불만족’ 1.1%, ‘불만족’ 0.9% 순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만족’ 46.5%, ‘매우 만족’ 28.0%, ‘보통’ 24.0%, ‘불만족’ 0.9%, ‘매우 불만족’ 0.6%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만족’ 47.8%, ‘매우 만족’ 25.7%, ‘보통’ 24.1%, ‘불만족’ 1.3%, ‘매우 불만족’ 1.0%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IV-4-6 이용 만족도

(단위 :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0.9	1.0	23.6	46.7	27.8	100(1264)	
성별	남	0.5	1.0	21.8	48.5	28.2	100(588)	4.947
	여	1.4	1.1	25.2	44.7	27.7	100(658)	
교급	초	0.8	1.1	25.3	37.5	35.2	100(261)	40.550**
	중	0.7	1.5	27.3	46.3	24.2	100(549)	
	일반고	1.7	0.3	19.5	53.1	25.4	100(303)	
	전문계고	1.3	1.3	15.0	53.8	28.8	100(80)	
	비재학	0.0	0.0	20.0	20.0	60.0	100(15)	
	기타	0.0	0.0	14.3	48.6	37.1	100(35)	
경제 수준	하	0.8	2.3	22.6	45.5	28.8	100(257)	22.709**
	중	0.7	0.9	24.3	47.5	26.5	100(814)	
	상	2.0	0.0	11.6	49.0	37.4	100(147)	
학업 성적	하	1.0	2.0	32.2	44.2	20.6	100(199)	34.483***
	중	0.5	0.7	24.3	48.1	26.3	100(567)	
	상	1.3	1.1	15.5	47.7	34.4	100(451)	
거주 지역	대도시	1.1	0.9	23.1	45.8	29.1	100(554)	2.163
	중소도시	0.6	0.9	24.0	46.5	28.0	100(325)	
	읍·면소재지	1.0	1.3	24.1	47.8	25.7	100(381)	

이용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만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불만족스런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다른 교급에 비해 ‘매우 만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다른 교급에 비해 불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추후 이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요청된다.

학업성적에 따라 이용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부방에서 예산과 상황적인 문제로 획일적인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과 방식이 아닌 집단간 차별화된 교육 내용과 방식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③ 사업분야별 만족도

사업분야별 만족도를 자율적인 학습공간제공, 청소년 학습지도, 여가문화체험활동 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 자료열람 및 대출, 정보제공,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율적인 학습공간제공 만족도는 <표 IV-4-7>과 같다.

성별에 따른 자율적인 학습공간제공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만족하는 편임’ 47.4%, ‘매우 만족함’ 34.2%, ‘보통’ 15.9%, ‘별로 만족안함’ 2.6%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만족하는 편임’ 44.5%, ‘매우 만족함’ 37.9%, ‘보통’ 15.4%, ‘별로 만족안함’ 1.8%, ‘전혀 만족안함’ 0.3%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자율적인 학습공간제공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급에 따른 자율적인 학습공간제공 만족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만족하는 편임’ 41.0%, ‘매우 만족함’ 38.3%, ‘보통’ 18.0%, ‘별로 만족안함’ 2.7%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만족하는 편임’ 49.1%, ‘매우 만족함’ 30.0%, ‘보통’ 18.3%, ‘별로 만족안함’ 2.2%, ‘전혀 만족안함’ 0.4%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만족하는 편임’ 45.4%, ‘매우 만족함’ 43.0%, ‘보통’ 10.3%, ‘별로 만족안함’ 1.3%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만족하는 편임’ 46.8%, ‘매우 만족함’ 36.4%, ‘보통’ 14.3%, ‘별로 만족안함’ 2.6%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매우 만족함’ 66.7% ‘만족하는 편임’ 20.0%, ‘보통’과 ‘별로 만족안함’이 각각 6.7%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매우 만족함’과 ‘만족하는 편임’이 각각 42.9%, ‘보통’ 8.6%, ‘별로 만족안함’ 5.7%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자율적인 학습공간제공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경제수준에 따른 자율적인 학습공간제공 만족도를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매우 만족함’ 45.2%, ‘만족하는 편임’ 43.2%, ‘보통’ 11.0%, ‘별로 만족안함’ 0.7%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만족하는 편임’ 46.1%, ‘매우 만족함’ 34.4%, ‘보통’ 17.1%, ‘별로 만족안함’ 2.2%, ‘전혀 만족안함’ 0.1%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매우 만족함’과 ‘만족하는 편임’이 각각 40.7%, ‘보통’ 15.1%, ‘별로 만족안함’ 3.1%, ‘전혀 만족안함’ 0.4%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자율적인 학습공간제공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학업성적에 따른 자율적인 학습공간제공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매우 만족함’ 45.3%, ‘만족하는 편임’ 41.5%, ‘보통’ 10.5%, ‘별로 만족안함’ 2.2%, ‘전혀 만족안함’ 0.4%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만족하는 편임’ 47.6%, ‘매우 만족함’ 32.5%, ‘보통’ 17.9%, ‘별로 만족안함’ 2.0%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만족하는 편임’ 42.7%, ‘매우 만족함’ 31.7%, ‘보통’ 22.6%, ‘별로 만족안함’ 3.0%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자율적인 학습공간제공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1).

거주지역에 따른 자율적인 학습공간제공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만족하는 편임’ 43.7%, ‘매우 만족함’ 38.8%, ‘보통’ 15.8%, ‘별로 만족안함’ 1.5%, ‘전혀 만족안함’ 0.2% 순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만족하는 편임’ 40.6%, ‘매우 만족함’ 36.8%, ‘보통’ 20.7%, ‘별로 만족안함’ 1.5%, ‘전혀 만족안함’ 0.3%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만족하는 편임’ 53.7%, ‘매우 만족함’ 31.2%, ‘보통’ 11.1%, ‘별로 만족안함’ 4.0%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자율적인 학습공간제공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1).

표 IV-4-7 사업분야별 만족도(자율적인 학습공간제공)

(단위 : %)

구 분	전혀 만족안 함	별로 만족안 함	보통	만족하 는 편임	매우 만족함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0.2	2.2	15.6	45.8	36.2	100(1256)	
성별	남	0.0	2.6	15.9	47.4	100(585)	4.322
	여	0.3	1.8	15.4	44.5	100(654)	
	초	0.0	2.7	18.0	41.0	100(261)	
교급	중	0.4	2.2	18.3	49.1	100(546)	37.213*
	일반고	0.0	1.3	10.3	45.4	100(302)	
	전문계고	0.0	2.6	14.3	46.8	100(77)	
	비재학	0.0	6.7	6.7	20.0	100(15)	
	기타	0.0	5.7	8.6	42.9	100(35)	
경제 수준	하	0.4	3.1	15.1	40.7	100(258)	12.975
	중	0.1	2.2	17.1	46.1	100(807)	
	상	0.0	0.7	11.0	43.2	100(146)	
학업 성적	하	0.0	3.0	22.6	42.7	100(199)	34.638***
	중	0.0	2.0	17.9	47.6	100(563)	
	상	0.4	2.2	10.5	41.5	100(448)	
거주 지역	대도시	0.2	1.5	15.8	43.7	100(551)	29.954***
	중소도시	0.3	1.5	20.7	40.6	100(323)	
	읍·면소재지	0.0	4.0	11.1	53.7	100(378)	

자율적인 학습공간제공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과 ‘만족하는 편임’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다른 교급에 비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재학중인 청소년에 비해 학습공간을 덜 제공받는 상황에서 공부방을 이용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학습성적이 상인 경우 다른 교급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익숙한 이들에게 학습내용을 지도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공간이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읍·면소재지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율적 학습공간에 대한 욕구보다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청소년 학습지도 만족도는 <표 IV-4-8>과 같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 학습지도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보통’ 37.5%, ‘만족하는 편임’ 34.0%, ‘매우 만족함’ 22.4%, ‘별로 만족안함’ 4.2%, ‘전혀 만족안함’ 1.9%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보통’ 38.7%, ‘만족하는 편임’ 34.5%, ‘매우 만족함’ 18.1%, ‘별로 만족안함’ 6.6%, ‘전혀 만족안함’ 2.0%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 학습지도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급에 따른 청소년 학습지도 만족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매우 만족함’ 35.4%, ‘만족하는 편임’ 32.7%, ‘보통’ 28.3%, ‘별로 만족안함’ 3.5% 순이었고, 중학교의 경우 ‘보통’ 38.7%, ‘만족하는 편임’ 37.8%, ‘매우 만족함’ 17.4%, ‘별로 만족안함’ 4.3%, ‘전혀 만족안함’ 1.9%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보통’ 45.1%, ‘만족하는 편임’ 29.4%, ‘매우 만족함’ 12.6%, ‘별로 만족안함’ 9.2%, ‘전혀 만족안함’ 3.8%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보통’ 41.9%, ‘만족하는 편임’ 35.1%, ‘매우 만족함’ 17.6%, ‘별로 만족안함’ 4.1%, ‘전혀 만족안함’ 1.4%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보통’ 35.7%, ‘매우 만족함’ 28.6%, ‘만족하는 편임’과 ‘전혀 만족안함’이 각각 14.3%, ‘별로 만족안함’ 7.1%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만족하는 편임’과 ‘보통’이 각각 35.3%, ‘매우 만족함’ 17.6%, ‘별로 만족안함’ 11.8%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청소년 학습지도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 학습지도 만족도를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매우 만족함’ 45.2%, ‘만족하는 편임’ 43.2%, ‘보통’ 11.0%, ‘별로 만족안함’ 0.7%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만족하는 편임’ 46.1%, ‘매우 만족함’ 34.4%, ‘보통’ 17.1%, ‘별로 만족안함’ 2.2%, ‘전혀 만족안함’ 0.1%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매우 만족함’과 ‘만족하는 편임’이 각각 40.7%, ‘보통’ 15.1%, ‘별로 만족안함’ 3.1%, ‘전혀 만족안함’ 0.4%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 학습지도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학업성적에 따른 청소년 학습지도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만족하는 편임’ 34.3%, ‘보통’ 34.1%, ‘매우 만족함’ 26.2%, ‘별로 만족안함’ 3.2%, ‘전혀 만족안함’ 2.3%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보통’ 40.6%, ‘만족하는 편임’ 33.2%, ‘매우 만족함’ 16.8%, ‘별로 만족안함’ 7.7%, ‘전혀 만족안함’ 1.7%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보통’ 40.9%, ‘만족하는 편임’ 33.8%, ‘매우 만족함’ 17.7%, ‘별로 만족안함’ 5.1%, ‘전혀 만족안함’ 2.5%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청소년 학습지도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 학습지도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보통’ 40.6%, ‘만족하는 편임’ 30.3%, ‘매우 만족함’ 21.8%, ‘별로 만족안함’ 5.4%, ‘전혀 만족안함’ 2.0% 순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보통’ 38.0%, ‘만족하는 편임’ 33.5%, ‘매우 만족함’ 19.3%, ‘별로 만족안함’ 6.6%, ‘전혀 만족안함’ 2.5%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만족하는 편임’ 41.9%, ‘보통’ 34.0%, ‘매우 만족함’ 17.8%, ‘별로 만족안함’ 4.7%, ‘전혀 만족안함’ 1.6%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 학습지도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IV-4-8 사업분야별 만족도(청소년 학습지도)

(단위 : %)

구 분		전혀 만족 안함	별로 만족 안함	보통	만족 하는 편임	매우 만족함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2.0	5.5	38.0	34.5	20.0	100(1227)	
성별	남	1.9	4.2	37.5	34.0	22.4	100(576)	6.242
	여	2.0	6.6	38.7	34.5	18.1	100(635)	
교급	초	0.0	3.5	28.3	32.7	35.4	100(254)	91.313***
	중	1.9	4.3	38.7	37.8	17.4	100(540)	
	일반고	3.8	9.2	45.1	29.4	12.6	100(293)	
	전문계고	1.4	4.1	41.9	35.1	17.6	100(74)	
	비재학	14.3	7.1	35.7	14.3	28.6	100(14)	
	기타	0.0	11.8	35.3	35.3	17.6	100(34)	
경제 수준	하	0.4	3.1	15.1	40.7	40.7	100(258)	12.975
	중	0.1	2.2	17.1	46.1	34.4	100(807)	
	상	0.0	0.7	11.0	43.2	45.2	100(146)	
학업 성적	하	2.5	5.1	40.9	33.8	17.7	100(198)	24.695**
	중	1.7	7.7	40.6	33.2	16.8	100(542)	
	상	2.3	3.2	34.1	34.3	26.2	100(443)	
거주 지역	대도시	2.0	5.4	40.6	30.3	21.8	100(542)	14.936
	중소도시	2.5	6.6	38.0	33.5	19.3	100(316)	
	읍·면소재지	1.6	4.7	34.0	41.9	17.8	100(365)	

청소년 학습지도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과 ‘만족하는 편임’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외나 학원수강 등 다른 방법으로 보충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들이 공부방에서 제공되는 학습지도를 통해 부족한 학업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일반고, 학교에 다니지 않음, 기타의 경우 다른 교급에 비해 불만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와 비교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입시에 대한 압박감을 현실적으로 느끼는 이들이 입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학습지도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작업이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교급에 따라 만족도가 차이가 있어 교급별로 세심한 학습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업성적이 상인 집단에 비해 학업성적이 중, 하인 집단의 경우 ‘매우 만족함’의 비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고 학습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에서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은 집단별 학습지도에 대한 요구수준이 다르며 이에 대한 충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가문화체험활동 지원 만족도는 <표 IV-4-9>와 같다.

성별에 따른 여가문화체험활동 지원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보통’ 39.4%, ‘만족하는 편임’ 27.8%, ‘매우 만족함’ 19.6%, ‘별로 만족안함’ 9.5%, ‘전혀 만족안함’ 3.6%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보통’ 44.3%, ‘만족하는 편임’ 25.8%, ‘매우 만족함’ 17.3%, ‘별로 만족안함’ 8.5%, ‘전혀 만족안함’ 4.1%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여가문화체험활동 지원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급에 따른 여가문화체험활동 지원 만족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보통’ 32.3%, ‘만족하는 편임’ 30.4%, ‘매우 만족함’ 28.8%, ‘별로 만족안함’ 7.0%, ‘전혀 만족안함’ 1.6%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보통’ 39.7%, ‘만족하는 편임’ 29.1%, ‘매우 만족함’ 17.8%, ‘별로 만족안함’ 9.3%, ‘전혀 만족안함’ 4.1%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보통’ 51.4%, ‘만족하는 편임’ 22.3%, ‘매우 만족함’ 10.6%, ‘별로 만족안함’ 9.6%, ‘전혀 만족안함’ 6.2%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보통’ 48.6%, ‘만족하는 편임’ 23.0%, ‘매우 만족함’ 16.2%, ‘별로 만족안함’ 10.8%, ‘전혀 만족안함’ 1.4%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매우 만족함’ 50.0% ‘보통’ 21.4%, ‘전혀 만족안함’ 14.3%, ‘만족하는 편임’과 ‘별로 만족안함’이 각각 7.1%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보통’ 63.6%, ‘만족하는 편임’ 18.2%, ‘별로 만족안함’ 12.1%, ‘매우 만족함’ 6.1% 순이었다. 교급에

다른 여가문화체험활동 지원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경제수준에 따른 여가문화체험활동 지원 만족도를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만족하는 편임’ 36.4%, ‘보통’ 28.7%, ‘매우 만족함’ 23.8%, ‘별로 만족안함’ 7.7%, ‘전혀 만족안함’ 3.5%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보통’ 44.2%, ‘만족하는 편임’ 25.1%, ‘매우 만족함’ 17.4%, ‘별로 만족안함’ 9.4%, ‘전혀 만족안함’ 3.9%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보통’ 38.5%, ‘만족하는 편임’ 28.2%, ‘매우 만족함’ 19.8%, ‘별로 만족안함’ 9.1%, ‘전혀 만족안함’ 4.4%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여가문화체험활동 지원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학업성적에 따른 여가문화체험활동 지원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보통’ 36.3%, ‘만족하는 편임’ 28.7%, ‘매우 만족함’ 21.4%, ‘별로 만족안함’ 9.3%, ‘전혀 만족안함’ 4.3%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보통’ 44.0%, ‘만족하는 편임’ 25.9%, ‘매우 만족함’ 17.0%, ‘별로 만족안함’ 9.1%, ‘전혀 만족안함’ 4.1%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보통’ 43.9%, ‘만족하는 편임’ 27.3%, ‘매우 만족함’ 17.2%, ‘별로 만족안함’ 8.6%, ‘전혀 만족안함’ 3.0%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여가문화체험활동 지원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문화체험활동 지원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보통’ 43.4%, ‘만족하는 편임’ 23.7%, ‘매우 만족함’ 19.9%, ‘별로 만족안함’ 10.0%, ‘전혀 만족안함’ 3.0% 순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보통’ 40.8%, ‘만족하는 편임’ 28.8%, ‘매우 만족함’ 16.5%, ‘별로 만족안함’ 8.2%, ‘전혀 만족안함’ 5.7%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보통’ 41.7%, ‘만족하는 편임’ 28.9%, ‘매우 만족함’ 17.4%, ‘별로 만족안함’ 8.2%, ‘전혀 만족안함’ 3.8%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여가문화체험활동 지원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IV-4-9 사업분야별 만족도(여가문화체험활동 지원)

(단위 : %)

구 분		전혀 만족안함	별로 만족안함	보통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함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3.9	9.0	42.2	26.6	18.4	100(1226)	
성별	남	3.6	9.5	39.4	27.8	19.6	100(576)	3,505
	여	4.1	8.5	44.3	25.8	17.3	100(635)	
교급	초	1.6	7.0	32.3	30.4	28.8	100(257)	77,629***
	중	4.1	9.3	39.7	29.1	17.8	100(539)	
	일반고	6.2	9.6	51.4	22.3	10.6	100(292)	
	전문계고	1.4	10.8	48.6	23.0	16.2	100(74)	
	비재학	14.3	7.1	21.4	7.1	50.0	100(14)	
	기타	0.0	12.1	63.6	18.2	6.1	100(33)	
경제 수준	하	4.4	9.1	38.5	28.2	19.8	100(252)	16,794*
	중	3.9	9.4	44.2	25.1	17.4	100(788)	
	상	3.5	7.7	28.7	36.4	23.8	100(143)	
학업 성적	하	3.0	8.6	43.9	27.3	17.2	100(198)	8,123
	중	4.1	9.1	44.0	25.9	17.0	100(541)	
	상	4.3	9.3	36.3	28.7	21.4	100(443)	
거주 지역	대도시	3.0	10.0	43.4	23.7	19.9	100(539)	9,641
	중소도시	5.7	8.2	40.8	28.8	16.5	100(316)	
	읍·면소재지	3.8	8.2	41.7	28.9	17.4	100(367)	

여가문화체험활동 지원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과 ‘만족하는 편임’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과 특별활동을 지도할 전문가의 확보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공부방에서 제공하는 여가문화체험활동이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지도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족하지 못하는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작업이 요청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다른 교급에 비해 ‘매우 만족함’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자발적 학업중단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이 학습만이 아닌 다양한 여가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서 ‘전혀 만족안함’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가정에서도 이와 관련한 활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별로 만족안함’과 ‘전혀 만족안함’의 비율이 다소 낮게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상담 및 정서지원 만족도는 <표 IV-4-10>과 같다.

성별에 따른 상담 및 정서지원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보통’ 45.2%, ‘만족하는 편임’ 27.0%, ‘매우 만족함’ 16.1%, ‘별로 만족안함’ 7.6%, ‘전혀 만족안함’ 4.1%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보통’ 49.4%, ‘만족하는 편임’ 23.9%, ‘매우 만족함’ 12.5%, ‘별로 만족안함’ 10.5%, ‘전혀 만족안함’ 3.6%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상담 및 정서지원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급에 따른 상담 및 정서지원 만족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보통’ 39.6%, ‘만족하는 편임’ 28.4%, ‘매우 만족함’ 22.4%, ‘별로 만족안함’ 6.4%, ‘전혀 만족안함’ 3.2%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보통’ 49.2%, ‘만족하는 편임’ 26.3%, ‘매우 만족함’ 12.7%, ‘별로 만족안함’ 8.6%, ‘전혀 만족안함’ 3.4%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보통’ 54.7%, ‘만족하는 편임’ 19.7%, ‘별로 만족안함’ 11.8%, ‘매우 만족함’ 8.7%, ‘전혀 만족안함’ 5.2%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보통’ 41.9%, ‘만족하는 편임’ 31.1%, ‘매우 만족함’ 16.2%, ‘별로 만족안함’ 6.8%, ‘전혀 만족안함’ 4.1%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매우 만족함’ 38.5% ‘보통’ 23.1%, ‘별로 만족안함’과 ‘전혀 만족안함’이 각각 15.4%, ‘만족하는 편임’ 7.7%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보통’ 39.4%, ‘만족하는 편임’ 30.3%, ‘별로 만족안함’ 18.2%, ‘매우 만족함’ 12.1%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상담 및 정서지원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경제수준에 따른 상담 및 정서지원 만족도를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만족하는 편임’ 36.4%, ‘보통’ 28.7%, ‘매우 만족함’ 23.8%, ‘별로 만족안함’ 7.7%, ‘전혀 만족안함’ 3.5%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보통’ 44.2%, ‘만족하는 편임’ 25.1%, ‘매우 만족함’ 17.4%, ‘별로 만족안함’ 9.4%, ‘전혀 만족안함’ 3.9%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보통’ 38.5%, ‘만족하는 편임’ 28.2%, ‘매우 만족함’ 19.8%, ‘별로 만족안함’ 9.1%, ‘전혀 만족안함’ 4.4%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상담 및 정서지원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학업성적에 따른 상담 및 정서지원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보통’ 45.1%, ‘만족하는 편임’ 26.8%, ‘매우 만족함’ 17.2%, ‘별로 만족안함’ 6.4%, ‘전혀 만족안함’ 4.6%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보통’ 46.3%, ‘만족하는 편임’ 25.9%, ‘매우 만족함’ 12.5%, ‘별로 만족안함’ 11.9%, ‘전혀 만족안함’ 3.4%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보통’ 51.3%, ‘만족하는 편임’ 23.6%, ‘매우 만족함’ 13.3%, ‘별로 만족안함’ 7.7%, ‘전혀 만족안함’ 4.1%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상담 및 정서지원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거주지역에 따른 상담 및 정서지원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보통’ 48.5%, ‘만족하는

편입' 24.3%, '매우 만족함' 14.9%, '별로 만족안함' 8.6%, '전혀 만족안함' 3.7% 순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보통' 46.6%, '만족하는 편임' 26.2%, '매우 만족함' 13.4%, '별로 만족안함' 8.6%, '전혀 만족안함' 5.1%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보통' 48.0%, '만족하는 편임' 25.4%, '매우 만족함' 13.1%, '별로 만족안함' 10.3%, '전혀 만족안함' 3.1%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상담 및 정서지원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표 IV-4-10 사업분야별 만족도(상담 및 정서지원)

(단위 : %)

구 분	전혀 만족 안함	별로 만족 안함	보통	만족 하는 편임	매우 만족함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3.9	9.1	47.8	25.1	14.2	100(1213)	
성별	남	4.1	7.6	45.2	27.0	100(566)	7.728
	여	3.6	10.5	49.4	23.9	100(631)	
교급	초	3.2	6.4	39.6	28.4	100(250)	57.727***
	중	3.4	8.6	49.2	26.3	100(537)	
	일반고	5.2	11.8	54.7	19.7	100(289)	
	전문계고	4.1	6.8	41.9	31.1	100(74)	
	비재학	15.4	15.4	23.1	7.7	100(13)	
	기타	0.0	18.2	39.4	30.3	100(33)	
경제 수준	하	4.4	9.1	38.5	28.2	100(252)	16.794*
	중	3.9	9.4	44.2	25.1	100(788)	
	상	3.5	7.7	28.7	36.4	100(143)	
학업 성적	하	4.1	7.7	51.3	23.6	100(195)	15.012
	중	3.4	11.9	46.3	25.9	100(536)	
	상	4.6	6.4	45.1	26.8	100(437)	
거주 지역	대도시	3.7	8.6	48.5	24.3	100(538)	3.707
	중소도시	5.1	8.6	46.6	26.2	100(313)	
	읍·면소재지	3.1	10.3	48.0	25.4	100(358)	

상담 및 정서지원 만족도는 '보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공부방 이용청소년들이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거나 실시되는 상담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소속감이 약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상담 및 정서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응답에서 ‘매우 만족함’과 ‘별로 만족안함’, ‘전혀 만족안함’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교급에 비해 현저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만족하는 요인과 불만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자료열람 및 대출, 정보제공 만족도는 <표 IV-4-11>과 같다.

성별에 따른 자료열람 및 대출, 정보제공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보통’ 32.8%, ‘만족하는 편임’ 31.1%, ‘매우 만족함’ 27.3%, ‘별로 만족안함’ 6.4%, ‘전혀 만족안함’ 2.4%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보통’ 34.6%, ‘만족하는 편임’ 34.3%, ‘매우 만족함’ 24.1%, ‘별로 만족안함’ 5.1%, ‘전혀 만족안함’ 1.9%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자료열람 및 대출, 정보제공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급에 따른 자료열람 및 대출, 정보제공 만족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매우 만족함’ 32.7%, ‘만족하는 편임’ 31.9%, ‘보통’ 29.2%, ‘별로 만족안함’ 5.4%, ‘전혀 만족안함’ 0.8%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보통’ 35.6%, ‘만족하는 편임’ 32.2%, ‘매우 만족함’ 23.9%, ‘별로 만족안함’ 5.6%, ‘전혀 만족안함’ 2.8%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만족하는 편임’ 35.3%, ‘보통’ 34.9%, ‘매우 만족함’ 22.4%, ‘별로 만족안함’ 4.7%, ‘전혀 만족안함’ 2.7%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만족하는 편임’과 ‘보통’이 각각 33.8%, ‘매우 만족함’ 23.4%, ‘별로 만족안함’ 9.1%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매우 만족함’ 50.0% ‘만족하는 편임’ 33.3%, ‘보통’과 ‘전혀 만족안함’이 각각 8.3%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보통’ 37.1%, ‘매우 만족함’ 25.7%, ‘만족하는 편임’ 22.9%, ‘별로 만족안함’ 14.3%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자료열람 및 대출, 정보제공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경제수준에 따른 자료열람 및 대출, 정보제공 만족도를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매우 만족함’ 37.3%, ‘만족하는 편임’ 31.0%, ‘보통’ 24.6%, ‘별로 만족안함’과 ‘전혀 만족안함’이 각각 3.5%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보통’ 34.9%, ‘만족하는 편임’ 33.4%, ‘매우 만족함’ 24.4%, ‘별로 만족안함’ 5.5%, ‘전혀 만족안함’ 1.8%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만족하는 편임’ 34.6%, ‘보통’ 29.5%, ‘매우 만족함’ 24.4%, ‘별로 만족안함’ 8.7%, ‘전혀 만족안함’ 2.8%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자료열람 및 대출, 정보제공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학업성적에 따른 자료열람 및 대출, 정보제공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매우 만족함’ 33.3%, ‘만족하는 편임’ 32.1%, ‘보통’ 27.1%, ‘별로 만족안함’ 5.0%, ‘전혀 만족안함’

2.5%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만족하는 편임’ 35.0%, ‘보통’ 34.1%, ‘매우 만족함’ 22.1%, ‘별로 만족안함’ 7.1%, ‘전혀 만족안함’ 1.8%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보통’ 40.0%, ‘만족하는 편임’ 31.8%, ‘매우 만족함’ 20.5%, ‘별로 만족안함’ 5.1%, ‘전혀 만족안함’ 2.6%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자료열람 및 대출, 정보제공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1).

거주지역에 따른 자료열람 및 대출, 정보제공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보통’ 37.1%, ‘만족하는 편임’ 31.4%, ‘매우 만족함’ 22.7%, ‘별로 만족안함’ 6.8%, ‘전혀 만족안함’ 2.0% 순이었으며, 중소도시인 경우 ‘만족하는 편임’ 31.9%, ‘보통’ 31.5%, ‘매우 만족함’ 29.0%, ‘별로 만족안함’과 ‘전혀 만족안함’이 각각 3.8%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만족하는 편임’ 34.8%, ‘보통’ 31.3%, ‘매우 만족함’ 26.1%, ‘별로 만족안함’ 6.7%, ‘전혀 만족안함’ 1.1%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자료열람 및 대출, 정보제공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표 IV-4-11 사업분야별 만족도(자료열람 및 대출, 정보제공)

(단위 : %)

구 분	전혀 만족안함	별로 만족안함	보통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함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2.2	6.0	33.8	32.6	25.4	100(1234)		
성별	남	2.4	6.4	32.8	31.1	27.3	100(576)	3.692
	여	1.9	5.1	34.6	34.3	24.1	100(642)	
교급	초	0.8	5.4	29.2	31.9	32.7	100(257)	31.625*
	중	2.8	5.6	35.6	32.2	23.9	100(540)	
	일반고	2.7	4.7	34.9	35.3	22.4	100(295)	
	전문계고	0.0	9.1	33.8	33.8	23.4	100(77)	
	비재학	8.3	0.0	8.3	33.3	50.0	100(12)	
	기타	0.0	14.3	37.1	22.9	25.7	100(35)	
경제수준	하	2.8	8.7	29.5	34.6	24.4	100(254)	20.090*
	중	1.8	5.5	34.9	33.4	24.4	100(794)	
	상	3.5	3.5	24.6	31.0	37.3	100(142)	
학업성적	하	2.6	5.1	40.0	31.8	20.5	100(195)	25.641**
	중	1.8	7.1	34.1	35.0	22.1	100(552)	
	상	2.5	5.0	27.1	32.1	33.3	100(442)	
거주지역	대도시	2.0	6.8	37.1	31.4	22.7	100(542)	16.390*
	중소도시	3.8	3.8	31.5	31.9	29.0	100(317)	
	읍·면소재지	1.1	6.7	31.3	34.8	26.1	100(371)	

자료열람 및 대출, 정보제공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과 ‘만족하는 편임’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만족함’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보를 제공받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들이 공부방을 통해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부방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만족도는 <표 IV-4-12>와 같다.

성별에 따른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보통’ 42.6%, ‘만족하는 편임’ 26.1%, ‘매우 만족함’ 18.2%, ‘별로 만족안함’ 8.5%, ‘전혀 만족안함’ 4.6%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보통’ 47.4%, ‘만족하는 편임’ 25.6%, ‘매우 만족함’ 12.7%, ‘별로 만족안함’ 9.6%, ‘전혀 만족안함’ 4.7%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급에 따른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만족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보통’ 42.9%, ‘만족하는 편임’ 22.7%, ‘매우 만족함’ 21.5%, ‘별로 만족안함’ 9.3%, ‘전혀 만족안함’ 3.6%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보통’ 42.2%, ‘만족하는 편임’ 27.9%, ‘매우 만족함’ 14.8%, ‘별로 만족안함’ 9.9%, ‘전혀 만족안함’ 5.2%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보통’ 53.7%, ‘만족하는 편임’ 24.9%, ‘매우 만족함’ 8.2%, ‘별로 만족안함’ 7.8%, ‘전혀 만족안함’ 5.3%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보통’ 42.1%, ‘만족하는 편임’ 31.6%, ‘매우 만족함’ 19.7%, ‘별로 만족안함’ 5.3%, ‘전혀 만족안함’ 1.3%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매우 만족함’ 50.0%, ‘보통’ 35.7%, ‘전혀 만족안함’ 14.3%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보통’ 48.5%, ‘만족하는 편임’과 ‘별로 만족안함’이 각각 18.2%, ‘매우 만족함’ 15.2%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경제수준에 따른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만족도를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보통’ 38.6%, ‘만족하는 편임’ 29.3%, ‘매우 만족함’ 22.9%, ‘별로 만족안함’ 6.4%, ‘전혀 만족안함’ 2.9%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보통’ 47.1%, ‘만족하는 편임’ 24.4%, ‘매우 만족함’ 13.5%, ‘별로 만족안함’ 9.5%, ‘전혀 만족안함’ 5.5%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보통’ 38.4%, ‘만족하는 편임’ 30.8%, ‘매우 만족함’ 17.2%, ‘별로 만족안함’ 10.0%, ‘전혀 만족안함’ 3.6%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학업성적에 따른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보통’ 43.1%, ‘만족하는 편임’ 26.2%, ‘매우 만족함’ 18.8%, ‘별로 만족안함’ 7.9%, ‘전혀 만족안함’ 4.2%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보통’ 45.5%, ‘만족하는 편임’ 26.4%, ‘매우 만족함’ 12.6%, ‘별로 만족안함’ 10.8%, ‘전혀 만족안함’ 4.7%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보통’ 43.7%, ‘만족하는 편임’ 26.9%, ‘매우 만족함’ 15.7%, ‘별로 만족안함’ 7.6%, ‘전혀 만족안함’ 6.1%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거주지역에 따른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보통’ 44.4%, ‘만족하는 편임’ 24.7%, ‘매우 만족함’ 17.4%, ‘별로 만족안함’ 9.7%, ‘전혀 만족안함’ 3.7% 순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보통’ 45.2%, ‘만족하는 편임’ 28.2%, ‘매우 만족함’ 13.1%, ‘별로 만족안함’ 7.1%, ‘전혀 만족안함’ 6.4%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보통’ 47.0%, ‘만족하는 편임’ 25.4%, ‘매우 만족함’ 13.1%, ‘별로 만족안함’ 10.0%, ‘전혀 만족안함’ 4.6%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IV-4-12 사업분야별 만족도(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단위 : %)

구 분		전혀 만족안 함	별로 만족안 함	보통	만족하 는 편임	매우 만족함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4.7	9.1	45.3	25.7	15.2	100(1201)	
성별	남	4.6	8.5	42.6	26.1	18.2	100(566)	7.874
	여	4.7	9.6	47.4	25.6	12.7	100(622)	
교급	초	3.6	9.3	42.9	22.7	21.5	100(247)	54.819***
	중	5.2	9.9	42.2	27.9	14.8	100(535)	
	일반고	5.3	7.8	53.7	24.9	8.2	100(281)	
	전문계고	1.3	5.3	42.1	31.6	19.7	100(76)	
	비재학	14.3	0.0	35.7	0.0	50.0	100(14)	
	기타	0.0	18.2	48.5	18.2	15.2	100(33)	
경제 수준	하	3.6	10.0	38.4	30.8	17.2	100(250)	19.162*
	중	5.5	9.5	47.1	24.4	13.5	100(770)	
	상	2.9	6.4	38.6	29.3	22.9	100(140)	
학업 성적	하	6.1	7.6	43.7	26.9	15.7	100(197)	9.957
	중	4.7	10.8	45.5	26.4	12.6	100(530)	
	상	4.2	7.9	43.1	26.2	18.8	100(432)	
거주 지역	대도시	3.7	9.7	44.4	24.7	17.4	100(534)	9.893
	중소도시	6.4	7.1	45.2	28.2	13.1	100(312)	
	읍·면소재지	4.6	10.0	47.0	25.4	13.1	100(351)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만족도는 ‘보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복지지원이 공부방 이용청소년들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다른 교급에 비해 ‘매우 만족함’과 ‘전혀 만족안함’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만족하는 요인과 불만족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기타도 다른 교급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복지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잘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잘 이루어지도록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성별, 교급, 경제수준, 학업성적, 거주지역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표 IV-4-13>과 같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38.4%,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5.8%, ‘모르고 있었다’ 25.9%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41.2%,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7.0%, ‘모르고 있었다’ 21.8%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급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35.0%,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3.1%, ‘모르고 있었다’ 31.9%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38.3%,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7.0%, ‘모르고 있었다’ 24.6%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47.8%,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5.9%, ‘모르고 있었다’ 16.3%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1.6%, ‘이용해 본 적 있다’ 40.3%, ‘모르고 있었다’ 18.2%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와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와 ‘모르고 있었다’가 각각 33.3% 이었고, 기타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0.0%, ‘이용해 본 적 있다’ 26.5%, ‘모르고 있었다’ 23.5%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44.4%, ‘모르고 있었다’ 28.9%,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6.8%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39.5%,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6.5%, ‘모르고 있었다’ 23.9%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41.7%,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6.2%, ‘모르고 있었다’ 22.0%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학업성적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45.2%,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3.7%, ‘모르고 있었다’

21.0%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40.5%,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5.6%, ‘모르고 있었다’ 23.9%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7.7%, ‘모르고 있었다’ 31.7%, ‘이용해 본 적 있다’ 30.7%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1).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1.6%, ‘이용해 본 적 있다’ 34.7%, ‘모르고 있었다’ 23.7% 순이었으며, 중소도시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45.0%,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3.1%, ‘모르고 있었다’ 21.9%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42.2%,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2.6%, ‘모르고 있었다’ 25.2%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1).

표 IV-4-13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단위 : %)

구 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23.6	36.8	39.6	100(1237)	
성별	남	25.9	35.8	38.4	100(576)	2.924
	여	21.8	37.0	41.2	100(648)	
교급	초	31.9	33.1	35.0	100(254)	27.411**
	중	24.6	37.0	38.3	100(540)	
	일반고	16.3	35.9	47.8	100(301)	
	전문계고	18.2	41.6	40.3	100(77)	
	비재학	33.3	33.3	33.3	100(15)	
경제 수준	기타	23.5	50.0	26.5	100(34)	5.937
	하	22.0	36.2	41.7	100(254)	
	중	23.9	36.5	39.5	100(799)	
학업 성적	상	28.9	26.8	44.4	100(142)	14.295**
	하	31.7	37.7	30.7	100(199)	
	중	23.9	35.6	40.5	100(553)	
거주 지역	상	21.0	33.7	45.2	100(442)	13.510**
	대도시	23.7	41.6	34.7	100(548)	
	중소도시	21.9	33.1	45.0	100(320)	
읍·면소재지		25.2	32.6	42.2	100(365)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와 ‘모르고 있었다’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교급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시설을 이용한 비율보다 관련시설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이용경험이 크게 떨어지고 이용하지 않은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내 대표적인 청소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며, 알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 분석작업이 요청된다.

②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성별, 교급, 경제수준, 학업성적, 거주지역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표 IV-4-14>와 같다.

성별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5.1%, ‘모르고 있었다’ 28.8%, ‘이용해 본 적 있다’ 16.1%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6.3%, ‘모르고 있었다’ 23.7%, ‘이용해 본 적 있다’ 20.0%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급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4.1%, ‘모르고 있었다’ 32.7%, ‘이용해 본 적 있다’ 23.2%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7.3%, ‘모르고 있었다’ 26.1%, ‘이용해 본 적 있다’ 16.6%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60.1%, ‘모르고 있었다’ 24.7%, ‘이용해 본 적 있다’ 15.2%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61.8%, ‘이용해 본 적 있다’ 19.7%, ‘모르고 있었다’ 18.4%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60.0% ‘이용해 본 적 있다’와 ‘모르고 있었다’가 각각 20.0%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65.7%, ‘이용해 본 적 있다’ 22.9%, ‘모르고 있었다’ 11.4%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경제수준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2.8%, ‘모르고 있었다’ 26.1%, ‘이용해 본 적 있다’ 21.1%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5.9%, ‘모르고 있었다’ 27.1%, ‘이용해 본

적 있다' 17.0%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4.2%, '모르고 있었다' 24.5%, '이용해 본 적 있다' 21.3%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학업성적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5.4%, '모르고 있었다' 26.0%, '이용해 본 적 있다' 18.6%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5.9%, '모르고 있었다' 26.0%, '이용해 본 적 있다' 18.0%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2.8%, '모르고 있었다' 28.6%, '이용해 본 적 있다' 18.6%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거주지역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6.1%, '모르고 있었다' 23.2%, '이용해 본 적 있다' 20.8% 순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6.2%, '모르고 있었다' 26.5%, '이용해 본 적 있다' 17.4%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6.0%, '모르고 있었다' 29.6%, '이용해 본 적 있다' 14.4%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표 IV-4-14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단위 : %)

구 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25.9	56.2	17.9	100(1233)	5.684
성별	남	28.8	55.1	16.1	100(573)	
	여	23.7	56.3	20.0	100(646)	
교급	초	32.7	44.1	23.2	100(254)	24.158**
	중	26.1	57.3	16.6	100(541)	
	일반고	24.7	60.1	15.2	100(296)	
	전문계고	18.4	61.8	19.7	100(76)	
	비재학	20.0	60.0	20.0	100(15)	
	기타	11.4	65.7	22.9	100(35)	

경제 수준	하	24.5	54.2	21.3	100(253)	3,444
	중	27.1	55.9	17.0	100(796)	
	상	26.1	52.8	21.1	100(142)	
학업 성적	하	28.6	52.8	18.6	100(199)	0,742
	중	26.0	55.9	18.0	100(549)	
	상	26.0	55.4	18.6	100(442)	
거주 지역	대도시	23.2	56.1	20.8	100(544)	8,624
	중소도시	26.5	56.2	17.4	100(317)	
	읍·면소재지	29.6	56.0	14.4	100(368)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와 ‘모르고 있었다’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지배적이어서 이용하지 않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③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성별, 교급, 경제수준, 학업성적, 거주지역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표 IV-4-15>와 같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7.0%, ‘모르고 있었다’ 41.5%, ‘이용해 본 적 있다’ 11.5%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8.9%, ‘모르고 있었다’ 40.7%, ‘이용해 본 적 있다’ 10.4%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급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48.6%,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8.2%, ‘이용해 본 적 있다’ 13.1%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8.5%, ‘모르고 있었다’ 41.9%, ‘이용해 본 적 있다’ 9.6%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9.3%, ‘모르고 있었다’ 39.3%, ‘이용해 본 적 있다’ 11.4%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9.7%, ‘모르고 있었다’ 27.3%, ‘이용해 본 적 있다’ 13.0%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와 ‘모르고 있었다’가 각각 46.7%, ‘이용해 본 적 있다’ 6.7%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74.3%, ‘모르고 있었다’ 20.0%, ‘이용해 본 적 있다’ 5.7%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44.4%,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0.1%, ‘이용해 본 적 있다’ 15.5%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9.2%, ‘모르고 있었다’ 40.5%, ‘이용해 본 적 있다’ 10.3%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5.4%, ‘모르고 있었다’ 43.0%, ‘이용해 본 적 있다’ 11.6%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학업성적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5.2%, ‘모르고 있었다’ 43.4%, ‘이용해 본 적 있다’ 11.4%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2.1%, ‘모르고 있었다’ 37.6%, ‘이용해 본 적 있다’ 10.3%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48.2%,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9.2%, ‘이용해 본 적 있다’ 12.6%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1.1%, ‘모르고 있었다’ 38.4%, ‘이용해 본 적 있다’ 10.5% 순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44.8%,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3.3%, ‘이용해 본 적 있다’ 11.9%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7.9%, ‘모르고 있었다’ 41.3%, ‘이용해 본 적 있다’ 10.7%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표 IV-4-15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단위 : %)

구 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40.8	48.3	10.9	100(1230)	
성별	남	41.5	47.0	11.5	100(574)	0.600
	여	40.7	48.9	10.4	100(644)	
교급	초	48.6	38.2	13.1	100(251)	27.066**
	중	41.9	48.5	9.6	100(540)	
	일반고	39.3	49.3	11.4	100(298)	
	전문계고	27.3	59.7	13.0	100(77)	
	비재학	46.7	46.7	6.7	100(15)	
	기타	20.0	74.3	5.7	100(35)	
경제 수준	하	43.0	45.4	11.6	100(251)	5.968
	중	40.5	49.2	10.3	100(798)	
	상	44.4	40.1	15.5	100(142)	
학업 성적	하	48.2	39.2	12.6	100(199)	11.130*
	중	37.6	52.1	10.3	100(551)	
	상	43.4	45.2	11.4	100(440)	
거주 지역	대도시	38.4	51.1	10.5	100(544)	5.003
	중소도시	44.8	43.3	11.9	100(319)	
	읍·면소재지	41.3	47.9	10.7	100(363)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와 ‘모르고 있었다’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교급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부터 청소년쉼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이들이 조기에 가출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해 공부방 이용청소년의 가정이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면에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이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④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성별, 교급, 경제수준, 학업성적, 거주지역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표 IV-4-16>과 같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5.1%, ‘모르고 있었다’ 36.5%, ‘이용해 본 적 있다’ 8.4%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9.5%, ‘모르고 있었다’ 29.6%, ‘이용해 본 적 있다’ 10.9%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교급에 따른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7.4%, ‘모르고 있었다’ 40.6%, ‘이용해 본 적 있다’ 12.0% 순이었고, 중학교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6.8%, ‘모르고 있었다’ 34.9%, ‘이용해 본 적 있다’ 8.3%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65.7%, ‘모르고 있었다’ 25.9%, ‘이용해 본 적 있다’ 8.4%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64.5%, ‘모르고 있었다’ 22.4%, ‘이용해 본 적 있다’ 13.2%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모르고 있었다’ 40.0%,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3.3%, ‘이용해 본 적 있다’ 26.7%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71.4%, ‘모르고 있었다’ 22.9%, ‘이용해 본 적 있다’ 5.7%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4.2%, ‘모르고 있었다’ 31.0%, ‘이용해 본 적 있다’ 14.8%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7.3%, ‘모르고 있었다’ 34.4%, ‘이용해 본 적 있다’ 8.3%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6.7%, ‘모르고 있었다’ 31.7%, ‘이용해 본 적 있다’ 11.5%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학업성적에 따른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7.5%, ‘모르고 있었다’ 33.6%, ‘이용해 본 적 있다’ 8.9%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8.2%, ‘모르고 있었다’ 31.1%, ‘이용해 본 적 있다’ 10.7%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1.8%, ‘모르고 있었다’ 39.7%, ‘이용해 본 적 있다’ 8.5%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9.3%, ‘모르고 있었다’ 30.6%, ‘이용해 본 적 있다’ 10.1% 순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6.0%, ‘모르고 있었다’ 35.5%, ‘이용해 본 적 있다’ 8.5%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6.7%, ‘모르고 있었다’

33.3%, ‘이용해 본 적 있다’ 9.9%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표 IV-4-16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단위 : %)

구 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32.6	57.8	9.7	100(1231)	
성별	남	36.5	55.1	100(573)	7.287*
	여	29.6	59.5	100(645)	
교급	초	40.6	47.4	100(251)	33.718***
	중	34.9	56.8	100(542)	
	일반고	25.9	65.7	100(297)	
	전문계고	22.4	64.5	100(76)	
	비재학	40.0	33.3	100(15)	
	기타	22.9	71.4	100(35)	
경제 수준	하	31.7	56.7	100(252)	7.135
	중	34.4	57.3	100(796)	
	상	31.0	54.2	100(142)	
학업 성적	하	39.7	51.8	100(199)	5.544
	중	31.1	58.2	100(550)	
	상	33.6	57.5	100(440)	
거주 지역	대도시	30.6	59.3	100(546)	2.620
	중소도시	35.5	56.0	100(318)	
	읍·면소재지	33.3	56.7	100(363)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와 ‘모르고 있었다’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이용경험이 다른 교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분야별 만족도 중 교급에 따른 상담 및 정서지원에 대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이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담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급 전반적으로 ‘알고 있으나 이용한적 없다’는 비율이 높아 이용하지 않는 원인에 대한 분석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⑤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성별, 교급, 경제수준, 학업성적, 거주지역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표 IV-4-17>과 같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6.3%, ‘모르고 있었다’ 39.7%, ‘이용해 본 적 있다’ 14.0%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2.6%, ‘모르고 있었다’ 39.3%, ‘이용해 본 적 있다’ 18.1%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급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53.0%,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8.6%, ‘이용해 본 적 있다’ 8.4%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2.3%, ‘모르고 있었다’ 41.4%, ‘이용해 본 적 있다’ 16.3%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9.8%, ‘모르고 있었다’ 28.3%, ‘이용해 본 적 있다’ 21.9%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2.6%, ‘모르고 있었다’ 31.6%, ‘이용해 본 적 있다’ 15.8%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와 ‘모르고 있었다’가 각각 40.0%, ‘이용해 본 적 있다’ 20.0%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7.1%, ‘모르고 있었다’ 28.6%, ‘이용해 본 적 있다’ 14.3%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1.5%, ‘모르고 있었다’ 40.8%, ‘이용해 본 적 있다’ 17.6%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3.8%, ‘모르고 있었다’ 40.0%, ‘이용해 본 적 있다’ 16.2%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4.2%, ‘모르고 있었다’ 39.4%, ‘이용해 본 적 있다’ 16.3%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학업성적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4.0%, ‘모르고 있었다’ 41.5%, ‘이용해 본 적 있다’ 14.5%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4.7%, ‘모르고 있었다’ 36.9%, ‘이용해 본 적 있다’ 18.4%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45.5%,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9.9%, ‘이용해 본 적 있다’ 14.6%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4.1%, ‘모르고 있었다’ 35.5%, ‘이용해 본 적 있다’ 20.4% 순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4.2%, ‘모르고 있었다’ 42.9%, ‘이용해 본 적 있다’ 12.9%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5.4%, ‘모르고 있었다’ 42.1%, ‘이용해 본 적 있다’ 12.5%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표 IV-4-17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단위 : %)

구 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39.2	44.7	16.1	100(1226)	
성별	남	39.7	46.3	100(572)	4.124
	여	39.3	42.6	100(641)	
교급	초	53.0	38.6	100(249)	46.180***
	중	41.4	42.3	100(539)	
	일반고	28.3	49.8	100(297)	
	전문계고	31.6	52.6	100(76)	
	비재학	40.0	40.0	100(15)	
	기타	28.6	57.1	100(35)	
경제 수준	하	39.4	44.2	100(251)	0.350
	중	40.0	43.8	100(795)	
	상	40.8	41.5	100(142)	
학업 성적	하	45.5	39.9	100(198)	6.573
	중	36.9	44.7	100(548)	
	상	41.5	44.0	100(441)	
거주 지역	대도시	35.5	44.1	100(544)	15.050*
	중소도시	42.9	44.2	100(319)	
	읍·면소재지	42.1	45.4	100(359)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와 ‘모르고 있었다’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이후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학교부터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상급학교 진학시에 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⑥ 지역도서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지역도서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성별, 교급, 경제수준, 학업성적, 거주지역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표 IV-4-18>과 같다.

성별에 따른 지역도서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67.4%,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1.4%, ‘모르고 있었다’ 11.1%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70.6%,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19.5%, ‘모르고 있었다’ 9.8%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지역도서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급에 따른 지역도서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69.0%,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18.2%, ‘모르고 있었다’ 12.8%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62.9%,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4.6%, ‘모르고 있었다’ 12.5%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75.2%,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17.5%, ‘모르고 있었다’ 7.3%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76.3%,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17.1%, ‘모르고 있었다’ 6.6%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86.7%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와 ‘모르고 있었다’가 각각 6.7%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88.6%,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11.4%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지역도서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경제수준에 따른 지역도서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77.4%,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15.1%, ‘모르고 있었다’ 7.5%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70.0%,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0.0%, ‘모르고 있었다’ 10.0%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62.7%,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3.1%, ‘모르고 있었다’ 14.1%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지역도서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학업성적에 따른 지역도서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75.3%,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16.3%, ‘모르고 있었다’ 8.5%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69.2%,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0.4%, ‘모르고 있었다’ 10.4%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56.1%,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7.8%, ‘모르고 있었다’ 16.2%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지역도서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거주지역에 따른 지역도서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65.5%,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4.2%, ‘모르고 있었다’ 10.4% 순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69.7%,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16.1%, ‘모르고 있었다’ 14.2%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73.4%,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19.5%, ‘모르고 있었다’ 7.0%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지역도서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표 IV-4-18 지역도서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단위 : %)

구 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10.4	20.7	68.9	100(1246)		
성별	남	11.1	21.4	67.4	100(583)	1.500
	여	9.8	19.5	70.6	100(650)	
교급	초	12.8	18.2	69.0	100(258)	28.709**
	중	12.5	24.6	62.9	100(545)	
	일반고	7.3	17.5	75.2	100(302)	
	전문계고	6.6	17.1	76.3	100(76)	
	비재학	6.7	6.7	86.7	100(15)	
	기타	0.0	11.4	88.6	100(35)	
경제 수준	하	14.1	23.1	62.7	100(255)	10.534*
	중	10.0	20.0	70.0	100(806)	
	상	7.5	15.1	77.4	100(146)	
학업 성적	하	16.2	27.8	56.1	100(198)	24.192***
	중	10.4	20.4	69.2	100(559)	
	상	8.5	16.3	75.3	100(449)	
거주 지역	대도시	10.4	24.2	65.5	100(550)	17.443**
	중소도시	14.2	16.1	69.7	100(323)	
	읍·면소재지	7.0	19.5	73.4	100(369)	

지역도서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전반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와 ‘모르고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있어 지역도서관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정보화시대에 지식정보에 대한 편리한 접근과 이용의 기회를 보장하여 청소년들이 전문화된 지식정보를 제공받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와 기타의 경우, 재학중인 청소년에 비해 지역도서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학습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이 지역도서관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학업성적인 상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학습공간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역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읍·면소재지의 지역도서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의 통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역도서관 이용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⑦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성별, 교급, 경제수준, 학업성적, 거주지역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표 IV-4-19>와 같다.

성별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7.2%, ‘모르고 있었다’ 34.3%, ‘이용해 본 적 있다’ 18.5%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4.3%, ‘모르고 있었다’ 30.9%, ‘이용해 본 적 있다’ 14.9%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교급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1.7%, ‘모르고 있었다’ 31.9%, ‘이용해 본 적 있다’ 26.4%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0.5%, ‘모르고 있었다’ 31.0%, ‘이용해 본 적 있다’ 18.6%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4.1%, ‘모르고 있었다’ 37.5%, ‘이용해 본 적 있다’ 8.4%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63.2%, ‘모르고 있었다’ 28.9%, ‘이용해 본 적 있다’ 7.9%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모르고 있었다’ 46.7%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3.3%, ‘이용해 본 적 있다’ 20.0%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77.1%, ‘모르고 있었다’ 20.0%, ‘이용해 본 적 있다’ 2.9%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1).

경제수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6.5%, ‘모르고 있었다’ 39.4%, ‘이용해 본 적 있다’ 14.1%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1.7%, ‘모르고 있었다’ 32.4%, ‘이용해 본 적 있다’ 15.9%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8.2%, ‘모르고 있었다’ 29.5%, ‘이용해 본 적 있다’ 22.3%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학업성적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0.5%, ‘모르고 있었다’ 32.4%, ‘이용해 본 적 있다’ 17.2%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2.0%, ‘모르고 있었다’ 31.8%, ‘이용해 본 적 있다’ 16.2%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5.7%, ‘모르고 있었다’ 35.5%, ‘이용해 본 적 있다’ 18.8%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거주지역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2.2%, ‘모르고 있었다’ 32.5%, ‘이용해 본 적 있다’ 15.3% 순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8.3%, ‘모르고 있었다’ 36.0%, ‘이용해 본 적 있다’ 15.8%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1.8%, ‘모르고 있었다’ 28.8%, ‘이용해 본 적 있다’ 19.5%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표 IV-4-19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단위 : %)

구 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32.2	51.2	16.6	100(1230)		
성별	남	34.3	47.2	18.5	100(572)	6.485*
	여	30.9	54.3	14.9	100(645)	
교급	초	31.9	41.7	26.4	100(254)	53.505***
	중	31.0	50.5	18.6	100(539)	
	일반고	37.5	54.1	8.4	100(296)	
	전문계고	28.9	63.2	7.9	100(76)	
	비재학	46.7	33.3	20.0	100(15)	
	기타	20.0	77.1	2.9	100(35)	

경제 수준	하	29.5	48.2	22.3	100(251)	9.120
	중	32.4	51.7	15.9	100(797)	
	상	39.4	46.5	14.1	100(142)	
학업 성적	하	35.5	45.7	18.8	100(197)	2.374
	중	31.8	52.0	16.2	100(550)	
	상	32.4	50.5	17.2	100(442)	
거주 지역	대도시	32.5	52.2	15.3	100(544)	5.901
	중소도시	36.0	48.3	15.8	100(317)	
	읍·면소재지	28.8	51.8	19.5	100(365)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와 ‘모르고 있었다’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교급에 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입시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큰 고등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⑧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성별, 교급, 경제수준, 학업성적, 거주지역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표 IV-4-20>과 같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45.6%,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0.0%, ‘이용해 본 적 있다’ 14.4%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45.3%,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0.2%, ‘이용해 본 적 있다’ 14.4%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급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49.4%,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4.5%, ‘이용해 본 적 있다’ 16.1%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47.2%,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8.1%, ‘이용해 본 적 있다’ 14.6%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44.6%,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2.9%, ‘이용해 본 적 있다’ 12.5%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2.0%, ‘모르고 있었다’ 30.7%, ‘이용해 본 적 있다’ 17.3%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6.7% ‘모르고 있었다’ 33.3%, ‘이용해 본 적 있다’ 20.0%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4.3%, ‘모르고 있었다’ 37.1%, ‘이용해 본 적 있다’ 8.6%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44.8%,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8.5%, ‘이용해 본 적 있다’ 16.8%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45.9%,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0.5%, ‘이용해 본 적 있다’ 13.6%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47.4%,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8.9%, ‘이용해 본 적 있다’ 13.8%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학업성적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47.2%,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0.5%, ‘이용해 본 적 있다’ 12.3%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43.5%,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1.2%, ‘이용해 본 적 있다’ 15.3%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51.0%,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5.2%, ‘이용해 본 적 있다’ 13.8%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47.5%,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0.0%, ‘이용해 본 적 있다’ 12.4% 순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46.0%,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0.0%, ‘이용해 본 적 있다’ 14.0%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1.2%, ‘모르고 있었다’ 40.9%, ‘이용해 본 적 있다’ 17.8%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IV-4-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단위 : %)

구 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45.1	40.6	14.4	100(1225)	.009
성별	남	45.6	40.0	14.4	100(568)	
	여	45.3	40.2	14.4	100(644)	
교급	초	49.4	34.5	16.1	100(249)	16.306
	중	47.2	38.1	14.6	100(540)	
	일반고	44.6	42.9	12.5	100(296)	
	전문계고	30.7	52.0	17.3	100(75)	
	비재학	33.3	46.7	20.0	100(15)	
	기타	37.1	54.3	8.6	100(35)	
경제 수준	하	47.4	38.9	13.8	100(247)	1.259
	중	45.9	40.5	13.6	100(795)	
	상	44.8	38.5	16.8	100(143)	
학업 성적	하	51.0	35.2	13.8	100(196)	4.845
	중	43.5	41.2	15.3	100(549)	
	상	47.2	40.5	12.3	100(439)	
거주 지역	대도시	47.5	40.0	12.4	100(547)	6.670
	중소도시	46.0	40.0	14.0	100(315)	
	읍·면소재지	40.9	41.2	17.8	100(35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와 ‘모르고 있었다’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⑨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성별, 교급, 경제수준, 학업성적, 거주지역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표 IV-4-21>과 같다.

성별에 따른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56.4%,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8.2%, ‘모르고 있었다’ 15.3%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53.7%,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3.1%, ‘모르고 있었다’ 13.2%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급에 따른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68.1%,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0.1%, ‘모르고 있었다’ 11.8%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53.0%,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2.5%, ‘모르고 있었다’ 14.6%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53.4%,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1.8%, ‘모르고 있었다’ 14.9%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51.3%,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5.5%, ‘모르고 있었다’ 13.2%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3.3% ‘이용해 본 적 있다’ 26.7%, ‘모르고 있었다’ 20.0%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54.3%, ‘이용해 본 적 있다’ 25.7%, ‘모르고 있었다’ 20.0%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경제수준에 따른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56.9%,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3.3%, ‘모르고 있었다’ 9.7%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56.0%,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9.4%, ‘모르고 있었다’ 14.7%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52.4%,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1.7%, ‘모르고 있었다’ 15.9%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학업성적에 따른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57.0%,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1.4%, ‘모르고 있었다’ 11.6%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57.0%,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7.8%, ‘모르고 있었다’ 15.2%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46.7%,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5.2%, ‘모르고 있었다’ 18.1%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거주지역에 따른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51.1%,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4.3%, ‘모르고 있었다’ 14.6% 순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57.5%,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6.9%, ‘모르고 있었다’ 15.6%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이용해 본 적 있다’ 59.3%,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8.3%, ‘모르고 있었다’ 12.5%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IV-4-21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단위 : %)

구 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14.2	30.6	55.2	100(1233)	
성별	남	15.3	28.2	100(574)	3.796
	여	13.2	33.1	100(646)	
교급	초	11.8	20.1	100(254)	38.092***
	중	14.6	32.5	100(542)	
	일반고	14.9	31.8	100(296)	
	전문계고	13.2	35.5	100(76)	
	비재학	20.0	53.3	100(15)	
	기타	20.0	54.3	100(35)	
경제 수준	하	15.9	31.7	100(252)	3.982
	중	14.7	29.4	100(797)	
	상	9.7	33.3	100(144)	
학업 성적	하	18.1	35.2	100(199)	10.522*
	중	15.2	27.8	100(553)	
	상	11.6	31.4	100(440)	
거주 지역	대도시	14.6	34.3	100(548)	8.910
	중소도시	15.6	26.9	100(320)	
	읍·면소재지	12.5	28.3	100(361)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이용해 본 적 있다’는 비율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교급에 따라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이후 방과후 학교 이용경험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기타의 경우 다른 교급에 비해 절반 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방과후 학교가 학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므로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에 비해 이용경험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이후 이용경험이 줄어들고 있는데, 알고 있으나 이용한적 없다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방과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⑩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성별, 교급, 경제수준, 학업성적, 거주지역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표 IV-4-22>와 같다.

성별에 따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65.8%,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9.1%, ‘이용해 본 적 있다’ 5.1%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65.6%,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9.8%, ‘이용해 본 적 있다’ 4.7%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급에 따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67.3%,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4.6%, ‘이용해 본 적 있다’ 8.1%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64.3%,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0.3%, ‘이용해 본 적 있다’ 5.4%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70.9%,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7.7%, ‘이용해 본 적 있다’ 1.4%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51.3%,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47.4%, ‘이용해 본 적 있다’ 1.3%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모르고 있었다’ 66.7%,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0.0%, ‘이용해 본 적 있다’ 13.3%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65.7%,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1.4%, ‘이용해 본 적 있다’ 2.9%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경제수준에 따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70.6%,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6.6%, ‘이용해 본 적 있다’ 2.8%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68.1%,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7.7%, ‘이용해 본 적 있다’ 4.2%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61.4%,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9.9%, ‘이용해 본 적 있다’ 8.8%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학업성적에 따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69.3%,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5.0%, ‘이용해 본 적 있다’ 5.7%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65.3%,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0.3%, ‘이용해 본 적 있다’ 4.4%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66.7%,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8.8%, ‘이용해 본 적 있다’ 4.5%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62.9%,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1.1%, ‘이용해 본 적 있다’ 6.0%

순이었으며, 중소도시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66.1%,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7.2%, ‘이용해 본 적 있다’ 6.6%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70.5%,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8.1%, ‘이용해 본 적 있다’ 1.4%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1).

표 IV-4-2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단위 : %)

구 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65.7	29.4	4.8	100(1226)	
성별	남	65.8	29.1	5.1	100(571)	.153
	여	65.6	29.8	4.7	100(642)	
교급	초	67.3	24.6	8.1	100(248)	33.081***
	중	64.3	30.3	5.4	100(541)	
	일반고	70.9	27.7	1.4	100(296)	
	전문계고	51.3	47.4	1.3	100(76)	
	비재학	66.7	20.0	13.3	100(15)	
	기타	65.7	31.4	2.9	100(35)	
경제 수준	하	61.4	29.9	8.8	100(251)	11.729*
	중	68.1	27.7	4.2	100(793)	
	상	70.6	26.6	2.8	100(143)	
학업 성적	하	66.7	28.8	4.5	100(198)	3.965
	중	65.3	30.3	4.4	100(548)	
	상	69.3	25.0	5.7	100(440)	
거주 지역	대도시	62.9	31.1	6.0	100(547)	15.701**
	중소도시	66.1	27.2	6.6	100(316)	
	읍·면소재지	70.5	28.1	1.4	100(35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와 ‘모르고 있었다’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되어 해마다 시행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다보니 시행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경험이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청소년들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나, 공개되는

것을 꺼려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적 현장에서 취약집단의 교육적 성취 제고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업 시행지역을 확대해 나가다 보니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읍·면소재지의 이용경험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⑪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성별, 교급, 경제수준, 학업성적, 거주지역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표 IV-4-23>과 같다.

성별에 따른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74.4%,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1.6%, ‘이용해 본 적 있다’ 4.0%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72.1%,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6.0%, ‘이용해 본 적 있다’ 1.9%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교급에 따른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75.2%,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1.5%, ‘이용해 본 적 있다’ 3.3%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71.6%,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4.5%, ‘이용해 본 적 있다’ 3.9%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77.7%,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1.6%, ‘이용해 본 적 있다’ 0.7%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61.8%,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38.2%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모르고 있었다’ 73.3% ‘이용해 본 적 있다’와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가 각각 13.3%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모르고 있었다’ 74.3%,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2.9%, ‘이용해 본 적 있다’ 2.9%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1).

경제수준에 따른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77.6%,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0.3%, ‘이용해 본 적 있다’ 2.1%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74.4%,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2.7%, ‘이용해 본 적 있다’ 2.9%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73.7%,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3.5%, ‘이용해 본 적 있다’ 2.8%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학업성적에 따른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77.2%,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1.0%, '이용해 본 적 있다' 1.8%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72.7%,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4.4%, '이용해 본 적 있다' 2.9%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74.7%,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1.2%, '이용해 본 적 있다' 4.0%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거주지역에 따른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74.7%,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2.7%, '이용해 본 적 있다' 2.6% 순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75.2%,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1.0%, '이용해 본 적 있다' 3.8%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모르고 있었다' 70.0%,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27.7%, '이용해 본 적 있다' 2.2%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표 IV-4-23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단위 : %)

구 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73.2	23.9	2.9	100(1222)	
성별	남	74.4	21.6	4.0	100(570)	7.488*
	여	72.1	26.0	1.9	100(639)	
교급	초	75.2	21.5	3.3	100(246)	26.207**
	중	71.6	24.5	3.9	100(539)	
	일반고	77.7	21.6	0.7	100(296)	
	전문계고	61.8	38.2	0.0	100(76)	
	비재학	73.3	13.3	13.3	100(15)	
	기타	74.3	22.9	2.9	100(35)	
경제 수준	하	73.7	23.5	2.8	100(251)	.924
	중	74.4	22.7	2.9	100(790)	
	상	77.6	20.3	2.1	100(143)	

학업 성적	하	74.7	21.2	4.0	100(198)	4,777
	중	72.7	24.4	2.9	100(546)	
	상	77.2	21.0	1.8	100(439)	
거주 지역	대도시	74.7	22.7	2.6	100(546)	6,157
	중소도시	75.2	21.0	3.8	100(315)	
	읍·면소재지	70.0	27.7	2.2	100(357)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와 ‘모르고 있었다’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드림스타트는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2010년 현재 100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다른 교급에 비해 이용경험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작업이 필요하다.

저학년의 경우에도 이용경험이 낮게 나타나 빈곤아동 개개인에게 조기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시행기간이 짧아 다른 사업에 비해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낮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가 요청된다.

(4) 공부방의 필요성과 개선과제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이 생각하는 공부방의 필요성과 개선과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필요성

공부방의 필요성을 성별, 교급, 경제수준, 학업성적, 거주지역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표 IV-4-24>와 같다.

성별에 따른 공부방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꼭 필요하다’ 54.7%, ‘필요한 편이다’ 34.5%, ‘잘 모르겠다’ 8.6%, ‘별로 필요하지 않다’ 1.2%,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꼭 필요하다’ 60.3%, ‘필요한 편이다’ 31.5%, ‘잘 모르겠다’ 6.6%, ‘별로 필요하지 않다’ 1.2%, ‘전혀 필요하지 않다’ 0.3%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공부방의 필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급에 따른 공부방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꼭 필요하다’ 52.6%, ‘필요한 편이다’ 34.8%, ‘잘 모르겠다’ 10.3%,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각각 1.2%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꼭 필요하다’ 54.9%, ‘필요한 편이다’ 33.3%, ‘잘 모르겠다’ 9.9%, ‘별로 필요하지 않다’ 1.7%, ‘전혀 필요하지 않다’ 0.2%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꼭 필요하다’ 64.0%, ‘필요한 편이다’ 32.7%, ‘잘 모르겠다’ 2.6%,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각각 0.3% 순이었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꼭 필요하다’ 61.5%, ‘필요한 편이다’ 30.8%, ‘잘 모르겠다’ 3.8%, ‘별로 필요하지 않다’ 2.6%, ‘전혀 필요하지 않다’ 1.3% 순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꼭 필요하다’ 66.7% ‘필요한 편이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각각 13.3%, ‘잘 모르겠다’ 6.7% 순이었고, 기타의 경우 ‘꼭 필요하다’ 65.7%, ‘필요한 편이다’ 31.4%, ‘잘 모르겠다’ 2.9% 순이었다. 교급에 따른 공부방의 필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1).

경제수준에 따른 공부방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꼭 필요하다’ 61.0%, ‘필요한 편이다’ 30.1%, ‘잘 모르겠다’ 7.5%,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각각 0.7% 순이었고,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꼭 필요하다’ 56.3%, ‘필요한 편이다’ 34.5%, ‘잘 모르겠다’ 7.3%, ‘별로 필요하지 않다’ 1.0%, ‘전혀 필요하지 않다’ 0.9%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꼭 필요하다’ 66.0%, ‘필요한 편이다’ 25.0%, ‘잘 모르겠다’ 7.8%, ‘별로 필요하지 않다’ 1.2% 순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공부방의 필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학업성적에 따른 공부방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 ‘꼭 필요하다’ 64.7%, ‘필요한 편이다’ 28.2%, ‘잘 모르겠다’ 6.3%, ‘별로 필요하지 않다’ 0.7%, ‘전혀 필요하지 않다’ 0.2% 순이었고, 학업성적이 중인 경우 ‘꼭 필요하다’ 56.0%, ‘필요한 편이다’ 35.8%, ‘잘 모르겠다’ 6.8%, ‘별로 필요하지 않다’ 1.1%, ‘전혀 필요하지 않다’ 0.4%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꼭 필요하다’ 54.3%, ‘필요한 편이다’ 29.9%, ‘잘 모르겠다’ 11.7%, ‘전혀 필요하지 않다’ 2.5%, ‘별로 필요하지 않다’ 1.5%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공부방의 필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1).

거주지역에 따른 공부방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대도시인 경우 ‘꼭 필요하다’ 58.0%, ‘필요한 편이다’ 32.5%, ‘잘 모르겠다’ 8.0%, ‘별로 필요하지 않다’ 0.9%, ‘전혀 필요하지 않다’ 0.5% 순이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꼭 필요하다’ 59.2%, ‘필요한 편이다’ 31.5%, ‘잘 모르겠다’ 8.1%, ‘별로 필요하지 않다’ 0.9%, ‘전혀 필요하지 않다’ 0.3% 순이었으며, 읍·면소재지인 경우 ‘꼭 필요하다’ 56.6%, ‘필요한 편이다’ 34.0%, ‘잘 모르겠다’ 6.4%, ‘별로 필요하지 않다’ 1.9%,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 순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공부방의 필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05).

표 IV-4-24 공부방의 필요성

(단위 :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필요한 편이다	꼭 필요하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0.6	1.2	7.5	32.7	57.9	100(1248)	
성별	남	1.0	1.2	8.6	34.5	100(580)	6.627
	여	0.3	1.2	6.6	31.5	100(650)	
교급	초	1.2	1.2	10.3	34.8	100(253)	71.341***
	중	0.2	1.7	9.9	33.3	100(543)	
	일반고	0.3	0.3	2.6	32.7	100(303)	
	전문계고	1.3	2.6	3.8	30.8	100(78)	
	비재학	13.3	0.0	6.7	13.3	100(15)	
	기타	0.0	0.0	2.9	31.4	100(35)	
경제 수준	하	0.0	1.2	7.8	25.0	100(256)	11.447
	중	0.9	1.0	7.3	34.5	100(805)	
	상	0.7	0.7	7.5	30.1	100(146)	
학업 성적	하	2.5	1.5	11.7	29.9	100(197)	28.327***
	중	0.4	1.1	6.8	35.8	100(562)	
	상	0.2	0.7	6.3	28.2	100(447)	
거주 지역	대도시	0.5	0.9	8.0	32.5	100(550)	5.147
	중소도시	0.3	0.9	8.1	31.5	100(321)	
	읍·면소재지	1.1	1.9	6.4	34.0	100(373)	

공부방의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와 ‘필요한 편이다’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곳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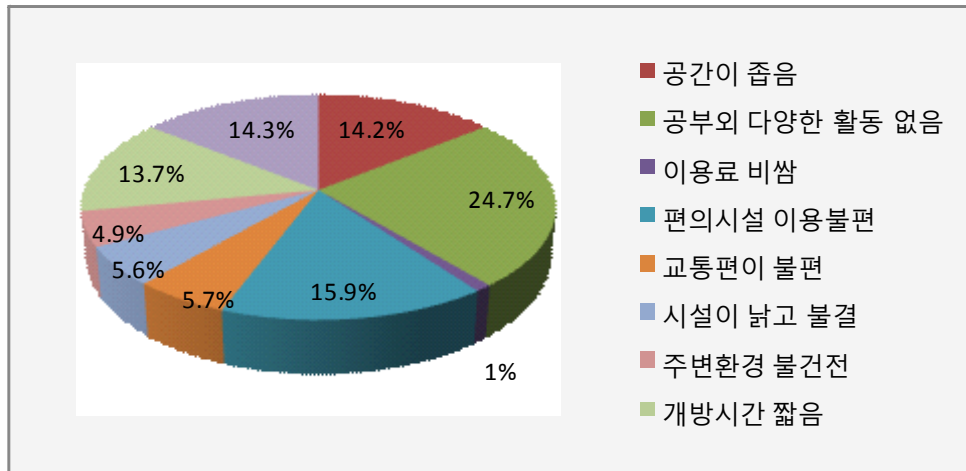
교급에 따라 공부방의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학습에의 부담감이 증가하는 교급에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높아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학업성적인 상인 경우 보다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이들은 전반적인 욕구가 낮을 가능성이 있으며 학습공간 제공과 학습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부방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②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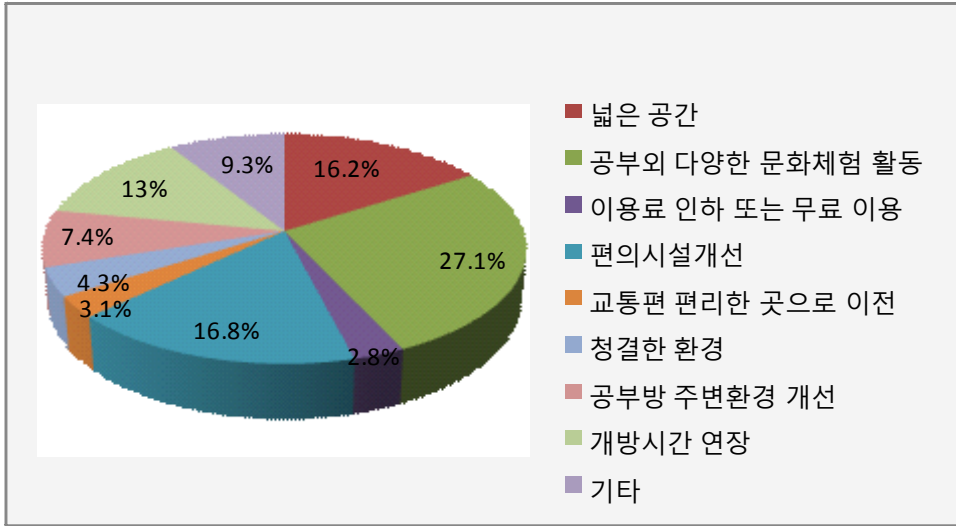
공부방 이용시 불편한 점과 공부방 이용시 바라는 점을 통해 살펴본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이용시 불편사항을 살펴보면, ‘공부외다양한활동없음’이라는 응답이 2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편의시설이용불편’ 15.9%, ‘기타’ 14.3%, ‘공간이좁음’ 14.2%, ‘개방시간짧음’ 13.7%, ‘교통편이불편’ 5.7%, ‘시설이낡고불결’ 5.6%, ‘주변환경불건전’ 4.9%, ‘이용료비쌌’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N-4-2] 공부방 이용시 불편한 점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공부외다양한문화체험활동’이라는 응답이 27.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편의시설개선’ 16.8%, ‘넓은공간’ 16.2%, ‘개방시간연장’ 13.0%, ‘기타’ 9.3%, ‘공부방주변환경개선’ 7.4%, ‘청결한환경’ 4.3%, ‘교통편편리한곳으로이전’ 3.1%, ‘이용료인하또는무료이용’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3] 공부방 이용시 바라는 점

3)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부방 이용실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이용기간은 평균 26.82개월(약 26개월 25일), 1회 이용시 평균 199.61분(약 3시간 20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공부방을 주로 주중(오후, 저녁)에 이용하며, 비규칙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시험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별로 공부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동하는데 평균 11.1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부모님을 통해 공부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공부방 이용동기에는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고 있다.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공부방 이용동기를 살펴보면, 학습과 관련한 동기를 많이 갖고 있으며 (학습 도움 33.2%, 공부할 공간 19.9%, 정보·자료 6.6% 등) 그 밖에 여가시간 활용이나 친구와의 만남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공부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부방 이용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이용 만족도는 ‘매우 만족’(27.8%)과 ‘만족’(46.7%)을 합하면 74.5%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업분야별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매우 만족함’과 ‘만족하는 편임’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 82.0%, 자료열람대출 및 정보제공 58.0%, 학습지도 54.5%, 여가문화체험활동 45.0%,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사업 40.9%, 상담 및 정서지원 39.3%로 나타나 학습공간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그 외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거나 미흡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도서관만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방과후 학교가 절반 정도의 수준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와 ‘모르고 있었다’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여섯째, 공부방의 필요성은 90.6%의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필요한 편 32.7%, 꼭 필요 57.9%). 교급과 학업성적에 따라 공부방의 필요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용 청소년은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경험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 부족,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불편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2) 시사점

청소년공부방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및 인성교육, 보호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통해 청소년공부방이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친구와 부모님을 통해 공부방을 알고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이용청소년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는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용시간이 주로 주중(오후, 저녁)에 평균 3시간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이용시간의 부족은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용 비율이 적은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공부방 이용청소년들의 욕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개선과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용청소년의 욕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습지도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이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이용 만족도가 향상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공부방 이용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부방 이용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자신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공부방을 통해 학습 공간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방과후 가정 내에서의 약화된 보호기능이 충족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용 만족도를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요인이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게 만드는지 등 보다 세부적이고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공부방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용청소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공부방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 현재 공부방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악한 재정은 사업의 수행 및 공부방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본래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공부방이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정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용청소년들이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확대시킨다. 지역 내 청소년 관련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시설들이 청소년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가깝게 다가서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공부방은 지역 중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관련 기관과의 연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부방이 지역 내의 관련 기관과의 활발한 연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의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현재 운영 중인 공부방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조정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이용하면서 겪는 가장 큰 불편사항은 학습지도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지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인적인 교육을 지향하면서도 학습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공부방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공부방 이용청소년들은 학습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응답에서 공부방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볼 수 있는데, 공부방이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곱째, 공부방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공부방 이용청소년들이 청소년공부방 환경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어 환경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시설과 장비 등에서 노후하고 설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용청소년들에게 만족스런 인테리어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회비나 후원금으로 충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용청소년의 이용률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5 장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활성화 방안

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2.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 방안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의
전환 방안
4. 작은 도서관으로의 전환 방안
5. 청소년자율학습센터 또는
지역청소년센터로의 재정립 방안
6. 관련정책 촉진방안

제 5 장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개선방안

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1) 청소년공부방 운영모형개발 방향

(1)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방향

서울지역은 1990대초부터 국가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청소년 공부방(독서실)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징으로는 지역공공성을 확보한 지역사회 청소년독서실로 운영하고 있다. 규모에 있어서도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상당히 큰 청소년독서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부산지역은 항구도시와 저소득밀집 등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세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유형내용으로 볼 때, ‘저소득 밀집지역 공부방 운영모형’과 ‘농어촌 지역 공부방 운영모형’,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청소년공부방’이다.

대구지역의 청소년공부방은 빈곤지역내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하는 주된 목적으로 공부방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의 시작이 대부분 10년 이상 됨으로 인하여 최근 공부방 시설이 낙후(보수시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지원부족으로 프로그램부족, 전문인력 배치 등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공부방은 항구도시 및 전국 각지에서 많은 주민들이 많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 크게 세가지 운영 유형으로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 유형에 따라 볼 때, 우선 지역사회 공동체내 자립지원 학습지도 강화모델(빈곤지역 야학형태)이 있고, 지역사회 도서관 운영형태 모델(지역주민을 위한 도서 및 정보제공기능)과 주거지역내 청소년 이용시설 모델(주로 빈곤지역 아파트 내 주민을 위한 생활공간시설)이 있다.

광주지역의 공부방은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어 두가지 운영 유형으로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 유형으로 볼 때, ‘청소년학습지원센터 운영(대부분 학습지원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과 ‘종합사회복지관 공부방(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부모의 참여를 이끌어 내거나, 학생이나 가족의 다른 문제나 복지욕구 발견하여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전지역의 공부방은 지역적 특색등이 반영되어 세가지 운영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운영 유형으로 볼 때, ‘지역 종합복지관 내 설치운영’과 ‘지역 동사무소와 연계된 새마을 금고와 함께 운영’, ‘도심지역에 독자적인 공간과 시설, 설비를 잘 갖추고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중에 있다.

경기지역의 공부방은 크게 두가지 운영 유형으로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우선 지역 동사무소와 연계된 지역도서관과 연계된 운영(동사무소내 지역공부방의 기능으로 안정적 운영)과 도심 빈곤지역내 취약계층지원 청소년공부방으로의 운영유형으로 운영중에 있다.

강원지역의 공부방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유형은 도심지역공부방과 농산어촌공부방이다. 도심지역공부방은 향후 지역내 인근시설 유사시설 이용연계 등 전환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농산어촌공부방의 경우 운영유지 필요한 유형이다. 그 이유는 농산어촌에서는 공부방이 마을에서 유일한 청소년의 여가, 문화, 복지 시설인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사업 효과성이 낮은 이유로 중단시키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작필요(한명의 청소년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성적인 측면의 접근필요)하다.

충북지역의 청소년공부방은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공부방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설(도서관, 지역주민 공부방 등)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농산어촌에서는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청소년만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지역주민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많아 이용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사회주민 전체로 개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충북지역 청소년공부방은 대체적으로 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민자치단체에서 관심이 높거나(영동 황간),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충주 중흥클래스, 제천 의림, 충주 엄정)나 공공기관 부설(청주 상남, 충주 연수)로 이루어진 곳, 운영위원회의 관심과 참여(충주 용산, 진천 광혜원)가 높은 곳은 비교적 공부방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전남지역의 공부방은 지역적 특성상 대부분 농산어촌에 맞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중이다. 전남지역의 공부방은 일부 도시권역에 속해 있는 몇 개를 제외하면 농어촌과 섬지역에서 유일한 청소년 공간이며, 지역내에 학습을 위한 학원이나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도 전문한 공간에서 공부방은 청소년들이 모이는 소통의 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공부방은 대체로 지역사회내 빈곤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 이외에는 갈 곳 없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과 문화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우수사례를 통해 도출된 방향

대구시 ‘다솜청소년공부방’의 경우 사업운영에 따른 홍보가 우수하여, 운영을 위한 지역후원모금이 활발하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근 대학교 및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잘하고 있다.

인천시 ‘동구청소년공부방’의 경우 지역내 유사시설이라고 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차별화된 청소년공부방 색깔(청소년 교육 및 지도에 있어서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전환 거부)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 ‘송죽동 청소년공부방’의 경우, 운영자 청소년지도에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습지원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 급식비를 지원받아 저녁식사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적 요구에 따라 열람실 보다는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청일공부방(횡성고른기회배움터)’의 경우, 이 공부방은 거점센터를 두고 인근 면단위 여러 지역을 분원형태의 공부방을 두고 공동 운영 및 관리하는 모델로 운영중에 있다. 지자체 차원의 운영의지 보다는 지역주민의 자생적 노력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자발적 형태이며, 열람실이나 학습지도 위주의 소극적 운영형태가 아니라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생태체험,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 ‘중흥 S 클레스(충주시)’의 경우, 기존 청소년공부방 ‘나’형 시설로 지역사회 주민 중심의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시설환경으로 열람실 외에 멀티미디어실을 갖추고 있어 영화상영 등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한 지역주민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충청북도 ‘황간청소년공부방(충북 영동군)’의 경우, 지역내 유일한 청소년 공간 역할 수행, 위치가 학교 가는 길목에 있고 학원 주변이어서 이용 아동(청소년)이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공부하는 아이들, 면단위에 있는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 책을 빌리러 오는 아이들(7,500권 보유) 등 수요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시험기간에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주민 스스로 공부방 이용청소년을 배려하면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하는 청소년의 부모님들이 공부방 운영에 참여하면서 공부방이 주민참여 공간이 되고 있기도 하다.

충청남도 ‘아산 삼일청소년공부방’의 경우, 모범적인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 및 설비,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의 높은 참여도를 통한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 ‘죽곡청소년공부방’의 경우,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추고 문화예술을 통한 청소년 지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 정부 예산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 운영형태 등에서 우수성을

찾을 수 있다.

경상북도 '구룡포읍청소년공부방'의 경우, 설립에 있어서 20여 년 전에 뜻있는 지역주민들의 의지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자체적인 모금을 통해 2층 현대식 자체건물을 완공하여 운영중에 있다.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과 공부방에 대한 열의가 뛰어나며 공부방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매우 활성화 되어있다.(운영비 후원 등) 운영재정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위원들의 모금을 통해 지역사회 학습 공간이자 지역내 유일한 도서관 역할과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상남도 '도토리과 친구들 청소년공부방'의 경우, 청소년 관련 시설이 전무한 소외지역에 교회와 연계된 청소년공부방으로 지역주민들의 예산을 출연하여 공부방을 운영중에 있다. 특별히, 중학생 이상 청소년들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화되어 있다.(지역에서 서울의 유명대학 진학시키는 모험사례)

제주도 '성화청소년공부방'의 경우, 쾌적한 공부방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용 컴퓨터 32대를 마을주민회로부터 지원받을 정도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공부방이 활성화 되어 있다.

(3) 지역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모델 개발의 필요성

첫째, 현재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지역적으로 사업의 의의와 차별성을 가지고 지속유지하기를 희망 : 타시설 전환보다는 기존 청소년공부방 지속운영형태 유지희망 대다수(90%이상)

- 운영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지역사회 우수인적 및 시설자원이 준비되어 있음

둘째, 지역사회내 20년 이상 운영을 통하여, 지역내에서 누구나 쉽게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청소년전용시설로의 정체성 확보

- 지역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시설로 인식하고 있음

셋째, 지금까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현실인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게 다양한 성공적인 운영형태로 발전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음. 나름대로의 운영의 자생성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소액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운영사례발굴을 통하여 향후 국가 및 지방정부의 사업운영방향 모범사례를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 풍부

넷째, 청소년 관련 시설이 없는 소외 지역에서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휴게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을 함께 두어 다목적으로 사용가능

-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도심지역과 다르게, 지역내 유사이용시설 및 프로그램이 전무함(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청소년공부방의 지속운영필요)

(4) 지역청소년공부방 운영모형개발시 사전 검토 사항

첫째, 지리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고려 필요

- 인구 밀집지역 : 도심지역에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도심 저소득지역 : 도심지역내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설치하여 빈곤청소년들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소외지역(농어촌지역): 청소년관련 전문시설 및 인력 등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에서 청소년전용시설의 역할 수행(도심지 청소년수련시설의 분원형태)

둘째, 시설특성에 맞는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고려 필요

- 지자체 보유 공공시설 :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시설 활용(청사, 동사무소, 보건소 등 관광서의 유휴공간활용)
- 지역사회 공동소유시설 : 마을회 공동시설, 아파트 공동관리시설 등
- 개인·단체(종교)시설 : 종교시설내 부대시설, 개인 독지가에 의한 지역무상지원시설, 지역기업에 의한 주민지원시설 등

셋째, 시설운영주체에 따른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고려 필요

- 지자체직영시설 : 지자체가 지역 청소년수요 및 주민의 요구에 근거하여 지자체 직영시설 설치 및 운영
- 주민자치회시설 : 지역주민회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운영
- 민간(개인,단체)시설 : 민간이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독자적 차원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후원을 통하여 운영

넷째, 지역사회 청소년이용 수요에 따른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고려 필요

- 지역의 청소년전용 이용 및 프로그램지원시설 활용
 - 청소년전용시설 운영시, 주이용 청소년대상 고려(초등, 중고등, 대학생 등)
 - 초등 중심운영의 경우 지역사회 작은 청소년도서관 및 기초돌봄기능 탑재 필요
 - 중고등 중심운영의 경우 독서실기능 및 수능대비 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 필요

- 지역사회(공동체)의 통합 이용 및 지원시설 활용
 - 지역사회 소규모 커뮤니티 센터 활용(지역의 작은 문화센터: 공연장, 회의장, 강의실 등 복합활용)
 - 청소년행사 및 청소년시험 등 경우에는 청소년공부방 시설로 대체활용
- 다섯째, 청소년공부방 사업근거에 있어서, 기존의 사업이 아닌 청소년이용시설로의 운영근거 확보를 통한 운영기반(예산지원 등) 마련
-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청소년이용시설로 등록하여 운영
 - 청소년이용시설중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등록하여 체계적인 관리추진

표 V-1-1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설치·운영기준

구 분	내 용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 (청소년이용시설)	1항: 청소년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등)	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이용시설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저에 의하여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 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청소년이용권장 시설의 지정)	1항: 청소년이용권장 시설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을 한 시설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그 밖에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청소년공부방 운영모형제안(안)

전국적으로 청소년공부방 실태조사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장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모아, 도심지역의 특성에 고려한 모형 하나와 소외지역의 특성을 반영된 두 개의 모형을 통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3가지 운영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모형 1 (사업명: 지역청소년독서실)

모형1의 모형개발 방향은 인구집중(도심)지역내 공공시설 활용을 전제로 지자체가 직접운영 또는 전문청소년단체가 운영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계층 통합 독서실로 활용한다. 단, 초·중·고등학교의 시험시간에 있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가. 사업운영

- 기초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의 주체가 됨
 - * 지역내 지자체 시설이 아닌 유휴공간을 활용시 10년 이상 무상사용 관련 사전협약필요
- 운영의 경우 지자체 직영 또는 전문단체를 통한 위탁운영(청소년단체로 제한)
 - *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 확보를 통한 운영 권장

나. 시설설치조건 및 규모

- 지역청소년독서실의 시설은 단독건물로 함.
 - * 가급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원 또는 마당 설치필요
 - * 청소년이용 시설 특성상, 지하층 공간의 사용의 제한
- 인근 50미터 이내에 청소년유해시설이 있어서는 안됨
- 시설규모는 일시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을 80명 이상으로 함.
- 독서실내 주요 시설은 독서실 80석 이상(남자 40석, 여자 40석), 열람실, 정보자료실을 두어야 함
 - * 부대시설로 사무실, 세면실, 화장실, 휴게실 등을 함께 설치운영.

다. 이용대상

- 초등·중등·고등학생(중점대상), 지역주민
- *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성관련 범죄자 등은 제외
- 청소년의 중간 및 기말 등 시험기간에는 지역주민 이용제한

라. 프로그램 등

- 청소년 우수학습공간 제공(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우수환경제공)
- 학습지원(학력신장) 상담교실 프로그램 운영
- 독서 및 토론(논술) 지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 요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서예 및 문예 프로그램 운영 등

마. 지역청소년독서실 운영협의회 운영

- 본 지역청소년독서실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총 10명 내외로 하며, 운영내용은 운영계획 및 연간운영예산 심의, 지역자원개발 및 연계 등으로 함
- * 구성인원의 자격은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이어야 하며, 독서실 이용청소년도 2명이상 포함(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인사로 구성)

바. 안전 등

- 운영관련 화재보험, 이용자 상해보험 등 의무가입 (주방활용 시설의 경우, 음식물 관련 보험가입)
- 이용자 긴급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인근 병원등과의 연계체계마련
- 시설물 및 주요장비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표 및 진단

사. 운영인력

- 상근인력(3명이상)과 자원봉사자, 청소원 등
 - 상근인력 : 운영총괄자인 관장(운영책임자) 1인과 시설지도자 2인
 - 시설관리(청소원) 1인, 자원봉사자 등

- 상근인력의 자격기준 등
 - 운영책임자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의 전문가를 선발하여 배치
 - 시설지도자 경우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의 전문가를 선발하여 배치

아. 운영시간 : 일일 8시간 이상 운영

- 평 일 : 13:00~21:00
 - * 청소년 시험시간의 경우, 23:00까지 연장운영가능
 - * 연장운영시, 이용청소년 안전귀가조치 필요
- 공휴일 : 09:00~21:00
- 법정공휴일, 시설개보수 등의 경우 휴무

자. 이용요금 : 시설이용 요금은 지자체가 적정한 이용금액을 책정한다.

- 청소년 : 일일 500원 이하(기본요금단가)
- 지역주민 : 일일 1,000원 이상(기본요금단가)
 - * 지역청소년독서실은 '학습 및 면학' 환경조성이 중요함. 이에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연령(아동)의 이용제한 필요함

차. 운영예산 : 연간 200백만원 소요

- 인건비 : 100백만원
 - * 운영책임자(35백만원), 시설지도자(25백만원, 2명), 관리원(15백만원, 1인)
- 운영비 : 100백만원
 - * 프로그램(36백만원), 시설개보수(30백만원), 일반운영비(24백만원)
- ※ 운영재원마련 : 지방비 80%, 후원비 10%, 이용요금 10%

(2) 모형 2 (사업명: 우리마을 청소년 꿈터)

모형 2의 모형개발방향은 소외지역(농산어촌)의 공공시설(지자체소유 또는 장기 건물활용 지자체기부채납)의 활용과 운영상 지역사회(마을회)가 책임성있는 지분을 갖게한다.

가. 사업운영

- 기초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의 주체가 됨
 - * 지역내 지자체 시설이 아닌 유희공간을 활용시 10년 이상 무상사용 관련 사전협약필요
- 운영의 경우 마을회 직영 또는 전문단체를 통한 위탁운영(청소년단체로 제한)

나. 시설조건 및 규모

- 지역청소년독서실의 시설은 단독건물로 함.
 - * 시설내 청소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마련
 - * 청소년시설 특성상, 지하층 공간 및 지상 4층이상의 공간 설치 제한
- 기본시설로는 ‘독서실’, ‘대화지방’, ‘열람실 및 정보자료실’, ‘휴게실’로 구성
 - * 부대시설로 사무실, 세면실, 화장실, 휴게실 등을 함께 설치운영.
- 인근 50미터 이내에 청소년유해시설이 있어서는 안됨
- 시설규모는 일시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을 50명 이상으로 함.

다. 이용대상

- 초등·중등·고등학생(중점대상), 지역주민
 - * 영유아 및 부녀자의 시설이용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으로 제한 배정
- 청소년의 중간 및 기말 등 시험기간에는 지역주민 이용제한

라. 프로그램

- 청소년 자율 안전학습공간 제공
- 이용 청소년 상담 및 안전귀가 지도
- 청소년 학습지원(학력신장) 상담교실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독서 및 토론(논술) 지도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활동(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 ‘우리마을 청소년꿈터’ 운영협의회 운영

- 본 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총 10명 내외로 하며, 운영내용은 운영계획 및 연간운영예산 심의, 지역자원개발 및 연계 등으로 함

* 구성인원의 자격은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이어야 하며, 독서실 이용청소년도 2명이상 포함(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인사로 구성)

바. 안전 등

- 운영관련 화재보험, 이용자 상해보험 등 의무가입 (주방활용 시설의 경우, 음식물 관련 보험가입)
- 이용자 긴급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인근 병원등과의 연계체계마련
- 시설물 및 주요장비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포 및 진단

사. 운영인력

- 상근인력(2명이상)과 자원봉사자 등
 - 상근인력 : 운영총괄자인 관장(운영책임자) 1인과 시설지도자 1인
 - 자원봉사자(상근, 비상근) 등
- 상근인력의 자격기준 등(청소년이용권장시설 기준)
 - 운영책임자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의 전문가를 선발하여 배치
 - 시설지도자 경우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의 전문가를 선발하여 배치

아. 운영시간 : 일일 8시간 이상 운영

- 평 일 : 14:00~20:00
 - * 청소년 시험시간의 경우, 23:00까지 연장운영가능
 - * 연장운영시, 이용청소년 안전귀가조치 필요
- 공휴일 : 10:00~20:00
- 법정공휴일, 시설개보수 등의 경우 휴무

자. 이용요금 : 시설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특별프로그램 운영시, 지자체와 협의한 후 요금을 책정하여 운영

차. 운영예산 : 연간 60백만원 소요

- 인건비 : 40백만원
 - * 운영책임자(20백만원), 시설지도자(15백만원, 1명), 자원봉사(5백만원)
- 운영비 : 30백만원
 - * 프로그램(20백만원), 일반운영비(10백만원)
- ※ 운영재원마련 : 지방비 80%, 후원비 20%

(3) 모형 3 (사업명: 우리동네 청소년 희망터)

모형 3의 모형개발방향은 소외지역(농산어촌)의 민간시설 활용과 지역독지적 차원의 민간(종교단체 포함) 운영을 중심으로 한다. 본 시설모형은 민간영역에서 자율 및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기본운영방향으로 설정한다.

가. 사업운영

- 민간(개인, 단체)이 지역의 공익성 및 봉사를 위하여 설치운영함
 - * 지역내 수요와 필요성을 근거한 공공시설로의 시설운영(이에 운영에 따르는 모든 사항은 개인시설이 아진 지역사회 거점시설로 운영)
- 지자체는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등재하여 지역의 청소년 활동시설로 관리(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일부 예산지원 등 검토)
- 지역청소년독서실의 시설은 단독건물로 함.
 - * 시설내 청소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마련
 - * 청소년시설 특성상, 지하층 공간 및 지상 4층이상의 공간 설치 제한
- 기본시설로는 ‘독서실’, ‘대화의방’, ‘열람실 및 정보자료실’, ‘휴게실’로 구성
 - * 부대시설로 사무실, 세면실, 화장실, 휴게실 등을 함께 설치운영.
- 인근 50미터 이내에 청소년유해시설이 있어서는 안됨
- 시설규모는 일시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을 50명 이상으로 함.

나. 시설설치조건 및 규모

- 본 시설은 1층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개인주택 등에 설치가능.
 - * 청소년이용 시설 특성상, 지하층 공간의 경우 이용을 제한
- 기본시설로는 ‘공부방’, ‘대화의방’, ‘휴게실’로 구성

* 부대시설로 사무실, 세면실, 화장실 등 설치.

- 시설규모는 일시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을 30명 이상으로 함.

다. 이용대상

- 농산어촌 소외지역의 초등학생과 일부 중학생을 주요 이용대상으로 함

* 고등학생에 맞는 지원프로그램 보유시 고등학생 이용도 권장

* 반면 영유아 및 일반주민 등은 이용 제한

라. 프로그램 등

- 청소년 공부방 지원 및 기본적인 상담교실 프로그램 운영

- 독서 및 토론(논술),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 이용청소년 안전귀가 지도, 학부모 교육 등

마. 시설 운영협의회 운영

- 본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총 5명 내외로 하며, 운영내용은 운영계획 및 연간운영예산 심의, 지역자원개발 및 연계 등으로 함

바. 안전 등

- 운영관련 화재보험, 이용자 상해보험 등 의무가입 (주방활용 시설의 경우, 음식물 관련 보험가입)

- 이용자 긴급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인근 병원등과의 연계체계마련

- 시설물 및 주요장비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표 및 진단

사. 운영인력

- 상근인력(1명이상)과 자원봉사자

· 상근인력 : 운영총괄자인 관장(운영책임자) 1인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발굴 및 연계

- 상근인력의 자격기준 등

· 운영책임자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자격자 운영(청소년이용권장시설 필수기준)

아. 운영시간 : 일일 8시간 이상 운영

- 평 일 : 13:00~20:00

* 청소년 시험시간의 경우, 23:00까지 연장운영가능

* 연장운영시, 이용청소년 안전귀가조치 필요

- 공휴일 : 10:00~20:00

- 법정공휴일, 시설개보수 등의 경우 휴무

자. 이용요금 : 시설이용 요금은 무료로 한다.

- 특별프로그램 운영시, 시설 운영협의회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요금책정에 대한 결정사항은 지자체에 그 계획을 사전 협의한다.

차. 운영예산 : 연간 30백만원 소요

- 인건비 : 20백만원

* 운영책임자(15백만원), 상근자원봉사자(5백만원)

- 운영비 : 10백만원

* 프로그램(4백만원), 일반운영비(6백만원)

※ 운영재원마련 : 지방비30%(운영비:프로그램중심), 후원비 70%

3) 지역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1) 지역청소년공부방 운영유형에 정리 및 운영효율화 방안

지역청소년공부방의 운영모형은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모형 1의 경우 도심형 모델로써 기존 대도심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청소년공부방을 모형화 하였다. 현재 본 기능을 수행하는 하는 유사시설은 지역사회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지역사회차원에서 설치운영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2와 모형3은 농어촌의 소외지역에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공부방 모형으로 모형2의 경우 공공성 중심의 운영모형이며, 모형 3의 경우 지역 단체(민간)차원의 자율운영 모형이다.

표 V-1-2 지역청소년공부방 운영모형 3가지

구 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시 설 명	청소년독서실	청소년꿈터	청소년희망터
이용대상	청소년, 지역주민 * 영유아 이용 제한	청소년(초등, 중등생) * 영유아 이용 제한	청소년(초등, 중등생) * 영유아 이용 제한
설 치 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 종교, 개인)
운 영 자	직영 또는 전문단체위탁	마을회 또는 단체위탁	개인 또는 단체
공간특성	독서실, 정보열람실, 사무실, 휴게실 등	독서실, 정보열람실, 사무실, 휴게실 등	공부방, 대화의방, 휴게실
시설규모	독서실 좌석 80석 이상	일시수용 50명 이상	일시수용 30명 이상
운영인력	상근 3명 (책임자1명, 지도자2명)	상근 2명 (책임자1명, 지도자1명)	상근 1명 (책임자 겸 지도자 1명)
운영시간	평일: 13:00~21:00 휴일: 09:00~21:00	평일: 14:00~20:00 휴일: 10:00~20:00	평일: 14:00~20:00 휴일: 10:00~20:00
프로그램 (서비스)	자율공부환경 제공 다양한 학업관련지원 청소년전문상담지원	자율공부환경 제공 청소년문화 및 휴식공간 청소년체험활동지원	청소년문화 및 휴식공간 청소년체험활동 지원
이용요금	청소년500원내외 (지자체 조정 및 결정) * 성인 1,00원 내외	무료 * 특별프로그램 운영시 책정가능(지자체협의)	무료 * 특별프로그램 운영시 책정가능(지자체협의)
운영예산	200백만원 (지방비 80%지원)	60백만원 (지방비 80%지원)	30백만원 (지방비 30%지원)
기 타	근거:청소년이용권장시설	근거:청소년이용권장시설	근거:청소년이용권장시설

본 연구에서 제시한 3가지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공부방이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내 유사서비스 제공 시설있다고 하면, 통합 또는 조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이번에 모델개발하여 제시된 3가지 모형은 아직 국내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청소년 지원 및 서비스의 사각지대로 판단되어지며 청소년육성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다.

(2) 지역청소년공부방 운영활성화 방안

가. 지역청소년공부방 지원센터 및 연합회 구성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청소년공부방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전국적인 연합회 및 후원회 등의 설립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접근보다는 공공비영리단체 또는 기업(사회복지, 공헌)팀등을 통한 운영방안 모색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 관련종사자 직무교육실시

지역청소년공부방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운영역량배양 및 청소년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직무교육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적으로는 현재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연수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커리큘럼에 지역청소년공부방 담당자 반으로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도별로 연 2회 이상의 정기 사업담당자 워크숍 등 개최를 통하여 운영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다. 주기적 평가를 통한 우수시설 선발 및 홍보

시도별 지역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진단팀을 구성하여, 2년에 한번씩 전수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평가를 통하여 향후 본 시설의 지속운영과 보완 등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더불어 우수운영사례의 발굴시 홍보 자료등을 제작하여 해당지자체 및 주민자치 등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다.

평가와 더불어, 지역의 본 시설 및 사업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그룹을 자원봉사 형태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업의 진행과 효율화를 위한 상시적인 컨설팅을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나아가 전문가 그룹과 함께 부적절 운영기관 및 이용부진 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라. 사업의 지역사회 밀착화 및 다양한 자원 발굴 및 연계

본 지역청소년공부방의 운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내 본 시설의 정체감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향후의 지속가능여부가 달려있다고 본다. 이에 본 청소년공부방 시설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 사업의 출발이자 전부라고 볼 수 있다. 더하여, 지역자원 자발적인 시설운영에 대한 애정과 기부, 나아가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성공사례로 발굴되어야 한다.

2.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 방안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상당수가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에 긍정적이었다. 본 연구진이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운영자들이 시설전환을 희망하는 이유는 '공부방에 대한 국고 지원이 끊겨서'가 전체의 30.5%(중복응답으로 계산할 때 운영자의 40.0%)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공부방보다 더 필요한 시설이라서가 26.9%(중복응답 35.3%)이고, 여기에 법정시설로 바꾸고 싶어서가 11.7%(중복응답 15.3%)로 두 유형의 응답을 합친 적극적인 변화를 희망하는 사람은 38.6%이다. 이러한 반응은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국고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이왕이면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이고, 현재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기에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켜도 기존 이용자의 대부분을 흡수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이 청소년공부방에 비교하여 양호하기에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도 적다.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키고자 할 때 학습할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가형(66제곱미터, 20평 이상)은 공간이 좁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25평 이상을 권장하고, 최소 공간이 18평 이상이기에 최소 조건을 갖춘 곳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킬 수 있다. 만약 현재 공간이 아동과 청소년이 활동하기에 현실적으로 좁은 곳은 증축·개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킬 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청소년공부방에서 전환된 지역아동센터를 정부가 '신규 등록'으로 간주하고 1~2년간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공부방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되기 전부터 있어온 사업이고, (아동)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될 때 기득권을 인정하고 전환시 경과조치를 주었다는 점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경우에도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동등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동일한 시·군·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오랫동안 운영한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변경한

것을 ‘신규 신고’로 간주한 것은 청소년공부방의 역사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청소년공부방도 정부가 꾸준히 지원한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전환된 지역아동센터를 즉시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으로 당해연도 예산을 모두 확보하기 어렵고, 보건복지부도 국고를 확보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공부방으로 확보된 예산을 전환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나머지 소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동시에 보건복지부도 여성가족부와 협조하여 청소년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된 시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본 예산 혹은 추경에서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진이 시·도 관계자와 면담한 바에 따르면, 당해 시·도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여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키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전환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고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규 시설이 아닌 기존 시설로 인정하여 지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때 필수공간으로 학습공간과 조리실과 식당을 요구한다. 기존 청소년공부방은 학습공간은 있지만 조리실과 식당이 없거나 공간의 특성상 조리실과 식당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에 부설된 공부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조리실과 식당 등 주방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보다 유연성 있게 적용하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에 만든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주요 질의 및 답변 모음집’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등에 부설된 지역아동센터는 복지관 내의 식당 등을 공유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아래 참고자료). 또한 기존 청소년공부방에서 주방설비를 전혀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 공간을 활용하여 갖출 경우에도 유연성을 갖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공부방의 직원(관장, 지도교사, 관리인 등)은 법정 자격이 없지만, 지역아동센터(시설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등)는 사회복지사 등 법정 자격증을 갖춘 사람만 임용될 수 있다.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에는 사회복지사 등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설장으로 임용하도록 한다. 다만, (아동)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때 경과조치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전례가 있다(아래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설장과 직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되, 청소년공부방을 현신적으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실무자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2년 안에 법정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것도 한 대안이다.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키면 중앙 행정부처의 관할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지만, 시·군·구청에서는 대체로 같은 팀에서 청소년업무와 아동업무를 맡거나 한 담당자가

아동과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기에 행정상 문제될 것이 없다. 전환 첫해에는 기존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공부방 예산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예산의 차액을 추경 등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면 될 것이다. 2011년에 전환시킬 경우에 2012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는 초등학생이 주류이고 중학생이 일부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1318 해피존과 같이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를 표방하여 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이용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킬 경우에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하면 공부방을 이용했던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자의 학습지원과 함께 정보지원, 문화지원, 안전·급식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점에서 학습지원과 안전·급식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특성화될 수도 있다. 일단은 여건이 되고 희망을 하는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키고, 센터의 운영은 이용 아동과 청소년의 욕구에 맞추어서 특화 발전시키면 될 것이다.

표 V-2-1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킬 경우

기준	청소년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문제점과 대책
시설	가형- 학습할 수 있는 공간 66제곱미터 이상 나형- 학습할 수 있는 공간 132제곱미터 이상+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의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 가형과 나형 모두 최소 공간기준을 확보할 수 있지만, ‘조리실+식당’은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인접 공간에 ‘조리실+식당’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마련하도록 함
인력	가형- 관장 1인, 관리인 1인+자원봉사자 나형- 관장 1인, 지도교사 1인, 관리인 1인+ 자원봉사자9	- 아동 10인 미만: 시설장 1인 - 아동 30인 미만: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50인 이상: 시설장 1인, 영양사 1인, 생활복지사 2인(아동 50인 초과시 1인 추가) *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 청소년 30명 미만시에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상근해야 함 -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이어야 하는데, 자격취득을 2년간 유예시킨 전례가 있으므로 이를 준용함

설치법령 과 지원	법령에 근거는 없지만 신고로 설치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신고로 설치	-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신고로 설치 -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된 역사를 인정하여 신고후 지원함
--------------	-----------------------	----------------------	---

▶ 참고자료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주요 질의 및 답변 모음집(보건복지부, 2005.12.29)

[질의] 지역아동센터와 종교시설(교회 등) 중복 설치 관련

[답변]

-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은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을 제공할 수 있는 전용공간으로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별도로 갖추어야 함.
-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이므로 건물 및 종사자 등에 있어 종교시설(교회 등)과 별도로 분리되어야 하며, 특히 동일건물 내일 경우에는 그 시설, 회계, 운영 및 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할 것임.
- 화장실은 지역아동센터 전용화장실이 1개 이상 있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 특성상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종교시설(교회 등) 등과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을 위해 제공되어지는 시설전용공간을 또 다른 시설 이용자가 사용하는 경우와 타 시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중복사용으로 이는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의 보호·교육, 급식,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지역사회와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중복시설은 인정이 곤란함.

[질의] 방과 후 아동공부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련?

[답변]

- 사회복지관 건물이 아닌 별도의 건물설치 및 사회복지관 내에 기존사업과 분리된 독립적인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안전과 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내 조리실, 식당,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도 있음. 이 경우, 시설설치 신고 시 공동사용 조리실 및 식당의 면적을 인정하여야만 전용공간

25평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33㎡이내에서 지역아동센터 전용면적으로 인정 할 수도 있음(단 공동사용 조리실 및 식당의 면적이 33㎡이상인 경우). 구법(아동복지법시행규칙 2004.7.30자 개정령)에서 조리실 및 식당을 33㎡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던 점 감안.

- 다만,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관과 유사하게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질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 관련?

[답변]

-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종사자 배치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의 종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기간을 2007.7.29에서 2009.7.29까지 갖추도록 2년 연장하였으므로 동 기간까지 종사자 자격을 갖추도록 적극 유도하시기 바람.
 - 아동 30인 이상 : 시설장 1인, 영양사(50인이상)1인, 생활복지사 2인(아동50인 초과시 1인 추가)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 1인
- ※ '05.12.31 이전 설치 사실에 대한 확인은 P.3의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기운영 실적 인정관련' 답변사항 참조
-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총무)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을 "3년(1년) 이상 종사한 경력조항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만으로도 시설장(총무) 자격이 되도록 2005.11.16일자로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공포·시행하였음.

[질의]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종사자 기준 적용은?

[답변] 아래 표 V-1-2 참조

표 V-2-2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종사자 기준 적용

구분	'04. 7.30.이전 설치(중) 시설	법령 시행이후	
		'04. 7.31.~' 05.12.31. 설치시설	'06. 1. 1.이후 설치시설
시설기준	'07.12.31.까지 유예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	기준대로 갖추어야함	기준대로 갖추어야함

종사자 배치기준	'06. 1. 1.부터 시행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1항)	'06. 1. 1.부터 시행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1항)	기준대로 갖추어야함
종사자 자격기준	'09. 7.29.까지 유예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2항)	'09. 7.29.까지 유예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2항)	기준대로 갖추어야함

* 이 자료는 일부 발췌한 것으로 모두를 검색하려면, 지역아동정보센터 자료실 <http://www.icareinfo.info> 게시물번호 16번에서 검색할 수 있음.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의 전환 방안

청소년공부방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나형 청소년공부방 중에서 공간이 넓은 경우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공부방에 비교하여 10배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당 시·군에서 1개소 가량 선별하여 전환시킬 수 있다. 특히 해당 시·군·구에 아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없는 지역이면서, 시·군·구청 소재지 혹은 인구 밀집지역(읍소재지)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중에서 공간이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전환시키면 될 것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학습뿐만 아니라, 상담, 문화지도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기에 기존 청소년공부방의 공간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직접 전환시키기 보다는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했던 청소년단체(혹은 기관)나 법인에게 기존 청소년공부방을 폐쇄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개설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기존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공간을 이용하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열고 역량있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을 찾아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할 때 공부방을 운영한 역사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조정한다. 나형 청소년공부방은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한 경험이 있기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도전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도시와 비교할 때 중소도시인 시와 농어촌인 군단위(혹은 읍단위)의 청소년복지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대도시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있다. 하지만 시와 군단위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일부 청소년시설만 있고, 일부 군단위와 면단위에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다.

농산어촌에는 도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전혀 없었는데, 겨우 한 두 개 있던 청소년공부방조차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사는 청소년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정책이다. 이들에게 좀 더 나은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청소년공부방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공부방의 예산을 축소할 대신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예산을 늘려야 한다. 청소년공부방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국고를 배정받지 못한 데는 여성가족부의 책임도 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2000년 161개소(121억원, 6,762명)에서 2011년 200개소(154억원, 8,400명), 2013년 232개소로 확대시킬 계획이다(참조:<http://blog.daum.net/moge-family/3206>). 하지만, 2011년 현재 171개소 청소년시설에서 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어서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일반형(부모와 청소년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선발)과 지원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을 추천/초청/선발) 그리고 혼합형(일반형과 지원형 겸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을 폐쇄한 지역에는 지원형과 혼합형이 더 절실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시/군/구당 1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2013년에 전국의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가 완료되면 시/군/구청 소재지가 아니지만 청소년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욕구가 강한 지역부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하도록 한다. 건축 예산을 외치는 정부에서 새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이용자 대비 소요예산이 많다는 일부 비판적 의견을 경청하여 확보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우선 집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이용자 대비 예산 효율성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소수 이용자에게 예산을 집중시키는 것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등과 사업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이용자 대비 소요예산이 적지 않다. 청소년공부방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전환시킬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기존 인프라를 고려하여 인프라가 적은 지역에 우선 배정해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할 수 있다.

표 V-3-1 청소년공부방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전환시킬 경우

기준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문제점과 대책
시설	가형- 학습할 수 있는 공간 66제곱미터 이상 나형- 학습할 수 있는 공간 132제곱미터 이상+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 관, 청소년문화의집)을 기반으로 설치 현재 171개소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개설할 경우 인접 청소년공부방을 폐쇄함
인력	가형- 관장 1인, 관리인 1인+자원봉사자 나형- 관장 1인, 지도교사 1인, 관리인 1인+ 자원봉사자	- 방과후아카데미PM(프로그램 매니저)은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방과후아카데미 SM(스케줄 매니저)은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 직원의 자격으로는 청소년지도사를 필수자격으로 봄 - 청소년지도사이면서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함
설치법령 과 지원	법령에 근거는 없지만 신고로 설치	여성가족부의 지원사업으로 결정	- 여성가족부의 지원사업으로 결정

4. 작은 도서관으로의 전환 방안

청소년공부방을 주변에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어서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도 적극 도모할 수 있다. 청소년공부방 중에는 도서를 많이 확보하고 도서의 대여를 중요한 사업으로 수행한 곳이 있다. 특히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의 일부 공간에 열람실만을 확보한 작은 청소년공부방은 주방설비 등 지역아동센터에 필수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청소년공부방을 도서관법상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작은 도서관의 최소 기준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시설면적 33제곱미터(10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으로 청소년공부방의 최소 면적 66제곱미터(20평) 이상보다 기준이 낮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공부방에 비교하여 더 낮을 수 있기에 기존 운영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작은 도서관 등으로의 전환은 해당 공부방의 시설과 설비, 운영자와 직원, 운영단체(기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한 단체와 담당 실무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청소년공부방을 전환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미 있는 사업을 전환시키거나 지원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명을 갖고 헌신을 한 단체와 실무자에게 포상과 같은 사회적 예우가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표 V-4-1 청소년공부방을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시킬 경우

기준	청소년공부방	작은도서관	문제점과 대책
시설	가형- 학습할 수 있는 공간 66제곱미터 이상 나형- 학습할 수 있는 공간 132제곱미터 이상+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이상	- 가형과 나형 모두 최소 공간기준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도서관 자료 1,000권이상만 확보하면 쉽게 전환시킬 수 있음
인력	가형- 관장 1인, 관리인 1인+자원봉사자 나형- 관장 1인, 지도교사 1인, 관리인 1인+ 자원봉사자	- 관장 등 전담 인력규정은 없음	- 전담 인력규정은 없으므로 쉽게 전환이 가능함
설치법령 과 지원	법령에 근거는 없지만 신고로 설치	- 도서관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하여 설치 - 시/군/구의 지원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	- 지원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기존 지원보다 낮아질 수 있음 - 일부 시/군/구는 조례로 지원하고 있음

5. 청소년자율학습센터 또는 지역청소년센터로의 재정립 방안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공부방의 상황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의 한 시설은 청소년공부방이라기 보다는 상당한 규모의 공공도서관에 가까웠다. 이용자도 청소년보다는 취직공부를 하는 성인들이 더 많았다.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을 일시에 모두 다른 시설로 전환시키는 것보다는 당분간 그대로 두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시·군·구

와 시·도가 자체 예산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서울특별시도 자체 예산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재정자립도가 높기에 계속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와 일부 광역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에 ‘청소년공부방’을 다른 시설로 전환시키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된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국고 지원이 중단되었기에 ‘청소년공부방’이란 사업 명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공부방은 이용 청소년이 주로 자발적인 학습공간(사설 독서실과 같이)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청소년자율학습센터’ 혹은 ‘지역청소년센터’로 사업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청소년센터가 이용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면서 청소년이 희망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사업의 규모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공부외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이 2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편의시설 개선(16.8%), 넓은 공간(16.2%), 개방시간 연장(13.0%) 등이었다. 같은 질문에 이용료 인하 또는 무료(2.8%),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3.1%), 청결한 환경(4.3%), 공부방 주변환경 개선(7.4%)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욕구가 약했다. 청소년의 의견에 비춰볼 때 청소년공부방의 정체성은 단순한 학습공간에 그쳐서는 안되고, 문화체험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좀 더 넓은 공간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공부방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1천만원 내외의 예산과 상근인력 1명 정도의 지원으로는 실현시킬 수 없고 좀더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의 사업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보다는 핵심사업으로 학습지원과 문화체험을 중시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발전시키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없어서 아카데미로 전환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하여 ‘농산어촌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한 모델인 지역청소년센터로 정체성을 재정립시킨 새로운 모델을 정책 사업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업을 개발 때에는 기존 청소년시설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군청이 없는 읍과 면단위에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이러한 지역 중에서 이용 청소년이 있는 지역부터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곳에 프로그램사업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시/군청 소재지가 아닌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당분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도시나 농촌의 군청 소재지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병설되는데, 청소년수련관 조차 없는 농산어촌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없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에 맞지 않다. 따라서 프로그램 사업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독립된 기관형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농산어촌에는 ‘지역청소년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부합할 것이다. 농산어촌에 지역청소년센터를 설치한다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지원형을 기본 모델로 하고, 청소년 가족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혼합형을 추가로 실시하면 될 것이다.

표 V-5-1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청소년센터로 만들 경우

기준	청소년공부방	지역청소년센터	문제점과 대책
시설	가형- 학습할 수 있는 공간 66제곱미터 이상 나형- 학습할 수 있는 공간 132제곱미터 이상+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형을 기준으로 함	-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곳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인력	가형- 관장 1인, 관리인 1인+자원봉사자 나형- 관장 1인, 지도교사 1인, 관리인 1인+ 자원봉사자	- 방과후아카데미PM과 SM을 채용	- 농어촌지역에는 청소년지도사가 많지 않으므로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도 채용함
설치법령 과 지원	법령에 근거는 없지만 신고로 설치	- 여성가족부의 지원사업	- 여성가족부의 지원지침을 조금 수정하면 가능함

6. 관련정책 추진방안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작은 도서관 등으로 전환시키거나, 청소년 공부방을 지속하거나 지역청소년센터(가칭)으로 재정립하려면 신속한 정책적 판단과 과감한 지원이 요망된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모든 시·도는 시·군·구의 협조를 받아서 기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작은 도서관 등 유사 시설로의 전환 혹은 유지 방안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환 혹은 유지시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정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는 2011년 10월 혹은 11월 중에 이루어져서 가급적 2011년 안에 시설 신고 등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둘째,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청소년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될 경우에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2012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확보된 국고가 부족하면, 2012년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

여성가족부는 시·도와 시·군·구와 협조하여 청소년공부방을 위해서 확보한 예산을 해당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와 시·군·구도 청소년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간의 예산 차액을 추경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시·군·구로 확대할 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설치하는 인접 지역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폐쇄 등으로 서비스의 중복을 줄여야 한다. 또한 아카데미의 운영자를 선정할 때 청소년육성에 공헌한 청소년단체(기관) 등을 우대하여 갈등을 줄여야 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단체(기관) 등 전문성을 갖춘 단체(기관)를 수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공부방을 유사한 기능을 가진 사업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되, 서울특별시처럼 자체 예산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할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학습지원과 함께 문화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청소년센터’ 혹은 ‘청소년자율학습센터’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사업을 정책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가급적 신속하게 강구하되 10~20년 동안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한 단체(기관)와 개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이해를 구하고, 전환시 직원의 신분보장과 같은 경과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2004년부터 (아동)공부방은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로 신고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았고,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유사한 사업이 제도화될 때도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지원은 수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다.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책 당국의 책임이 크다. 오랫동안 청소년정책을 연구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에도 참여한 연구자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국고지원의 중단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국고의 지원을 부활시키면 좋겠지만, 2012년에도 국고지원은 어렵고, 예산당국이 국고를 중단한 사업을 부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방안은 기존 청소년공부방을 제도적 뒷받침을 받는 사업으로 전환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전환시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조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와 시·군·구)가 청소년공부방 운영단체(기관 혹은 개인)와 마음을 열고 협의하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꿈이고, 청소년은 이 땅의 미래이면서 오늘의 주인이다. 청소년들은 학습에 도움을 받거나 공부할 공간이 없어서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했고, 청소년공부방이 공부와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변화되길 희망하고 있다. 청소년의 희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능한 정책과 사업으로 만드는 것은 책임 있는 어른의 몫이다.

표 V-6-1 청소년공부방의 전환 혹은 유지 방안

대안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작은도서관	청소년공부방	지역청소년센터
기본 개념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로 전환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로 전환	도서관법상 작은도서관으로 전환	서울특별시처럼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곳은 사업 유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의 지원형을 기본 모델로 하고 혼합형을 추가함
장점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가 있기에 전환이 용이하고 시설기준을 맞출 수 있음	여성가족부의 사업이므로 전환이 용이함	시설기준을 맞추기가 용이함	지방자치단체에 서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음	청소년수련시설 이 없는 곳에 센터를 설치하여 인프라를 확충함
단점	사회복지사 등 인력기준을 맞추기 어려움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곳은 전환이 어려움	청소년공부방보 다 지원이 더 축소될 수 있음	없음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됨
해결방안	시/군/구에 신고하면 바로 지원함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예기간을 둠	신규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개설한 시/군/구에는 청소년공부방을 폐쇄하도록 유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에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을 유도함	없음	모든 시/군/구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가 설치된 이후에 적극 확대

제 6 장



결 론

1. 주요결과
2. 정책제언

제 6 장 결 론

1. 주요결과

1) 현장조사의 주요결과

현장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공부방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도까지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공적 지원 예산규모는 1개 기관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 수준으로 상근직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데 2011년 국고지원 중단으로 이미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재정적 어려움은 운영인력의 양적 부족과 전문성 부족, 낙후되고 불결한 시설·환경, 안전 관련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상황 노출, 학습공간 제공이라는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 다양한 프로그램 부재 등의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다. 많은 기관들은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직원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둘째, 2011년 국고 지원 중단은 지역 공부방 존폐 논란을 불러왔고 실제 많은 공부방들이 운영 중단되었다. 2010년 전국적으로 국고지원을 받아 운영된 공부방은 총 368개소였는데 2010년 말 국고지원 중단 확정 이후 2011년 2월 여성가족부 조사 당시는 279개소로 이미 89개소가 폐쇄 또는 운영 중단된 상태였다. 본 현장조사가 시작된 6월에는 폐쇄된 기관이 10여개 더 늘어나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지역 수요가 높지 않고 열악한 여건에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해 오던 가장 어려운 공부방들이 먼저 운영 중단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많은 공부방들이 열악한 상황임을 생각할 때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부방들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현장 공부방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22년 역사를 가진 청소년시설의 향방에 대해 지역별로 진지한 진단을 통해 단계적 시설 해소 또는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내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 청소년과 주민의 필요와 요구가 큰 공부방의

경우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현장 실사 결과이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거주 지역 중 다른 아동·청소년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 작고 열악한 공부방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유일한 학습·문화·정보 공간이라는 것이다.

넷째, 면접 결과, 공부방 담당자들은 대부분 학습공간 제공과 학습지원 기능 중심인 현재 상태로 시설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다른 시설로의 전환을 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학습공간 제공이라는 공부방의 초기 기능이 여전히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기능이거나 둘째, 시설 전환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높은 시설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유도 있겠으며, 셋째는 다소 소극적이고 타성에 젖은 태도로 공부방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려는 관심이나 열의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현재 공부방은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있고 운영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물리적 여건의 문제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소프트웨어와 인적 자원의 한계, 적극적인 자체 노력의 부족 문제도 있어 보인다. 면접 결과 공부방에 대한 이해나 청소년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마인드가 없이 단순 관리만 하는 공부방도 많고 전문 자격증을 갖춘 지도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시설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우수공부방으로 추천된 시설의 경우 가장 어려운 예산 부분도 보완을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이는 등 여러 방면으로 공부방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곳도 있는 만큼 공공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자체 진단과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부방 사업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후원 확대를 위한 설득과 모금 작업도 운영 개선에 어느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대부분의 공부방이 열람실 중심으로 학습공간 제공이나 학습지원 기능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상담·정서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었다. 또한 시설 기능에 있어, 성인 이용률이 높은 공부방이 있는 지역의 경우 청소년 이용이 많지 않은 시간에는 지역 주민 등 성인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설로 기능하는 것에 실무위원들은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공부방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지역별로 논의과정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담당자들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그동안 발전을 저해한 요인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공지하는 ‘청소년사업 안내서’에 공부방 운영지침이 실린 것이 전부였으며 이 또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시설·인적 기준이나 운영위원회 설치 조항, 안전관리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법정 시설이 아니라는

점은 공부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국고 지원이 중단되어 공부방 운영이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지역 수준에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공부방 관련 조례 제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여덟째, 실사위원이 우수공부방으로 추천한 공부방들의 우수성 요소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관장의 의지,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 이해도, 헌신성과 사명감, 실무자 교육, 운영단체의 청소년 관련 전문성, 지역사회와의 관심과 지지, 지역자원 개발과 연계·활용, 이용자 욕구 파악과 적절한 대응, 지역 내 전문 자원봉사 인력 활용,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공적 영역과 연계, 후원 모금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자체 노력, 학습공간 제공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역 청소년과 주민의 높은 이용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장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현장조사 결과,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공부방의 존재 의의 및 가치와 필요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지원 중단으로 공부방 사업이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지역별로 사업 타당성 검토, 지역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자구책 마련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도 단위에서 지역 공부방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자, 이용청소년과 주민,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부방의 입지와 시설·환경, 운영현황, 이용률, 주변의 다른 아동·청소년 시설 인프라 현황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각 공부방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나 청소년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공부방의 실태 진단과 향후 비전 모색을 위한 논의를 시도하고 컨설팅을 받는 것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별로 정기적인 공부방 점검(평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공부방의 존재 가치와 활성화 정도, 운영자 의지 등에 따라 존재 여부를 분류하고 선별적·단계적 정리를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기본적인 청소년 전문인력 배치나 최소한의 쾌적한 시설 공간 마련이 안된 공부방도 별다른 관리없이 유지되다 보니 이용률도 떨어지고 청소년시설로서 유의미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부실한 시설을 선별해 내고 기본적인 질적 수준을 담보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시설은 단계적으로 운영중단을 유도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기능 유지 또는 시설 전환 등 공부방의 기능 또한 지역 특성과 요구에 따라 재정립 모색이 가능하다. 학습공간 제공 기능, 학습 지원과 지도 기능,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상담·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도서·정보 제공 기능 등 공부방 기능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해 지역단위

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학습 공간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열람실을 제공해 주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도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넷째, 공부방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는 턱없이 적은 편이며 운영 관련 법적 근거나 지침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공부방을 법정 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청소년분야 시설자원으로 존속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본적인 질적 관리를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하는 방안, 지역단위에서는 공부방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설 전환 시 대상으로 논의되는 것들로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문화의집, 작은 도서관 등이 있다. 이들은 법정 시설이거나 예산 지원규모가 안정적이라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부방은 해당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설 전환이 쉬운 것은 아니다. 현장조사 결과,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볼 때, 청소년수련시설 기능에 대한 선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설립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요가 높고 이용대상에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이 많이 분포된 경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분원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작은 청소년문화의 집’ 개념으로 시설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기존 공부방이 전환 운영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대한 아이디어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여섯째, 현재 공부방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확대가 관건이다. 현장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국고지원 부활을 건의했다시피 현재 공부방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치단체 예산 배분방식에서 시·도와 시·군·구 매칭 시 시·군·구 부담률이 늘어나는 추세도 지역단위에서 공부방 예산 마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공부방이 청소년 시설의 하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방과후아카데미나 수련시설 지도자 수준으로 맞춰져야 할 것이다. 우선은 국고 지원 부활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실적인 차선책으로 프로그램 수요가 많은 곳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분원 지정 및 예산 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에서 취약계층 대상 학습공간 제공이라는 나름의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존재의의가 확인되었으나 이 또한 지역별 편차가 있으므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파악하여 단계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명실상부한 청소년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와

쾌적한 시설·공간 마련을 위해 엄격하게 질적 관리를 하여 청소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부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차선책으로 초등 및 중등학생의 프로그램 수요가 많은 지역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분원으로 지정·운영하여 해당 사업 수준의 지원을 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 사례조사의 주요결과

사례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의 실무자들은 청소년공부방이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하며, 그동안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공간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은 지속적으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공부방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학교이외에 다른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공부방은 단순히 학습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소중한 공간으로서의 맡은바 소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을 폐쇄시켜서는 안 되며,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와 저항의지를 나타내었다.

둘째,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의 실무자들은 국고지원 중단이 지자체의 지원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공부방의 폐쇄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고지원 중단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차상위 계층이나 차차상위 계층의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인데, 최저수준의 예산지원 마저도 중단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국고지원 중단이나 예산삭감 계획은 철회되어야만 하며, 청소년공부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국가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셋째,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은 국고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현재까지는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로 국고지원 예산을 보충하였기 때문에 큰 변화는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예산삭감 및 예산지원 중단으로 시설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고지원 부활 이외에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한 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립시설의 경우에도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시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을 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예산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고지원 중단은

지자체의 자체예산 중단을 위한 좋은 구실을 주기 때문에 의미있는 공부방들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부활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시설종사자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에게서도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시설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중·고등 학생, 차상위 학생, 차차상위 학생 등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은 청소년공부방의 정체성이나 교육철학과 맞지 않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며, 오히려 불편이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은 하지 않겠다는 시설들이 대부분이었다.

다섯째, 송죽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학습지원센터로의 전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공부방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기능의 강화가 필요한데, 현재의 지원예산으로는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습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습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청소년공부방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바우처제도와 연계 등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시청의 담당공무원은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등 유사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학습지원센터의 기능은 이러한 시설들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농어촌 지역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경우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지역사회의 유일한 청소년공간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서의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내에는 학습을 위한 학원이나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 청소년공부방이 청소년들이 모이는 소통의 장이자 학습의 공간, 놀이의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이용가능한 청소년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아동청소년의 수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의 지원기준을 시설규모나 이용청소년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지원기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시지역과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례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고중단 이후의 대책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공청회나 간담회가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공부방에서는 국고중단이

예산삭감과 공부방 폐쇄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고지원 중단이 철회되어야만 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지원이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담당공무원들도 국고지원 중단은 지자체의 예산중단을 위한 좋은 구실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부활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청소년공부방 시설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국고중단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혼란과 혼선이 가중될 경우 “사각지대의 청소년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회피”라는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공부방 시설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국고중단 이후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공부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고중단 이후 현재까지는 지방비로 국고지원 예산을 충당하고 있지만, 매칭펀드에 의한 예산지원 방식에서 국고중단은 지자체의 예산감축이나 지원중단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12년 이후에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유지될지에 대해서 확실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공부방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운영이 부실해서 시간을 두고 폐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면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자체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한다면, 지자체 차원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현행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청소년공부방이 유일한 청소년 공간으로서 그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산어촌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지역내에서 유일한 여가, 문화, 복지시설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청소년의 수가 적고 효과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지역여건과 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지원을 결정할 때 판단기준을 단순하게 청소년이용자수로 하기 보다는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기준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경우 자원봉사자나 전문강사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일정지역을 권역으로 묶어서 거점기관이 강사파견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주이용자가 청소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용대상을 청소년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사회 주민 전체로 개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지역내 학교교사나 대학생, 일반인등 자원봉사자들과 청소년공부방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고지원 중단과 예산감소로 인해 청소년공부방에서 운영되던 청소년프로그램들이 중단되거나 프로그램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프로그램 진행요원들이 자원봉사자로 활용된다면 예산감소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학교 교사들이 학습지도와 같은 자원봉사자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신청자들이 청소년공부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공부방의 자체적인 내부각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청소년공부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방만하게 시설을 운영하는 공부방도 있으며, 청소년공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시설도 있으며, 청소년공부방으로서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시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국고중단이 이루어졌을 때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공부방 연합회를 아직까지 구축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청소년공부방 운영방식에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세금낭비'라는 부정적인 인식에 정면으로 직면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설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종사자 설문조사의 주요결과

청소년공부방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부방은 지역사회 안에서 꾸준히 설립·운영되어 오면서 정착되어 왔다. 1989년 정부지원 공부방이 '청소년야간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최근 2010년까지 공부방이 지속적으로 설립된 바 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운영기간이 '5년 이상'인 곳이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공부방에 대한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운영자(91.7%)는 물론이고 지역청소년(79.4%)과 지역주민(76.8%) 또한 공부방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공부방 종사자들은 안정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기간 중 '5년 이상'이 76%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종사자의 재직기간 중 '3년 미만'이 전체의 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근직보다 비상근직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부방 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균 근무인력은 상근직과 비상근직을 포함하여 2.63명에 불과하며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가운데 자원봉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공부방 종사자들의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협력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력 시 겪는 어려움도 ‘협력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아 지역 내 단체들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공부방은 단독건물의 비율이 낮으며 매우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정도가 66㎡~132㎡ 미만으로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용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소년 활동·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사자들은 시설환경의 다른 측면보다 공간크기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공간크기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현재 공부방의 주요 기능은 ‘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 중에서도 ‘학습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의 공부방 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42.9%로 그리 높지 않아 청소년들의 요구가 많은 학습지원 외의 다른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공부방의 재정상태는 매우 열악하다. 2010년도 예·결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수입에서 국고와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국고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다.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이유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고지원 중단 이후 이용자 감소와 직원퇴직 등 운영에 직결되는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덟째, 2011년 국고지원 중단과 지방사업으로의 전환 이후 시설 전환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경우는 9.2% 정도였으며 71.1%가 현행 유지를 원하고 있었다(서울 제외 시). 시설 전환을 할 경우 시설별 선호도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0.7%, 청소년문화의집 25.2%, 지역아동센터 24.9%로 나타나 방과후아카데미로의 전환을 조금 더 선호하였으며, 시설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전문적인 인력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공부방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요청된다. 공부방은 종사자들의 능력만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공부방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며, 공부방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부방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 필요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바 있다.

둘째, 공부방의 주요기능들이 균형을 이루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공부방의 주요 기능은 ‘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으로 나타났다. 기능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개선을 위한 운영자들의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공부방의 주요기능 가운데 ‘상담 및 정서지원’과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공부방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부방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부방은 방과후이카데미로의 시설 전환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시설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전문적인 인력 확보를 원하고 있다. 공부방 이용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적 인력의 충원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별 자격증과 학력을 살펴본 결과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비율이 적다고 여겨진다. 종사자들이 비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 생겨나는 문제점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나서는 것 뿐만 아니라 공부방 종사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넷째, 안정적인 시설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공부방은 현재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더욱이 예산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시설전환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 전환을 하는 데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전환 의사를 갖고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고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부방 종사자들의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협력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시설·사업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강화가 요청된다.

4) 이용청소년 설문조사의 주요결과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부방 이용실태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이용기간은 평균 26.82개월(약 26개월 25일), 1회 이용시 평균 199.61분(약 3시간 20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공부방을 주로 주중(오후, 저녁)에 이용하며, 비규칙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시험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별로 공부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동하는데 평균 11.1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부모님을 통해 공부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공부방 이용동기에는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고 있다.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공부방 이용동기를 살펴보면, 학습과 관련한 동기를 많이 갖고 있으며 (학습 도움 33.2%, 공부할 공간 19.9%, 정보·자료 6.6% 등) 그 밖에 여가시간 활용이나 친구와의 만남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공부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부방 이용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의 이용 만족도는 ‘매우 만족’(27.8%)과 ‘만족’(46.7%)을 합하면 74.5%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업분야별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매우 만족함’과 ‘만족하는 편임’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 82.0%, 자료열람대출 및 정보제공 58.0%, 학습지도 54.5%, 여가문화체험활동 45.0%,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사업 40.9%, 상담 및 정서지원 39.3%로 나타나 학습공간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그 외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거나 미흡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도서관만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방과후 학교가 절반 정도의 수준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와 ‘모르고 있었다’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여섯째, 공부방의 필요성은 90.6%의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필요한 편 32.7%, 꼭 필요 57.9%). 교급과 학업성적에 따라 공부방의 필요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경험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 부족,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불편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친구와 부모님을 통해 공부방을 알고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이용청소년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는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용시간이 주로

주중(오후, 저녁)에 평균 3시간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이용시간의 부족은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용비율이 적은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공부방 이용청소년들의 욕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개선과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용청소년의 욕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습지도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이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청소년들은 공부방 이용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부방 이용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자신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공부방을 통해 학습 공간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방과후 가정 내에서의 약화된 보호기능이 충족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용 만족도를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요인이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게 만드는지 등 보다 세부적이고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공부방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용청소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공부방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 현재 공부방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악한 재정은 사업의 수행 및 공부방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본래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공부방이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정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용청소년들이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확대시킨다. 지역 내 청소년 관련시설·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시설들이 청소년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가깝게 다가서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공부방은 지역 중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관련 기관과의 연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부방이 지역 내의 관련 기관과의 활발한 연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의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현재 운영 중인 공부방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조정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이용하면서 겪는 가장 큰 불편사항은 학습지도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지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인적인 교육을 지향하면서도 학습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공부방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공부방 이용청소년들은 학습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응답에서 공부방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볼 수 있는데, 공부방이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일곱째, 공부방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공부방 이용청소년들이 청소년공부방 환경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어 환경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시설과 장비 등에서 노후하고 설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용청소년들에게 만족스런 인테리어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회비나 후원금으로 충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용청소년의 이용률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정책제언

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전국적으로 청소년공부방 실태조사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장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모아, 도심지역의 특성에 고려한 모형 하나와 소외지역의 특성을 반영된 두 개의 모형을 통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3가지 운영모형을 제시했다.

(1) 모형 1 (사업명: 지역청소년독서실)

모형 1의 모형개발 방향은 인구집중(도심)지역내 공공시설 활용을 전제로 지자체가 직접운영 또는 전문청소년단체가 운영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계층 통합 독서실로 활용한다. 단, 초·중·고등학교의 시험시간에 있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사업운영은 기초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의 주체가 되고, 지자체 직영 또는 전문단체를 통한 위탁 운영한다.

(2) 모형 2 (사업명: 우리 마을 청소년 꿈터)

모형 2의 모형개발방향은 소외지역(농산어촌)의 공공시설(지자체소유 또는 장기 건물활용 지자체기부채납)의 활용과 운영상 지역사회(마을회)가 책임성있는 지분을 갖게 한다. 사업운영은 기초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의 주체가 되고, 마을회 직영 또는 전문단체를 통해 위탁 운영한다.

(3) 모형 3 (사업명: 우리 동네 청소년 희망터)

모형 3의 모형개발방향은 소외지역(농산어촌)의 민간시설 활용과 지역독지적 차원의 민간(종교단체 포함) 운영을 중심으로 한다. 본 시설모형은 민간영역에서 자율 및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기본운영방향으로 설정한다. 사업운영은 민간(개인, 단체)이 지역의 공익성 및 봉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지자체는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등재하여 지역의 청소년 활동시설로 관리한다.

2)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 방안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상당수가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에 긍정적이었다. 본 연구진이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운영자들이 시설전환을 희망하는 이유는 '공부방에 대한 국고 지원이 끊겨서'가 전체의 30.5%(중복응답으로 계산할 때 운영자의 40.0%)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공부방보다 더 필요한 시설이라서가 26.9%(중복응답 35.3%)이고, 여기에 법정시설로 바꾸고 싶어서가 11.7%(중복응답 15.3%)로 두 유형의 응답을 합친 적극적인 변화를 희망하는 사람은 38.6%이다. 이러한 반응은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국고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이왕이면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이고, 현재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기에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켜도 기존 이용자의 대부분을 흡수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이 청소년공부방에 비교하여 양호하기에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도 적다.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키고자 할 때 학습할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가형(66제곱미터, 20평 이상)은 공간이 좁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25평 이상을 권장하고, 최소 공간이 18평 이상이기에 최소 조건을 갖춘 곳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킬 수 있다. 만약 현재 공간이 아동과 청소년이 활동하기에 현실적으로 좁은 곳은 증축·개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킬 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청소년공부방에서 전환된 지역아동센터를 정부가 ‘신규 등록’으로 간주하고 1~2년간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공부방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되기 전부터 있어온 사업이고, (아동)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될 때 기득권을 인정하고 전환시 경과조치를 주었다는 점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경우에도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동등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동일한 시·군·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오랫동안 운영한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변경한 것을 ‘신규 신고’로 간주한 것은 청소년공부방의 역사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청소년공부방도 정부가 꾸준히 지원한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전환된 지역아동센터를 즉시 지원하는 것이 행정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으로 당해연도 예산을 모두 확보하기 어렵고, 보건복지부도 국고를 확보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공부방으로 확보된 예산을 전환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나머지 소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동시에 보건복지부도 여성가족부와 협조하여 청소년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된 시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본 예산 혹은 추경에서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진이 시·도 관계자와 면담한 바에 따르면, 당해 시·도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여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키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전환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고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규 시설이 아닌 기존 시설로 인정하여 지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때 필수공간으로 학습공간과 조리실과 식당을 요구한다. 기존 청소년공부방은 학습공간은 있지만 조리실과 식당이 없거나 공간의 특성상 조리실과 식당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에 부설된 공부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조리실과 식당 등 주방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보다 유연성 있게 적용하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에 만든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주요 질의 및 답변 모음집’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등에 부설된 지역아동센터는 복지관 내의 식당 등을 공유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기존 청소년공부방에서 주방설비를 전혀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 공간을 활용하여 갖출 경우에도 유연성을 갖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공부방의 직원(관장, 지도교사, 관리인 등)은 법정 자격이 없지만, 지역아동센터(시설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등)는 사회복지사 등 법정 자격증을

갖춘 사람만 임용될 수 있다.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에는 사회복지사 등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설장으로 임용하도록 한다. 다만, (아동)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때 경과조치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전례가 있다(아래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설장과 직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되, 청소년공부방을 헌신적으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실무자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2년 안에 법정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것도 한 대안이다.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키면 중앙 행정부처의 관할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지만, 시·군·구청에서는 대체로 같은 팀에서 청소년업무와 아동업무를 맡거나 한 담당자가 아동과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기에 행정상 문제될 것이 없다. 전환 첫해에는 기존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공부방 예산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예산의 차액을 추경 등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면 될 것이다. 2011년에 전환시킬 경우에 2012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는 초등학생이 주류이고 중학생이 일부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1318 해피존과 같이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를 표방하여 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이용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킬 경우에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하면 공부방을 이용했던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자의 학습지원과 함께 정보지원, 문화지원, 안전·급식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점에서 학습지원과 안전·급식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특성화될 수도 있다. 일단은 여건이 되고 희망을 하는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키고, 센터의 운영은 이용 아동과 청소년의 욕구에 맞추어서 특화 발전시키면 될 것이다.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의 전환 방안

청소년공부방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나형 청소년공부방 중에서 공간이 넓은 경우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공부방에 비교하여 10배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당 시·군에서 1개소 가량 선별하여 전환시킬 수 있다. 특히 해당 시·군·구에 아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없는 지역이면서, 시·군·구청 소재지 혹은 인구 밀집지역(읍소재지)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중에서 공간이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전환시키면 될 것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학습뿐만 아니라, 상담, 문화지도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기에 기존 청소년공부방의 공간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직접 전환시키기 보다는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했던 청소년단체(혹은 기관)나 법인에게 기존 청소년공부방을 폐쇄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개설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기존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공간을 이용하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열고 역량이 있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을 찾아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할 때 공부방을 운영한 역사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조정한다. 나형 청소년공부방은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한 경험이 있기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도전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도시에 비교할 때 중소도시인 시와 농어촌인 군단위(혹은 읍단위)의 청소년복지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대도시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있다. 하지만 시와 군단위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일부 청소년시설만 있고, 일부 군단위와 면단위에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다. 농산어촌에는 도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전혀 없었는데, 겨우 한 두 개 있던 청소년공부방조차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사는 청소년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정책이다. 이들에게 좀 더 나은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청소년공부방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공부방의 예산을 축소할 대신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예산을 늘려야 한다. 청소년공부방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국고를 배정받지 못한 데는 여성가족부의 책임도 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2000년 161개소(121억원, 6,762명)에서 2011년 200개소(154억원, 8,400명), 2013년 232개소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2011년 현재 171개소 청소년시설에서 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어서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일반형(부모와 청소년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선발)과 지원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을 추천/초청/선발) 그리고 혼합형(일반형과 지원형 겸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을 폐쇄한 지역에는 지원형과 혼합형이 더 절실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시/군/구당 1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2013년에 전국의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가 완료되면 시/군/구청 소재지가 아니지만 청소년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욕구가 강한 지역부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하도록 한다.

긴축 예산을 외치는 정부에서 새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이용자 대비 소요예산이 많다는 일부 비판적 의견을 경청하여 확보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우선 집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이용자 대비 예산 효율성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소수 이용자에게 예산을 집중시키는 것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등과 사업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이용자 대비 소요예산이 적지 않다. 청소년공부방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전환시킬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기존 인프라를 고려하여 인프라가 적은 지역에 우선 배정되어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할 수 있다.

4) 작은 도서관으로의 전환 방안

청소년공부방을 주변에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어서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도 적극 도모할 수 있다. 청소년공부방 중에는 도서를 많이 확보하고 도서 대여를 중요한 사업으로 수행한 곳이 있다. 특히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의 일부 공간에 열람실만을 확보한 작은 청소년공부방은 주방설비 등 지역아동센터에 필수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청소년공부방을 도서관법상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작은 도서관의 최소 기준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시설면적 33제곱미터(10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으로 청소년공부방의 최소 면적 66제곱미터(20평) 이상보다 기준이 낮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공부방에 비교하여 더 낮을 수 있기에 기존 운영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작은 도서관 등으로의 전환은 해당 공부방의 시설과 설비, 운영자와 직원, 운영단체(기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한 단체와 담당 실무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그들이 청소년공부방을 전환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미 있는 사업을 전환시키거나 지원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명을 갖고 헌신을 한 단체와 실무자에게 포상과 같은 사회적 예우가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청소년공부방의 특성화를 통한 재정립 방안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공부방의 상황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의 한 시설은 청소년공부방이라기 보다는 상당한 규모의 공공도서관에 가까웠다. 이용자도 청소년보다는 취직공부를 하는 성인들이 더 많았다.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을 일시에 모두 다른 시설로 전환시키는 것보다는 당분간 그대로 두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시·군·구와 시·도가 자체 예산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서울특별시는 자체 예산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재정자립도가 높기에 계속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와 일부 광역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에 ‘청소년공부방’을 다른 시설로 전환시키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된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국고 지원이 중단되었기에 ‘청소년공부방’이란 사업 명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공부방은 이용 청소년이 주로 자발적인 학습공간(시설 독서실과 같이)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청소년자율학습센터’ 혹은 ‘지역청소년센터’로 사업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청소년센터가 이용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면서 청소년이 희망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사업의 규모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공부와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이 2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편의시설 개선(16.8%), 넓은 공간(16.2%), 개방시간 연장(13.0%) 등이었다. 같은 질문에 이용료 인하 또는 무료(2.8%),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3.1%), 청결한 환경(4.3%), 공부방 주변환경 개선(7.4%)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욕구가 약했다. 청소년의 의견에 비춰볼 때 청소년공부방의 정체성은 단순한 학습공간에 그쳐서는 안되고, 문화체험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좀 더 넓은 공간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공부방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1천만원 내외의 예산과 상근인력 1명 정도의 지원으로는 실현시킬 수 없고 좀더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의 사업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보다는 핵심사업으로 학습지원과 문화체험을 중시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발전시키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없어서 아카데미로 전환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하여 ‘농산어촌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한 모델인 지역청소년센터로 정체성을 재정립시킨 새로운 모델을 정책 사업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때에는 기존 청소년시설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군청이 없는 읍과 면단위에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이러한 지역 중에서 이용 청소년이 있는 지역부터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곳에 프로그램사업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시/군청 소재지가 아닌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당분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도시나 농촌의 군청 소재지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병설되는데, 청소년수련관 조차 없는 농산어촌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없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에 맞지 않다. 따라서 프로그램 사업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독립된 기관형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농산어촌에는 ‘지역청소년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부합할 것이다. 농산어촌에 지역청소년센터를 설치한다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지원형을 기본 모델로 하고, 청소년 가족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혼합형을 추가로 실시하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년 6월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이렇게 합니다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매뉴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2007). **부처간 협력을 통한 방과후 활동 효과 제고방안**. 국가인적자원회의안번호 제4호, 12월 31일. 서울: 대한민국정부.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7). **지역 교육안전망 구축방향 모색을 위한 시·도 교육청 관계자 워크숍**. 서울: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a). **2006 청소년공부방 관계자 워크숍 자료집**.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b). **2006년도 청소년공부방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c). **2007년 청소년공부방 운영안내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권두승(2005). 미국의 21C 지역사회학습센터(21stCCLC)의 성립배경 및 운영성과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제11권 제4호, pp. 111-138.
- 김남숙(2004). **저소득층 아동의 공부방에 대한 연구**. 대전대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김성천·정익중·이혜원·오승환·이주연·신어진(2009). **아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Ⅱ :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양심영·배화옥·조애저·김효진(2008). **아동청소년 복지수요 추계 연구Ⅰ**.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이향란·황진구·이주연·신어진·최진희(2009). 방과후 통합운영모델 및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 아동복지교사중양지원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석(2008). 방과후학교 운영 체계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안전망 체제 구축 방안 모색 전문가 포럼, pp. 29-47.
- 김영지·방은령·박정선(2006).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인희·류방란·우명숙·김숙이(2008). 교육안전망 추진체제 구축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김성식·박인심·김도희(200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효과 - 중단효과 분석 1차년도 연구에 기초하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박인심·김주아·이봉주(200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만족도와 성과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경기도교육청.
- 김정원·이은미·서덕희·김경애·박인심·이경아·양병찬·김병욱·이석주(2008). 교육복지사업 발전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인천광역시교육청.
- 김정원·최영태·김경애·김민·양병찬(200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경기도교육청.
- 김지영(2007). 빈민지역 공부방의 내부소통과 지역사회네트워크 - 광주지역공부방연합회 소속 5 공부방 사례.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혁(2003). 빈곤계층 밀집지역 청소년공부방의 실태와 역할 재조명. 청소년복지연구, 제5권 제2호, pp. 17-32.
- 류방란(201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발전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201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안 포럼, pp. 23-85.
- 문성호·임영식(2009).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현선 외(201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서비스 만족도 조사. 서울: 보건복지부·세종대 학산학협력단
- 변숙영·이수경·이종범(2009).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변종임 · 조순옥 · 최종철 · 박현정 · 김인숙(2009). 2009년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보건복지부(2010). 2011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0). 2011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1). 아동분야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정보센터(2010). 2010년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서영숙 · 이향란 · 신지현(2006). 방과후 활동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 서울: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 서정아 · 조홍식(2010a). 아동 · 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정아 · 조홍식(2010b). 지역사회중심 아동 · 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소종영(2004). 공부방의 운영실태 및 지역아동센터로의 변화에 관한 인식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계민 외 4인(2006).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양계민 · 김승경 · 조영희(2010).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양계민 · 김지경 · 김승경(2011).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서울: (사)부스리기사랑나눔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 조혜영(2009). 200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여성가족부(2010a). 2010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0b). 2010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0c).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사업안내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진흥센터(2010).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

- 매뉴얼.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오승환·정익중·임정기·박현선(2009).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서울: 공동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7). 유네스코 학생활동 30년: 1965-1995.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유영희(2002). 빈곤지역 공부방 활성화 방안 - 성남 구시가지 민간공부방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철경 외 6인(2004). 위기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및 지역사회 기반사업. OECD 2차회의 제출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
- 윤철경(2005). 한국의 위기청소년지원정책 진단 및 정책과제, 2005 국제 심포지움.
- 이남재(2001). 청소년독서실 기능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성북구립 청소년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주 외 14인(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이성·정지웅(2002). 지역사회조직론: 지역사회리더십과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 이연(2006). 지역사회 청소년보호체계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 외 7인(2009).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이용교·이혜연(2001).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제2호, pp. 41-56.
- 이용교·이혜연·박영균(2000). 청소년공부방 운영모델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태(2008). 교육복지와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의 연계 강화 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춘화·윤옥경·진혜전·황의갑(2010).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태수 외 6인(2008). 아동·청소년복지 네트워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이태수·김민·이혜숙(2010). 방과후서비스 역할분담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아동복지교사중앙지원센터.
- 이태수·최돈민·이경림(20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방안. 충남: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충청남도교육청.
- 이한민(2006). 정부지원 청소년공부방의 활성화 방안 연구 - 광주광역시 복구를 중심으로

- 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숙(2005). 공부방 운영 실태와 지역사회연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공부방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연 외 4인(2010).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단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혜연·이용교·이향란(2009).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을진·강창현(2009).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서비스 체계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3권 제2호, pp. 483-508.
- 장혜경 외 5인(2009). 아동케어 실태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정익중 외 3인(2008). 지역아동센터 운영모델 개발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조혜영·김호순(200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 개발 연구 - 학교 내 설치를 중심으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지승희·양미진·이자영·김태성(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최재원(1991). 지역사회개발론. 서울: 백산출판사.
- 하준태·이채식(2010). 지역사회 청소년유관기관의 조직간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7권 제4호, pp. 87-105.
- 한국개발연구원(2009).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백서 2003~200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08). 방과후 활동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교육안전망 구축 방안 모색 워크숍.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취약 아동·청소년 토탈케어 지원방안: 대통령 서면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2008). 방과후사업 성과 분석.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현영섭(2008). 지역 혁신을 위한 RHRD 추진체제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황의경(2003). 도시빈민지역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 아시아태평양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放課後子どもプラン連携推進室(2011). 放課後子どもプラン実施状況調査について.
- 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放課後子どもプラン連携推進室(2011). あなたのまちの放課後対策を応援しますー放課後子どもプラン案内資料.
- 内閣府(2011). 平成23年版 子ども・子育て白書.
- 河津英彦(2008). 多様化する児童館活動に関する調査研究 指定管理者制度の適正な運用について.
- 厚生労働省(2011). 放課後児童健全育成事業(放課後児童クラブ)の実施状況について.
- Afterschool Alliance(2011). Evaluation backgrounder: A summary of formal evaluations of afterschool programs' impact on academics, behavior, safety and family life, Afterschool Alliance.
- Carpenter, H. Peters, M., Oseman, D., Papps, I., Dyson, A., Janes, L., Cummings, C., Laing, K., & Todd, L.(2010). Extended services & evaluation: End of year one report, Department for Education.
- Cummings, C., Dyson, A., Jones, L., Laing, K., & Todd, L.(2010). Extended services evaluation: The role of local authorities, Department for Education.
- Gayl, C. L.(2004). After-school programs: Expanding access and ensuring quality. Policy Report, 2004(July), pp. 1-8.
- Helpern, R.(2003). Making play work: The promise of after-school programs for low-income children. N.Y.: Teachers College Press.
- Hartnuß, B. & Maykus, S.(Hg.)(2004). Handbuch Kooperation von Jugendhilfe und Schule. Berlin: Eingerverlag des Deutschen Vereins für öffentliche und Fürsorge.
- Henschel, A., Krüger, R., Schmitt, C. & Stange, W.(Hg.)(20092). Jugendhilfe und Schule. Handbuch für eine gelingende Kooperation,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Sachverständigenkommission Zwölfter Kinder- und Jugendbericht(Hrsg.)(2005).

Kooperationen zwischen Jugendhilfe und Schule, Band 4, München: Verlag
Deutsches Jugendinstitut.

<http://de.wikipedia.org/wiki/Ganztagsschule>
<http://www.1318happyzone.org>
<http://www.afterschoolalliance.org/afterschoolsnack>
<http://www.continyou.org.uk>
<http://www.education.gov.uk>
<http://www.familynet.or.kr>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
<http://www.ganztagsschule.rlp.de>
<http://www.houkago-plan.go.jp>
<http://www.labest.org/what/activities>
<http://www.ofsted.gov.uk/ofsted-home/News>
<http://www2.ed.gov/programs/21stcclc.index.html>



부 록

1. 종사자용 설문지
2. 청소년용 설문지
3. 주요 특성별 청소년 공부방 현황
(시·도별, 소재지별, 시설유형별)

※ 아래 종합표의 빈 칸에 시설현황에 대해 기록해 주세요.

청소년공부방 시설현황표						
기관 개요	기관명					
	시설유형 (한 가지 선택)	<input type="checkbox"/> 가형 <input type="checkbox"/> 나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형 : 66㎡이상(30석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나형 : 132㎡이상(50석이상) +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설립기관/설립자 (예: 경기도, 군포시)					
	운영기관	<input type="checkbox"/> 직영 <input type="checkbox"/> 위탁	운영 기관명			
	개관일	최초개관일 : 년 월 일 이전개관일 : 년 월 일(이전한 경우) 최초위탁일 : 년 월 일(위탁받은 경우)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시설 · 설비	부지면적	㎡(평)		건물면적	㎡(평)	
	공부방전용면적	㎡(평)	열람석 수	석	수용정원 명	
	주요시설 (해당사항 모두 선택)	<input type="checkbox"/> 열람실 <input type="checkbox"/> 사무실 <input type="checkbox"/> 상담실 <input type="checkbox"/> 도서·정보실 <input type="checkbox"/> 학습지도실 <input type="checkbox"/> 다목적프로그램실 <input type="checkbox"/> 식당 <input type="checkbox"/> 조리실				
	1일 운영(개장)시간	()시 ~ ()시 / 총() 시간				
인력	총 인원 (상근직만 기재)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자격증 이름기재)		공부방 운영위원회		
	명	명 ()		<input type="checkbox"/> 운영중 ()명 <input type="checkbox"/> 운영하고 있지 않음		
	분야별 인력	관장(대표)	지도교사	관리인(행정원)	자원봉사자	
	명	명	명	명		
예산	2010년도	총예산	국고	지방비		기타
		원	원	시·도비	시·군·구비	(후원금 등) 원
	2011년도	총예산	지방비			기타
		원	원	시·도비	시·군·구비	(후원금 등) 원

※ 각 문항별로 빈 칸에 응답내용을 기록하고, 해당 보기에 표해 주십시오.

문1. 수용정원 () 명

문2. 하루 평균 전체 이용자 수 ()명

문3. 2011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세부유형별 이용자 현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합계
명	명	명	명	명
%	%	%	%	%

☞ 전체이용자를 100%로 기준하여 대략적인 구성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4. 최초개관일 ()년 ()월

문5. 공부방 실제 점유 면적 ()m² <※ 1평은 3.3m²>

문6. 열람석 수 ()석

문7. 다음 중 열람석 외에 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모두 고르시오.

- ① 사무실 ② 상담실 ③ 도서·정보실 ④ 학습지도실
⑤ 다목적프로그램실 ⑥ 식당 ⑦ 조리실

문7-1. 현재 조리실이 없는 경우, 향후 조리실로 개조가능한 수도설비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8. 귀 공부방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APT) ③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⑤ 기타()

문9. 공부방은 어느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① 청소년(수련)시설 ② 지역주민센터 등 공공건물
③ 아파트 단지 건물(관리소등) ④ 복지시설
⑤ 공부방 단독건물 ⑥ 기타

문10. 귀 공부방은 일반적으로 이용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11. 귀 공부방의 운영주체는?

- ① 개인 ② 사회복지법인 ③ 종교시설·종교단체
④ 민간단체 ⑤기타 ()

문12. 귀 공부방의 소재지는?

- ①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② 중소도시(도청소재지·일반시)
③ 읍면 소재지 ④ 기타 ()

문13. 귀 공부방의 이용료는 얼마입니까?

- 1) 청 소 년 : 일 ()원 / 월 정액제의 경우 월 ()원
 2) 일 반 인 : 일 ()원 / 월 정액제의 경우 월 ()원
 3) 감면혜택 : 일 ()원 / 월 정액제의 경우 월 ()원

☞ 이용료가 무료이면 '0' 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3)번은 저소득층, 조손가정 등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의 이용료를 적어주십시오.

문14. 귀 공부방의 운영시간은?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1) 여는 시간	시	시	시
2) 닫는 시간	시	시	시

문15. 귀 공부방이 쉬는 날은? ()째주 ()요일. 기타 : ()

문16. 귀 시설의 2010년도 예·결산내역을 적어주십시오.

수입	총액	국고	지방비	기타(후원금 등)
	원	원	원	원
지출	총액	인건비	운영비	기타
	원	원	원	원

문17. 귀 시설의 운영인력은 몇 명입니까?

1) 상근직: ()명 2) 비상근직 ()명

☞ 상근직이란 귀 시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1년 이상 근무하는 인력을 의미하고, 임시 계약직을 포함한 나머지 근무 인력은 비상근으로 구분하여 기재

문18. 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모두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관장(대표) ② 지도교사
③ 관리인(행정인) ④ 기타()

문19. 각 직원별(상근직원) 자격증과 학력 사항을 표시해 주십시오.

(이외의 상근직원일 경우는 빈칸에 추가하여 응답)

	자격 (보기1의 해당번호)	학력 (보기2의 해당번호)	상근여부
관장			<input type="checkbox"/> ①상근 <input type="checkbox"/> ②비상근
지도교사			<input type="checkbox"/> ①상근 <input type="checkbox"/> ②비상근
관리인			<input type="checkbox"/> ①상근 <input type="checkbox"/> ②비상근
			<input type="checkbox"/> ①상근 <input type="checkbox"/> ②비상근
			<input type="checkbox"/> ①상근 <input type="checkbox"/> ②비상근
보기	① 교사 ② 청소년지도사 ③ 청소년상담사 ④ 사회복지사 ⑤ 평생교육사 ⑥ 보육교사 ⑦ 아동복지지도원 ⑧ 기타 () ⑨ 없음	① 고졸 ② 대졸 ③ 대학원졸	

문20. 월 1회 이상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는 몇 명입니까? ()명

문21. 현재 운영하는 공부방의 가장 주된 기능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 ② 청소년 학습지도
 ③ 여가문화 체험 활동 지원 ④ 상담 및 정서지원
 ⑤ 자료 열람 및 대출, 정보제공 ⑥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문22. 공부방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습지원(숙제, 문제집 풀이 등) ② 특기적성교육(체육, 음악 등)

- ③ 문화체험활동(견학, 수련활동 등) ④ 지역연계활동(무료급식 등)
⑤ 상담지원(심리, 정서 지원 등) ⑥ 없다

문23. 청소년 공부방의 기능별로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 학습지도	①	②	③	④	⑤
3) 여가문화 체험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상담 및 정서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자료 열람 및 대출, 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6) 복지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①	②	③	④	⑤

문24.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족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문25. 귀 공부방은 다음의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공간 크기

- ① 매우 협소하다 ② 조금 협소하다 ③ 보통
④ 약간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2) 안전성(학습공간 및 주변환경 포함)

- ① 매우 불안전하다 ② 조금 불안전하다 ③ 보통
④ 조금 안전하다 ⑤ 매우 안전하다

※ 2011년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청소년공부방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귀 청소년공부방이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떤 새로운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기존에도 국고지원을 받지 않았던 서울시 공부방의 경우, 공부방을 둘러싼 아동·청소년분야 시설자원 관련 전반적인 환경변화를 염두에 두고 응답해 주세요.)

문28. 2010년과 비교하여 올해(2011년) 들어 특별히 변화된 상황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이용자 수 감소 ② 이용료 인상
③ 직원 퇴직 ④ 임금 삭감
⑤ 기타() ⑥ 변화 없음

문29. 귀 시설을 다음과 같은 시설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각각에 대해 전환의사의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행유지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아동센터	①	②	③	④	⑤
3) 방과후 아카데미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문화의 집	①	②	③	④	⑤
5) 기타(옆칸에 직접 적어주세요)					

문30. 문29에서 시설전환을 희망한 경우 해당 시설로 전환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법정시설로 바꾸고 싶어서 ② 청소년공부방의 이용자가 적어서
③ 공부방에 대한 국고지원이 끊겨서 ④ 청소년공부방보다 더 필요한 시설이어서
⑤ 기타()

문31. 시설전환을 위해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시설 증·개축 | <input type="checkbox"/> ② 관련 설비 및 기자재 |
| <input type="checkbox"/> ③ 시설 관리·유지·보수 | <input type="checkbox"/> ④ 충분한 전문인력 및 운영인력 확보 |
| <input type="checkbox"/> ⑤ 시설의 제도화(합법화) | <input type="checkbox"/> ⑥ 직원의 처우 개선 |
| <input type="checkbox"/> ⑦ 프로그램운영비 | <input type="checkbox"/> ⑧ 교육훈련비 |
| <input type="checkbox"/> ⑨ 시설운영지침 | <input type="checkbox"/> ⑩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
| <input type="checkbox"/> ⑪ 기타(_____) | |

문32. 지역의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와 사업 및 업무상의 협력을 하면서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 (문 32-1.로 이동) ② 없다

문32-1. 업무협력 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장 큰 갈등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업무가 바빠서 ② 경쟁관계에 있어서 ③ 협력방법을 몰라서
 ④ 코디네이터를 담당할 기관이 없어서 ⑤ 기타(_____)

문33. 다음과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이나 사업에 대해 알고 있거나 협력해 본 적 있습니까?

각 보기별로 해당사항을 선택해 주십시오.

청소년 관련시설 및 사업	인지 및 협력여부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협력한 적 없다	협력해 본적 있다
1)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①	②	③
2)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①	②	③
3) 청소년쉼터	①	②	③
4) 청소년(상담)지원센터	①	②	③
5) 청소년활동진흥(자원봉사)센터	①	②	③
6) 지역 도서관	①	②	③
7) 지역아동센터	①	②	③

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①	②	③
9)	방과후 학교	①	②	③
1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①	②	③
11)	드림스타트	①	②	③

문34. 공부방의 인지도와 필요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보기별로 해당사항을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적게	적게	그저 그렇다	많게	매우 많게
1) 운영하고 계시는 공부방은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방을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공부방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공부방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공부방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공부방 운영자로서 현재 운영하시는 공부방이 지역청소년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청소년용 설문지

[청소년용]

ID					지역	
----	--	--	--	--	----	--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정책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공부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오니,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1년



부록 3. 주요 특성별 청소년공부방 현황(시·도 별, 소재지별, 시설유형별)

부표 1 15개 시도별 청소년공부방 주요현황 I

(단위 : %)

구분	시설유형			입주건물					
	가형	나형	기타	청소년(수련)시설	공공건물	아파트 단지건물	복지시설	공부방 단독건물	기타
서울	12.7	80.3	7.0	7.0	23.9	4.2	8.5	49.3	7.0
부산	68.0	32.0	0.0	0.0	28.0	12.0	28.0	16.0	16.0
대구	44.4	55.6	0.0	0.0	44.4	0.0	22.2	22.2	11.1
인천	50.0	50.0	0.0	0.0	18.8	18.8	6.3	6.3	50.0
광주	33.3	55.6	11.1	0.0	33.3	11.1	44.4	0.0	11.1
대전	33.3	66.7	0.0	0.0	25.0	12.5	25.0	12.5	25.0
경기	50.0	25.0	25.0	0.0	62.5	0.0	31.3	6.3	0.0
강원	33.3	52.4	14.3	4.8	33.3	4.8	28.6	4.8	23.8
충북	90.6	9.40	0.0	6.5	54.8	19.4	12.9	3.2	3.2
충남	87.5	12.5	0.0	0.0	0.0	25.0	25.0	12.5	37.5
전북	60.0	40.0	0.0	0.0	80.0	0.0	0.0	20.0	0.0
전남	38.9	44.4	16.7	0.0	5.3	5.3	10.5	52.6	26.3
경북	55.6	44.4	0.0	0.0	11.1	38.9	16.7	27.8	5.6
경남	61.5	23.1	15.4	14.3	21.4	7.1	21.4	21.4	14.3
제주	50.0	46.2	3.8	4.0	52.0	20.0	0.0	16.0	8.0
전체	45.9	47.6	6.4	3.7	31.5	11.5	15.9	23.7	13.6

(계속)

구분	운영형태		운영주체					시설전환의사		
	직영	위탁	개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민간단체	기타	전환의사있음	보통	현행유지
서울	2.8	97.2	2.8	38.9	9.7	6.9	41.7	7.8	23.4	68.8
부산	52.0	48.0	4.0	28.0	12.0	12.0	44.0	4.0	16.0	80.0
대구	0.0	100.0	0.0	33.3	0.0	44.4	22.2	22.2	22.2	55.6
인천	62.5	37.5	31.3	6.3	25.0	6.3	31.3	8.3	16.7	75.0
광주	37.5	62.5	12.5	50.0	0.0	0.0	37.5	22.2	11.1	66.7
대전	0.0	100.0	12.5	25.0	50.0	0.0	12.5	25.0	37.5	37.5
경기	18.8	81.3	0.0	6.3	31.3	18.8	43.8	0.0	25.0	75.0
강원	9.1	90.9	4.5	27.3	13.6	31.8	22.7	0.0	18.8	81.3
충북	6.5	93.5	6.7	20.0	3.3	20.0	50.0	7.1	14.3	78.6
충남	11.1	88.9	11.1	11.1	44.4	11.1	22.2	0.0	57.1	42.9
전북	40.0	60.0	20.0	0.0	0.0	20.0	60.0	25.0	25.0	50.0
전남	37.5	62.5	5.3	0.0	42.1	42.1	10.5	15.8	26.3	57.9
경북	42.9	57.1	0.0	5.9	11.8	47.1	35.3	20.0	6.7	73.3
경남	61.5	38.5	14.3	28.6	21.4	7.1	28.6	15.4	7.7	76.9
제주	53.8	46.2	0.0	0.0	0.0	30.8	69.2	0.0	23.1	76.9
전체	24.9	75.1	6.1	21.6	14.9	18.9	38.5	8.9	20.7	70.5

부표2 15개 시·도별 청소년공부방 주요현황II

구분	수용정원(명)	하루평균 이용자수(명)	운영기간	공부방 면적(m ²)	열람석 수(석)	운영 시간(평일)		
						여는 시간	닫는 시간	운영 시간
서울	162.54	112.97	15년4개월	309.48	141.48	8.39	22.97	14.57
부산	52.80	27.25	9년7개월	188.60	51.96	13.92	22.00	8.08
대구	53.33	23.25	13년3개월	170.00	50.67	13.88	22.55	8.77
인천	46.63	26.27	11년9개월	134.88	48.56	13.37	20.81	7.43
광주	71.78	27.75	16년3개월	131.13	69.56	11.33	21.55	10.22
대전	48.38	32.63	15년	120.86	48.00	13.25	21.37	7.22
경기	58.69	34.19	15년10개월	165.56	59.13	12.25	21.81	9.56
강원	44.61	20.52	11년10개월	127.69	44.24	13.00	20.77	7.77
충북	50.09	34.03	13년10개월	139.48	51.71	13.15	22.21	9.06
충남	47.71	16.67	5년3개월	217.00	45.00	11.77	21.77	10.00
전북	50.20	17.40	17년6개월	243.60	47.40	14.00	21.80	7.08
전남	41.58	20.47	7년1개월	228.74	40.53	11.82	20.27	9.11
경북	52.21	45.50	13년11개월	139.44	45.94	13.00	21.05	8.05
경남	37.14	32.23	10년6개월	104.86	36.79	12.21	20.85	8.64
제주	54.62	17.42	15년6개월	167.85	50.88	13.96	21.96	8.00
전체	77.36	48.14	13년3개월	187.25	71.76	12.62	21.58	8.95

(계속)

구분	2010년 총예산(천원)			2011년 총예산(천원)	운영인력(명)		
	총액	국고	지방비		총인원	상근	비상근
서울	230,987	45,387	99,752	133,146	3.80	3.33	0.48
부산	15,571	8,040	10,776	16,000	2.64	0.20	2.44
대구	22,164	11,572	12,340	16,856	2.33	0.67	1.67
인천	25,000	7,626	14,621	23,370	2.62	0.94	1.69
광주	97,952	55,827	6,000	81,375	1.77	1.00	0.78
대전	208,641	53,838	91,490	15,078	2.55	1.11	1.44
경기	19,068	7,500	25,877	19,641	2.93	0.81	2.13
강원	17,271	8,294	9,789	16,450	2.09	0.77	1.32
충북	15,137	8,214	9,642	13,317	1.62	0.44	1.19
충남	14,857	9,000	10,666	9,688	2.11	0.89	1.22
전북	14,000	6,333	7,666	11,388	1.40	0.60	0.80
전남	19,470	10,050	11,178	19,063	2.68	0.84	1.84
경북	106,030	39,071	47,619	13,611	1.94	0.50	1.44
경남	18,089	8,857	10,400	15,975	2.28	0.93	1.36
제주	10,174	5,208	5,208	10,188	2.34	0.27	2.08
전체	72,872	17,159	33,286	36,956	2.63	1.28	1.35

부표

부표3 소재지별 청소년공부방 주요현황

구분	수용정원(명)	하루평균 이용자수(명)	공부방 면적(m ²)	열람석 수(석)
대도시	115.07	76.68	220.57	103.48
중소도시	52.19	31.64	151.51	50.23
읍·면소재지	48.00	24.01	180.63	47.02

구분	2010년 총예산(천원)			2011년 총예산(천원)	운영인력(명)		
	총액	국고	지방비		총인원	상근	비상근
대도시	144,595	26,977	58,986	72,961	3.29	2.19	1.10
중소도시	35,747	17,842	21,768	17,102	2.36	0.82	1.54
읍·면소재지	17,357	7,866	11,216	14,966	2.01	0.48	1.53

부표4 시설유형별 청소년공부방 주요현황

구분	수용정원(명)	하루평균 이용자수(명)	공부방 면적(m ²)	열람석 수(석)
가형	50.21	27.90	160.44	49.58
나형	105.59	65.93	220.51	94.25
기타	62.74	55.00	157.64	61.89

구분	2010년 총예산(천원)			2011년 총예산(천원)	운영인력(명)		
	총액	국고	지방비		총인원	상근	비상근
가형	16,022	7,136	12,696	14,972	2.04	0.67	1.38
나형	134,838	26,293	53,904	59,806	3.23	1.91	1.33
기타	44,335	15,716	28,235	36,315	2.31	0.95	1.37

Abstract

A Study on a Plan to Vitalize Management of Community-based Youth Study Rooms

This study starts with the recognition of a need to review the potential for the youth study room project, which has been supported by the government since 1989 but has been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and thus has not been reflected in the government's budget since 2011, to become a sustainable community-based youth project. Accordingly, a plan to vitalize the management of community-based youth study rooms is to be offered by identifying the problems with the actual management status of the youth study rooms, analyzing the duplication and differentiation among youth support projects that are similar to the youth study room project, and conducting a diagnosis and evaluation of the value and limitations of the youth study room project.

As approaches to achieve this objective of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f actual youth study rooms (302 rooms), a case study was conducted on exemplary youth study rooms (5 rooms), and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employees of youth study rooms (302 persons) and the youth using youth study room (1,264 person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research on actual youth study rooms found that many are in poor condition. In farm/ mountain/fishing villages or lower income areas, the youth study room frequently functions as the only space for learning · culture · information. Most of the people in charge of youth study rooms want them to maintain their current status, providing a learning space and focusing on learning support,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ordinance to

prepare a legal basis was suggested.

The case study showed an overriding opinion among youth study room employees that the youth study rooms are really necessary in society, should continue to exist because they have been very significant for youth living in less favored areas and vulnerable youth, and unconditional stop of national treasury or planned budget cuts should be withdrawn.

A survey of youth study room workers showed that 76% of youth study rooms have been run 'for at least five years,' and that 91.7% of workers thought there was a high necessity for youth study rooms. The main function of a youth study room was shown as 'offering a self-regulating learning space,' and the currently operating programs are mainly focusing on 'Support for Learning.' Only 9.2% wanted to change facilities, and 71.1% wanted to maintain the current condition. In response to a question about switching facilities, the preference by facility was as follows: After-school Youth Academy (30.7%), House for Youth Culture (25.2%), and Local Children's Center (24.9%)

Through a survey targeting the youth users of the youth study rooms,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use period was about 26 months and 25 days. It was shown that youth used it for about 3 hours and 20 minutes each time. In response to a question regarding the motive for using a study room, motives related to learning (help for learning: 33.2%, space for study: 19.9%, information · data: 6.6%) 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respondents. The satisfaction in use was shown that 74.5% of respondents were satisfied. As for the satisfaction by area, offering a self-regulating learning space (82.0%) had the highest satisfaction, 90.6% of respondents answered a question on the necessity of a youth study room, and were looking forward to improvements in the diversity of activities and the facilities and environment.

As these results indicate, the youth study room workers and the youth using the study rooms have a high level of interest, but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 current status of youth study rooms with no national treasury support. As a realistic

plan to vitalize youth study rooms, a switch to similar facilities that can be provided with national support or the reestablishment of youth study rooms by characterizing their functions can be considered. To switch to Local Children's Centers, After-school Academies for Youth, or a small library; or, to reestablish the youth study room into a 'youth self-access center or local youth center (tentatively named),' the following prompt political judgments and drastic support should be considered.

First, within this year every city and province in the country should go through necessary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reporting facilities, through cooperation with city · district(gun) · borough(gu) if possible by conducting a survey regarding a switch to similar facilities, i.e., switching existing youth study rooms into local children's centers, after-school academies for youth, or small libraries, or by deriving a plan to keep the youth study rooms.

Second, when youth study rooms are switched to local children's center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should promptly report the fact to local governments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so that the local children's centers can be supported in the same manner as existing ones. If the national funding is not sufficient to meet the operating expenses for local children's centers in 2012, both ministries should cooperate to reflect it in the 2012 revised supplementary national treasury.

Thir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should initiate a project with a new identity that offers the opportunity of cultural experience activities for youth as well as learning support, such as 'Youth Self-access Center' or 'Local Youth Center,' which can become part of policy when a youth study room is run by a local government's own budget like the Seoul Metropolis, while leading local governments to switch youth study rooms into other facilities with similar functions.

Key words : community-based, the youth study room project, local children's centers, after-school academies for youth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김소희·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창욱·임영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김남준·김향인·류숙희·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변순용·김국현·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김남준·김향인·류숙희·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총괄보고서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취약위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김영문·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시과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 11-R15 한·중·일·미 교고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 · 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수 탁 과 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혜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부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개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중 · 이명욱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 강영배 (대구한의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 교수)
강지명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 선임연구원)
박은혁 (명지대 · 강사)
이민희 (평택대 청소년복지학과 · 교수)

◆ 자문진 ◆

- 손이선 (1318해피존 · 사업단장)
한도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전문위원)

◆ 은문 / 감수 ◆

- 이민희 (평택대 청소년복지학과 · 교수)
한도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전문위원)

◆ 현장실사위원 ◆

- 김윤나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 교수)
김현진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 겸임교수)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 교수)
남진열 (제주대 행정학과 · 교수)
문성호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교수)
박철웅 (백석대 청소년학과 · 교수)
오성배 (동아대 교육학과 · 교수)
유서구 (송실대 사회복지학과 · 교수)
이민희 (평택대 청소년복지학과 · 교수)
정경은 (초당대 사회복지학과 · 교수)
천정웅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 교수)
최경일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 교수)
최원규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 교수)
홍봉선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 교수)
-

연구보고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인 쇄 2011년 12월 21일

발 행 2012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2001. 8. 24. 제13-726호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02)2272-1767 대표 김방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950-9

ISBN 978-89-7816-949-3(세트)

